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열왕기상

1KI · 역사서 · 히브리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2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열왕기상 1장

1KI-001 · 역사서 · 히브리어

높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한 다윗의 침상 곁에서(1:1)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 잔치를 벌이나(1:5) — 나단과 밋세바가 옛 맹세를 일깨워(1:17)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다시 맹세하고(1:30), 기혼에서 기름 부음과 나팔과 환호가 땅을 갈라지게 하여(1:39-40) 흔들리는 노왕의 침상 곁에서 맹세의 왕위가 한 사람에게로 모이는 열왕기상의 개막.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다윗의 침실(1~4절) → 에느로겔의 자칭한 잔치(5~10절) → 다시 침실의 호소와 맹세(11~37절) → 기혼의 즉위와 흠여지는 잔치(38~53절). 사적인 안방에서 갈라지는 두 무대로.
- 무대의 어긋남: 높여 추위에 떠는 부왕(1절)과 한 번도 책망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의 자칭(5~6절) — 약함의 침상 곁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손.
- 소품: 따뜻함을 못 주는 이불(1절), 잔치의 양·소·살진 송아지(9절), 병거와 기병과 쏜 명(5절), 왕의 노새(33~38절), 기름 뿔과 나팔(39절), 끝의 제단 뿔(50절).
- 소품의 곡선: 식어 가는 이불로 열려 제단 뿔로 닫힘 — 노쇠의 약함에서 비호를 구하는 손까지, 그 사이를 기름 뿔과 나팔이 갈라 놓음.
- 소재의 기울기: 앞쪽은 식어 가는 어휘(높음·추위·따뜻하지 못함), 한가운데는 '맹세하다'(hishbati 13·17·30절), 끝은 환호와 두려움으로 갈림(만세수·나팔 ↔ 흠여짐·제단 뿔).
- 형식 소재: '내가 왕이 되리라'(5절)와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13·17·30절)의 거듭됨, 두 잔치의 대구(5~10절 ↔ 41~49절), 기름 부음(mashach 34·39·45절)의 거듭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4절의 서늘함 — 한 시대를 연 왕이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함(1절). 그 약함 곁에서 권력을 쟁기는 아들의 차가움.
- 11절에서 움직이는 공기 — 나단의 귀뜸으로 식어 가던 침상이 분주해짐. 노쇠의 정적 뒤에 다급함이 움.
- 두 잔치의 맞부딪침 — 화려한 자칭의 잔치(9절)가 기혼의 환호 소리(41절)에 흠여짐. 가장 자신만만하던 잔치가 한 소리에 흠여짐.
- 어둠(식어 가는 침상·자칭한 잔치) → 빛(기혼의 즉위·땅을 가를 듯한 환호 40절) → 그림자(제단 뿔을 붙잡은 아도니야 50절)의 명암.
- 어조의 이동: 1~10절 보고의 산문 → 11~27절 호소(나단·밋세바) → 28절 이후 단호한 명령(노새·기름). 약함에서 명령으로 돌아오는 노왕.

- 소리의 질감: 땅을 가를 듯한 환호(40절)가 곧장 다른 귀에 끝의 신호로 닿음(41절). 같은 나팔이 두 귀에 정반대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 53절: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 식어 가는 노왕(약함)으로 열려 새 왕의 첫 판결(권위)로 닫힘 — 노쇠의 침상에서 즉위의 어전으로.
- 손의 이동: 따뜻함을 못 주는 이불(1절) → 한 형의 목숨을 건 새 왕의 손(53절). 무력함이 권위로 결을 바꿈.
- 5절(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 함) ↔ 53절(절하고 집으로 돌아감) — 한 사람(아도니야)을 끼고 자칭과 낮아짐이 마주 봄.
- 닫힌 침실(1절) ↔ 판결의 어전(53절) — 사적인 안방에서 공적인 새 통치로 무대가 넓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다윗(흔들리다 맹세로 무게를 잡는 노왕), 아비삭(시중드나 동침하지 않은 수넴 여인 4절), 아도니야(스스로 높여 잔치를 벌이다 절하는 학깃의 아들), 솔로몬(세움받아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는 밋세바의 아들), 밋세바(옛 맹세를 일깨움), 나단(귀땀하고 함께 다윗을 움직이는 예언자), 두 진영(요압·아비아달 ↔ 사독·브나야·나단), 무대 뒤의 여호와('맹세'·'기름 부음'의 잣대를 건 분).
- 중심 사상: 자칭(mitnasse 5절)과 세움(mashach 34·39절)의 대조 — 스스로 높인 아도니야는 흠어지고, 손들지 않고 세움받은 솔로몬이 즉위함.
- 두 손의 대조: 아도니야의 손은 병거를 갖추고 잔치를 차리다 제단 뿔을 붙잡음(50절), 솔로몬은 노새에 태워져 기름 부음 받음(38~39절).
- 다윗 집안의 결: 압살롬도 병거와 말과 쏜 명을 갖췄고(삼하 15:1), 그 다음에 난 아도니야가 같은 결을 되풀이함(6절) — 본문은 병치만 함.
- 흔들리지 않는 맹세: 늙어 무력하던 다윗이 옛 맹세 앞에서 곧장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29~30절) 다시 확인 — 약해져도 변하지 않는 맹세.
- mashach(기름 붓다): 솔로몬의 왕위는 자칭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34·39·45절) — 삼하 7장 다윗 언약 '네 씨를 세워'와 같은 어휘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식어 가는 침상 — 추위에 떠는 다윗(1), 시중들 처녀를 구함(2~3), 동침하지 않은 아비삭(4).
- 컷 2 (5~10절): 자칭한 잔치 —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임(5), 요압·아비아달이 따름(7), 에느로겔의 잔치, 솔로몬은 부르지 않음(9~10).
- 컷 3 (11~27절): 귀땀과 호소 — 나단이 밋세바에게 일러(11~14), 밋세바의 간청(15~21), 나단의 거듭된 아뢰(22~27).
- 컷 4 (28~37절): 다시 한 맹세 —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29~30),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려가 기름 부으라는 명(32~35), 브나야의 아멘(36~37).
- 컷 5 (38~53절): 즉위와 흠어짐 — 기혼의 기름 부음과 환호(38~40), 잔치의 흠어짐(41~49), 제단 뿔을 붙잡음(50~51), "네 집으로 가라"(52~53).

- 컷 3 내부의 동심원: 나단의 계획(11~14)→밧세바의 간청(15~21)→나단의 들어옴(22~27). 같은 호소가 어머니와 예언자의 입으로 두 번 거듭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zaqen*(זָקֵן) — 늙은(1절). / *ba bayyamim*(בְּאֵימִים) — 나이가 많은, '날들 속으로 들어간'(1절).
- *Abishag haShunammit*(אַבִּישָׁג הַשֻּׁנַּמִּית) — 수넴 여인 아비삭(3절). / *sokenet*(סֹכֶנֶת) — 시중드는 자(4절).
- *Adoniyyahu*(אַדֹּנִיָּהוּ) — 아도니야, '여호와와 나의 주'(5절). / *mitnasse*(מִתְנַסֵּה) — 스스로 높이다(5절).
- *merkavah · parashim*(מֶרְכָּבָה פָּרָשִׁים) — 병거·기병(5절). 권력 과시의 표지.
- *hishbati*(חִשְׁבַּתִּי) — 내가 맹세하였다(13·17·30절). 옛 맹세를 일깨우고 다시 맹세함. / *chai YHWH*(חַי יְהוָה) — 여호와와 그의 사심을 두고(29절).
- *Gichon*(גִּיחוֹן) — 기혼 샘(33·38·45절). 즉위가 일어난 곳. / *mashach*(מָשַׁח) — 기름 붓다(34·39·45절).
- *shofar*(שׁוֹפָר) — 나팔(34·39절). / *Shelomoh*(שְׁלֹמֹה) — 솔로몬, '평강'(39절). / *qarnot hamizbeach*(קַרְנוֹת הַמִּזְבֵּחַ) — 제단의 뿔(5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식어 가는 침상(1~4) + 자칭한 잔치(5~10) + 호소와 맹세(11~37) + 즉위와 흠여짐(38~53) — 약함에서 세움으로 넘어가는 개막 구조.
- 두 잔치의 괄호: 아도니야의 자칭한 잔치(5~10)와 그 잔치의 흠여짐(41~49)이 한 장을 여닫음 — 형태 관찰.
- 맹세의 모티프: 옛 맹세(*hishbati*)가 밧세바·나단·다윗의 입으로 거듭 불러 나옴(13·17·29·30절) — 흔들리는 왕위를 묶는 잣대.
- 자칭과 세움(*self-exaltation* ↔ *anointing*): *mitnasse*(5절)의 자기 높임과 *mashach*(34·39절)의 세움받음이 두 인물의 끝을 가름.
- 압살롬·아도니야의 병치(삼하 15:1 ↔ 1:5-6): 병거·말·선 명을 갖춘 형의 전례가 동생에게서 되풀이됨 — 본문은 풀지 않고 병치.
- 한 소리의 두 귀(40~41절): 땅을 가를 듯한 환호가 잔치의 끝 신호로 닿음 — 한 사건의 명암을 형식으로 드러냄.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노쇠한 왕의 체온을 위해 젊은 여인을 침상에 두던 치료·시중 관습, 왕의 활력이 곧 통치 능력의 표지로 읽힘 — 1:1-4의 배경.
- 왕위가 장자 상속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고 부왕의 지명·맹세로 갈리던 후계 다툼 관행 — 1:5·1:30의 배경.
- 병거와 기병과 앞서 달리는 호위병으로 자기를 높이던 왕권 과시 — 1:5의 배경.
- 즉위 의례 — 기름 부음, 왕의 노새에 태움, 나팔과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의 환호 — 1:33-40의 배경.
- 도피처로서의 제단 뿔 — 피의 보복·처형을 피해 제단 뿔을 붙잡아 목숨을 구하던 성소 비호 관습 — 1:50-53의 배경.
- 독법·전례: 후대 유대 전통은 아비삭을 향한 시중을 혼인이 아닌 간병으로 구분해 읽고, 6절의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를 책망하지 못한 부왕의 결로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30 ↔ 삼하 7:12-16 (네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 왕위 계승이 닳을 내린 다윗 언약)
- 왕상 1:11 ↔ 삼하 12:24-25 (밋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야라 하심 — 택하심의 배경)
- 왕상 1:5 ↔ 삼하 15:1 (압살롬이 병거와 말과 쏜 명을 갖추 — 아도니야의 자기 과시와 겹치는 형의 전례)
- 왕상 1:6 ↔ 삼하 13~18장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 '압살롬 다음에 난' 아도니야의 결의 배경)
- 왕상 1:7-8 ↔ 삼하 8:17-18; 15:24-29 (사독·아비아달·브나야의 직무 — 갈리는 두 진영의 배경)
- 왕상 1:50-53 ↔ 왕상 2:13-25 (아도니야가 아비삭을 구하다 처형됨 — 제단 뿔의 비호가 향하는 곳)
- 왕상 1:7 ↔ 왕상 2:26-35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 — 아도니야 편에 선 두 사람의 끝)
- 왕상 1:39 ↔ 시 72편 (솔로몬의 왕을 위한 기도 —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거는 정의의 통치)
- 왕상 1장 ↔ 대상 22:9-10; 왕상 8:25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리라 — 권의 도착점 성전과 닿는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다윗의 침실. 자막 —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더라. 신하들이 시중들 처녀를 찾아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다 수넬 여인 아비삭을 데려온다.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드나, 왕이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한다. 화면이 바깥의 한 잔치로 넘어간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 말한다 — 내가 왕이 되리라. 병거와 기병과 앞서 달릴 쏜 명을 갖추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돕는다. 에스로겔 결 소헬렛 돌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형제들과 신하들을 부르되,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솔로몬은 부르지 않는다. 화면이 다시 침실로 돌아온다. 예언자 나단이 밋세바에게 이른다 — 아도니야가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들어가 왕께 옛 맹세를 일깨우소서. 밋세바가 침상의 다윗 앞에 엎드려 아뢰다 —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맹세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나이다. 그가 말하는 중에 나단이 들어와 같은 일을 거듭 아뢰다. 다윗이 일어나 밋세바를 부른다 —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 명한다 —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 화면이 기혼으로 옮겨간다.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고 내려가고, 사독이 장막에서 가져온 기름 뿔로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외친다 —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백성이 피리를 불며 따라 올라와 크게 즐거워하니 땅이 그 소리로 갈라질 듯하다. 그 소리가 에스로겔까지 들린다. 잔치를 마치던 아도니야의 손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일어나 흩어진다. 아도니야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제단 뿔을 붙잡는다. 솔로몬이 말한다 — 그가 충신이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악이 그 속에서 보이면 죽으리라. 사람을 보내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아도니야가 와서 절한다. 솔로몬이 이른다 — 네 집으로 가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내가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 자칭과 세움이 갈린 침상"
- 초벌 부제: "한 시대를 연 왕이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한 침상 곁에서(1:1)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내가 왕이 되리라'(1:5) 스스로를 높여 잔치를 벌이나 — 나단과 밋세바가 옛 맹세를 일깨워(1:17) 다윗이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1:30) 다시 맹세하고, 기혼에서 기름 부음과 나팔과 환호가 땅을 갈라지게 하여(1:39-40) 자칭한 잔치가 흩어지며(1:49) 제단 뿔을 붙잡은 아도니야를 '네 집으로 가라'(1:53) 돌려보내는 — 맹세의 왕위가 한 사람에게로 모이는 열왕기상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zaqen·mitnasse·hishbati·mashach·Gichon·qarnot_hammizbeach 등 18+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잔치의 괄호 + 맹세 모티프의 거듭됨 + 자칭/세움의 대조 + ANE 침상·즉위·비호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1-4의 아비삭 시중을 '노쇠한 왕의 무력함의 신학'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4절)과 zaqen·sokeket의 어휘 관찰로만 둬. 2장에서 아비삭이 다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점도 직접 배경으로만 보존.
- 1:5-6의 자칭을 '교만의 응보'라는 도덕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mitnasse 동사와 압살롬의 전례(삼하 15:1)와의 병치라는 형태 관찰로만 둬. 책망받지 못한 양육(6절)도 단정하지 않고 보존.
- 1:13·17·29·30의 맹세 거듭됨을 '신실의 신학'으로 닫지 않고, hishpati·chai YHWH 어휘가 밋세바·나단·다윗의 입으로 거듭 작동하는 사실로만 기록. 삼하 7장 언약과의 연결도 다리로만 둬.
- 1:33-40의 기름 부음과 환호를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로 교훈화하지 않고, mashach·shofar·만세수 외침의 즉위 절차와 땅을 가를 듯한 소리의 사실로만 둬. 누가 세움받았는지의 결도 두 잔치의 명암으로만 보존.
- 1:50-53의 제단 뿔 비호와 '네 집으로 가라'를 '자비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qarnot hammizbeach 비호 관습과 솔로몬의 조건부 살려둠(52절)의 사실로만 둬. 2장의 아도니야 처형으로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장은 늙어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한 다윗의 침상 곁에서(1:1)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내가 왕이 되리라"(1:5) 스스로를 높여 병거와 잔치로 권력을 차리나 — 나단이 밋세바에게 일러 옛 맹세를 일깨우자(1:17) 다윗이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1:30) 다시 맹세하고,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 기혼에서 기름 부으니 나팔과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1:39)의 환호가 땅을 갈라지게 하며(1:40), 그 소리에 아도니야의 잔치가 흩어지고(1:49) 제단 뿔을 붙잡은 그를 솔로몬이 "네 집으로 가라"(1:53) 조건부로 돌려보내는, 흔들리는 노왕의 침상 곁에서 맹세의 왕위가 한 사람에게로 모이는 열왕기상의 개막이다.

한 문단: 다윗의 침실. 늙어 추위에 떠는 왕을 위해 신하들이 수넵 여인 아비삭을 데려와 시중들게 하나, 왕이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한다. 화면이 바깥의 한 잔치로 넘어간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 "내가 왕

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쏜 명을 갖춘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를 돕는다. 에브로겔 곁에서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되 솔로몬은 부르지 않는다. 예언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귀뜸한다 — 들어가 왕께 옛 맹세를 일깨우소서. 밧세바가 침상의 다윗 앞에 엎드려 아뢰고, 이어 나단이 들어와 같은 일을 거듭 아뢴다. 다윗이 몸을 일으켜 맹세한다 —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에게 명한다 —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으라.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내려가고, 사독이 장막의 기름 뿔로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외친다 —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환호가 땅을 가를 듯하다. 그 소리가 에브로겔까지 들려 아도니야의 손님들이 두려워 흩어진다. 아도니야가 제단 뿔을 붙잡는다. 솔로몬이 이른다 — 그가 충신이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 내리니, 아도니야가 절한다. 솔로몬이 한 마디를 건넨다 — 네 집으로 가라.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침실·에브로겔·기혼을 오가는 세 무대, 식어 가는 이불·잔치의 고기·병거·기름 뿔·나팔·제단 뿔의 소품 — 노쇠에서 환호와 두려움으로 갈리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추위에 떠는 침상. 한 귀뜸이 일으킨 다급함. 같은 소리에 갈리는 두 잔치(40~41절). 약함에서 명령으로 돌아오는 노왕의 어조.
3 시작과 끝	식어 가는 노왕(1절)으로 열려 새 왕의 첫 판결(53절)로 닫히는 노쇠·즉위. 자칭(5절)과 낮아짐(53절)이 아도니야를 끼고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자칭(mitnasse 5절)과 세움(mashach 34절)의 대조. 흔들리지 않는 맹세(29~30절). 압살롬의 전례와의 병치(삼하 15:1). 갈리는 두 진영.
5 장면 컷	식어 가는 침상(1~4)/자칭한 잔치(5~10)/귀뜸과 호소(11~27)/다시 한 맹세(28~37)/즉위와 흩어짐(38~53) 5 컷. 컷 3은 어머니와 예언자의 두 호소.
6 의문·발견·정보	두 잔치의 팔호. 맹세 모티프의 거듭됨. 자칭과 세움의 갈림. 한 소리의 두 귀. 아비삭 시중과 책망받지 못한 양육.
7 동영상	식어 가는 침상 → 자칭한 잔치 → 한 귀뜸과 두 호소 → 다시 한 맹세 → 기혼의 기름 부음과 흩어지는 잔치.
8 초별 제목·부제	"내가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 자칭과 세움이 갈린 침상"
9 기도·내면	스스로를 높인 손과 흔들리는 침상의 한 맹세 — 무엇을 스스로 들어 올리는지 듣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왕국의 권을 식어 가는 침상으로 여는 결:**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영광과 성전, 그리고 그 뒤의 분열과 우상을 그리는 권이다. 사무엘하가 다윗의 마지막 노래로 닫혔고, 이제 그 다윗이 늙어 추위에 떠난다. 권의 향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로 수렴하는데, 1장은 그 긴 호를 즉위의 영광이 아니라 한 노인의 식어 가는 이불로 연다. 한 시대를 연 왕의 무력함 곁에서, 본문은 다음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흔들리는 침상 한 장으로 먼저 보여 준다.

2. **결 2 — 스스로 든 손, 세움받은 손:** 아도니야는 자기를 위하여(5절) 병거를 갖추고 잔치를 차린다. 권력의 썸으로는 그가 유리하다 — 형이고, 먼저 나섰고, 군대 장관과 제사장이 곁에 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는 다윗의 명과 사독·나단·브나야의 손에 의해 노새에 태워지고 기름 부음 받는다(38~39절). 본문은 이 갈림을 '겸손의 모범'으로 칭송하지 않는다. mitnasse(5절)의 자기 높임과 mashach(34절)의 세움

받음이라는 두 동사의 분포로, 자칭한 잔치가 흩어지고 세움받은 자가 환호받는 두 장면의 명암으로만 적는다. 그 무평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3. 결 3 — 흔들리는 침상의 한 맹세가 잔치를 홀다: 1장에서 다윗은 가장 약하다.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들이 왕이 된 것도 모른다. 그런데 그 무력한 침상에서 나온 한 맹세가(29~30절) 온 잔치를 홀는다. 옛 맹세 hishbati가 밋세바의 호소, 나단의 거둬, 다윗의 다시 맹세로 세 번 돈다. 본문은 다윗이 강해서 이겼다 적지 않는다. 약한 침상에서 한 번 한 맹세를 다시 입에 올렸을 뿐인데, 그 한 줄이 화려한 잔치를 무너뜨린다. 권의 첫 결이 가장 약한 국면에서, 1장이 맹세의 무게를 한 침상으로 비춰 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삼하 7:12-16 — 네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 1장의 왕위 계승이 닳을 내린 다윗 언약.
- 삼하 12:24-25 — 밋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야라 하심 — 택하심의 배경.
- 삼하 15:1 — 압살롬이 병거와 말과 쏜 명을 갖추 — 아도니아의 자기 과시와 겹치는 형의 전례.
- 삼하 13~18장 —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 '압살롬 다음에 난' 아도니아(1:6)의 결의 배경.
- 왕상 2:13-25 —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다 처형됨 — 1장 제단 뿔의 비호가 향하는 곳.
- 왕상 2:26-35 —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처형 — 아도니아 편에 선 두 사람의 끝.
- 시 72편 — 솔로몬의 왕을 위한 기도 —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거는 정의의 통치.
- 대상 22:9-10 —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으로 성전을 지으리라 — 권의 도착점 성전과 닿는 결.
- 왕상 8:25 — 솔로몬의 성전 봉헌 — 다윗 언약이 향하는 곳, 1장 왕위 계승의 도착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5의 자칭에서 시작한다 — 누가 세워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들어 올린 손, 그 잔치의 소란이 어디였는지 듣는다.
- **멈춤 1:** 1:30에서 멈춘다 — 흔들리는 침상에서 다시 입에 올린 한 맹세. 약해져도 변하지 않는 그 한 줄의 무게를 진다.
- **멈춤 2:** 1:39에서 멈춘다 — 손 들지 않은 자에게 부어진 기름. 먼저 나선 자가 아니라 세움받은 자가 왕이 되는 자국.
- **끝:** 1:49에서 멈춘다 — 한 소리에 흩어진 잔치. 내가 무엇을 스스로 차리고 있는지, 세움받기를 기다릴 손이 내게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식어 가는 침상(1~4)·자칭한 잔치(5~10)·귀땀과 호소(11~27)·다시 한 맹세(28~37)·즉위와 흩어짐(38~53)의 다섯 컷 완결
- [x] '내가 왕이 되리라'(5절)와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30절)의 갈린 두 입
- [x] 맹세(hishbati)의 거듭됨(13·17·29·30)과 삼하 7장과의 다리
- [x] 자칭(mitnasse 5절)과 세움(mashach 34·39절)의 대조와 두 잔치의 명암
- [x] 제단 뿔의 비호(50절)와 왕상 2장으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 기도(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남북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의 갈멜의 불과 세미한 소리(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이는데, 1장은 권의 개막 — 흔들리는 노왕의 침상 곁에서 솔로몬의 즉위가 자칭이 아니라 맹세와 기름 부음으로 세워지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사무엘하가 다윗의 시대를 닫은 그 끝에서, 본문은 즉위의 큰 무대를 비우고 한 노인의 식어 가는 이불과 한 침상의 다시 한 맹세에 카메라를 둔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은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 의 첫 매듭이 여기서는 자칭을 홀고 세움받은 왕을 일으키는 결로 나타난다. 권의 heart, 8장의 봉헌 기도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에서 지친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 그 결이 1장에서는 흔들리는 침상의 한 맹세를 지켜 왕위를 묶는 신실로 먼저 그림자를 드리운다. 1장의 즉위가 8장의 성전 봉헌으로 이어지는 긴 호의 첫 점이며, 그 줄의 첫 매듭이 약함의 침상에서 다시 불러 나온 옛 맹세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어 가는 침상(1:1)에서 기혼의 기름 부음(1:39)으로 / 스스로를 높인 자칭(1:5)에서 세움받은 즉위(1:34)로 / 화려한 잔치(1:9)에서 흠어지는 잔치(1:49)로 — 가장 약한 왕의 한 맹세가 화려한 잔치를 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사무엘하 끝의 저물어 가는 국면(다윗의 노쇠) 위에 새 왕위의 첫 빛을 한 맹세로 걸어 두는 운동이다. 자칭(5절)이 잔치(9절)로 차려지고, 그 잔치가 한 귀땀과 두 호소(11~27절)에 의해 침상 머리맡의 다시 한 맹세(30절)로 돌려지며, 그 맹세가 기혼의 기름 부음(39절)으로 풀린다. 그러나 1장이 끝나도 솔로몬은 아직 홀로 통치하지 않는다 — 다윗의 유언과 죽음은 2장에서야 온다. 1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즉위에서 성전 건축으로,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과 분열로, 분열에서 예언자의 갈멜의 불로' 끌고 가는 운동의 첫 구간이며, 그 호 전체가 한 번의 흔들리지 않는 맹세(1:30)를 '성전에 이름을 두시되 배반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쪽으로 흘려보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후계 다툼이다 — 누가 먼저 잔치를 벌였고, 누가 귀땀했고,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자칭을 세움이 이기게 하는 손길이다. 권력의 썸으로 보면 아도니야가 유리했다 — 형이고, 먼저 나섰고, 요압과 아비아달이 곁에 있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썸을 따라가지 않고, 손들지 않고 침묵하던 솔로몬에게 기름이 부어진다(39절). 권의 도착점 성전을 짓는 왕이 여기서 자칭이 아니라 세움으로 일어선다. 둘째, 약함을 통해 일하는 신실이다. 다윗은 가장 무력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침상에서 나온 한 맹세가 모든 것을 돌린다. 큰 군대가 아니라 옛 맹세 한 줄이 잔치를 홀는다(29~30절). 권의 향방 '여호와만 하나님'이 여기서는 약한 손의 한 맹세를 통해 왕위를 묶는 결로 미리 작동한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솔로몬의 즉위를 미화하지 않는다. 아도니야의 잔치가 화려했다는 사실, 두 진영이 갈렸다는 사실, 제단 뿔을 붙잡은 한 사람이 살아 돌아갔다는 사실을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적는다. 누가 옳았다 선언하지도 않는다. 두 잔치의 명암을 깔아 둘 뿐, 본문은 평가를 설명하지 않고 장면으로만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스스로 들어 올리는가 — 세워 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잔치를 차린 손인가, 손을 내려놓고 세움받기를 기다린 손인가. 그리고 내 힘이 빠진 국면에서 나는 무엇으로 무게를 잡는가 — 큰 군대인가, 한 번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한 줄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야망을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를 높여 병거와 잔치를 차린 한 아들을 보여 주고, 그 잔치가 한 소리에 흠어지는 것을 보여 주고,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한 침상에서 옛 맹세를 다시 입에 올린 한 노왕을 보여 주고, 손 들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을 보여 준다. 자칭과 세움이 한 장에서 갈리는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세워 주기를 기다리는 일, 약해진 국면에서도 한 번 한 약속을 지키는 일, 그리고 무엇을 스스로 차리고 있는지 한 번 손을 펴 보는 일. 한 번의 흔들리지 않는 맹세가 한 즉위를 통로로 흐르고, 그 즉위가 성전을 짓는 왕을 일으키며, 그 솔로몬이 '여호와와 이름을 둘 성전'을 향해 가는 권이 이제 열린다 — 그 첫 매듭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솔로몬은 세움받아 즉위했고 자칭한 잔치는 흠어졌다 —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2:2) 유연하고 눈을 감으며, 새 왕의 왕권이 한 결로 굳어지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ishbati* — 내가 맹세하였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다윗의 침실. 자막 —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못하더라. 신하들이 들어와 아웁니다 —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를 구하여 시중들게 하사이다. 그들이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다 수넬 여인 아비삭을 데려옵니다.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지만, 왕이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합니다. 화면이 바깥으로 넘어갑니다. 한 잔치가 보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가슴을 펴고 말합니다 — 내가 왕이 되리라. 그가 병거와 기병과, 자기 앞서 달릴 신 명을 갖추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곁에서 그를 돕습니다. 에스로겔 곁 소헬렛 돌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형제들과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솔로몬은 부르지 않습니다. 화면이 다시 침실로 돌아옵니다. 예언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다가가 낮게 말합니다 —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된 것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들어가 왕께 아뢰소서,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맹세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밧세바가 침상의 다윗 앞에 몸을 굽혀 엎드립니다 — 내 주여, 왕이 여호와를 가리켜 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으니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가 말하는 동안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같은 일을 거듭 아웁니다 — 왕이 이 일을 명하셨나이까.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무력하던 음성이 단단해집니다 — 밧세바를 부르라. 그가 들어오자 다윗이 맹세합니다 —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다윗이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부릅니다 —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브나야가 답합니다 — 아멘, 여호와께서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화면이 기혼으로 옮겨 갑니다. 솔로몬이 왕의 노새를 타고 내려가고, 백성이 그를 둘러쌉니다. 제사장 사독이 장막에서 기름 뿔을 가져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나팔이 길게 울립니다. 온 백성이 외칩니다 —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백성이 피리를 불며 그를 따라 올라오며 크게 즐거워하니, 땅이 그 소리로 갈라질 듯합니다. 화면이 잔치 마당으로 잘립니다. 아도니야와 그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닿습니다. 요압이 묻습니다 —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냐. 한 사람이 달려와 알립니다 —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으로 올라오니 그 소리가 이러하나이다. 잔치에 둘러앉았던 손님들이 놀라 일어나 각기 흩어집니다. 아도니야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달려가, 제단의 뿔을 두 손으로 붙잡습니다. 누군가 솔로몬에게 아뢰니 — 아도니야가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칼로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기를 청하나이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사람을 보내 제단에서 그를 이끌어 내립니다. 아도니야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합니다. 솔로몬이 한 마디를 건넵니다 — 네 집으로 가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식어 가는 침상에서 열려, 자칭한 잔치와 한 귀땀과 두 호소를 지나, 침상 머리말의 다시 한 맹세와 기혼의 기름 부음으로 — 자칭이 흩어지고 세움받은 자가 환호받아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내가 왕이 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 갈린 두 입"

P02 이진우: "스스로 든 손, 세움받은 손 — 두 잔치의 끝"

P04 최현국: "식어 가는 침상에서 기혼의 환호까지 — 약함이 세운 새 왕"

P05 김미영: "이불은 식고, 나팔은 땅을 가르다 — 흔들리던 왕위가 묵이다"

P07 오지혜: "자칭한 잔치가 흩어진 소리 — 세움받은 자에게로 모이는 왕위"

P11 나경아: "*mitnasse · mashach* — 자기를 높인 자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부제 제안: "한 시대를 연 왕이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한 침상 곁에서(1:1)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내가 왕이 되리라'(1:5) 스스로를 높여 잔치를 벌이나 — 나단과 밋세바가 옛 맹세를 일깨워(1:17) 다윗이 '여호와와의 사심을 두고...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1:30) 다시 맹세하고, 기혼에서 기름 부음과 나팔과 환호가 땅을 갈라지게 하여(1:39-40) 자칭한 잔치가 흩어지며(1:49) 제단 뿔을 붙잡은 아도니야를 '네 집으로 가라'(1:53) 돌려보내는 — 맹세의 왕위가 한 사람에게로 모이는 열왕기상의 개막"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한 침상에 누운 노왕 곁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 잔치를 벌이다 끝내 제단 뿔을 붙잡은 한 아들 옆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한 사람이 스스로를 높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 누가 세워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 손으로 권력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이 끝내 제단 뿔을 붙잡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자칭을 정죄하기보다, 제가 무엇을 스스로 들어 올리려 하는지, 세움받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잔치를 차린 적은 없는지를 듣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침상 위에서도 한 번 한 맹세를 지킨 손길, 그 변함 없음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장은 식어 가는 침상에서 세움받은 왕위로 움직여요. 늙어 무력한 다윗(1~4절)과 스스로 높인 아도니야(5~10절)가 앞이고, 다시 한 맹세(28~30절)와 기혼의 기름 부음(38~40절)이 뒤예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기도,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그 뒤가 남북 분열과 엘리야예요. 권의 향방이 한 곳으로 수렴해요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 1장의 솔로몬, 자칭이 아니라 세움받아 즉위한 그 결이, 권 전체가 향하는 '성전의 영광'이라는 호의 첫 점이에요. 왕위를 자칭이 아니라 맹세와 기름 부음으로 여는 그 선택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출발을 처음 보여 줘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5의 *mitnasse* — 스스로 높다. 그리고 1:34·39의 *mashach* — 기름 붓다. **자기가 자기를 들어 올린 손과, 세움받아 기름 부음 받은 손이 한 장에서 갈려요.** 그게 이 장의 경첩이에요. 그리고 1:13·17·29·30의 *hishbati*, '내가 맹세하였다'가 거듭 돌아요. 밧세바가 일깨우고, 나단이 거들고, 다윗이 다시 맹세해요. **흔들리는 침상 위에서 한 번 한 맹세가 다시 불려 나와 왕위를 묶는 그 결이,** 권이 삼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이어 '성전을 짓는 왕'으로 가는 첫 발걸음 같아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후계 다툼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자칭을 세움이 이기게 하는 손길 같아요. 권력의 썸으로 보면 아도니야가 유리했어요 — 형이고, 먼저 나섰고, 군대 장관요. 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썸을 따라가지 않아요. 손을 들지 않고 침묵하던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먼저 나선 자가 아니라 세움받은 자가 왕이 되는 —** 그게 수면 아래의 운동 같아요. 8장의 성전 봉헌이 한참 뒤에 오지만, 그 긴 호의 첫 매듭이 이 침상의 다시 한 맹세예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다윗은 가장 약한 국면에 있어요. 이불로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들이 왕이 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력한 침상에서 나온 한 맹세가 온 잔치를 흔어요. **가장 약한 왕의 한 마디가 가장 화려한 잔치를 무너뜨리는 —** 약함과 권위가 한 침상 위에서 부딪쳐요. 본문은 다윗이 강해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약한 침상에서 옛 맹세를 다시 입에 올렸을 뿐인데, 그게 모든 것을 바꿨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단한 침실의 추위에서 기혼의 갈라지는 환호로** 기우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1장이 끝나도 솔로몬은 아직 홀로 통치하지 않아요 — 다윗은 2장에서 유언을 남기고 죽고, 솔로몬의 왕권은 거기서 굳어져요. 1장의 즉위는 그 단독 통치를 여는 썸이에요. 자칭이 흩어지고 세움받은 자가 환호받는 한 컷이, 다음 장의 왕위 확립을 미리 결 지어 뒀어요. 약함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순서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30절이 불씨 같아요. 흔들리는 침상에서 다윗이 옛 맹세를 다시 입에 올리는 장면이요. 무력한 손이 큰 군대를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한 번 한 맹세를 그대로 지킬 뿐인데, 그게 왕위를 다시 묶어요. 제가 약해진 국면에서도 한 번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제 힘이 빠진 국면에서 무엇으로 무게를 잡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식어 가는 침상에서 세움받은 왕위로, 자칭한 잔치에서 기혼의 기름 부음으로, **단한 침실의 추위에서 갈라지는 환호로 — 가장 약한 왕의 한 맹세가 화려한 잔치를 흔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룹니다 —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열왕기상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1:1-4 — 동침하지 않았다 굳이 적은 아비삭의 시중이 권의 첫머리에 놓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늙어 추위에 떠는 왕을 위해 한 여인을 데려오되, 가까이하지 않았다(4절)고 명시한다. 단순한 간병인지 왕의 활력(통치 능력)의 약함을 보이는 표지인지 본문은 풀지 않는다. 2장에서 아비삭이 다시 사건의 중심이 되는 점도 1장 안에서는 단지 않고 보존.

Q2. 1:5-6 — 스스로를 높인 아도니야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부왕의 양육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도니야가 자기를 높여(mitnasse) 잔치를 벌이는 곁에, 부왕이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한 줄이 놓인다. 양육이 자칭으로 이어졌다는 인과로 단지 않고, 압살롬 다음에 났다는 가계 정보(6절)와 함께 형태 관찰로만 보존.

Q3. 1:13-17-29-30 — 옛 맹세(hishbati)가 밋세바·나단·다윗의 입으로 거듭 불러 나오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한 맹세가 어머니의 호소, 예언자의 거듭, 노왕의 다시 맹세로 세 번 돈다. 이 거듭됨을 '신실의 신학'으로 단지 않고, 흔들리는 침상 위에서 한 맹세가 사건의 잣대로 거듭 작동하는 사실로만 보존.

Q4. 1:5 vs 1:34-39 — 자칭한 자(mitnasse)와 세움받은 자(mashach)의 갈림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도니야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나서고, 솔로몬은 손 들지 않고 기름 부음 받는다. 권력의 썸으로는 먼저 나선 자가 유리한데, 본문은 세움받은 자를 따라간다. 이 갈림을 '겸손의 교훈'으로 단지 않고, 두 잔치의 명암으로만 보존.

Q5. 1:40-41 — 땅을 가를 듯한 환호가 잔치의 끝 신호로 다른 귀에 닿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기혼의 환호와 에스로겔의 잔치가 한 소리로 묶인다. 같은 나팔이 한쪽엔 기쁨, 다른 쪽엔 흠여짐의 신호다. 이 명암을 '심판의 신학'으로 단지 않고, 한 사건의 두 결이 한 소리로 부딪치는 형식의 사실로만 보존.

Q6. 1:50-53 — 계단 뿔을 붙잡은 아도니야를 조건부로 살려 '네 집으로 가라' 보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도니야가 비호의 계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은 "충신이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52절) 조건을 달아 집으로 보낸다. 이 살려둠을 '자비의 모범'으로 단지 않고, 비호 관습과 조건부 처분의 사실로만 둔다. 2장의 아도니야 처형으로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2장

1K1-002 · 역사서 · 히브리어

노왕의 유언과 젊은 왕의 왕위 공고 — "강하고 장부가 되라"는 말이 세 처형으로 이어진다. 다윗이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요압·시므이를 처형해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하여지니라"(2:46)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이동: 다윗의 임종 침상(1~9절) → 왕위와 죽음(10~12절) → 알현실(13~25절) → 성막 제단(26~35절) → 기드론 경계(36~46절). 좁은 방에서 경계선으로 이동.
- 소품 1: 왕좌(kisse) — 4·12·19·24·33·45절에 걸쳐 여섯 번 등장. 언약·즉위·처형 근거·견고함의 소품.
- 소품 2: 제단의 뿔 — 요압이 도망가 잡은 피난처(28~29절). 솔로몬이 "이 곳에서 죽여라"로 무력화함(31절).
- 소품 3: 기드론 시내(gevul) — 시므이에게 주어진 경계선(36절). 3년 후 넘어가며 처형의 방아쇠가 됨(41~46절).
- 소재의 온도: 1~9절은 영적·윤리 어휘(율법·언약·약속·지혜), 10절 이후는 정치·처벌 어휘(청원·음모·죽임·선고). 유언과 처형 사이 온도 차.
- 형식: 다윗 명령(1~9절)과 솔로몬 선고(25·31·34·46절)가 장을 반으로 나뉨. 아버지는 설명하고, 아들은 집행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유언의 공기: 낮은 온도로 오는 단호함.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로 열고, 이유를 달아 하나씩 지시함(1~9절).
- 처형의 공기: 냉랭하고 빠름. 아도니아 청원 → 솔로몬의 즉각 전환 → 밋세바가 나가자마자 처형 명령(25절).
- 요압 장면: 제단 뿔을 잡고 "이 곳에서 죽겠노라" — 피난처 무력화를 본문이 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명령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무감한 어조.
- 세대의 차이: 다윗은 이유를 설명하고(5·7·8절), 솔로몬은 간결하게 집행함.
- 시므이 서사: 세 처형 중 가장 많은 절(36~46절). 느린 전개 후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로 닫힘.
- 수미쌍관: kun(견고하다) — 12절 선언, 46절 완결. 처형 세 건을 사이에 두고 짝을 이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 46절 끝: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하여지니라."

- '대장부가 되라(chazaq)'로 열려 '견고하여지니라(kun)'로 닫힘 — 개인 명령이 왕국 결론으로 완결됨.
- 언약 조건(4절):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 진심으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삼하 7:16의 언약을 솔로몬에게 조건으로 전달함.
- 다윗의 죽음(10~11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이 사십 년이라." 40년 통치의 짧은 결산.
- 두 '견고함'의 쌍: 12절(즉위 직후 선언) ↔ 46절(마지막 처형 후 완성). 선언에서 완성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다윗: 임종의 왕. 영적 당부(3~4절)와 정치적 처리(5~9절)를 함께 남기고 조상들과 함께 잠든다(10절).
- 솔로몬: 새 왕. 다윗의 유언을 집행하되, 자신만의 판단(아비삭 청원 해석 22~24절)도 덧붙임.
- 아도니야: 1장에서 왕이 되려다 실패한 다윗의 아들. 아비삭을 요청했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해석에 처형됨(25절).
- 밋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아도니야의 청원을 왕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 왕이 그를 위해 보좌를 차려 주는(19절) 장면 포함.
- 아비아달: 제사장. 아도니야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나돗으로 추방됨(26~27절). 예언 성취 주석이 덧붙음(27절).
- 요압: 군대 장관. 아도니야 편을 든 사실(1장)과 아브넬·아마사의 피를 흘린 옛 죄(5절)로 처형됨(34절). 제단 뿔을 잡았으나 무력화됨.
- 브나야: 솔로몬의 처형 집행인. 아도니야(25절)·요압(34절)·시므이(46절) 세 건 모두 집행. 이후 요압의 직임을 대신함(35절).
- 시므이: 다윗을 저주한 자(삼하 16장). 예루살렘 거주 명령을 받았다가 3년 후 기드론을 넘어 처형됨(46절).
- 중심 사상: 왕위의 견고함(kun) — 언약 순종(3~4절)과 정치적 처리(25~46절)가 함께 왕위를 공고히 함.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절): 다윗의 유언. 강하고 대장부 되라(2절), 율법을 지켜라(3~4절), 요압을 처리하라(5~6절), 바르 실래를 선대하라(7절), 시므이를 처리하라(8~9절).
- 컷 2 (10~12절):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 40년 통치 결산(10~11절),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12절).
- 컷 3 (13~25절): 아도니야의 청원과 죽음. 아비삭 요청 → 솔로몬의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해석 → 브나야가 처형(25절).
- 컷 4 (26~35절): 아비아달 추방, 요압 처형. "아나돗으로 가라"(26절) + 예언 성취 주석(27절). 요압이 제단 뿔 잡음 → "이 곳에서 죽이라"(31절) → 처형(34절).
- 컷 5 (36~46절): 시므이의 처형. 거주 명령·경고(36~38절), 3년 후 기드론 넘어 가드 방문(39~40절), 솔로몬의 선고(41~45절), 브나야가 처형 →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46절).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azaq vehyeh le'ish*(חַזַּק וְיִהְיֶה לְאִישׁ) — '힘써 대장부가 되라'(2절). 신 31:23·수 1:6의 계승 공식어.
- *sheol*(שְׁאוֹל) — '스올·무덤'(6·9절).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의 처리를 "흰 머리카락을 스올에 피 흘리며 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반어로 표현. 실제로는 피 흘리며 내려가야 한다는 뜻.

- *gevul*(גָּבול) — '경계·구역'(36절 이하).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기드론을 넘지 말라는 거주 명령의 핵심어.
- *kisse*(כִּסֵּי) — '왕좌·보좌'. 이 장의 중심 소품(4·12·19·24·33·45절).
- *kun*(כִּנּוּן) — '견고하다·확립되다'. 12절과 46절의 수미쌍관 어휘.
- *chokmah*(חִכְמָה) — '지혜'(6·9절). 다윗이 요압·시므이 처리를 "지혜롭게 행하라"(6절)로 주문. 처형의 근거어가 지혜임.
- *dam*(דָּם) — '피·혈'(5절).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를 흘린 행위의 기억. 다윗 유언의 법적 근거.
- *chesed*(חֶסֶד) — '인자·언약적 신실'(7절). 바르실래의 아들들을 선대하라는 이유. 다윗이 기억하는 인자.
- *qeren hammizbeach*(קֶרֶן הַמִּזְבֵּחַ) — '제단의 뿔'(28절). 피난처의 상징. 요압이 잡았으나 무력화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kun*(견고하다)의 수미쌍관: 12절(즉위 직후 선언) ↔ 46절(마지막 처형 후 완결). 장 전체가 선언에서 완성으로 이어지는 구조.
- 유언의 병렬 구조(1~9절): A 영적 당부(3~4절) + B 요압 처리(5~6절) + C 바르실래 선대(7절) + B' 시므이 처리(8~9절). 영적 당부가 먼저이고 정치 처리가 둘러쌈.
- 처형 세 건의 병렬: 아도니아(죄명 = 왕이 되려 함, 25절) / 요압(죄명 = 아브넬·아마사의 피 + 아도니아 편, 34절) / 시므이(죄명 = 다윗 저주 + 경계 위반, 46절). 각 처형에 죄명·선고·집행이 세트로 붙음.
- 예언 성취 주석(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히의 집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역사서의 서술자 개입 패턴. 사건 설명이 아니라 예언과 성취의 연결.
- 아비삭 청원의 해석(22절): 솔로몬이 "왕의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냐 그를 위하여 왕위를 구하라"고 해석. 청원이 실제로 그 의도였는지 본문은 열어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왕의 임종 유언 — 고대 근동에서 임종의 왕이 후계자에게 정치·윤리 지침을 남기는 관습. 1~9절의 장르 배경.
- 제단 피난처 — 출 21:13-14에서 고의 살인자는 제단에서도 데려내 죽이라 했고, 비고의는 도피성으로 달아날 수 있음. 요압은 제단 뿔을 잡았으나(28절) 솔로몬은 "그가 말한 대로 이 곳에서 죽이라"로 대응함. 율법과 판결의 긴장이 배경.
- 스올(Sheol) — 히브리어로 죽음의 영역·무덤.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 "흰 머리카락이 스올에 피 흘리며 내려가지 않게 하라"(6·9절)는 표현은 반어로, 실제로는 피 흘리며 처형하라는 뜻. 표현 배경.
- 혈족 복수(*go'el*) — 친족의 피를 갚아야 하는 의무. 요압이 아브넬(삼하 3:27)과 아마사(삼하 20:10)를 죽인 것이 다윗 유언의 처리 근거(5절)가 됨. 법적 배경.
- 바르실래 — 삼하 19장에서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을 도운 인물. 다윗이 기억하는 *chesed*(인자)의 모범(7절).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2:2 ↔ 신 31:23·수 1:6 ('힘써 대장부가 되라' — 계승 공식어의 반복)
- 왕상 2:4 ↔ 삼하 7:12-16 (다윗 언약 —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조건으로 재전달)
- 왕상 2:5 ↔ 삼하 3:27·20:10 (요압이 아브넬·아마사를 죽인 기억)

- 왕상 2:7 ↔ 삼하 19:31-40 (바르실래가 다윗을 도운 사건)
- 왕상 2:8 ↔ 삼하 16:5-13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사건)
- 왕상 2:27 ↔ 삼상 2:27-36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 — 아비아달 추방의 성취)
- 왕상 2:28 ↔ 출 21:13-14 (제단 피난처 규례)
- 왕상 2:46 ↔ 왕상 3:1 이하 (왕위 공고 후 솔로몬이 기브온 번제와 지혜 요청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다윗의 침상. 늙은 왕이 아들을 부른다 —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어진다 —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를 흘렸다, 지혜롭게 행하여 그 흰 머리가 스울에 피 흘리며 내려가게 하라. 바르실래의 아들들은 선대하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다, 지혜롭게 행하여 그 흰 머리가 피 흘리며 스울에 내려가게 하라. 장면이 바뀐다.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다윗 성에 장사된다 — 사십 년 통치의 끝이 한 절로 처리된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는다.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 아도니야가 밋세바를 통해 아비삭을 요청한다. 솔로몬이 즉각 묻는다 —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느냐, 그를 위하여 왕위를 구하라. 밋세바가 나가자 처형 명령이 내려지고 브나야가 집행한다. 아비아달이 불러온다 — 아나돗으로 가라, 당신은 죽어야 마땅하나 이번은 죽이지 않겠다. 서술자가 멈춰 설명한다 — 이는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 요압이 성막으로 달아나 제단 뿔을 잡는다 — 이 곳에서 죽겠노라. 솔로몬이 명한다 — 그가 말한 대로 거기서 죽여라. 브나야가 집행한다. 시므이가 불러와 거주 명령을 받는다 — 예루살렘에 살되 기드론을 넘지 말라, 넘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시므이가 대답한다 — 좋습니다. 삼 년이 지난다. 시므이의 종 두 명이 도망해 가드로 간다. 시므이가 나귀를 타고 가드로 내려가 찾아온다. 솔로몬에게 보고된다. 솔로몬이 묻는다 — 네가 내게 한 맹세를 잊었느냐. 처형 명령이 내려지고 브나야가 집행한다. 자막 —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하여지니라.

[8단계] 초별 제목·부제

- 초별 제목: "힘써 대장부가 되라 — 유언이 처형으로 완결되는 왕위 공고"
- 초별 부제: "다윗의 임종 유언 '힘써 대장부가 되라'(2:2)가 솔로몬의 아도니야·요압·시므이 처형 세 건을 거쳐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하여지니라'(2:46)로 완결되는, 선언에서 완성으로 이어지는 왕위 공고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chazaq·sheol·gevul·kisse·kun·chokmah·dam·chesed·qeren_hammizbeach 등 9+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kun의 수미쌍관 + 처형 세 건의 병렬 + 예언 성취 주석 27절 + ANE 제단 피난처·혈족 복수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2 '힘써 대장부가 되라'를 용기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계승 공식어 chazaq의 거듭됨(신 31:23·수 1:6)과 유언 구조의 첫 발화라는 형태 관찰로만 됨.
- 2:4 언약 조건을 '율법을 지키면 축복'의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삼하 7:16 다윗 언약이 솔로몬에게 조건으로 전달되는 발화 사실로만 기록.
- 아비삭 청원(22~25절)을 솔로몬의 해석이 정확한지 단정하지 않고, 본문이 실제 의도를 열어 두면서 솔로몬의 즉각 반응 속도와 판결 논리를 형태 관찰로만 됨.
- 27절 예언 성취 주석을 역사서의 서술자 개입 패턴으로만 기록. 섭리 해석으로 단지 않음.
- 요압의 제단 뿔(28~34절)을 피난처 무력화의 옹고 그림으로 평가하지 않고, 출 21:13-14 규례와의 긴장을 사실로만 적고 미해결로 보존.
- 시므이 경계 위반(39~46절)을 단순 불순종 교훈으로 단지 않고, 경계를 준 상황·3년의 시간·종을 잡으려 간 동기와 처형 선고의 순서를 사건 사실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임종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2:2)와 율법 순종의 언약 조건(2:4)을 앞세우고 요압·시므이 처리를 당부한 뒤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아비아달·요압·시므이를 처리해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하여지니라"(2:46)로 닫히는, 선언(2:12)에서 완성(2:46)으로 이어지는 왕위 공고의 장이다.

한 문단: 다윗의 임종 침상. 왕이 아들을 불러 낮은 목소리로 시작한다 —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 조건을 전달한다(4절). 뒤이어 요압이 아브넬·아마사의 피를 흘렸으니 지혜롭게 처리하라, 바르실래의 아들들을 선대하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으니 처리하라 — 세 이름이 차례로 불린다.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40년 통치가 두 절로 결산된다. 솔로몬이 왕위에 앉고 "나라가 심히 견고하리라"(12절)는 선언이 온다. 이후 처형 세 건이 이어진다. 아도니아·아비삭을 요청했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해석에 처형된다.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된다 — 서술자가 멈춰 예언 성취를 주석한다. 요압이 제단 뿔을 잡았으나 "그 곳에서 죽여라"는 명령에 집행된다. 시므이가 거주 명령을 받고 3년을 지내다 기드론을 넘어 가드로 내려갔다가 보고되어 처형된다. 마지막 자막 —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하여지니라.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침상→알현실→성막→기드론으로 이동하는 무대. kisse(왕좌) 여섯 번·제단 뿔·기드론 경계선의 소품. 유언과 처형 사이 온도 차.
2 첫 느낌·분위기	

단계	핵심 발견
	낮은 온도의 단호한 유언. 냉랭하고 빠른 처형 선고. 피난처 뿔을 무력화하는 무감한 어조. 시므이 서사에 가장 많은 공간.
3 시작과 끝	'대장부가 되라'(2절)로 열려 '견고하여지니라'(46절)로 닫힘. 12절 선언 ↔ 46절 완성. 언약 조건(4절)이 전달되고 처형으로 완결됨.
4 등장인물·사상	다윗(임종 유언)·솔로몬(집행)·아도니아·아비아달·요압·브나야·시므이. 왕위의 견고함(kun)이 중심 사상.
5 장면 컷	유언(1~9)/다윗의 죽음·즉위(10~12)/아도니아 처형(13~25)/아비아달 추방·요압 처형(26~35)/시므이 처형(36~46) 5컷.
6 의문·발견·정보	kun의 수미쌍관. 처형 세 건의 병렬. 예언 성취 주석(27절). 아비삭 청원의 해석 문제. 제단 뿔과 율법의 긴장.
7 동영상	침상 유언 → 다윗의 죽음 → 처형 세 건 → 견고하여지니라.
8 초벌 제목·부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 — 유언이 처형으로 완결되는 왕위 공고"
9 기도·내면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될지 — 그리고 작은 이유로 경계를 넘는 국면이 내 안에 있는지.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영적 당부와 정치 처리가 한 유언 안에 함께 있음:** 다윗의 유언(1~9절)은 영적 명령(율법 순종·언약 조건, 3~4절)과 정치 처리(요압·시므이 명단, 5~9절)를 분리하지 않는다. 강함의 명령이 먼저 오고, 그 아래 둘이 함께 매달린다. 본문은 이 두 종류의 당부를 다른 층으로 다루지 않고 같은 숨 안에 넣는다. 왕의 견고함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이 장의 어법이 유언의 구조 안에 이미 들어 있다.
- 결 2 — 처형의 근거어가 '지혜'임:** 다윗이 요압 처리를 당부할 때 쓴 말이 "지혜롭게 행하라"(chokmah, 6절)이고, 시므이 처리도 "지혜롭게 행하라"(9절)이다. 솔로몬이 3장에서 구할 지혜가 먼저 2장에서 처형의 언어로 등장한다. 지혜가 처형의 어휘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휘로 온다. 두 용법의 순서가 독자를 세운다.
- 결 3 — 예언 성취 주석이 처음 등장하는 곳:** 27절에서 아비아달 추방 뒤 서술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고 삽입한다. 왕의 정치 결정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로 읽히는 서술 방식이 열왕기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절이다. 이후 권 전체에서 반복될 서술 패턴의 첫 사례로 2장이 열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2:2 ↔ 신 31:23·수 1:6 — 'chazaq, 힘써 대장부가 되라'의 계승 공식어 계보.
- 왕상 2:4 ↔ 삼하 7:12-16 — 다윗 언약이 조건으로 재진술되는 지점.
- 왕상 2:5 ↔ 삼하 3:27-20:10 — 요압이 아브넬·아마사를 죽인 기억.
- 왕상 2:7 ↔ 삼하 19:31-40 — 바르실래의 chesed 기억.
- 왕상 2:8 ↔ 삼하 16:5-13 — 시므이의 저주 기억.
- 왕상 2:27 ↔ 삼상 2:27-36 —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과 성취.
- 왕상 2:28 ↔ 출 21:13-14 — 제단 피난처 규례와 요압 처형의 긴장.
- 왕상 2:46 ↔ 왕상 3:1 이하 — 견고해진 왕위 다음에 오는 일천 번제와 지혜.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2에서 시작한다 —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첫 말이 무엇을 먼저 세우는지 듣는다.
- **멈춤 1:** 2:4에서 멈춘다 — 언약이 조건으로 전달되는 그 국면. 내게 전달된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지 들고 머문다.
- **멈춤 2:** 2:27에서 멈춘다 — 서술자가 예언 성취를 삽입하는 그 지점. 내 판단 안에서 무엇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다.
- **끝:** 2:44~46에서 멈춘다 — 시므이가 넘은 경계선. 내가 받은 경계, 그것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지 들고 머문다.

F · 자족성 점검

- [x] 유언 5항목(2~9)·죽음과 즉위(10~12)·처형 세 건(25·34·46)·예언 성취 주석(27)의 완결
- [x] kun 수미쌍관(12↔46)과 kisse 여섯 번의 형태 분포
- [x] chazaq·chokmah·sheol·dam·chesed·gevul 원어 어휘 기록
- [x] 아비삭 청원 해석 문제와 제단 뿔 율법 긴장의 미해결 보존
- [x] 처형 세 건의 병렬 구조와 죄명·선고·집행 세트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권의 흐름은 솔로몬 즉위·지혜(1~4장), 성전 건축(5~8장), 솔로몬의 배도와 왕국 분열(9~12장), 분열 왕국의 왕들과 예언자들(13~22장)로 움직인다. 이 장(2장)은 1~4장의 '솔로몬 즉위와 지혜' 묶음의 두 번째 장으로, 왕위가 아직 공고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고함을 완결짓는 단계다. 구속사의 넓은 흐름에서 보면, 2장은 다윗 언약(삼하 7:16)이 솔로몬에게 조건으로 전달되는 지점이다 — 2:4의 조건 재진술이 이 권 전체에서 왕들이 그 조건을 지키는지 어기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솔로몬 이후의 분열(12장)이 그 조건을 어긴 결과로 읽히게 되는 배경이 이 절에서 먼저 깔린다. 또한 27절의 예언 성취 주석이 열왕기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장으로, 이후 권 전체에서 반복될 서술 패턴의 첫 사례가 여기에 있다. 2장은 왕위 공고라는 표면 아래, 언약 조건의 착지와 예언 성취 서술 방식의 도입이라는 두 흐름을 조용히 열어 두는 장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다윗의 유언(2:1-9)에서 솔로몬의 집행(2:25-46)으로 / "힘써 대장부가 되라"(2:2)에서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2:46)으로 / 선언(2:12)에서 완성(2:46)으로 — 왕위 이양이 유언의 말에서 처형의 행동으로 완결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왕위의 견고함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 주는 운동이다. 다윗의 말이 먼저 오고, 솔로몬의 행동이 그 말을 완결한다. 그러나 이 운동은 정치 처리로만 닫히지 않는다 — 유언의 첫 말이 영적 당부(3~4절)였고, 처형 한가운데 예언 성취 주석이 들어오며(27절), 마지막 처형 직후 "견고하여지니라"로 닫힌다. 견고함이 영적 토대와 정치 집행을 함께 들고 오는 어법이 이 운동의 결이다. 그리고 이 운동은 3장의 기브온 일천 번제와 지혜 요청을 향해 열려 있다 — 견고해진 왕이 그다음에 지혜를 구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다윗의 임종 유언과 솔로몬의 처형 세 건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언약이 조건으로 착지하는 방식이다. 삼하 7:16의 "영원히"가 2:4에서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행하면"이라는 조건으로 다시 전달된다. 언약이 무조건 보장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과 함께 새 왕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 장의 첫 번째 수면 아래 흐름이다. 둘째, 예언 성취가 역사 서술에 삽입되는 방식이다. 27절에서 서술자는 정치 결정을 예언 성취로 읽는다. 왕의 행동과 하나님의 뜻이 겹쳐 읽히는 이 서술 방식이 이 장에서 처음 등장해 권 전체를 읽는 안경이 된다. 셋째, 지혜의 두 용법이다. 2장의 *chokmah*는 처형의 언어("지혜롭게 행하라")이고, 3장의 *chokmah*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언어다. 같은 단어가 두 장에서 다른 층위로 쓰이며,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에 쓰일 것인지를 질문을 독자에게 미리 던진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다윗이 죽어 가면서 아들에게 건넨 첫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였다 —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므이가 3년을 잘 버티다가 작은 이유로 경계를 넘은 그 국면 — 내 안에 받은 경계가 있고, 그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 두 개의 질문이다. 첫 번째는 유언의 언어에서 온다 — 내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강함인지, 율법인지, 처리 목록인지, 아니면 바르실래처럼 은혜로 갚을 이름인지. 다윗은 그 모두를 한 유언 안에 넣었다. 두 번째는 경계에서 온다 — 시므이가 3년을 지키다가 작은 이유(종 두 명)로 넘어간 경계. 받은 선을 오래 지키다 어느 순간 넘게 되는 그 국면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본문은 이 두 질문을 독자에게 남기고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로 닫는다 — 왕위의 견고함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이, 각자의 경계 앞으로 독자를 세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해진 다음 —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묻는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zaq* —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힘써 대장부가 되라 — 노왕의 유언이 새 왕의 처형으로 완결되다"

P02 이진우: "선언에서 완성으로 — kun이 장을 감싸는 두 번의 견고함"

P04 최현국: "왕좌 여섯 번, 처형 세 번 — 한 소품이 왕위를 공고히 하는 흐름"

P05 김미영: "유언과 집행 — 아버지는 설명하고 아들은 집행한다"

P07 오지혜: "지혜롭게 행하라 — 처형을 명하는 유언의 언어"

P11 나경아: "*chazaq vehyeh le'ish* — 힘써 대장부가 되라"

부제 제안: "다윗의 임종 유언 '강하고 장부가 되라'(2:2)와 언약 조건(2:4)이 앞에 오고, 아도니야·요압·시므이의 처형 세 건이 뒤에 따르며, '나라가 솔로몬의 손으로 견고하여지니라'(2:46)로 닫히는 — 선언(2:12)에서 완성(2:46)으로 이어지는 왕위 공고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다윗이 아들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네던 그 침상으로, 그리고 요압이 제단 뿔을 잡고 서 있던 그 성막 앞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한 노왕이 죽어 가면서 아들에게 첫 말로 강함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 아래 영적 당부와 정치적 처리가 함께 달려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넨다면 어떤 말이 먼저 올지를 듣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계를 받은 것들, 넘지 말라 한 것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권 전체의 호 안에서 2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 이 장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다윗의 유언이 솔로몬의 처형으로 완결되는 이 장의 수면 아래에서 무엇이 작동하는가? 이 불씨가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는가?**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장은 유언에서 집행으로, 선언에서 완성으로 움직여요. 다윗이 말로 남긴 것들을 솔로몬이 처형으로 완결해요. 그런데 이 장이 권 전체의 호에서 어디에 있냐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인데 이 2장은 그 준비 단계예요 — 왕위를 공고히 한 다음에야 3장에서 일천 번제와 지혜 요청이 와요. 견고함이 먼저이고, 지혜가 뒤에 와요. 그 순서가 왕위 서사의 흐름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 단서로, 2절의 *chazaq*(힘써)와 46절의 *kun*(건고하여지니라)이 이 장의 양 끝이에요. 강함의 명령으로 열려서, 견고함의 완성으로 닫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율법 순종(3~4절)과 처형 세 건(25·34·46절)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본문은 영적 당부와 정치 처리를 분리하지 않고 한 장 안에 같이 넣어요 — 왕의 견고함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이 장의 어법이에요. 형태 관찰로만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에서 보면, 이 장은 언약의 조건이 실제 역사로 착지하는 방식을 보여 줘요. 삼하 7:16의 "영원히"가 2:4에서 조건으로 재진술돼요 —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내 앞에서 행하면." 언약이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솔로몬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그 조건의 첫 항목이 율법 순종(3절)이에요. 권 전체의 spine —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심' — 의 출발점에서 2장은 그 조건을 확정해 두는 역할을 해요. 솔로몬 이후의 분열이 이 조건의 결과로 읽히게 되는 배경이 여기서 깔리는 거예요.

P01 한나래: 불씨로는 유언의 첫 말이 닿아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예요. 영적 당부도, 처리 목록도, 그 뒤에 와요. 제가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건넬 말이 무엇인지 — 그 질문이 불씨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시므이가 3년을 잘 버티다가 종 두 명을 잡으러 간다는 이유로 경계를 넘는 그 장면도요 — 작은 이유가 선을 넘게 하는 그 국면이 제 안에 있는지 듣고 머물렀습니다.

P04 최현국: 운동 한 화면으로는, 다윗의 유언이 열고 솔로몬의 집행이 닫는 왕위 이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양에서 흥미로운 건 아비아달 추방 뒤에 오는 서술자 주석이에요(27절) — 이는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왕의 정치 판단이 하나님의 예언 성취로 읽히는 서술 방식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열왕기상 전체에 반복될 이 서술 패턴이 2장에서 처음 깔려요. 역사서의 특유한 어법이 여기서 시작돼요.

P05 김미영: 저는 바르실래 언급(7절)이 오래 남아 있어요. 다윗이 나열하는 처리 목록 가운데, 처벌이 아니라 선대로 끝나는 한 이름이에요 — 압살롬 반란 때 나를 도왔으니, 그 아들들을 내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들게 하라. 처벌 목록 사이에 은혜로 갚아야 할 이름이 있어요. 처형의 장 한가운데 그 이름이 놓인 매듭이 인상적이었어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유언에서 집행으로, 선언에서 완성으로, 언약의 조건이 역사로 착지하는 방식으로 — 다윗의 마지막 말이 솔로몬의 왕위 공고로 완결되며, 그 견고함 아래에 영적 순종과 정치 처리가 함께 들어 있는 이 장의 운동을 손에 쥐고, 2장을 여기서 닫습니다. 왕위가 견고해진 다음,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문이 열립니다.

열왕기상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2:4 — 다윗 언약(삼하 7:16)이 이 절에서 조건으로 재진술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삼하 7:16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라는 무조건 언약처럼 읽히는데, 2:4는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행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전달한다. 두 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본문은 열어 둔다. 미해결.

Q2. 2:22~25 — 아비삭 청원이 실제로 왕권 찬탈 시도였는가?

- 솔로몬은 즉각 "왕위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처형한다(25절). 그러나 본문은 아도니야의 실제 의도를 명시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해석이 정확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었는지 — 열어 두고 보존.

Q3. 2:28~34 — 제단 뿔을 잡은 요압을 거기서 죽이라 한 것은 출 21:13-14의 규례와 어떻게 관계되는가?

- 출 21:14는 고의 살인자는 제단에서도 데려내 죽이라 한다. 요압이 아브넬·아마사를 죽인 것이 고의 살인에 해당한다면 율법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본문은 그 판단을 명시하지 않는다. 미해결.

Q4. 2:27 —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는 서술자 주석을 역사서는 왜 여기 삽입하는가?

- 아비아달 추방이 정치 결정인데, 서술자는 삼상 2장 예언의 성취로 읽는다. 왕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겹치는지 — 역사서의 서술 패턴으로만 보존.

Q5. 2:36~46 — 시므이에게 3년의 유예를 준 후 처형하는 구조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즉각 처형하지 않고 거주 명령을 주고 3년을 기다린다. 시므이가 종을 잡으려 가드로 간 것이 처형의 방아쇠가 된다. 유예와 경계 위반의 구조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 열어 두고 보존.

Q6. 2:2 — '힘써 대장부가 되라'(chazaq vehyeh le'ish)가 영적 당부보다 먼저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유언의 첫 말이 율법도 처리 목록도 아니라 강함과 장부됨이다. 계승 공식어(신 31:23·수 1:6)의 반복인지, 아니면 이 장 전체의 어조를 설정하는 문이 되는지 — 형태 관찰로 보존. 미해결.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3장

1K1-003 · 역사서 · 히브리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 기브온의 꿈에서 여호와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시매 솔로몬이 레브 쇼메아(*lev shome'a*)를 구하고, 여호와가 지혜와 부귀와 장수를 모두 더하신다. 두 어머니의 아이 재판이 지혜의 첫 증거로 이어지며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니라 — 지혜의 출처와 두 어머니의 재판이 이어지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세 구간: 이집트 혼인이 언급된 예루살렘(1~3절) → 기브온 산당과 꿈 신탁(4~15절) → 예루살렘 왕궁 두 어머니 재판(16~28절). 기브온에서 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증명하는 구조.
- 소품 곡선: 일천 번제(4절)의 큰 숫자로 열려, 칼(24절)이라는 날카로운 소품이 진짜 어머니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무리가 두려워하니라'(28절)는 소리 없는 집단 반응으로 닫힘.
- 소재 흐름: 앞쪽은 개인 신탁 어휘(번제·꿈·구하라·듣는 마음), 뒤쪽은 공적 재판 어휘(두 어머니·칼·죽이지 말라·두려워하니라). 왕의 구함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 형식 소품: *lev shome'a*(듣는 마음, 9절)와 *mishpat*(재판, 9절·28절)이 장을 끼고 앉아 액자를 이룸 — 구한 것과 이뤄진 것이 같은 두 어근으로 닫힘.
- 이중 평가의 공존: "여호와를 사랑하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며"(3절) — 사랑과 미완이 역접 없이 한 절에 나란히 있음. 출발 국면의 공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3절의 이중 공기 —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하며." 좋은 시작과 불완전한 출발이 나란히 있어 긴장이 아니라 미묘한 복잡함으로 옴.
- 꿈 신탁(5~15절)의 고요함 — 대화가 직접적이에요. 여호와가 먼저 묻고, 솔로몬이 대답하고, 여호와가 들으신 것을 되돌려 허락하심. 협상 없이 청과 응답이 맞는 느낌.
- 7절 자기 낮춤의 공기 —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권력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에 가장 낮은 자기 인식이 온다는 긴장. 왕위 공고 직후에 "나는 작은 아이"라는 발화.
- 재판 장면(16~27절)의 날카로움 — "아이를 나누어"(25절)라는 명령이 판결이 아니라 시험이고, 진짜 어머니가 포기로 자기를 드러내는 역설. 사랑이 포기의 형태로 증명되는 장면.
- 28절의 닫힘 — "이스라엘 무리가 왕이 재판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지혜가 왕 안에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듣고' 반응하는 데서 닫힘. *lev shome'a*의 거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다윗 성에 데려다가..."

- 28절: "이스라엘 무리가 왕이 재판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재판함을 봄이더라."
- 이집트 혼인으로 열려 하나님의 지혜가 재판으로 증명되는 것을 이스라엘 무리가 '듣고' 두려워함으로 닫힘.
- 시작의 셈: 1~3절은 솔로몬의 탁월함(이집트와의 동맹, 여호와 사랑)과 미완(산당 제사, 미완의 성)을 함께 적음. 끝의 셈: 28절은 지혜의 출처("하나님의 지혜")를 명시하고 백성의 경외로 닫힘. 미완으로 열려 경외로 닫힘.
- 구함에서 허락으로, 허락에서 공인으로 이어지는 호: 7절 "좋은 작은 아이라"(자기 낮춤) → 12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허락) → 28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공인).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구하고 받는 왕), 이집트 공주(1절, 이름 없이 등장하고 사라짐), 여호와(꿈 속에서 먼저 묻고 들으시고 더하시는 분), 두 어미(16~27절, 이름 없음), 이스라엘 무리(28절, 반응의 주체).
- 중심 사상: 레브 쇼메아 — '듣는 마음'(lev shome'a). 단순한 지식·영리함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경청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심장. 9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의 핵심 어휘.
- 이중 평가의 공존: 3절 "사랑하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 여호와를 향한 헌신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종교적 혼합이 공존함. 본문은 이를 정죄 없이 보고하고 앞으로 이어 감.
- 구함의 비대칭: 11~12절에서 여호와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부귀·장수·원수 죽음)을 구하지 않고 백성 재판할 지혜를 구했음을 '기뻐하시고' 지혜와 총명 외에 부귀와 영광을 더하심. '구한 것 + 구하지 않은 것'의 더하심.
- 칼의 역설: 두 어미 재판에서 칼은 판결 도구가 아니라 드러냄 도구다. "나누라" 했을 때 진짜 어미의 반응이 지혜의 판결이다 — "죽이지 말고 살아 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27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출발의 이중 평가 — 이집트 혼인(1), 미완의 성(2), "여호와를 사랑하되 산당에서"(3).
- 컷 2 (4절): 기브온 일천 번제 — "큰 산당이라"(4) 기브온에서 드리는 대규모 번제. 무대 전환 앞의 정리.
- 컷 3 (5~15절): 기브온의 꿈 신탁 — "무엇을 줄까 구하라"(5), 다윗 연속성 회고(6), 자기 낮춤 "작은 아이"(7), 레브 쇼메아 구함(9), 기쁨(10), 지혜+부귀+장수 허락(12~14), 깨어나 예루살렘으로·언약궐 앞에 섬(15).
- 컷 4 (16~27절): 두 어미 재판 — 두 여인 등장(16~22), "칼로 나누라"(24~25), 진짜 어미의 포기 "죽이지 말라"(26), 왕의 판결(27).
- 컷 5 (28절): 이스라엘 반응 —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재판함을 봄이더라." 한 절로 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amah*(בָּמָה) — '산당'(3~4절). 지방 제사 국면. 1~4절 솔로몬의 종교 행태 배경.
- *elef olot*(עֲלֹת אֶלֶף) — '일천 번제'(4절). 기브온 꿈 신탁의 직전 배경.
- *chalom*(חֲלוֹם) — '꿈'(5·15절). 신탁의 통로. 15절 "깨어 보니 꿈이더라."
- *na'ar qaton*(נַעַר קָטָן) — '작은 아이'(7절). 솔로몬의 자기 낮춤. 새로 즉위한 왕의 발화.
- *lev shome'a*(לֵב שׁוֹמֵעַ) — '듣는 마음'(9절). 구함의 핵심 어휘. 경청과 분별의 심장.

- *hokhmah*(חֹכְמָה) — '지혜'(28절 외). / *binah*(בִּינָה) — '총명·분별력'(12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의 두 번째 어휘).
- *tov vara*(טוֹב וָרָע) — '선악'(9절).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의 대상. 창 2~3장의 선악 지식 어근과 닿는 어휘. 배경 관찰.
- *cherev*(חֶרֶב) — '칼'(24절). 재판 도구가 아니라 드러냄 도구로 전환되는 소품.
- *rachamim*(רַחֲמִים) — '궁휼·모성'(26절). "그 살아 있는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니." 어미를 드러내는 감정 어휘. *rechem*(רֶחֶם)에서 온 말.
- *mishpat*(מִשְׁפָּט) — '재판·판결'(9절·28절). 9절 "재판하게 하옵소서"와 28절 "재판함을 듣고"가 액자.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lev shome'a*와 *mishpat*의 두 어근이 장을 끼고 있음: 9절 구함(*lishmo'a mishpat*)과 28절 반응(*vayyishme'u... et hammishpat*)이 같은 어근으로 액자를 이룸. '듣는 마음을 구함'이 '백성이 듣는 재판'으로 현실화됨.
- 3절의 이중 평가 —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하며"는 역접 없이 나열됨. 본문이 판단을 보류하고 사실로만 적는 형태. 9~11장 변질의 복선을 심어 두는 구조적 씨앗.
- 구함과 허락의 비대칭: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9절). 여호와가 허락하신 것은 지혜·총명·부귀·영광·장수(12~14절). 구한 것보다 많이 받음 — 여호와의 더하심.
- 진짜 어미의 역설: 포기가 소유보다 진한 사랑을 드러냄(26~27절). 죽이지 말라는 말이 판결의 열쇠가 됨. 칼의 역할 전환.
- 1절과 28절의 대조: 시작은 이집트 공주와 미완의 성, 끝은 하나님의 지혜와 이스라엘 무리의 경외. 인간 동맹으로 열려 신적 지혜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기브온 — 예루살렘 북서쪽 약 9km의 성읍. 여호수아 9~10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 여호와와의 회막이 있던 곳(대상 16:39, 21:29). 기브온이 '큰 산당'이 된 배경.
- 꿈을 통한 신탁 — 고대 근동에서 왕이 성소에서 잠들어 신탁을 받는 인큐베이션(*incubation*) 관행이 있었음. 솔로몬의 기브온 꿈이 이 관행의 배경 안에 놓임. 배경 관찰.
- 이집트 공주와의 혼인 — 당시 이집트가 자기 왕족 여성을 하급 왕에게 주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이례적 동맹. 솔로몬의 국제 위상을 표시하는 사건. 배경.
- 산당(*bamah*) 제사 — 신명기 12장은 성소 하나의 집중 예배를 명하나,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없어 각 지방 산당 제사가 용인되었음. 2절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를 설명으로 삽입한 배경.
- 두 어미 재판 — 유사한 '이분 시험'(*splitting test*) 재판 설화가 인도 등 고대 문헌에도 나타남. 본문이 이 형식을 사용해 솔로몬 지혜의 첫 사례로 배치함.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3:3 ↔ 왕상 11:4·6 (솔로몬이 말년에 마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음 — 3절의 "사랑하되 산당에서"가 향하는 복선)
- 왕상 3:9 ↔ 창 2:17·3:5 (선악 — *tov vara* 어근의 배경. 왕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구함)
- 왕상 3:6 ↔ 삼하 7:12·15 (다윗 언약 — 솔로몬이 기도에서 부친 다윗에게 베푼 인자를 상기시킴)

- 왕상 3:1 ↔ 왕상 11:1-3 (이집트 공주 외 이방 여인들 — 3장의 혼인이 11장 변질의 시작점으로 이어지는 권 흐름)
- 왕상 3:15 ↔ 왕상 8:1-65 (언약궤와 번제·화목제 — 성전 낙성과 같은 제의 형태의 연속)
- 왕상 3:12 ↔ 왕상 4:29-34 (솔로몬의 지혜 범위 — 3장의 지혜 허락이 4장에서 잠언·노래·동식물 지식으로 확장됨)
- 왕상 3:26 ↔ 창 43:30 (rachamim — 요셉이 베냐민을 보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으니"라 할 때 같은 어근 사용)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 성, 미완의 벽이 보인다. 자막 —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다윗 성에 데려다가. 화면 — 아직 짓는 중인 성벽, 이집트 공주가 들어오는 문.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 본문이 판단 없이 두 사실을 나란히 적는다. 장면이 전환된다. 기브온, 큰 산당.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다 — 일천 번제. 숫자가 크다. 밤이 된다. 솔로몬이 잠든다. 꿈 속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신다 —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대답한다 —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여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종으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들으신다 —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므로 기뻐하여."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노니 —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들도 더하신다 — 부귀와 영광, 장수도 조건부로. 솔로몬이 깨어난다 — "꿈이더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푼다. 장면이 바뀐다. 두 여인이 왕 앞에 선다. 같은 집에서 아이를 낳은 두 여인. 한 아이는 밤에 죽었고, 한 아이는 살아 있다. 두 여인이 각자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 주장한다. 왕이 말한다 — 칼을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받은 이 여인에게 받은 저 여인에게 주라. 한 여인이 부르짖는다 — 청컨대 살아 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죽이지 마옵소서. 다른 여인은 말한다 —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솔로몬이 말한다 — 살아 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인에게 주라. 이 여인이 그의 어머니니라. 마지막 화면 —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재판함을 듣는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화면에 한 줄이 뜬다 —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재판함을 봄이더라."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P01 한나래:** "좋은 작은 아이라 — 권력의 정점에서 온 자기 낮춤"
- **P02 이진우:** "lev shome'a / mishpat — 듣는 마음으로 여는 재판"
- **P04 최현국:** "기브온에서 받고 예루살렘에서 증명하다 — 지혜의 출처와 첫 현장"
- **P05 김미영:** "칼이 어미를 드러내다 — 포기가 증거가 된 재판"
- **P07 오지혜:** "구한 것 하나, 더하신 것은 그 이상 — 여호와와 더하심"
- **P11 나경아:** "lev shome'a —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 **부제 제안:** "기브온의 꿈에서 여호와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시매 솔로몬이 '좋은 작은 아이라'(3:7) 하며 레브 쇼메아(듣는 마음)를 구하고, 여호와가 구한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귀·영광·장수를 더하시며, 두 어미의 아이 재판에서 칼이 진짜 어미를 드러내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두려워하는 — 지혜의 출처와 첫 증거가 이어지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lev_shome'a·bamah·elef_olot·chalom·na'ar_qaton·hokhmah·binah·tov_vara·cherev·rachamim·mishpat 등 11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lev shome'a·mishpat 액자 + 3절 이중 평가 구조 + 구함의 비대칭 + 칼의 역할 전환 + 기브온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3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하며"를 '솔로몬이 아직 미숙했다'거나 '용인된 죄'라는 해석으로 단지 않고, 역접 없이 나열된 본문의 사실로만 보존. 9~11장 복선이라는 독법도 배경으로만 두고 단정하지 않음.
- 3:9 "레브 쇼메아"를 '진정한 지혜는 들음'이라는 적용 명령으로 끝지 않고, 솔로몬이 구한 어휘와 여호와가 허락하신 것의 비대칭이라는 형태 관찰로만 둠.
- 3:5 "무엇을 줄까 구하라"를 기도 응답 원리로 단정하지 않고, 꿈 신탁의 통로와 먼저 묻고 허락하시는 발화 순서라는 사실로만 보존.
- 3:26 "진짜 어미"의 포기를 '모성이 진짜 사랑'이라는 교훈으로 단지 않고, rachamim 어휘와 "죽이지 말라"는 발화가 판결의 열쇠가 된다는 본문 내 사건 순서로만 기록.
- 3:28 "하나님의 지혜"를 신학 명제로 확장하지 않고, "그의 속에 있어 재판함을 봄이더라"는 이스라엘 무리의 반응 발화로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3장은 이집트 혼인과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하며"(3:3)라는 이중 평가로 출발해, 기브온 산당 일천 번제와 꿈 신탁에서 여호와가 "무엇을 줄까 구하라"(3:5) 하시매 솔로몬이 "좋은 작은 아이라"(3:7) 하며 레브 쇼메아(듣는 마음)를 구하고 여호와가 지혜·충명·부귀·영광을 더하시며, 깨어난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두 어미의 아이 재판에서 칼이 진짜 어미를 드러내어 "이스라엘 무리가 왕이 재판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재판함을 봄이더라"(3:28)로 닫히는, 지혜의 출처와 첫 증거가 이어지는 장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 아직 짓는 중인 성벽.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를 맞아들인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한다 — 본문은 판단 없이 두 사실을 나란히 적는다. 기브온, 큰 산당. 일천 번제를 드린 뒤 꿈이 온다. 여호와가 먼저 묻는다 — "무엇을 줄꼬 구하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고하며 "좋은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듣는 마음을 구한다 —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달라.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구한 것 레브 쇼메아와 구하지 않은 것들, 부귀와 영광을 더하신다. 솔로몬이 깨어난다 — 꿈이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언약궐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두 여인이 왕 앞에 선다. 한 집에서 아이를 낳은 두 어미, 산 아이를 두고 다툰다. 왕이 말한다 — 칼로 나누라. 한 어미가 부르짖는다 — 죽이지 마옵소서, 살아 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판결한다 — 이 여인이 어머니니라. 마지막 장면,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재판을 듣고 두려워한다 —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봄이더라.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 무대(예루살렘·기브온·예루살렘) 왕복, 일천 번제·칼·두려움의 소품 곡선, 개인 신탁에서 공적 증거로 이어지는 소재 흐름, lev shome'a와 mishpat의 액자.
2 첫 느낌·분위기	3절의 이중 평가 복잡함, 꿈 신탁의 고요한 청과 응답, 7절 자기 낮춤의 긴장, 재판 장면의 날카로움, 28절 '듣고 두려워함'의 닫힘.
3 시작과 끝	이집트 혼인·미완의 성(1절)으로 열려 하나님의 지혜·이스라엘 경외(28절)로 닫힘. 미완에서 경외로. 구함에서 허락으로, 허락에서 공인으로.
4 등장인물·사상	솔로몬·여호와·두 어미·이스라엘 무리. 중심 사상: 레브 쇼메아. 구한 것과 더하신 것의 비대칭. 칼의 역설적 전환.
5 장면 컷	이중 평가(1~3) / 기브온 번제(4) / 꿈 신탁(5~15) / 두 어미 재판(16~27) / 이스라엘 반응(28)의 5컷.
6 의문·발견·정보	lev shome'a·mishpat 액자, 3절 이중 평가 구조, 구함의 비대칭, 칼의 역할 전환, 기브온·이집트 혼인·산당 배경, 교차 참조 7개.
7 동영상	이집트 혼인 → 기브온 번제 → 꿈 신탁 "무엇을 줄꼬" → 레브 쇼메아 구함 → 허락 → 깨어남 → 언약궐 앞 번제 → 두 어미 재판 → 칼 → 진짜 어미 "죽이지 말라" → 이스라엘 두려워함.
8 초별 제목·부제	"lev shome'a —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9 기도·내면	무엇을 줘도 다 받을 수 있는 국면에서, 다른 이를 위한 경청을 구했는지 — 구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사랑하되 산당에서'라는 이중 평가의 씨:** 3장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받는 빛나는 장면이지만, 1~3절은 그 시작이 탁월함과 미완의 공존이라는 사실을 역접 없이 적는다. 이집트 혼인(1절)과 산당 제사(3절)가 나란히 있다. 본문은 이를 정죄하지 않고 사실로만 기록한다. 그러나 권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씨들이 9~11장에서 솔로몬의 변질로 자라난다 — 이방 여인들이 마음을 돌리고, 산당이 허락되고, 우상 신전이 세워진다. 3장의 지혜 허락과 1~3절의 씨앗이 같은 장 안에 공존한다 — 권의 긴장이 시작부터 심어진다.
- 결 2 — 레브 쇼메아와 미쉬파트의 거울:** 9절에서 솔로몬은 lishmo'a mishpat(재판하기 위해 들음)를 구한다. 그리고 28절에서 vayyishme'u... et hammishpat(이스라엘이 재판을 들었다)로 장이 닫힌다. 왕이 구한 '듣는 마음'으로 재판함이 '백성이 듣는 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울 구조다. 솔로몬이 구한 것과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작동하는 형태가 같은 두 어근으로 연결된다. 본문은 이 연결을 설명하지 않고 배치만 한다.
- 결 3 — 칼이 어미를 드리낸다:** 두 어미 재판에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한다. 표면은 판결이지만, 결과는 판결이 아니다 — 진짜 어미의 반응이 왕의 판단 근거가 된다. 칼이 나누는 도구에서 드리내는 도구로 전환된

다. "죽이지 말라"는 포기가 소유보다 진한 사랑을 드러낸다(rachamim, 26절). 그리고 28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재판함을 봄이더라" 반응하면서, 지혜가 왕 안에 있었음이 사건으로 확인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3:3 ↔ 왕상 11:4·6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남 — 3절 "사랑하되 산당에서"의 복선)
- 왕상 3:9 ↔ 창 2:17·3:5 (tov vara 선악 — 레브 쇼메아가 구하는 분별의 대상)
- 왕상 3:6 ↔ 삼하 7:12~15 (다윗 언약 — 솔로몬이 기도에서 상기시키는 다윗을 향한 은혜)
- 왕상 3:1 ↔ 왕상 11:1~3 (이집트 공주와 이방 여인들 — 3장의 혼인이 11장 변질의 시작점)
- 왕상 3:15 ↔ 왕상 8:1·65 (언약궤·번제·화목제 — 성전 낙성 제의와 같은 형태)
- 왕상 3:12 ↔ 왕상 4:29~34 (솔로몬의 지혜 범위 — 3장의 허락이 4장에서 잠언·노래·동식물 지식으로 확장)
- 왕상 3:26 ↔ 창 43:30 (rachamim — 요셉이 베냐민을 볼 때 같은 어근. 깊은 품의 정)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3:1~3에서 시작한다 — 탁월함과 미완이 공존하는 출발. 내 안에 어떤 이중 평가가 역접 없이 나란히 있는지 듣는다.
- **멈춤 1:** 3:7에서 멈춘다 — "좋은 작은 아이라." 권력과 책임이 가장 클 때 온 자기 낮춤의 발화. 내가 가장 많이 가진 국면에서 내 자기 인식이 어디 있는지.
- **멈춤 2:** 3:9에서 멈춘다 — 무엇이든 줄 수 있다는 분 앞에서 구한 것이 '다른 이를 위한 경청'. 내가 구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 **끝:** 3:26~27에서 멈춘다 — "죽이지 말라"는 포기가 어미를 드러낸다. 사랑이 포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국면을 손에 쥔다.

F · 자족성 점검

- [x] 이중 평가(1~3)·기브온 번제(4)·꿈 신탁(5~15)·두 어미 재판(16~27)·이스라엘 반응(28)의 다섯 컷 완결
- [x] lev shome'a와 mishpat의 액자(9절↔28절) 및 rachamim(26절) 분포
- [x] 3절 이중 평가와 9~11장 복선의 구조적 연결
- [x] 구함의 비대칭(지혜 하나 → 지혜·부귀·영광·장수 더하심)
- [x] 칼의 역할 전환과 진짜 어미의 포기가 판결 열쇠가 되는 역설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18:39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book-telos)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공고(1~2장), 지혜·성전 건축(3~10장), 솔로몬의 변질(11장), 분열(12장), 북왕국 엘리야 시대(17~22장)로 이어진다. 이 장은 그 흐름의 두 번째 국면, 솔로몬의 즉위·공고(1~4장) 안에서 '지혜 허락'이라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나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은 솔로몬 시대 전체의 황금 국면이 시작되는 매듭이며, 동시에 1~3절의 이중 평가 — 여호와 사랑과 이집트 혼인·산당 제사의 공존 — 가 9~11장 변질의 씨를 심는 국면이기도 하다. '듣는 마음'(lev shome'a)이 분별의 도구인데, 그 마음이 없어질 때 우상이 들어오는 역설적 구

조가 권 전체를 관통한다. destination(여호와만 하나님이심)으로 향하는 길에서, 3장은 지혜의 출처가 여호와 임을 확립하면서도 그 지혜가 흔들릴 복선을 함께 심어 두는 이중 구조를 갖는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집트 혼인이라는 인간 동맹(3:1)과 산당 제사(3:3)의 이중 평가에서 기브온 꿈 신탁의 '듣는 마음' 허락(3:9·12)으로 / '작은 아이'의 자기 낮춤(3:7)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3:28)라는 이스라엘의 공인으로 — 지혜의 출처가 확립되고 두 어미 재판이 그 첫 증거가 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지혜의 출처를 왕 안에서 찾지 않고 여호와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립하는 운동이다. 솔로몬이 구하고(9절)→여호와가 허락하시고(12절)→재판이 이루어지고(27절)→이스라엘이 공인한다(28절). 그 공인의 어휘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나 이 벡터는 한 장에서 닫히지 않는다 — 4장에서 지혜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 지혜가 9~11장에서 흔들리는 방향이 권 전체의 호가 된다. 3장의 빛나는 허락이 동시에 권의 긴장이 시작되는 국면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지혜로운 왕의 두 장면이다 — 기브온 꿈 신탁과 두 어미 재판.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지혜의 출처가 왕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3장에서 솔로몬이 탁월한 이유는 그가 본래 영리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레브 쇼메아를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28절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라고 명시한다. 이 출처의 명시가 권 전체에 의미를 갖는다 — 지혜의 출처를 떠날 때 우상이 들어오는 방향이 9~11장이기 때문이다. 둘째, '듣는 마음'의 구함이 방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9절) 다른 이를 위해 청정하는 마음을 구한다. 그리고 그 구함이 칼 앞에서 포기로 자기를 드러내는 어미의 rachamim(26절)과 같은 방향이다 —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 셋째, 이중 평가의 공존이다. 3절은 역접 없이 사랑과 산당 제사를 나란히 적는다. 이 공존을 본문은 닫지 않는다. 그 열림이 독자에게 하나의 물음을 남긴다 — 탁월함과 미완이 공존하는 출발을 본문은 정죄 없이 기록한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이든 줄 수 있다는 분 앞에서 무엇을 구하는가 — 그 구함이 자기에게로 향하는지 다른 이를 향하는지. 그리고 권력과 책임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에 "좋은 작은 아이라"는 자기 인식이 오는가, 아니면 숫자를 헤아리는 마음이 오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관찰에서 오는 물음이다. 본문은 솔로몬에게 구함을 명령하지 않았다 — 여호와가 먼저 물었고 솔로몬이 대답했다. 그 대답 안에 자기 낮춤("작은 아이")과 방향의 전환(자기를 위한 구함이 아닌 백성을 위한 청정)이 있었고, 여호와가 그것을 기뻐하셨다. 재판 장면에서 진짜 어미는 소유를 포기함으로 써 드러났다 — 죽이지 말라는 말이 사랑을 증명했다. 두 장면이 같은 결을 향한다: 나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구하고 결정할 때, 지혜와 사랑이 드러난다. 이 관찰을 들고 독자가 서 있는 자기 국면을 보는 것 — 그 거리가 3장이 남기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기브온에서 허락받은 '듣는 마음'이 두 어미의 재판에서 첫 증거가 됐다 — 4장에서 솔로몬의 신하 목록과 잠언 삼천, 노래 천다섯, 동식물 지식으로 그 지혜의 범위가 사방으로 퍼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ev shome'a* — 듣는 마음.

미해결 질문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기브온의 꿈 속에서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시는 그 음성 곁으로, 그리고 "좋은 작은 아이라" 하며 자기를 낮춘 왕 옆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 왕이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분 앞에서 듣는 마음 하나를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함이 작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무언가를 구할 때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나를 위한 셈인지 아니면 다른 이를 위한 경청인지를 — 그 물음을 들고 머물렀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이 권 흐름의 어디에 있는지,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요? 수면 아래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4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3장은 **이집트 혼인이라는 인간 동맹에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신적 허락으로** 움직여요. 시작은 이집트 공주(1절), 끝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28절). 그런데 그 사이에 3절의 이중 평가가 있어요 — "사랑하되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한 절이 3장 전체를 미완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표시해요. 권 전체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이 드러남'이에요. 3장은 그 호에서 출발의 이중 평가, 즉 탁월함과 씨앗 같은 미완이 공존하는 국면이에요. 솔로몬의 가장 빛나는 순간(꿈 신탁·재판)이 동시에 9~11장 변질의 씨를 품고 있는 역설이 수면 아래에 있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9절의 *lev shome'a* — 듣는 마음. 히브리어 *lev*는 심장이예요. 생각·의지·감정의 중심이 귀 기울이는 상태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식이나 영리함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심장이예요. 그리고 28절의 *vayyishme'u* —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같은 어근이에요. 왕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왕의 재판을 듣게 되는 거울 구조. 형태 관찰만요. 그리고 3절의 *bamah* — 산당. 이 한 단어가 9~11장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3절의 씨가 거기서 자라요. 복선 관찰.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지혜로운 왕의 두 장면이에요 — 꿈 신탁과 재판.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여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 이 장은 그 답을 명시해요. 솔로몬이 스스로 영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28절). 그리고 그 지혜의 출처는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여호와가 허락하셨다는 사건 순서예요. 지혜의 출처가 분명할 때 재판이 서고, 이스라엘이 경외해요. 수면 아래에서는 지혜가 왕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사건 형태로 적혀요 — 드리프트 없이.

P01 한나래: 긴장이예요. 솔로몬은 "좋은 작은 아이라"(7절) 했는데, 이 발화가 3장에서만 나와요. 4장으로 가면 솔로몬의 신하 목록과 지혜의 범위가 넓게 펼쳐지고, 신하가 몇 명인지, 하루 양식이 얼마인지 큰 숫자가 나와요. '작은 아이'라는 자기 인식과 큰 숫자의 왕국이 나란히 3·4장에 걸쳐 있어요. 그 긴장이 끝까지 유지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숫자가 자기 인식을 덮는지 — 미해결로 두고 싶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이집트 혼인(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28절)로, 기브온의 꿈에서 예루살렘의 재판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이 지혜의 이동이 단지 한 장의 이야기로 닫히지 않아요 — 4장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범위가 잠언 삼천, 노래 천다섯, 동식물 지식으로 확장돼요. 3장에서 허락받은 지혜가 4장에서 사방

으로 퍼지는 운동. 그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상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이 9~11장이예요. 지혜가 있는 국면과 없는 국면의 차이가 권 전체를 꿰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9절이 불씨예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구함의 방향이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백성을 향해요. 무엇을 줘도 다 받을 수 있는 국면에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경청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구함이 칼 앞에서 포기하는 어미의 결정과 이어져요 —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라는 같은 결. 내가 무언가를 구할 때 그 구함이 어디를 향하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이집트 혼인이라는 인간 동맹과 산당 제사의 이중 평가로 출발해, 기브온 꿈 신탁에서 '듣는 마음'을 구함이 허락으로 이어지고, 두 어미 재판에서 칼이 진짜 어미를 드러내며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두려워하는 이 운동을 손에 쥐고, 열왕기상 3장을 여기서 닫습니다. 듣는 마음이 허락된 국면에서 4장의 지혜의 범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3:3 — "여호와를 사랑하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며"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역접 없이 나열된 이중 평가다. 본문은 '사랑'과 '산당 제사'를 한 절에 나란히 적고 지나간다. 이 공존이 출발의 조건인지, 복선인지, 용인된 것인지 본문은 판단하지 않는다. 미해결.

Q2. 3:5 — "무엇을 줄까 구하라"의 꿈 신탁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여호와가 먼저 묻고 솔로몬이 대답한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직후에 꿈이 온다 — 번제와 꿈의 연결을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인과인지, 병렬인지 미해결. 배경에 고대 근동 인큐베이션 관행이 있지만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Q3. 3:9 — 레브 쇼메아(lev shome'a)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듣는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구해진다. 창 2~3장의 선악(tov vara) 어근과 닿는다 — 그 연결을 단정하지 않고 형태 관찰로만 둔다. 레브 쇼메아가 hokhmah(지혜)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본문은 구분하지 않는다. 미해결.

Q4. 3:11~14 — 구한 것 하나를 허락하시며 구하지 않은 것들을 더하시는 '더하심'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고 여호와와는 지혜·총명·부귀·영광을 주시고 장수는 조건부로 약속하신다. 이 비대칭의 원리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 여호와가 "기뻐하여"(10절)라고만 적는다. 기쁨이 더하심의 이유인지, 더하심이 기쁨의 표현인지 열려 있다.

Q5. 3:24~27 — '칼로 나누라'가 판결이 아니라 드러냄 도구가 되는 역전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이 나누라 명했을 때 진짜 어미의 반응("죽이지 말라")이 판결의 열쇠가 된다. 칼이 분리 도구에서 드러냄 도구로 전환된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드러냄을 의도했는지 본문은 침묵한다. 미해결.

Q6. 3:28 ↔ 3:1~3 — 하나님의 지혜로 닫히는 28절이, 이집트 혼인과 산당 제사로 열리는 1~3절의 미완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 시작의 미완(이집트 혼인·산당 제사)과 끝의 경외(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거리를 본문은 채우지 않는다. 3장 안에서는 지혜가 빛나지만, 1~3절의 씨가 9~11장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는 다음 권 흐름으로 이월.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열왕기상 4장

1KI-004 · 역사서 · 히브리어

신하 명단과 열두 지방관이 한 달씩 일용 양식을 대고(4:7),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4:20)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4:25) 살고 —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바닷가의 모래같이"(4:29) 넓어 "천하 만민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4:34) 오는, 성전을 짓기 직전 왕국이 질서·풍요·지혜의 정점에 이른 한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궁정의 신하 명단(1~6절) → 전국의 열두 지방관(7~19절) → 식탁과 마구간과 서재(20~34절)로 세 겹로 넓어졌다 좁혀짐.
- 무대의 합류: 안으로 들어오는 양식(지방관이 한 달씩 왕실을 채움 7절)과 밖으로 나가는 지혜(만민이 들으려 옴 34절)가 한 장에서 만남.
- 소품: 일용 양식의 하루치 목록(가루·소·양·사슴·살진 새 22~23절), 보리와 꿀(28절), 마병·마구간(26절), 잠언 삼천·노래 천다섯(32절).
- 소품의 곡선: 양식·마필 같은 물질의 소품으로 열려 잠언·노래라는 말의 소품으로 닫힘 — 몸을 먹이는 데서 마음을 먹이는 데로.
- 소재의 기술기: 앞쪽은 행정의 어휘(명단·지방관·한 달·일용 양식), 한가운데는 풍요·평안의 어휘(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다·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끝은 지혜의 어휘(넓은 마음·잠언·노래·만민).
- 형식 소재: '바닷가의 모래같이' 직유의 두 번 반복(20·29절), 온 이스라엘(1절)에서 천하 만민(34절)으로 넓어지는 수미, 지방관(nitsavim)의 거듭됨(5·7·19·2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3장의 재판 긴장이 풀린 평온 — 다투거나 빼앗는 장면 없이 모두가 먹고 즐거워함(20절).
- 흘러넘치는 풍요 — 하루치 양식의 목록(22~23절)에 모자람의 그림자가 없고, 그 풍요가 백성의 평안한 식탁으로 흘러내림(25절).
- 행정·풍요의 빛 위에 한 겹 더 얹힌 지혜의 빛(29절), 가장 환한 절정은 만민이 들으려 온 34절.
- 마른 명단·목록의 어조(1~19·22~28절)와 충만한 서술의 어조(20~21·29~34절)가 번갈아 옴.
- 식탁의 질감(22~23절)이 보리·꿀(28절)을 지나 초목과 짐승의 목록(33절)으로 변짐.
- 지혜의 주어가 하나님 —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29절). 받은 것으로 그려진 지혜.
- 한 점 다른 결: 풍요의 그림 한가운데 끼어든 마병 만 이천(26절)을 본문은 평가 없이 목록으로만 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 34절: "천하 만민 곧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더라."
- 한 나라의 왕위(1절)로 열려 천하 만민의 들으러 옴(34절)으로 닫힘 — 안에서 밖으로 범위가 넓어짐.
- 흐름의 역전: 처음엔 양식이 왕에게로 흘러들고(7절), 끝엔 지혜가 왕에게서 흘러나감(34절). 받는 데서 나누는 데로.
- 20절(백성이 모래같이 많음) ↔ 29절(마음이 모래같이 넓음) — 같은 직유가 다스림 받는 무리와 다스리는 자의 그릇을 끼고 마주 봄.
- 한 궁정의 명단(2~6절) ↔ 만민을 향한 서재(34절) — 좁은 행정에서 넓은 강연장으로 무대가 확장.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명단을 세우고 다스리고 지혜를 받아 나누는 중심), 궁정 신하들(제사장·서기관·사관·군대 장관·궁내대신·노동 감독 2~6절), 열두 지방관(각기 한 달씩 양식을 댐 8~19절), 모래같이 많은 백성(먹고 마시며 즐거워함 20절), 천하 만민(지혜를 들으러 옴 34절), 무대 뒤의 하나님(지혜를 '주신' 분 29절).
- 중심 사상: 받은 지혜의 성취 — 3장에서 구한 '듣는 마음'(왕상 3:9)이 4장에서 모래같이 넓은 지혜로, 더해 주신 부귀·평안이 풍요와 평화로 펼쳐짐.
- 두 흐름의 합류: 안으로 들어오는 조직된 풍요(지방관 7~19·27~28절)와 밖으로 나가는 열린 지혜(만민 29~34절).
- 다스림의 결: 강에서 애굽 지경까지의 통치(21절)가 억압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의 평안'(25절)으로 드러나고, 힘이 아니라 지혜가 통치의 중심에 놓임(만민이 들으러 옴 34절).
- 한 점의 긴장: 마병 만 이천(26절)이 신 17:16의 명과 견주어지나, 본문은 4장 안에서 평가하지 않고 풍요의 한 항목으로만 둬.
- 지혜의 폭: chokmah·tevunah(지혜·총명 29절)가 동방·애굽의 지혜보다 뛰어나고(30절), 잠언 삼천·노래 천 다섯(32절)에 초목과 짐승까지 논하는 만물의 폭(33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신하 명단 —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됨(1), 제사장·서기관·사관·군대 장관·궁내대신·노동 감독의 호명(2~6).
- 컷 2 (7~19절): 열두 지방관 — 온 나라에 열두 관원, 각기 한 달씩 양식을 댐(7), 에브라임에서 길르앗까지 구역과 관원의 열거(8~19).
- 컷 3 (20~28절): 풍요와 평안 — 모래같이 많은 백성의 즐거움(20), 강에서 애굽 지경까지의 통치·조공(21·24), 하루치 일용 양식(22~23),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25), 마병·마구간·보리·꿀(26~28).
- 컷 4 (29~34절): 지혜와 명성 — 모래같이 넓은 지혜(29), 동방·애굽보다 뛰어나(30~31), 잠언 삼천·노래 천 다섯(32), 초목과 짐승을 논함(33), 만민이 들으러 옴(34).
- 컷 3 내부의 다섯 층: 백성(20)→통치 범위(21)→식탁(22~23)→평안(24~25)→군마(26~28). 풍요가 사람·땅·식탁·집·군대로 펼쳐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itsavim(נִצָּבִים) — 지방관·세워진 자들(4·7·19·27절). 양식을 대는 관원.

- *sofer*(סֹפֵר) — 서기관(3절). / *mazkir*(מִזְכִּיר) — 사관·기록 맡은 자(3절).
- *lechem/kilkel*(לֶחֶם/כֵּלְכֵל) — 양식·먹이다(7·22·27절). 왕실을 채우는 동작.
- *kor*(כֹּר) — 코르(22절). 곡식 가루의 부피 단위.
- *kachol asher al-sefat hayam*(כָּחוֹל) — 바닷가의 모래같이(20·29절). 백성의 수와 솔로몬의 마음을 묶는 직유.
- *betach*(בְּטַח) — 평안히(25절). / *gefen·teenah*(גֶּפֶן תְּנָנָה) — 포도나무·무화과나무(25절).
- *chokmah·tevunah·rochav lev*(חֹכְמָה תְּבוּנָה רֹחַב לֵב) — 지혜·충명·넓은 마음(29절).
- *mashal·shir*(מָשָׁל שִׁיר) — 잠언·노래(32·33절). 삼천과 천다섯.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명단·목록(1~19·22~28) + 풍요·지혜의 서술(20~21·29~34) — 행정 문서와 충만한 서술이 번갈아 오는 정점 구조.
- 모래 직유의 두 번(*kachol*): 백성의 수(20)와 솔로몬의 마음(29)을 같은 자로 재는 대구 — 형태 관찰.
- 수미상관(*inclusio*): "온 이스라엘의 왕"(1절)에서 "천하 만민"(34절)으로 — 범위가 한 나라에서 열방으로 넓어지는 봉투.
- 풍요의 흘러내림: 왕의 식탁(22~23) → 백성의 평안(25) → 만민의 모여듦(34) —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 지혜의 비교 우위(*surpassing*): 동방·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남(30절)을 비교로 드러냄 — 비교형 칭송.
- 마병의 평가 보류(26절): 풍요 목록 안에 마필 만 이천을 평가 없이 끼워 둠 — 신 17:16과의 긴장을 풀지 않은 병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지방관(*nitsavim*) 행정 기획 — 왕실·군대의 양식을 지역이 돌아가며 대던 조세·부역 제도. 4:7-19의 배경.
- 왕실 양식의 규모 표기 — 코르 단위와 소·양·사슴·살진 새의 목록으로 궁정 규모를 가늠하던 기록 관습. 4:22-23의 배경.
- 마병·병거와 마구간 — 마필 수로 강대국의 군사력을 표시하던 위세 표지. 4:26-28의 배경.
- 지혜 문학의 국제 비교 — 애굽·메소포타미아의 자연 목록·잠언·노래 전통을 견주어 왕의 지혜를 가늠하던 관습. 4:29-31·33의 배경.
-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관용구 — 전쟁 없는 안정과 풍요를 가리키던 정형 표현. 4:25의 배경.
- 독법·전례: 후대 유대 전통은 4:29의 넓은 마음을 3:9의 '듣는 마음' 간구의 응답으로, 4:31의 애단·헤만을 시편 표제의 현인과 견주어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4:29 ↔ 왕상 3:9-12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받음 — 4장 지혜 성취의 직접 배경)
- 왕상 4:20 ↔ 창 22:17; 32:12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 백성 수의 약속 성취의 결)
- 왕상 4:26 ↔ 신 17:16-17 (왕은 말·아내·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 마병과 닿는 긴장)
- 왕상 4:25 ↔ 미 4:4; 스 3:10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 평안 관용구의 예언적 메아리)
- 왕상 4장 ↔ 왕상 5:1-12 (성전 건축 준비 — 4장의 풍요·지혜가 향하는 다음 국면)
- 왕상 4:34 ↔ 왕상 10:1-13 (스바 여왕이 지혜를 들으러 옴 — '만민이 들으러 옴'의 절정)

- 왕상 4장 ↔ 왕상 11:1-11 (이방 아내와 우상 — 정점 뒤의 기울기, 권의 전환점)
- 왕상 4:32 ↔ 잠 1:1; 전 1:1; 아 1:1 (솔로몬의 잠언·전도·노래 — '잠언 삼천·노래 천다섯'과 닿는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궁정의 안뜰. 자막 —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신하들이 한 사람씩 호명되며 줄지어 선다 — 제사장, 서기관 둘, 사관, 군대 장관, 궁내대신, 노동 감독. 화면이 넓어져 전국 지도가 펼쳐진다. 열두 관원이 각 지역에 세워진다 — 에브라임 산지에, 마하나임에, 납달리에, 잇사갈에. 자막 —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왕의 양식을 대더라. 지도가 다시 좁혀져 왕의 식탁으로 온다. 자막 —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하루치 양식이 상에 오른다 — 고운 가루와 굵은 가루, 살진 소와 초장의 소, 양과 사슴과 살진 새. 화면이 들판으로 나간다 —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자막 —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았더라. 마구간이 비친다 — 말과 병거, 마병 만 이천. 보리와 쭉이 정한 곳으로 실려 온다. 화면이 한 번 더 옮겨 가 서재 같은 곳으로 온다. 자막 —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가 잠언을 짓는다 — 삼천 가지. 노래를 짓는다 — 천다섯 편.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논한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 동방에서, 애굽에서, 여러 왕이 보낸 사람들이. 마지막 자막 — 천하 만민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바닷가의 모래같이 — 백성도 지혜도 넘치던 한 정점**"
- 초벌 부제: "신하 명단과 열두 지방관이 한 달씩 왕의 식탁을 채우고(4:7),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4:20)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4:25) 살고 —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같이'(4:29) 넓어 잠언 삼천·노래 천다섯(4:32)을 짓고 '천하 만민이 들으려'(4:34) 오는, 성전을 짓기 직전 왕국이 질서·풍요·지혜의 정점에 이른 한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itsavim·kor·kachol·betach·chokmah·tevunah·rochav_lev·mashal·shir 등 17+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모래 직유 2회 + 풍요의 흘러내림 + 지혜의 비교 우위 + ANE 지방관·코르·마필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4:20·25의 풍요와 평안을 '솔로몬의 의로움의 보상'이라는 도덕 인과로 일반화하지 않고, 모래 직유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관용구의 형태 관찰로만 둬. 창 22장 약속과의 결도 직접 배경으로만 보존.
- 4:26의 마병 만 이천을 '타락의 증거'나 '영광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신 17:16과의 긴장을 풀지 않은 채 풍요 목록의 한 항목으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 4:29의 모래같이 넓은 지혜를 '솔로몬 우상화'로 끌고 가지 않고, 주어가 하나님인 '주신 것'(29절)과 동방·애굽과의 비교형 칭송의 사실로만 기록.
- 4:33의 초목·짐승을 논하는 지혜를 '자연신학'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의 폭과 잠언·노래의 수효라는 어휘 분포로만 둠. 잠 1:1·전 1:1과의 결도 어휘권으로만 보존.
- 4:34의 '만민이 들으려 옴'을 '선교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1절의 '온 이스라엘'에서 넓어진 수미의 범위 확장으로만 둠. 왕상 10장 스바 여왕과의 결도 이월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신하들의 명단(4:1-6)을 세우고 온 나라에 열두 지방관을 두어 각기 한 달씩 왕실의 일용 양식을 대게 하며(4:7-19),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4:20)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4:25) 살던 —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바닷가의 모래같이"(4:29) 넓어 잠언 삼천·노래 천다섯(4:32)을 짓고 초목과 짐승을 논하여 "천하 만민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4:34) 오는, 성전을 짓기 직전 왕국이 질서·풍요·지혜의 정점에 멈춰 선 한 장이다.

한 문단: 궁정의 안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신하들이 한 사람씩 호명되며 줄지어 선다 —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대 장관, 궁내대신, 노동 감독. 화면이 전국 지도로 넓어진다. 열두 관원이 각 지역에 세워져 일 년에 한 달씩 왕의 식탁을 채운다. 카메라가 식탁으로 내려온다 — 하루치로 고운 가루와 굵은 가루, 살진 소와 양과 사슴과 살진 새.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 화면이 들판으로 나간다 — 강에서 애굽 지경까지 전쟁이 없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마구간이 잠깐 비친다 — 말과 병거, 마병 만 이천, 보리와 꿀. 화면이 한 서재로 옮겨 간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다. 그가 잠언을 짓고, 노래를 짓고,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논한다.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 동방에서, 애굽에서, 여러 나라에서. 천하 만민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 왔다. 한낮이 가장 환하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궁정 명단·전국 지도·식탁과 서재를 오가는 세 무대, 일용 양식·마필·잠언과 노래의 소품 — 행정에서 풍요로 다시 지혜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긴장이 풀린 평온. 흘러넘치는 풍요. 행정·풍요 위에 한 겹 더 얹힌 지혜의 빛(29절). 마른 목록과 충만한 서술의 번갈음.
3 시작과 끝	온 이스라엘의 왕위(1절)로 열려 천하 만민의 들으려 옴(34절)으로 닫힘. 들어오는 양식(7절)과 나가는 지혜(34절)의 역전.
4 등장인물·사상	지혜의 주어가 하나님(29절). 두 흐름의 합류(조직된 풍요·열린 지혜). 다스림이 평안으로 드러남(25절). 마병의 평가 보류(26절).
5 장면 컷	신하 명단(1~6)/열두 지방관(7~19)/풍요와 평안(20~28)/지혜와 명성(29~34) 4컷. 컷 3은 백성·땅·식탁·집·군마의 다섯 층.

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정보	kachol 모래 직유 2회(20·29절). 풍요의 흘러넘침. 동방·애굽보다 뛰어난 비교 우위. 마필과 신 17:16의 긴장.
7 동영상	궁정 명단 → 전국의 양식 → 흘러넘치는 식탁 → 자기 나무 아래의 평안 → 모래같이 넓은 지혜 → 만민의 모여듦.
8 초별 제목·부제	"바닷가의 모래같이 — 백성도 지혜도 넘치던 한 정점"
9 기도·내면	충만의 출처를 잊지 않는 충만 — 받은 것이 결으로 흘러내리는지를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구한 한 가지가 흘러넘친 정점의 장:** 3장에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듣는 마음'(왕상 3:9) 하나를 구했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겠다고 하셨다. 4장은 그 약속이 눈앞의 풍경으로 펼쳐진 모습이다. 모래같이 많은 백성, 흘러넘치는 식탁, 모래같이 넓은 지혜, 그리고 만민의 모여듦. 구한 것 하나와 더해 주신 것들이 한 장에 같이 온다. 권의 흐름에서 4장은 1~4장 '즉위·지혜' 국면의 닫는 장이며, 그 정점이 곧장 성전(5장)으로 넘어간다. 본문은 솔로몬의 영광을 펼쳐 두되, 그 영광의 손이 누구인지를 한 절(29절)로 짚어 둔다.
- 결 2 — 위가 넘쳐 아래로 흘러내린 풍요:** 4장의 풍요는 왕실에 머물지 않는다. 왕의 식탁이 하루치로 넘치고(22~23절), 동시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백성이 자기 나무 아래 평안히 산다(25절). 위가 충만하니 아래도 넉넉하다. 그리고 그 풍요가 마침내 이스라엘 밖으로까지 번져, 만민이 솔로몬에게 온다(34절). 본문은 이 흘러내림을 '복지의 모범'으로 칭송하지 않는다. 양식의 목록과 포도나무·무화과나무 아래의 그림으로, 흘러넘치는 방향을 보여 줄 뿐이다. 그 무평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 결 3 — 가장 환한 한낮 안의 한 점:** 4장은 거의 다 빛이다. 질서, 풍요, 평안, 지혜, 명성. 그런데 26절의 마병만 이천이 한 점 다른 결로 끼어든다. 신명기 17장은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본문은 그 마필을 평가 없이 풍요의 목록에 끼워 둘 뿐이다. 영광의 표지인지 11장 기율기의 씨앗인지, 4장은 말하지 않는다. 가장 충만한 정점 한가운데 담담히 놓인 그 한 점이, 권을 더 읽게 만드는 매듭이다. 본문은 정점을 미화하지도 균열을 예고하지도 않은 채, 한낮의 한 항목으로 두고 넘어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3:9-12 —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받음 — 4장 지혜 성취의 직접 배경.
- 창 22:17; 32:12 —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 4:20 백성 수의 약속과 닿는 결.
- 신 17:16-17 — 왕은 말·아내·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 4:26 마병과 닿는 긴장.
- 미 4:4; 숙 3:10 —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 4:25 평안 관용구의 예언적 메아리.
- 왕상 5:1-12 — 성전 건축 준비 — 4장의 풍요·지혜가 향하는 다음 국면.
- 왕상 10:1-13 — 스바 여왕이 지혜를 들으러 옴 — 4:34 '만민이 들으러 옴'의 절정.
- 왕상 11:1-11 — 이방 아내와 우상 — 정점 뒤의 기율기, 권의 전환점.
- 잠 1:1; 전 1:1; 아 1:1 — 솔로몬의 잠언·전도·노래 — 4:32과 닿는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4:7의 조직된 양식에서 시작한다 — 열두 구역이 한 달씩 왕의 식탁을 채우는, 안으로 들어오는 풍요의 결을 듣는다.

- **멈춤 1:** 4:20에서 멈춘다 —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함. 모자람의 그림자가 없는 한낮의 충만을 준다.
- **멈춤 2:** 4:29에서 멈춘다 — 지혜의 주어가 하나님. 받은 것이 흘러넘치되 그 손을 기억하는 거리를 본다.
- **끝:** 4:34에서 멈춘다 — 만민이 들으려 옴. 내게 흘러든 것이 내 곁으로 다시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신하 명단(1~6)·열두 지방관(7~19)·풍요와 평안(20~28)·지혜와 명성(29~34)의 네 컷 완결
- [x] kachol 모래 직유의 두 번 분포(20·29)와 수·마음의 대구
- [x] 지혜의 주어가 하나님(29절)과 3:9 '듣는 마음'과의 다리
- [x] 풍요의 흘러내림(22~23·25·34절)과 마병의 긴장 보류(26절)
- [x] '온 이스라엘'에서 '천하 만민'으로의 수미(1·34절)와 성전(5장)으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렐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지혜(1~4장), 성전 건축·봉헌(5~8장), 변질·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금송아지·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이는데, 4장은 첫 국면 '즉위·지혜'의 닫는 봉우리 — 신하의 질서와 흘러넘치는 풍요와 모래같이 넓은 지혜가 한낮의 정점을 이루어, 곧 세워질 성전(5~8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집'(삼하 7:16)이 솔로몬의 시대에 풍요와 지혜의 정점으로 가시화되고, 그 정점이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받침이 된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려는 — 의 첫 결이 여기서는 풍요와 지혜조차 '주신 것'(4:29)으로 적힌 한 절에 담긴다. 권의 heart, 성전 봉헌 기도의 너그름(8장)과 지친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19장)으로 흐르는 그 결이, 4장에서는 구한 한 가지(듣는 마음)에 부귀와 평안과 명성까지 더해 흘러보내시는 손길로 먼저 그림자를 드리운다. 4장의 한낮이 18장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는 물음으로 가는 긴 호의 첫 봉우리이며, 그 정점이 가장 환할 때조차 충만의 손을 한 절로 기억해 둔 것이 이 장의 좌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들어오는 양식(4:7-19)에서 나가는 지혜(4:29-34)로 / 구한 '듣는 마음'(왕상 3:9)에서 받은 '모래같이 넓은 마음'(4:29)으로 / 한 궁정의 명단(4:1-6)에서 만민이 모여드는 서재(4:34)로 — 받은 것이 흘러넘치되 그 충만의 손을 기억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즉위와 지혜의 간구(1~3장)를 풍요·평안·명성의 정점으로 펼쳐 두고, 그 정점을 성전이라는 다음 무대로 흘러보내는 운동이다. 조직된 양식이 왕궁으로 모이고(7~19절), 그 충만이 백성의 식탁으로 흘러내리고(20~25절), 마침내 지혜가 만민에게로 나간다(29~34절). 그러나 4장이 끝나도 성전은 아직 서지 않았다 — 그 건축은 5장에서야 시작된다. 4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영광·성전에서 분열·우상으로, 그래도 여호와만 하나님으로'라는 호로 끌고 가는 첫 봉우리이며, 그 호 전체가 한낮의 풍요(4장)를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18:39)이라는 물음으로 흘러보내는 쪽으로 움직인다. 가장 환한 정점에 담담히 놓인 한 점(마병 26절)이 그 기울기의 첫 그림자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명단과 한 식탁과 한 서재다 — 누가 어느 직분이고, 하루에 무엇이 얼마나 들고, 솔로몬이 무엇을 논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받은 것이 흘러넘치는 풍경이다. 지해도 풍요로 명성도, 본문은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적는다 — 능동의 주어가 하나님이다(29절). 가장 충만한 한낮인데, 그 충만의 손이 위에 있다는 걸 본문이 한 절로 짊어 둔다. 둘째, 충만의 출처를 기억하는 충만이다. 사람은 흘러든 것을 제 것으로 셈하는데, 본문은 솔로몬의 영광을 펼치면서도 그 출처를 지운 자랑으로 적지 않는다. 권의 destination, 18장의 '여호와만 하나님'이 여기서 한 절의 기억으로 미리 작동한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정점을 미화하지 않는다. 마병 만 이천(26절)을 풍요의 그림에서 지우지 않은 채, 신 17:16과의 긴장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둔다. 가장 환한 장면 안에 한 점 그림자를 담담히 남겨, 영광인지 균열인지 독자가 권을 더 읽으며 보게 둔다. 본문은 그 한 점의 무게를 설명하지 않고 목록으로만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가장 충만한 한낮에 그 충만의 손을 기억하는가 — 흘러든 것을 내 공로로 셈하는가, 받은 것으로 아는가. 그리고 내게 넘친 것이 내 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가 — 위가 넉넉할 때 아래의 식탁까지 닿게 하는가, 받은 지혜가 다시 누군가에게로 나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풍요를 명하거나 겸손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자기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밥을 먹는 한낮을 보여 주고, 구한 한 가지 위에 부귀와 평안과 명성까지 더해 받은 한 사람을 보여 주고, 그 지혜조차 '주신 것'이었다고 한 절로 짊어 둔 정직을 보여 준다. 가장 환한 정점 안에 한 점 그림자를 지우지 않은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흘러든 것을 제 것으로 셈하지 않는 일, 위가 넘칠 때 아래로 흘러보내는 일, 그리고 충만의 한낮에 그 충만의 손을 잊지 않는 일. 한 번의 받은 지혜가 만민에게로 흘러나가고, 그 풍요가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며, 그 한낮이 끝내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물음으로 흘러가는 권이 이제 열린다 — 그 첫 봉우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풍요와 지혜는 정점에 올랐고 한낮은 가장 환했다 —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5:1), 백향목과 돌을 준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achol asher al-sefat hayam* — 바닷가의 모래같이.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궁정의 안뜰. 자막 —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카메라가 한 사람씩 신하를 비추니다 — 제사장 아사리아, 서기관 엘리호렙과 아히야, 사관 여호사밧, 군대 장관 브나야, 그리고 궁내대신과 노동 감독까지. 명단이 한 줄씩 화면에 새겨집니다. 화면이 위로 틀려 전국 지도가 됩니다. 열두 점이 지도 위에 켜 집니다 — 에브라임 산지, 마하나임, 납달리, 잇사갈, 베냐민, 길르앗. 각 점에서 양식이 솟아 왕궁으로 흘러갑니다. 자막 — 각기 일 년에 한 달씩 끊임없이 대더라. 카메라가 내려와 왕의 식탁에 멈춥니다. 하루치 양식이 펼쳐집니다 — 고운 가루 삼십 코르, 굵은 가루 육십 코르, 삶진 소 열, 초장의 소 스물, 양 백,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삶진 새들. 식탁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식탁을 떠나 들판으로 나갑니다 — 강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 애굽 지경까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람

들이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한 노인이 무화과 잎 그늘에서 졸고, 아이들이 포도 덩굴 사이로 뛰어다닙니다. 자막 —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았더라. 화면이 마구간으로 잠깐 들립니다 — 말과 병거가 줄지어 서 있고, 마병이 정렬해 있습니다. 보리와 쭉이 수레에 실려 정한 곳으로 옮겨 집니다. 화면이 마지막으로 옮겨 가 한 서재 같은 곳에 닿습니다. 솔로몬이 앉아 있습니다. 자막 —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더라. 그가 입을 엽니다 — 잠언이 흘러나옵니다, 삼천 가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천다섯 편.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리키고, 담에 난 우슬초를 가리키고,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를 차례로 말합니다.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며 문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 옷차림이 다 다릅니다, 동방에서, 애굽에서, 여러 나라에서. 그들이 솔로몬 앞에 앉아 귀를 기울입니다. 마지막 자막 — 천하 만민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한 궁정의 명단에서 열려, 전국의 양식과 흘러넘치는 식탁과 자기 나무 아래의 평안을 지나, 모래같이 넓은 지혜와 잠언·노래로 — 만민이 들으러 오는 정점으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 모두가 배부른 한낮"

P02 이진우: "들어오는 양식, 나가는 지혜 — 한 정점의 두 흐름"

P04 최현국: "명단에서 만민까지 — 한 궁정이 온 세상으로 열린 장"

P05 김미영: "하루치 식탁과 잠언 삼천 — 몸도 마음도 먹인 풍요"

P07 오지혜: "위가 넘쳐 아래로 흘러내린 풍요 — 정점의 풍경"

P11 나경아: "*kachol · chokmah* — 백성도 지혜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부제 제안: "신하 명단과 열두 지방관이 한 달씩 왕의 식탁을 채우고(4:7),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4:20)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4:25) 살고 —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바닷가의 모래같이'(4:29) 넓어 잠언 삼천·노래 천다섯(4:32)을 짓고 '천하 만민이 들으러'(4:34) 오는, 성전을 짓기 직전 왕국이 질서·풍요·지혜의 정점에 이른 한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 자기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밥을 먹는 한낮의 풍경 곁으로, 그리고 구한 한 가지(듣는 마음) 위에 부귀와 평안과 명성까지 더해 받아 그것이 흘러넘치던 한 사람 옆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 나라가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위가 충만하니 아래도 넉넉하고, 자기 나무 아래 앉은 사람들이 다 배불렀습니다. 그 풍요가 누구의 손에서 왔는지, 지혜조차 받은 것이었다는 한 절(4:29)을 듣고 머물겠습니다. 제게 흘러든 것을 제 것으로 셈한 적은 없는지, 받은 것이 제 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충만한 한낮에 그 충만의 출처를 잊지 않을 수 있는지를 비워 둔 채 들고 가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4장은 들어오는 양식에서 나가는 지혜로 움직여요. 명단과 지방관(1~19절)이 조직된 풍요를 왕궁으로 모으고, 마지막 단락(29~34절)이 그 지혜를 만민에게로 내보내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예요. 그리고 권의 도착점이 한 물음과 한 답으로 찍혀 있어요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 4장은 1~4장 '즉위·지혜' 국면의 닫는 장이에요 — 지혜의 간구(3장)가 풍요와 명성의 정점(4장)으로 펼쳐지고, 곧장 성전(5장)으로 넘어가요. 왕국이 가장 환한 한낮에 멈춰 선 한 장이에요. 그리고 이 정점이 11장의 기울기와 한 권 안에 같이 있다는 게, 권 전체가 '영광에서 분열로'라는 호의 첫 봉우리를 여기 세워 둔 셈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4:29의 *rochav lev* — '넓은 마음', 바닷가 모래같이 넓은 마음이에요. 3:9에서 솔로몬이 구한 건 *lev shomea*,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기를 구한 자에게 넓은 마음이 주어진 — 그 응답이 이 장의 경첩이에요. 그리고 20:29절의 *kachol*, '바닷가의 모래같이'가 두 번 돌아요. 백성의 수와 왕의 마음을 같은 자로 재요. **죽자에게 주신 약속(창 22:17)이 한 왕의 시대에 눈앞의 풍경으로 펼쳐진 듯한 그 결이**, 권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물음으로 가는 긴 호의 첫 봉우리 같아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명단과 한 식탁과 한 서재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받은 것이 흘러넘치는 풍경 같아요. 지혜도 풍요도 명성도, 본문은 솔로몬이 이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적어요 — 주어가 하나님이에요(29절). 가장 충만한 한낮인데, 그 충만의 손이 위에 있다는 걸 본문이 한 절로 짚어 줘요. **충만의 출처를 잊지 않는 충만** — 그게 수면 아래의 결 같아요. 그리고 그 결이 흔들릴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11장이 한참 뒤에 보여 줘요. 4장은 아직 그 손을 기억하는 정점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4장은 거의 다 빛이에요 — 풍요, 평안, 지혜, 명성. 그런데 26절의 마병 만 이천이 한 점 다른 결로 끼어들어요. 신명기 17장은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어요. 본문은 그 마필을 평가 없이 풍요의 목록에 끼워 둘 뿐이에요. **가장 환한 정점 안에 이미 한 점 그림자가 담담히 놓여 있는** — 그 긴장을 4장은 풀지 않아요. 영광인지 균열의 씨앗인지 말하지 않고, 그냥 한낮의 한 항목으로 뒹요. 권을 더 읽어야 그 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두는 거예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한 궁정의 명단에서 만민이 모여드는 서재로** 넓어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4장이 끝나면 곧장 5장에서 성전 준비가 시작돼요 — 두로 왕 히람과의 협약, 백향목과 돌. 4장의 질서·풍요·지혜가 성전이라는 다음 무대를 위한 받침인 셈이에요. 모래같이 넓은 지혜를 받은 자가, 그 정점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순서예요. 한낮의 풍요가 곧 성전으로 향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25절이 불씨 같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그림이요. 왕 한 사람의 풍요가 아니라 온 백성의 평범한 식탁이 영광의 그림으로 적혀요. 영광이 거대한 건축이 아니라 한 집 한 집의 배부른 저녁으로 드러나요. 제가 풍요를 가질 때 그 풍요가 제 둘레의 식탁까지 닿게 하는지, 위가 넘치면 아래로 흘러보낼 줄 아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들어오는 양식에서 나가는 지혜로, 듣기를 구한 마음에서 모래같이 넓은 마음으로, **한 궁정의 명단에서 만민이 모여드는 서재로** — 받은 것이 흘러넘치되 그 충만의 손을 기억하는 그 운동을 손

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열왕기상 4장 — 이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4:20-29 — '바닷가의 모래같이'가 백성의 수와 솔로몬의 마음에 두 번 붙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같은 직유가 다스림 받는 무리의 크기와 다스리는 자의 그릇에 나란히 붙는다. 창 22:17의 족장 약속과 닿으나, 본문은 이 연결을 풀어 설명하지 않고 두 직유의 대구로만 둔다. 약속의 성취로 읽을지 정점의 묘사로 읽을지 닫지 않고 보존.

Q2. 4:26 — 마병 만 이천을 풍요 목록 안에 평가 없이 둔 것을, 신 17:16과 견주어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신 17:16)이 있는데, 본문은 마필을 영광인지 균열인지 말하지 않고 풍요의 한 항목으로만 적는다. 11장의 기율기를 미리 비추는 한 점인지, 강대국의 위세일 뿐인지 4장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3. 4:29 — 지혜의 주어가 하나님('주시고')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지혜도 총명도 넓은 마음도 능동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솔로몬의 공로로 닫지 않고, '주신 것'이 흘러넘치는 사실로만 보존한다. 3:9의 간구와 4장의 응답이 한 결인지도 독법 배경으로만 둔다.

Q4. 4:33 — 솔로몬의 지혜를 재판이나 통치가 아니라 초목·짐승을 논하는 데서 보여 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만물을 논한다. 정치적 지혜가 아니라 자연을 읽어 내는 폭이다. 이 지혜의 결이 무엇을 향하는지를 자연신학으로 닫지 않고 잠언·노래의 수효와 만물의 폭이라는 사실로만 보존.

Q5. 4:25 — 왕국의 영광을 거대한 건축이 아니라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의 평안으로 그린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백성이 자기 나무 아래 평안히 산다. 영광이 한 사람의 식탁이 아니라 온 백성의 평범한 저녁으로 적힌다. 이 그림을 '복지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풍요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 형식 관찰로만 보존. 미 4:4·속 3:10과의 메아리도 이월.

Q6. 4:1-34 — '온 이스라엘'에서 '천하 만민'으로 넓어진 수미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한 나라의 왕위(1절)에서 열방이 들으려 옴(34절)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이 확장을 '선교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받은 지혜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간 수미의 사실로 보존. 왕상 10장 스바 여왕과 11장 기율기를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5장

1K1-005 · 역사서 · 히브리어

성전을 향해 움직이는 백향목과 돌 — 히람의 기쁨과 삼만 명 부역의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먼저 사절을 보내고 솔로몬이 건축의 이유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평온을 주셨으므로"(5:4)로 밝히며, 히람이 "오늘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5:7) 응답하고, 온 이스라엘에서 삼만 명 부역을 세워 레바논으로 보내는 — 성전 건축이 실제 인력과 목재와 돌로 시작되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예루살렘 왕궁의 외교(1~6절)에서 레바논 산과 바다의 운반(8~10절)으로, 다시 온 이스라엘과 채석장의 노역(13~18절)으로 넓어짐 — 두 나라에 걸친 작업장이 통째로 무대. 컷 1~4막.
- 무대의 향방: 모든 무대가 한 단어를 향함 —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5절). 집은 아직 한 돌도 세워지지 않고, 그 집을 향한 손들만 움직임.
- 소품: 두 통의 전갈(히람의 사절 1절·솔로몬의 답신 5~6절), 백향목·잣나무(erez/berosh 6·8·10절), 바다 위의 뗏목(9절), 양식(밀·기름 11절), 크고 귀한 다듬은 돌(17절).
- 소재의 흐름: 앞쪽은 전쟁과 평화의 대비(아버지의 전쟁·아들의 태평), 가운데는 두 나라의 주고받음(사절·답신·나무·양식·언약·찬양), 끝은 노역의 어휘(역군·짐꾼·돌·감독).
- 형식 소재: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의 거의 동일한 거듭됨(3절 못 지음·5절 지으려 함),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인용(5절), '집(bayit)'과 '이름(shem)'의 반복.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12절의 말씀 — 자기 능력이 아니라 받은 평화로 여는 답신(4절).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7절)로 화답하는 이방 왕의 따뜻함.
-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주고받음 — 히람은 나무를 베어 주고(8절) 솔로몬은 양식을 보냄(11절). 자선이 아니라 화평의 나눔.
- 영광과 노역이 같이 있는 화면 — 외교·찬양의 환한 빛 뒤에 역군 삼만·짐꾼 칠만·돌 뜨는 자 팔만의 굵은 등(13~16절).
- 두 문체의 섞임: 1~12절은 외교의 산문(교섭·대화), 13~18절은 명세의 어조(숫자·목록). 우의의 따뜻한 산문 다음에 노역의 차가운 숫자.
- 감각: 바다 위에 뗏목으로 떠 내려오는 백향목(9절)의 가벼움과, 채석장에서 깎이는 큰 돌(17절)의 무게가 한 집을 위해 만남.
- 온도: 두 왕이 모두 여호와를 입에 올림(솔로몬 4절·히람 7절). 평화가 먼저 있고 그 위에 건축이 시작되는 차분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그의 신하들을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 한 왕의 즉위 소식과 사람 사이의 우의(산문)로 열려, 두 나라 장인이 함께 재목과 돌을 갖춘 준비로 닫힘 — 마음에서 자재로.
- 흐름의 굳음: 히람이 다윗을 사랑한 마음(1절) → 다듬어진 재목과 돌이라는 실물(18절). 보이지 않는 우의가 만질 수 있는 자재로.
- 3절(못 지음) ↔ 5절(지으려 함) — 같은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를 끼고 아버지의 미완과 아들의 착수가 마주 봄.
- 한 통의 전갈(1절) ↔ 두 나라 장인의 합동 작업장(18절) — 종이 한 장에서 온 산·바다·채석장을 움직이는 일로 무대가 변집.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답신·양식·역군의 중심 목소리), 히람(다윗을 사랑해 먼저 사절을 보내고 나무를 베어 주며 언약을 맺는 동역의 왕), 다윗(이미 죽었으나 못 이룬 건축과 받은 약속이 출발점), 무수한 일꾼(역군 삼만·짐꾼 칠만·돌 뜨는 자 팔만·감독 삼천삼백·그발 장인), 무대 뒤의 여호와(두 왕의 입에 거둬 오르곤 '그 이름을 위한 집'으로 모든 준비의 까닭).
- 중심 사상: 평화 위의 건축 — 다윗의 미완은 전쟁(3절), 솔로몬의 착수는 태평(4절). 안으로 전쟁이 그친 안식, 밖으로 이방 두로와의 화친(12절)의 두 겹 평화 위에 집이 올라감.
- 약속의 이행: 솔로몬이 삼하 7장의 약속을 인용함 —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5절). 5장의 준비가 권을 거슬러 7장의 언약에 닿음.
- 받은 것 위의 시작: 솔로몬이 건축의 명분을 자기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 평화에 둬(4~5절) — 영광의 출발점에서 자기를 앞세우지 않음.
- 이방의 자재와 손: 레바논 백향목·жат나무(6·8·10절)와 두로·그발의 장인(18절)이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에 깊이 들어옴 — 본문은 문제 삼지 않고 둬.
- 부역의 무게: 온 이스라엘에서 거둔 역군(13절)이 삼상 8장의 '왕이 백성을 동원하리라'와 닿는 결 — 본문은 숫자로만 두고 풀지 않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절): 사절과 답신 — 히람의 사절(1), 아버지의 전쟁·자기의 태평(2~4), '이름을 위한 집'과 백향목·жат나무의 청(5~6).
- 컷 2 (7~9절): 청과 화답 —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7), 나무를 베어 바다로 뗏목 삼아 보냄과 양식의 청(8~9).
- 컷 3 (10~12절): 언약과 양식 — 히람이 나무를 줌(10), 솔로몬이 밀·기름을 줌(11),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고 두 왕이 언약을 맺음(12).
- 컷 4 (13~18절): 역군과 자재 — 역군 삼만 한 달 교대(13~14), 짐꾼 칠만·돌 뜨는 자 팔만·감독 삼천삼백(15~16), 다듬은 기초석과 합동 작업(17~18).

- 컷 흐름의 경첩: 사람(1~9)→약속(10~12)→손(13~18). 마음에서 약속으로, 약속에서 노동으로 좁혀지되, 끝에서도 집은 아직 안 세워짐 — 5장 전체가 '세우기 전'에 머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Hiram*(הִירָם) — 히람, 두로 왕(1절). / *Tsor*(צֹר) — 두로(1절).
- *menuchah*(מְנוּחָה) — 안식·태평(4절). / *satan*(שָׂטָן) — 대적(4절). "대적이 없다."
- *bayit leshem YHWH*(בַּיִת לְשֵׁם יְהוָה) —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3·5절). 건축의 목적을 꿰는 어구.
- *erez*(עֵרֶז) — 백향목(6·8·10절). / *berosh*(בְּרוֹשׁ) — 잣나무(6·8·10절). 레바논의 두 재목.
- *berit*(בְּרִית) — 언약(12절). 두 왕 사이의 화친. / *shalom*(שָׁלוֹם) — 평화(12절).
- *mas*(מַס) — 역군·부역(13·14절). / *chotsev*(חֹצֵב) — 돌 뜨는 자(15절). / *Gevalim*(גְּבָלִים) — 그발 사람, 석공(1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사람(1~9절)·약속(10~12절)·손(13~18절) — 마음에서 약속으로, 약속에서 노동으로 좁혀지는 준비의 삼단 구조.
-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의 거듭됨: 3절(못 지음)과 5절(지으려 함)에 거의 같은 어구가 와 미완과 착수를 한 줄로 꿰음 — 형태 관찰.
- 전쟁/평화 대비: 같은 '사방(saviv)'이 3절은 전쟁으로, 4절은 태평으로 옴 — 아버지의 미완과 아들의 착수를 가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받은 평화.
- 백향목·잣나무 짝지음(cedar-cypress pairing): 6·8·10절에 두 나무가 거듭 짝지어 옴 — 이방의 산에서 오는 두 재목.
- 이방의 들어옴(foreign material/labor): 여호와와 집에 레바논의 나무와 두로·그발의 장인이 깊이 들어옴 — 본문은 풀지 않고 둠.
- 찬양 송영(hiram blessing): 이방 왕 히람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7절)로 화답 — 외교 문서 안의 송영.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페니키아(두로·시돈)의 목재 교역 — 레바논 백향목·잣나무를 베어 바다로 뗏목 삼아 운반. 5:6·5:9의 배경.
- 왕 대 왕의 조약과 선물 교환 — 새 왕의 즉위에 사절을 보내 우의를 잇고 양식·자재를 맞교환. 5:1·5:11·5:12의 배경.
- 왕실 신전 건축의 강제 노역(corvée) — 백성에게 부역(mas)을 부과해 벌목·채석·운반에 동원. 5:13-16의 배경.
- 다듬은 큰 돌(ashlar)의 기초 — 채석장에서 미리 정밀히 깎아 현장에서 소리 없이 쌓던 석공 기법. 5:17-18의 배경.
- 그발(비블로스)의 석공·목공 — 페니키아 항구 도시 숙련 장인의 명성. 5:18의 배경.
- 독법·전례: 후대 유대 전통은 5:4의 '대적도 재앙도 없다'를 평화의 절정이자 건축의 전제로, 5:13의 역군을 삼상 8장의 노역 예고와 견주어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5:3-5 ↔ 삼하 7:1-13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 5장이 직접 인용하는 약속)
- 왕상 5:4 ↔ 삼하 7:11 (여호와가 다윗에게 모든 대적을 떠나 평안을 주심 — '사방의 태평'의 배경)
- 왕상 5장 ↔ 왕상 4:24-25 (사방의 평화로 각기 포도나무·무화과나무 아래 평안 — 5장 평화의 직전 상황)
- 왕상 5장 ↔ 대하 2:1-18 (성전 건축 준비와 히람과의 교섭 병행 — 수지·세부가 갈리는 같은 사건)
- 왕상 5:5 ↔ 신 12:5,11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한 곳 — '이름을 위한 집'의 신학 배경)
- 왕상 5:17-18 ↔ 출 20:25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라 — 다듬은 기초석과의 긴장, 석공 관찰)
- 왕상 5:13-16 ↔ 삼상 8:11-17 (왕이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리라는 예고 — 역군의 결과 닿는 배경)
- 왕상 5장 ↔ 왕상 9:15-22; 12:4 (성전·궁궐의 역군 명세와, 무거운 멍에 호소가 분열로 이어지는 결)
- 왕상 5장 ↔ 마 12:42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 성전을 향한 호의 신약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의 왕궁. 자막 —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듣고 사절을 보내니, 그가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솔로몬이 답신을 적어 보낸다 — 내 부친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재앙도 없으니, 내가 그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 하나이다. 화면이 청으로 넘어간다 — 명하여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내 종이 당신의 종과 함께하리이다. 두로의 왕궁으로 화면이 옮겨 간다. 히람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히람이 답한다 —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에 관한 당신의 청을 다 이루리이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고 내가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리이다, 당신은 내 집을 위한 양식을 주소서. 화면이 바다로 바뀐다. 레바논의 거대한 나무가 베여 해안으로 내려오고, 뗏목으로 엮여 물 위에 떠 흐른다. 솔로몬이 해마다 밀과 기름을 히람의 집에 보낸다. 자막 —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두 사람이 평화하여 언약을 맺으니라. 화면이 온 이스라엘로 넓어진다. 역군 삼만이 한 달씩 교대로 레바논에 오르내리고, 산에서는 짐꾼 칠만과 돌 뜨는 자 팔만이 일하며, 감독 삼천삼백이 그 위에 선다. 채석장에서 크고 귀한 돌이 떠지고 다듬어져 기초석으로 옮겨진다. 마지막 화면 —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함께 재목과 돌을 다듬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갖춘다. 집은 아직 보이지 않고, 그 집을 향한 손들만 가득하다. 페이드 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백향목이 바다로 떠 내려오다 — 평화 위에 모으는 한 집"
- 초벌 부제: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였으나(5:3)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5:4) — 두로 왕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5:7) 화답해 두 왕이 언약을 맺고(5:12)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뗏목으로 떠 내려오며, 역군과 짐꾼과 돌 뜨는 자가 한 집을 향해 모이는 — 성전이 세워지기 전, 손과 나무와 돌이 먼저 정돈되는 건축의 준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Hiram·menuchah·bayit_leshem_YHWH·erez·berosh·berit·mas·Gevalim 등 18+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전쟁/평화 대비 + '이름을 위한 집' 거둬짐 + 백향목·жат나무 짝지음 + ANE 목재 교역·조약·부역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5:3-5의 약속 인용을 '순종의 모범'이라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삼하 7장 약속의 이행이라는 사건 사실과 bayit·shem 어휘의 거둬짐으로만 둬. 받은 평화를 건축의 조건으로 말한 솔로몬의 어조도 발화의 결론만 보존.
- 5:7의 히람의 송영("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을 '이방 선교의 예표'로 끌고 가지 않고, 외교 답신 안에 놓인 찬양의 형태 관찰로만 둬. 두 왕의 입에 오른 여호와도 발화 분포로만.
- 5:6·8·10의 이방 나무·장인의 들어움을 신학 명제로 단정하지 않고, 여호와와 집에 레바논 백향목과 두로·그발의 손이 들어온다는 사실의 병치로만 기록.
- 5:13-16의 부역을 '영광스러운 봉사'로도 '왕정의 착취'로도 단정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서 거둔 역군의 숫자와 삼상 8장·왕상 12장과의 결을 미해결 질문으로 보류. 권을 더 읽으며 이월.
- 5:17-18의 다듬은 돌과 출 20:25의 명령 사이를 '모순' 또는 '폐지'로 단정하지 않고, 제단의 돌과 성전 기초석의 다른 적용을 비워 둔 채 형태 관찰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5장은 두로 왕 히람의 사절을 받은 솔로몬이 "내 부친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 한다"(5:3-5)는 답신과 함께 백향목·жат나무를 청하고 — 히람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5:7) 화답해 두 왕이 언약을 맺으며 (5:12), 레바논의 재목이 바다에 뗏목으로 떠 내려오고(5:9) 온 이스라엘의 역군 삼만과 산의 십오만 손과 그발의 장인이 크고 귀한 다듬은 돌로 기초를 갖추는(5:13-18), 집이 한 돌도 세워지기 전 손과 나무와 돌이 먼저 한 결로 정돈되는 성전 건축의 준비다.

한 문단: 예루살렘의 왕궁. 두로의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듣고 사절을 보낸다 — 평생 다윗을 사랑한 까닭이다. 솔로몬이 답신을 적는다.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했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재앙도 없으니,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달라 청한다. 히람이 듣고 크게 기뻐한다 —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도다. 백향목과 жат나무를 베어 바다로 뗏목 삼아 보내고, 그 대가로 양식을 구한다. 솔로몬이 해마다 밀과 기름을 보낸다.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대로 두 왕이 평화하여 언약을 맺는다. 화면이 넓어진다. 역군 삼만이 한 달씩 교대로 레바논에 오르내리고, 산에는 짐꾼 칠만과 돌 뜨는 자 팔

만이 일하며, 감독 삼천삼백이 그 위에 선다. 채석장에서 크고 귀한 돌이 떠지고 다듬어진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함께 재목과 돌을 갖춘다. 집은 아직 보이지 않고, 그 집을 향한 손들만 가득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왕궁의 외교에서 레바논 산·바다로, 다시 채석장의 노역으로 넓어지는 세 무대. 전갈·백향목·잣나무·뿔뿔·양식·다듬은 돌의 소품 — 모두 '이름을 위한 집'(5절)을 향한.
2 첫 느낌·분위기	받은 평화로 여는 단정한 답신(4절).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두 나라의 주고받음. 영광과 노역이 같이 있는 화면. 따뜻한 외교 산문과 차가운 노역 숫자.
3 시작과 끝	즉위 소식과 우의(1절)로 열려 두 나라 장인의 합동 준비(18절)로 닫힘 — 마음에서 자재로. 못 지음(3절)과 지으려 함(5절)이 같은 '이름'을 끼고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받은 평화를 건축의 조건으로 둔 솔로몬. 여호와를 찬양하며 동역하는 이방 왕 히람. 삼하 7장 약속의 이행(5절). 이방의 나무·장인의 들어옴. 부역의 무게(13절).
5 장면 컷	사절과 답신(1~6)/청과 화답(7~9)/언약과 양식(10~12)/역군과 자재(13~18) 4컷. 사람→약속→손으로 좁혀지되 끝에서도 집은 안 세워짐.
6 의문·발견·정보	전쟁/평화 대비. '이름을 위한 집'의 거둬짐. 백향목·잣나무 짝지움. 이방 자재·장인. 부역과 삼상 8장의 결. 다듬은 돌과 출 20:25.
7 동영상	한 통의 사절 → 받은 평화의 답신 → 이방 왕의 찬양과 언약 → 바다로 떠 내려오는 백향목 → 온 이스라엘의 노역 → 합동 작업장.
8 초벌 제목·부제	"백향목이 바다로 떠 내려오다 — 평화 위에 모으는 한 집"
9 기도·내면	큰 일의 첫 마디를 자랑 아닌 받음의 고백으로 — 그 결을 들고 머문다. 영광 아래 굽은 등을 숫자로만 지나치지 않는 눈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못 지은 아버지, 짓는 아들 — 한 약속의 이행:**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영광과 성전에서 시작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권이다. 5장은 그 영광의 절정인 성전 국면의 문턱이다. 그런데 이 건축은 솔로몬이 처음 꾸민 일이 아니다. 다윗이 짓고 싶어 했고(삼하 7장), 여호와께 도리어 다윗에게 영원한 집(왕조)을 약속하시며 성전 건축은 그 아들에게로 미뤄 두셨다. 솔로몬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인용한다 —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5절). 한 세대가 못 이룬 일을 다음 세대가 받은 것 위에서 잇는다. 본문은 이 계승을 '효'나 '순종의 모범'으로 칭송하지 않는다. 약속이 한 세대를 건너 이행되는 사건 사실로, bayit·shem 어휘의 거듭됨으로만 적는다.

2. **결 2 — 전쟁이 그친 땅에 올라가는 집 — 두 겹의 평화:** 다윗의 미완은 전쟁이었고(3절), 솔로몬의 착수는 태평이었다(4절). 같은 '사망'이 한 번은 전쟁으로, 한 번은 평화로 온다. 성전은 정복의 한복판이 아니라 안식 위에서 세워진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한 나라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 두로와의 화친으로 번져 언약이 된다(12절). 안으로 전쟁이 그친 안식, 밖으로 이방 왕과의 화평 — 두 겹의 평화가 토대다. 그런데 본문은 이 평화를 미화하지 않는다. 그 평화의 집이 동시에 온 이스라엘의 부역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을(13절) 같은 장에 나란히 둔다. 영광과 노역을 한 화면에 두고 판단을 미룬 그 무평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3. **결 3 — 세우기 전의 준비 — 마음에서 다듬은 돌로:**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기 전'에 머문다. 한 통의 사절(1절)에서 시작해 다듬은 기초석(18절)으로 끝나는데, 정작 집은 한 면도 세워지지 않는다 — 건축은 6장에서야 시작된다. 마음(우의)에서 약속(언약)으로, 약속에서 손(노역)으로 좁혀지는 이 한 장이 통째로 준비다. 히람이 다윗을 사랑한 보이지 않는 마음 한 조각이, 사절과 답신과 언약을 거쳐, 백향목과 다듬은 돌이라는 만질 수 있는 자재로 굳는다. 영광의 봉헌(8장)으로 가는 긴 호의 첫 매듭이, 화려한 벽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소리 없이 깎인 한 덩이 돌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삼하 7:1-13 —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 5:3-5가 직접 인용하는 약속.
- 삼하 7:11 — 여호와가 다윗에게 모든 대적을 떠나 평안을 주심 — 5:4 '사방의 태평'의 배경.
- 왕상 4:24-25 — 사방의 평화로 각기 포도나무·무화과나무 아래 평안 — 5장 평화의 직전 정황.
- 대하 2:1-18 — 성전 건축 준비와 히람과의 교섭 병행 — 수차·세부가 갈리는 같은 사건.
- 신 12:5,11 —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한 곳 — '이름을 위한 집'의 신학 배경.
- 출 20:25 —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라 — 5:17-18의 다듬은 기초석과의 긴장.
- 삼상 8:11-17 — 왕이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리라는 예고 — 5:13-16 역군의 결과 닿는 배경.
- 왕상 9:15-22; 12:4 — 성전·궁궐의 역군 명세와, 무거운 멍에 호소가 분열로 이어지는 결.
- 마 12:42 —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 성전을 향한 호의 신약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5:1의 한 통의 사절에서 시작한다 — 다윗을 사랑한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두 나라의 일을 여는지 듣는다.
- **멈춤 1:** 5:4에서 멈춘다 — 큰 일의 첫 마디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받은 평화로 여는 어조. 그 받음의 고백을 진다.
- **멈춤 2:** 5:13에서 멈춘다 — 평화의 영광 아래 거둔 거대한 부역. 영광과 노역이 같이 놓인 화면을 그대로 본다.
- **끝:** 5:18에서 멈춘다 — 집이 세워지기 전 소리 없이 다듬어진 한 덩이 돌. 보이지 않는 준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눈이 내게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사절과 답신(1~6)·청과 화답(7~9)·언약과 양식(10~12)·역군과 자재(13~18)의 네 컷 완결
- [x] 전쟁/평화의 대비(3·4절)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위한 집'의 거듭됨(3·5절)
- [x] 삼하 7장 약속의 인용(5절)과 두 나라의 언약(12절)
- [x] 백향목·잣나무의 운반(9절)과 거대한 부역(13~16절)
- [x] 다듬은 기초석(17~18절)과 출 20:25·삼상 8장·왕상 12장으로 열린 이월

G · 구축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렐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남북

분열과 금송아지(12장), 남북 왕들(13~16장), 엘리야의 갈멜과 세미한 소리(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이는데, 5장은 성전 건축 국면의 첫 발 — 평화 위에서 자재와 손을 모으는 준비의 국면이다. 권의 phases로 보면 '5~8 성전 건축·봉헌'의 문턱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신명기 12장이 약속한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실 한 곳'이 다윗의 약속(삼하 7장)을 거쳐 이제 손에 잡히는 자재로 준비된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 그 이름의 집이 여기서 처음 다듬어진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운이, 5장에서는 전쟁이 그친 안식을 먼저 주시고 그 위에 집을 준비시키시는 결로 그림자를 드리운다. 다만 5장의 영광 한가운데 놓인 부역(13절)이, 권 뒤편의 변질(11장)과 분열(12장)로 기우는 호의 첫 그늘이기도 하다 — 본문은 그 그늘을 5장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숫자로만 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통의 사절(5:1)에서 다듬은 기초석(5:18)으로 / 받은 평화의 고백(5:4)에서 모인 십오만의 손(5:15-16)으로 / 마음 한 조각(5:1)에서 거대한 작업장(5:18)으로 — 집이 세워지기 전, 한 세대가 받은 것 위에서 다음을 잇는 준비의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4장의 평화를 받아 6~8장의 성전과 봉헌으로 넘기는 다리다. 사람(우의 1~9절)에서 약속(언약 10~12절)으로, 약속에서 손(노역 13~18절)으로 운동이 좁혀지되, 5장이 끝나도 건축 자체는 시작되지 않는다 — 첫 돌은 6장에서야 놓인다. 5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평화에서 성전의 영광으로, 영광에서 변질과 분열로, 분열에서 예언자의 불로' 끌고 가는 긴 호의 첫 구간이며, 그 호 전체가 한 집의 준비(5장)를 거쳐 봉헌의 영광(8장)으로, 그리고 그 영광이 기울 때 '여호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18:39)로 흘러가는 쪽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외교와 한 노역이다 — 누가 사절을 보냈고,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주었고, 몇 명이 산에서 일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약속의 신실이다. 5장의 건축은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삼하 7장 약속의 이행이다. 다윗이 못 이룬 일을 여호와가 그 아들에게로 미뤄 두셨고, 이제 받은 평화 위에서 그 약속이 자재로 굳는다. 한 세대를 건너 신실이 이행되는 결이다. 둘째, 집의 본질이다. 이 집은 여호와를 가두는 처소가 아니라 그 '이름(shem)'이 머무는 곳이다(5절). 신명기 12장의 '이름을 둘 곳'이 여기서 손에 잡히고, 그 결이 8장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으로 이어진다. 사람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둘 곳을 사람의 손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운동이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이 영광을 미화하지 않는다. 평화와 찬양과 백향목의 빛 옆에 십오만의 굽은 등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적는다. 영광을 의심하지도, 부역을 정죄하지도 않은 채, 두 사실을 한 장에 나란히 둘 뿐이다. 그 무평가가, 권 뒤편의 분열을 향한 호의 첫 그늘을 정직하게 남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큰 일의 첫 마디를 무엇으로 여는가 — 내 능력의 자랑인가, 받은 것의 고백인가.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준비의 단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 내 세대에 다 끝나지 않을 일에도 다음 손에 다듬은 돌 하나를 건넨 마음이 있는가, 그 영광 아래 굽은 등을 숫자로만 지나치지 않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무엇을 지으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을 받은 평화 위에서 잇기로 한 한 사람을 보여 주고, 그 첫 마디를 자기 업적이 아니라 주신 태평으로 연 어조를

보여 주고, 집이 한 돌도 세워지기 전 손과 나무와 돌을 한 결로 모은 준비를 보여 준다. 그리고 그 영광 한가운데 거둔 부역의 무게를 미화 없이 같이 보여 준다. 받은 것 위에서 시작하는 일, 보이지 않는 준비를 끝까지 가버이여 여기지 않는 일, 한 세대에 다 끝나지 않을 집에도 다음 손에 건넨 한 덩이 돌을 다듬는 일. 약속이 한 세대를 건너 자재로 굳고, 그 자재가 평화 위에서 한 집을 향해 모이며, 그 집에 '여호와와 이름'이 머물기로 한 권이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한다 — 그 준비의 첫 매듭에 자기 손을 얹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손과 나무와 돌이 모였다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사 년에(6:1) 비로소 여호와와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준비된 자재가 한 집의 벽과 기둥으로 올라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yit leshem YHWH* —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의 왕궁. 자막 —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듣더라. 사절단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자막이 덧붙습니다. 솔로몬이 답신을 적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흐릅니다 —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 하나이다. 화면이 청으로 좁혀집니다 — 이제 명하여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내 종이 당신의 종과 함께할 것이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한 자가 우리 중에 없음을 당신이 아나이다. 화면이 두로의 왕궁으로 옮겨 갑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 지로다, 그가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도다. 히람이 답을 보냅니다 — 당신이 보낸 청을 내가 들었나니,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하여 당신의 원을 다 이루리이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집을 위한 양식을 주어 내 소원을 이루소서. 화면이 바다로 바뀝니다.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이 한 그루씩 쓰러지고, 산비탈을 따라 해안으로 끌려 내려옵니다. 바닷가에서 통나무들이 줄로 엮여 뗏목이 됩니다. 무거운 나무가 물 위에 떠서,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흐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밀 이만 고르와 맑은 기름 이십 고르를 해마다 보냅니다. 자막 —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평화하여 두 사람이 언약을 맺으니라. 화면이 온 이스라엘로 넓어집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내니 그 수가 삼만이라.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에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게 합니다. 산에는 짐을 지는 자가 칠만, 돌을 뜨는 자가 팔만, 그 위에 일을 감독하는 관리가 삼천삼백 명입니다. 채석장에서 크고 귀한 돌이 떠지고, 정과 도끼로 다듬어져, 성전의 기초석으로 옮겨집니다. 마지막 화면이 한 작업장으로 모입니다 —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함께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들을 갖춥니다. 집은 아직 한 면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집을 향한 손과 나무와 돌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한 통의 사절에서 열려, 받은 평화를 고백하는 답신과 이방 왕의 찬양과 두 나라의 언약을 지나, 바다로 떠 내려오는 백향목과 온 이스라엘의 노역으로 — 집이 세워지기 전 손과 자재가 한 결로 모이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백향목이 바다로 떠 내려오다 — 평화 위에 모으는 한 집"

P02 이진우: "못 지은 아버지, 짓는 아들 — 같은 이름을 위한 두 손"

P04 최현국: "사절 한 통이 산과 바다를 움직이다 — 세우기 전의 준비"

P05 김미영: "나무는 물 위에 뜨고 돌은 산에서 깎이고 — 한 집을 향한 자재"

P07 오지혜: "전쟁이 그친 땅에 올라가는 집 — 두 겹의 평화 위에서"

P11 나경아: "*bayit leshem YHWH · berit* — 이름을 위한 집과 두 왕의 언약"

부제 제안: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였으나(5:3)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5:4) — 두로 왕 히람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5:7) 화답해 두 왕이 언약을 맺고(5:12),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바다에 뗏목으로 떠 내려오며, 역군 삼만과 짐꾼 칠만과 돌 뜨는 자 팔만이 한 집을 향해 모이는 — 성전이 세워지기 전, 손과 나무와 돌이 먼저 정돈되는 건축의 준비"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을 받은 평화 위에서 잇기로 한 솔로몬 겹으로, 그리고 이방의 왕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무를 베어 보낸 히람 옆으로, 그 집을 위해 산과 바다와 채석장에서 손을 움직인 이름 없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 사람이 큰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받은 평화를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아버지가 못 한 일을 잇되 우쭐하지 않고, 주신 태평 위에서 첫 돌을 준비했습니다. 그 집이 아직 한 면도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손과 나무와 돌이 한 결로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일들의 첫 마디가 자랑이었는지 받음의 고백이었는지, 보이지 않는 준비의 단계를 제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아래 굽은 무수한 등을, 숫자로만 지나치지 않는 눈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5장은 한 통의 사절에서 다듬은 돌로 움직여요. 마음(우의 1~9절)에서 약속(언약 10~12절)으로, 약속에서 손(노역 13~18절)으로 좁혀져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예요. 권의 spine이 한 줄로 찍혀 있어요 —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 5장은 그 성전 국면의 문턱이에요. 아직 한 돌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8장 봉헌 기도의 영광을 향한 긴 호의 첫 자재가

여기서 다듬어져요. 4장의 평화가 5장의 준비로, 5장의 준비가 6~7장의 건축으로, 그게 8장의 봉헌으로 이어지는 그 줄의 첫 매듭이 이 채석장의 다듬은 돌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5:5의 *bayit leshem YHWH* — 여호와와 이름의 집. '이름(shem)'이 핵심이에요. 신명기 12장의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과 같은 어휘권이에요. **집이 여호와를 가두는 처소가 아니라 그 이름이 머무는 곳**이라는 결이, 8장 봉헌 기도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로 이어져요. 그리고 5:4의 *menuchah* — 안식·태평. 삼하 7장에서 여호와가 다윗에게 주신 평안과 같은 어휘예요. **전쟁이 그친 안식 위에서야 비로소 그 이름의 집이 올라간다는 결이** 이 장의 경첩이에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외교와 한 노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약속의 신실 같아요. 5장의 건축은 5장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짓고 싶어 했고(삼하 7장), 여호와와 그 아들에게로 미뤄 두셨고, 이제 그 아들이 받은 평화 위에서 그 약속을 잇고 있어요. **한 세대가 못 이룬 일을 다음 세대가 받은 것 위에서 이어 가는** — 그게 수면 아래의 운동 같아요. 그리고 그 집은 여호와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이름이 머무는 곳이에요. 사람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둘 곳을 사람의 손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결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5장은 평화와 영광이 가득해요 — 태평, 언약, 찬양, 백향목, 다듬은 돌. 그런데 그 영광의 한가운데 부역이 있어요(13절). 온 이스라엘에서 거둔 삼만의 역군, 산의 십오만 손. 영광스러운 집이 백성의 어깨 위에 올라가요. **평화의 영광과 노역의 무게가 한 장 안에서 부딪쳐요.** 그리고 권을 더 가면 그 명에 12장의 분열로 이어져요. 5장은 이 긴장을 풀지 않아요. 영광을 의심하지도, 노역을 정죄하지도 않고, 그냥 같은 화면에 뒹요. 그 무평가가 오히려 긴장을 또렷하게 남겨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마음 한 조각에서 거대한 작업장으로** 변지는 운동이에요. 히람이 다윗을 사랑한 그 마음(1절)이, 사절과 답신을 거쳐, 언약이 되고, 백향목이 되고, 십오만의 손이 돼요. 그리고 5장이 끝나도 집은 안 세워져요 — 건축 자체는 6장에서야 시작돼요. 5장의 준비는 그 건축을 받치는 셈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의 한 조각이, 다음 장의 벽과 기둥을 미리 결 지어 뒹요. 준비로 채운 자가 짓는 순서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9절의 뗏목이 불씨 같아요. 무거운 백향목이 혼자서는 옮겨질 수 없는데, 시돈의 뗏목꾼과 두로의 뗏사람과 솔로몬의 종이 함께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정한 곳으로 한 그루씩 흘려보내는 장면이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못 옮길 것을 여러 손이 물길 따라 옮겨요. 제가 혼자 짊어지려다 멈춘 일은 없는지, 한 집을 향해 다른 손과 결을 맞춰 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내 세대에 다 안 끝나도 다음 손에 다듬은 돌 하나를 건넬 마음이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 통의 사절에서 다듬은 돌로, 받은 평화에서 모인 손으로, 마음 한 조각에서 거대한 작업장으로 — 세워지기 전 먼저 정돈되는 준비, 한 세대가 받은 것 위에서 다음을 잇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그가 왕이 된 지 사 년에 여호와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5:3-5 — 다윗이 못 지은 까닭을 '전쟁'으로 두고 솔로몬이 짓는 까닭을 '태평'으로 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같은 '사방'이 한 번은 전쟁으로(3절), 한 번은 태평으로(4절) 온다. 아버지의 미완과 아들의 착수를 가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받은 평화다. 이 대비를 '세대 계승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삼하 7장 약속의 이행이라는 사건과 bayit·shem 어휘의 거듭됨으로만 보존.

Q2. 5:7 — 이방 두로의 왕 히람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로 화답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두로의 왕이 자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입에 올려 찬양한다. 외교 답신 안에 송영이 놓인다. 이 화답을 '이방 선교의 예표'로 끌고 가지 않고, 두 왕의 입에 거듭 오른 여호와의 발화 분포로만 보존.

Q3. 5:6·8·10 —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에 이방의 나무(레바논 백향목)와 이방의 장인(두로·그발 사람)이 깊이 들어온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이스라엘 땅에 없는 귀한 목재와 페니키아의 숙련된 손이 그 집의 자재가 된다. 본문은 이를 문제 삼지도 풀어 설명하지도 않는다. 이 들어움을 신학 명제로 단정하지 않고 사실의 병치로만 보존.

Q4. 5:13-16 — 온 이스라엘에서 거둔 거대한 부역(역군 삼만·산의 십오만)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영광스러운 집이 백성의 어깨 위에 올라간다. 이 부역이 삼상 8장의 '왕이 백성을 동원하리라'와 닿는지, 왕상 12장의 무거운 멍에와 분열로 이어지는지 — 5장은 닫지 않는다. 영광을 의심하지도 노역을 정죄하지도 않고 숫자로만 둔다. 권을 더 읽으며 이월.

Q5. 5:17-18 — 크고 귀하게 다듬은 기초석이 '제단의 돌을 다듬지 말라'는 출 20:25와 어긋나는 듯한 결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제단의 돌은 다듬지 말라 했는데(출 20:25), 성전의 기초석은 크고 귀하게 다듬어 온다. 제단과 성전의 다른 적용인지, 같은 원칙의 변용인지 — 본문은 풀지 않는다. 이 결을 '모순'으로도 '폐지'로도 단정하지 않고 형태 관찰로 보존.

Q6. 5:5·18 — 집을 짓기 전 한 장을 통째로 '준비'에 쓴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우기 전'에 머문다. 사절·답신·언약·운반·노역으로 손과 자재가 정돈되는데, 정작 집은 한 면도 세워지지 않는다(건축은 6장에서야 시작). 이 준비의 무게를 '인내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8장 봉헌의 영광으로 가는 호의 첫 매듭으로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6장

1K1-006 · 역사서 · 히브리어

출애굽 후 사백팔십 년에 성전 건축이 본격화하고(6:1) 다듬은 돌이 채석장에서 준비되어 와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데(6:7) — 그 한가운데로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리라"(6:12-13)는 조건의 약속이 끼어들고, 안쪽 지성소의 두 그룹과 벽·문·마루를 온통 금으로 입혀(6:19-30) 칠 년 만에 마치는 — 영광의 집을 짓는 손 위로 "거하리라"는 임재의 조건이 새겨지는 성전 건축의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현관(ulam)→본채(hekal)→지성소(debir)로 좁혀지는 동심 구조(3·17·20절). 본채를 두른 삼층 골방(tsela)은 단계마다 한 규빗씩 넓어짐(5~6·8절).
- 무대의 방향: 바깥은 돌, 안으로 갈수록 백향목, 가장 안쪽 지성소는 통째로 정금 — 들어갈수록 귀해지는 거꾸로 된 화려함(15·20절).
- 소품: 다듬은 돌(gizit 7절), 백향목·잣나무(arazim·beroshim 9·15절), 금(zahav 20~22·30절), 감람나무(etz shemen 23·31절), 그룹·종려·핀 꽃 부조(29·32·35절).
- 소품의 부재: 철 연장 —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지 않음(7절). 있어야 할 소리가 빠짐.
- 소재의 결: 처음은 시간·치수(출애굽 사백팔십 년·규빗), 가운데는 언약 어휘(법도·율례·계명·거하리라 11~13절), 끝은 재료·완성(금·그룹·칠 년).
- 형식 소재: 칠 년의 수미(1절 시작·37~38절 완공), 한가운데 끼어든 음성(11~13절)이 건축 명세를 돌로 가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차분함 — 큰 성전을 짓는데 연장 소리가 지워져(7절) 소란 없이 차곡차곡 쌓이는 공기.
- 안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무게 — 돌벽에서 백향목으로, 다시 통째로 금을 입힌 정육면체 지성소로(20절).
- 어둠 속 금빛의 명암 — 빛 들지 않는 지성소에 금으로 덮인 두 그룹의 날개가 방을 가로질러 펴짐(27절). 감춰진 영광.
- 측량의 산문 사이로 솟은 약속의 어조 — "네가 만일... 하면 내가... 하리라"(11~13절)가 치수의 문장 사이로 한 번 솟음.
- 향과 침묵의 감각 — 백향목·잣나무로 안을 다 입혀 돌이 보이지 않음(15·18절), 그리고 7절의 고요.
- '거하리라'(shakan 13절)는 한 동사 — 건물의 크기보다 그 한 동사가 분위기의 중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솔로몬이 여호와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 38절: "열한째 해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이루어졌으니 솔로몬이 칠 년 동안 그것을 건축하였더라."
- 출애굽이라는 옛 사건에 고정된 시점으로 열려, 칠 년을 채운 완공으로 닫힘 — 시간이 처음과 끝을 감쌌.
- 시작점이 성전이 아니라 출애굽 — 종살이에서 나온 백성이 거할 집을 짓기까지의 긴 호.
- 1·38절(솔로몬이 건축함, 사람의 손) ↔ 11~13절(내가 거하리라, 다른 손) — 짓는 손과 거하실 분이 한 장 안에서 마주 봄.
- 기초의 첫 돌(37절) ↔ 다 이루어진 완공(38절) — 칠 년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 시작과 끝.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거의 유일한 행위자 — 짓고 입히고 새기고 마침), 무대 뒤의 여호와(11~13절에서 한 단락 발화 — 조건과 약속). 앞 장의 히람·일꾼은 6장에서 이름이 빠짐 — 짓는 자와 거할 자 둘만 남은 무대.
- 중심 사상: 임재의 처소 — 모든 치수·금이 향하는 지성소의 두 그룹(23~28절), 그 방의 목적이 '거하려 고'(11~13절). 단 무조건이 아니라 '법을 따르면'이라는 조건부.
- 두 손의 협주: 사람의 손은 측량·건축(규빗·금·칠 년), 무대 뒤의 손은 한 문장으로 조건·약속(거하리라 13절).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둠.
- 끼어든 음성: 건축 한가운데(8장 봉헌이 아니라 짓는 도중)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이 끼어들 — 집의 의미가 규모가 아니라 순종에 걸림. 솔로몬의 반응은 적히지 않고 곧장 건축으로 복귀(14절).
- 거꾸로 된 화려함: 바깥은 돌, 가장 안쪽·가장 어두운 방이 통째로 정금(20절) — 보는 이 없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을 들임.
- shakan(거하다 13절):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와 같은 어휘권 — 성막의 임재 동사가 성전에서 다시 옴.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연대와 외형 — 출애굽 사백팔십 년·통치 제사 년 시작(1), 본채 치수(2), 낭실(3), 창문(4).
- 컷 2 (5~10절): 골방과 침묵의 공정 — 삼층 골방과 넓어지는 너비(5~6·8), 칠 연장 소리 없는 공사(7), 백향목 들보(9~10).
- 컷 3 (11~13절): 끼어든 약속 — 여호와와 말씀이 임함, 법도를 따르면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루고 거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 컷 4 (14~38절): 안쪽과 완공 — 백향목 입힘(14~18), 지성소 정금(19~22), 감람나무 두 그룹(23~28), 부조와 금(29~35), 안뜰(36), 칠 년 만의 완공(37~38).
- 컷 3의 경첩 위치: 뼈대(컷 2)와 속(컷 4) 사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음성이 끼어들 — 임함(11)→조건(12)→약속(13)의 세 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bayit(בַּיִת) — 집·성전(1·2·7·12·13·38절). 이 장 전체를 꿰는 핵심어.

- *debir*(דְּבִיר) — 지성소, 가장 안쪽 방(16·19·20절). / *hekal*(הֵיכָל) — 본채·성소(17절). / *ulam*(אֹלָם) — 낭실·현관(3절).
- *shakan*(שָׁכַן) — 거하다·머물다(13절). 출 25:8과 같은 임재 어휘권.
- *keruvim*(כְּרוּבִים) — 그룹(23·29절). 지성소의 두 상과 벽·문의 부조. / *etz shemen*(עֵץ שֶׁמֶן) — 감람나무(23·31절).
- *zahav*(זָהָב) — 금(20~22·30절). 지성소·벽·문·마루를 거듭 입힘.
- *gizit*(גִּזִּית) — 다듬은 돌(7절). / *garzen*(גִּרְזֵן) — 도끼, 들리지 않은 연장. / *amah*(אִמָּה) — 규빗(2·20·2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건축 명세(1~10) + 끼어든 약속(11~13) + 안쪽과 완공(14~38) — 측량의 산문이 한 번 멈춰 음성을 들이는 개입 구조.
- 칠 년 인클루지오: 시작한 해(1·37절)와 마친 해(38절)가 처음과 끝을 묶음 — 형태 관찰.
- bayit의 의미 이동: 짓기 시작하는 집(1)→소리 없는 현장(7)→조건이 걸린 집(12)→거하실 처소(13)→완공된 집(38) — 한 단어의 결이 옮겨 감.
- 거꾸로 된 화려함(inverted ornament): 바깥 돌에서 가장 안쪽 정금으로(20절), 보는 이 없는 곳이 가장 귀함.
- 금 입힘의 거듭됨(gold overlay): 지성소·단·벽·문·마루를 zahav로 반복해 덮음(20~22·28·30·32·35절).
- 그룹의 동심 배치: 방 가운데 두 상(23~28)과 사방 벽·문의 부조(29·32·35)가 같은 형상을 안팎으로 둘러쌈.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삼분 신전 양식 — 낭실·본채·지성소와 단계별로 넓어지는 외벽 골방은 시리아·팔레스타인 장방형 신전의 전형. 6:2~10의 배경.
- 왕의 신전 건립과 연대 기록 — 통치의 정통성을 신전 건축으로 표명하고 치수·연대를 비문에 남기던 왕권 이념. 6:1·38의 배경.
- 채석장 선가공 — 다듬은 돌을 미리 가공해 운반하던 석공 기술. 현장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은 7절의 배경.
- 그룹 도상 — 날개 달린 합성 존재상으로 신의 보좌 공간을 지키던 근동 도상. 6:23~29의 배경.
- 금박 치장 — 신의 처소를 금으로 덧입혀 영광을 표현하던 신전 치장 관습. 6:20~22·30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7절의 침묵을 '철은 무기의 재료이므로 화평의 집에 그 소리를 들이지 않았다'로, 6:1의 사백팔십 년을 12세대×40년의 도식으로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6:23-28 ↔ 출 25-31장; 35-40장 (성막의 그룹·금 입힘·지성소 — 성전 건축의 직접 모형)
- 왕상 6:1 ↔ 출 12:40-41 (애굽에 거한 사백삼십 년 — 출애굽 연대 기점의 배경)
- 왕상 6장 ↔ 삼하 7:12-13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긴 언약)
- 왕상 6:7 ↔ 왕상 5:1-18 (히람과의 백향목·다듬은 돌 준비 — 6장 재료와 인력의 직접 배경)
- 왕상 6:13 ↔ 왕상 8:10-13 (봉헌 시 구름이 가득함과 '내가 거할 처소' — 거하리라가 도착하는 곳)
- 왕상 6장 ↔ 신 12:5-11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 한 처소 신학의 배경)

- 왕상 6:11-13 ↔ 왕상 9:1-9 (완공 후 다시 임한 조건의 약속과 경고 — 조건이 9장에서 재확인)
- 왕상 6:12 ↔ 왕상 11:9-13 (솔로몬의 변질과 분열 예고 — 조건이 어긋날 때의 귀결, 권이 향하는 곳)
- 왕상 6장 ↔ 히 9:1-12; 요 2:19-21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자기 몸을 성전으로 — 신약의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의 한 언덕. 자막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사 년, 둘째 달. 첫 돌이 놓인다. 카메라가 일어서는 건물을 따라간다. 길이 예수 규빗, 너비 스무 규빗, 높이 서른 규빗의 본채. 그 앞으로 스무 규빗 너비의 현관. 벽에는 불박이 창. 본채를 빙 둘러 삼층 골방이 붙는데, 아래보다 가운데가, 가운데보다 위가 한 규빗씩 넓다. 화면이 공사 현장으로 옮겨 가는데 — 소리가 없다. 자막 — 다듬은 돌이 채 석장에서 마름질되어 왔으므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니라. 거대한 건물이 고요 속에 차오른다. 백향목 들보가 천장을 덮는다. 그 순간 화면이 멈추고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른다 — 여호와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루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멎고, 다시 건축으로 돌아간다. 본채 안벽이 백향목으로 입혀져 돌이 보이지 않는다. 카메라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다 —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각각 스무 규빗인 정육면체의 방. 통째로 정금으로 입혀진다. 빛이 사라지고 금빛만 남는다.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어 금을 입힌다. 키가 각각 열 규빗. 두 그룹이 날개를 편다 — 한 날개는 이 벽에, 한 날개는 저 벽에, 가운데서 두 날개가 맞닿는다. 벽과 문과 마루에도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새기고 금으로 덮는다. 마지막 자막 — 넷째 해에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에 다 이루어졌으니, 칠 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페이드아웃.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거하리라 — 짓는 손 한가운데 끼어든 약속"
- 초별 부제: "출애굽 사백팔십 년에 성전 건축이 본격화하고(6:1) 다듬은 돌이 미리 마름질되어 와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데(6:7) — 그 한복판으로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리라'(6:12-13)는 조건의 약속이 끼어들고, 안쪽 지성소의 두 그룹과 벽·문·마루를 온통 금으로 입혀(6:19-30) 칠 년 만에 마치는 — 영광의 집을 짓는 손 위로 임재의 조건이 새겨지는 성전 건축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ayit·debir·hekal·ulam·keruvim·zahav·shakan·gizit·etz_shemen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칠 년 인클루지오 + 끼어든 조건 약속 + 거꾸로 된 화려함 + ANE 삼분 신전·금박·그룹 도상)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6:7의 철 연장 침묵을 '거룩한 정숙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채석장 선가공이라는 공정 사실과 garzen·gizit 어휘 관찰로만 둬. 후대의 '철은 무기의 재료' 독법도 독법 배경으로만 보존.
- 6:11-13의 끼어든 약속을 '순종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건축 명세 한가운데 임한 조건·약속의 본문 형태와 shakan 어휘 관찰로만 기록. 솔로몬의 반응이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6:20의 정금 지성소를 '내면의 화려함'으로 알레고리화하지 않고, 바깥 돌에서 안쪽 금으로 가는 재료 배치의 사실로만 둬. 거꾸로 된 화려함도 형태 관찰로만.
- 6:23-28의 두 그룹을 '천사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감람나무·금·날개 치수의 사물 사실과 출 25-31장 성막과의 어휘권으로만 보존. 그룹 도상도 ANE 배경으로만.
- 6:1의 사백팔십 년을 연대 확정으로 닫지 않고, MT/LXX(사백사십)의 어긋남과 12세대 도식 독법을 본문 비평·독법 배경으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6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솔로몬 통치 제사 년에 여호와와의 성전 건축이 본격화하여(6:1) 다듬은 돌이 채석장에서 미리 마름질되어 와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데(6:7) — 건축 명세 한가운데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6:12-13)는 조건의 약속이 끼어들고, 안쪽 지성소(debir)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keruvim)을 만들어 금으로 입히며 벽과 문과 마루까지 그룹·종려·핀 꽃을 새겨 온통 정금으로 덧입혀(6:19-30) 칠 년 만에 마치는(6:38), 영광의 집을 짓는 손 위로 임재의 조건이 새겨지는 성전 건축의 장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의 한 언덕. 출애굽 사백팔십 년, 솔로몬 통치 제사 년 둘째 달에 첫 돌이 놓인다. 길이 예수 규빗, 너비 스무 규빗, 높이 서른 규빗의 본체가 일어서고, 그 앞에 현관이, 둘레에 단계별로 넓어지는 삼층 골방이 붙는다. 공사 현장은 조용하다 — 다듬은 돌이 미리 가공되어 왔으므로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백향목 들보가 천장을 덮는 그 순간, 한 음성이 끼어든다 —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다윗에게 한 말을 이루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멎고 다시 건축으로 돌아간다. 본체 안벽이 백향목으로 입혀져 돌이 보이지 않고, 가장 안쪽 정육면체의 방이 통째로 정금으로 입혀진다. 감람나무로 깎은 두 그룹이 금을 두르고, 어두운 방 가운데 서서 날개를 편다 — 두 쌍의 날개가 스무 규빗을 정확히 가로지른다. 벽과 문과 마루에도 같은 형상이 새겨지고 금이 덮인다. 넷째 해에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에 다 이루어졌으니, 칠 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현관→본체→지성소로 좁혀지는 동심 구조, 돌·백향목·금·감람나무·부조의 소품과 빠진 철 연장 소리 — 시간·치수에서 연약 어휘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연장 소리 없는 차분함. 안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무게. 어둠 속 금빛의 명암. 측량의 산문 사이로 솟은 약속의 어조. '거하리라'(shakan 13절)는 한 동사.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출애굽 기점(1절)으로 열려 칠 년의 완공(38절)으로 닫힘. 솔로몬이 건축함(1·38절)과 내가 거하리라(11~13절)가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거의 유일한 행위자 솔로몬. 한 단락 발화하는 여호와(조건·약속). 임재의 처소(지성소·두 그룹). 무조건이 아닌 '법을 따르면'.
5 장면 컷	연대와 외형(1~4)/골방과 침묵의 공정(5~10)/끼어든 약속(11~13)/안쪽과 완공(14~38) 4컷. 컷 3은 뼈대와 속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bayit의 의미 이동(돌무더기→임재의 처소→완공). 칠 년 인클루지오. 거꾸로 된 화려함. 끼어든 조건. 소리 없는 공정.
7 동영상	출애굽의 첫 돌 → 소리 없는 공정 → 끼어든 음성 → 정금의 지성소와 퍼진 두 날개 → 칠 년 만의 완공.
8 초별 제목·부제	"거하리라 — 짓는 손 한가운데 끼어든 약속"
9 기도·내면	가장 큰 일이 가장 조용히 일어남 — 크기로 임재를 사려 하지 않았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영광의 정점에 새겨진 조건:**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권의 봉우리가 5~8장의 성전 건축과 봉헌이고, 6장은 그 봉우리의 한복판이다. 그런데 본문은 영광을 마냥 부풀리지 않는다.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 그 순간, 건축 명세를 한 번 끊고 한 음성을 들인다 —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거하리라"(6:12-13). 다 지었다고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조건이다. 권의 향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임이시로다"(18:39)인데, 6장은 그 영광의 정점에서 이미 그 영광이 순종에 매여 있음을 미리 적어 둔다. 봉우리에서 본문은 다음 내리막을 가늠하게 한다.

2. **결 2 — 거꾸로 된 화려함, 안쪽을 향한 손:** 보통 건물은 바깥 정면이 가장 꾸며진다. 이 집은 거꾸로다. 바깥은 돌, 안으로 갈수록 백향목, 가장 안쪽·가장 어두운 지성소는 통째로 정금이다(6:20). 그 방은 아무도 일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빛도 들지 않는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는 화려함이 아니다. 모든 치수와 금이 향하는 곳은 두 그룹이 선 그 어두운 방, 곧 거하실 처소다(6:13). 본문은 이 방향을 설명하지 않고 치수와 금으로만 적는다. 그 무평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 가장 귀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는 결을.

3. **결 3 — 고요 속에 차오른 큰 일:** 6장은 거대한 일을 조용히 적는다. 다듬은 돌이 미리 채석장에서 가공되어와,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6:7). 시끄러운 노동이 한창인데 그 소란은 거룩한 공간에 들이지 않는다. 출애굽에 고정된 첫 돌에서 시작해(6:1) 정금의 지성소를 지나 칠 년 만에 완공(6:38)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자랑하는 외침 없이 차곡차곡 쌓인다. 권의 첫 결이 가장 높은 지점, 영광의 집을 세우는 그 손이, 소란이 아니라 고요로 일하는 단면을 6장이 한 채의 집으로 비춰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출 25-31장; 35-40장 — 성막의 그룹·금 입힘·지성소 — 성전 건축의 직접 모형.
- 출 12:40-41 — 애굽에 거한 사백삼십 년 — 6:1 출애굽 연대 기점의 배경.
- 삼하 7:12-13 —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긴 언약.
- 왕상 5:1-18 — 히람과의 백향목·다듬은 돌 준비 — 6장 재료와 인력의 직접 배경.
- 왕상 8:10-13 — 봉헌 시 구름이 가득함과 '내가 거할 처소' — 거하리라가 도착하는 곳.
- 신 12:5-11 —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 한 처소 신학의 배경.

- 왕상 9:1-9 — 완공 후 다시 임한 조건의 약속과 경고 — 6:11-13의 조건이 9장에서 재확인.
- 왕상 11:9-13 — 솔로몬의 변질과 분열 예고 — 조건이 어긋날 때의 귀결, 권이 향하는 곳.
- 히 9:1-12; 요 2:19-21 —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자기 몸을 성전으로 — 신약의 결.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6:1의 출애굽 기점에서 시작한다 — 성전 짓는 이야기가 사백팔십 년 전 종살이의 끝에서부터 셈을 여는 그 시간선을 듣는다.
- **멈춤 1:** 6:7에서 멈춘다 — 철 연장 소리 없는 현장. 가장 큰 일이 가장 조용히 차오르는 그 고요를 줘다.
- **멈춤 2:** 6:12-13에서 멈춘다 — 짓는 한가운데 끼어든 '만일'. 영광이 규모가 아니라 순종에 매인 그 결을 전다.
- **끝:** 6:20에서 멈춘다 — 보는 이 없는 정금의 방. 가장 귀한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이는 손이 내게도 있는지 본다.

F· 자족성 점검

- [x] 연대와 외형(1~4)·골방과 침묵의 공정(5~10)·끼어든 약속(11~13)·안쪽과 완공(14~38)의 네 컷 완결
- [x] 칠 년 인클루지오(1~37~38)와 끼어든 조건 약속(11~13)의 단절 구조
- [x] shakan(거하다 13절)과 출 25:8 성막과의 다리
- [x] 거꾸로 된 화려함(20절)과 두 그룹의 동심 배치(23~29절)
- [x] 출애굽 기점(1절)과 봉헌(8장)·조건 재확인(9장)으로 열린 이월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렐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렐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이는데, 6장은 권의 가장 높은 봉우리 — 임제가 머물 영광의 집을 세우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성막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출 25:8)가 이제 한 채의 돌과 금의 집으로 일어선다. 출애굽에 고정된 첫 돌(6:1)이 종살이에서 나온 백성과 그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한 시간선에 묶는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 의 첫 매듭이 여기서는 영광의 집 한가운데 새겨진 조건의 약속으로 나타난다. 권의 heart, 8장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6장에서는 '법도를 따르면 거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6:13)는 끼어든 약속으로 먼저 그림자를 드리운다. 6장의 정금의 방이 8장의 봉헌과 그 너머 11~12장의 분열로 이어지는 긴 호의 가장 높은 점이며, 그 봉우리의 한복판에 이미 '만일'이라는 조건이 새겨져 있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 명세(6:1-10)에서 끼어든 조건의 약속(6:11-13)으로, 다시 안쪽과 완공(6:14-38)으로 / 출애굽의 첫 돌(6:1)에서 정금의 지성소(6:20)로 / 영광의 정점에서 그 영광에 매인 조건으로 — 가장 큰 집을 짓는 한가운데서 임제의 결을 묻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1~4장) 위에 성전이라는 영광의 정점을 세우는 운동이다. 측량의 산문(1~10절)이 한 번 멈춰 음성(11~13절)을 들이고, 그 음성을 지나 화면이 정금의 안쪽으로 들어간다

(14~38절). 그러나 6장이 끝나도 성전은 아직 봉헌되지 않는다 — 구름이 가득 차고 영광이 임하는 장면은 8장에서야 온다. 6장의 백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 끌고 가는 호의 가장 높은 출발점이며, 그 호 전체가 한 번의 끼어든 조건(6:12)을 '영광이 순종에 매여 있고, 그 매임이 어긋나도 끝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18:39)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채의 큰 집이다 — 누가 언제 시작했고, 치수가 얼마였고, 무엇으로 입혔고, 칠 년 만에 마쳤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임재의 처소를 향한 손길이다. 모든 치수와 금이 향하는 곳은 결국 가장 안쪽, 두 그룹이 선 어두운 방이고, 그 방의 목적은 단 한 가지 — '거하시려고'(6:13)다. 성막에서 시작된 그 한 동사 *shakan*이 이제 한 집의 형태로 일어선다. 둘째, 영광이 규모가 아니라 조건에 매인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집을 짓는 그 순간 본문은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을 끼워 넣는다(6:12). 건물의 크기로 임재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걸이 영광의 한복판에 놓인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솔로몬의 위업을 미화로 닫지 않는다. 그가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지 않고 곧장 건축으로 돌아간다(6:14). 권을 더 읽으면 이 집을 지은 자가 끝내 이방 신을 따르고 나라가 갈라진다(11~12장). 본문은 영광과 조건을 나란히 둘 뿐, 그 둘 사이의 거리를 6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채의 집으로만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세우려 가장 분주한가 — 그 일의 가장 안쪽에 무엇을 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일의 크기로 임재를 사려 하지 않는가 — 다 지으면 그분이 거하실 것이라 여기지 않는가, 영광의 한복판에서 '만일'이라는 조건의 음성에 한 번 멈춰 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큰 것을 지으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출애굽에 고정된 첫 돌을 보여 주고, 철 연장 소리 없이 고요히 차오른 한 집을 보여 주고, 그 영광의 한가운데 끼어든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을 보여 주고, 보는 이 없는 가장 안쪽에 가장 귀한 것을 들인 손을 보여 준다. 영광과 조건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무언가를 세우는 분주함 한가운데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멈춰 듣는 일, 크기로 임재를 사려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장 안쪽에 무엇을 들이는지 살피는 일. 한 번 끼어든 조건의 음성이 한 채의 집을 통로로 흐르고, 그 집이 임재를 맞을 처소가 되고, 그 솔로몬이 끝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권이 이제 열린다 — 그 봉우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성전이 칠 년 만에 섰다 — 솔로몬이 이제 십삼 년에 걸쳐 자기 왕궁과 레바논 나무 궁을 짓고(7:1), 성전을 채울 놋과 금의 기물들을 후람의 손으로 빚어 영광의 집을 안에서부터 채우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kan* — 거하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의 한 언덕. 자막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사년, 둘째 달 시브월. 첫 돌이 놓입니다. 카메라가 일어서는 건물을 따라 올라갑니다. 길이 예수 규빗, 너비 스무

규빗, 높이 서른 규빗의 본채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 앞으로 스무 규빗 너비의 현관이 붙습니다. 벽에는 안으로 좁고 밖으로 넓은 불박이 창이 뚫립니다. 본채를 빙 둘러 골방이 삼층으로 올라가는데, 아래보다 가운데가, 가운데보다 위가 한 규빗씩 넓어집니다. 화면이 공사 현장으로 옮겨 가는데 — 귀를 기울여도 소리가 없습니다. 자막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 다듬은 돌이 이미 채석장에서 마름질되어 운반되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대한 일이 고요 속에 차오릅니다. 백향목 들보가 본채 위를 덮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멈추고,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 여호와 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루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음성이 멎습니다. 화면이 다시 움직이며 건축으로 돌아갑니다. 본채 안벽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입혀져, 돌은 한 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각각 스무 규빗인 정육면체의 방. 그 방이 통째로 정금으로 입혀집니다. 빛이 사라지고 금빛만 남습니다.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깎아 금을 입힙니다 — 키가 각각 열 규빗. 두 그룹이 그 어두운 방 가운데 서서 날개를 펴니다. 한 그룹의 한 날개가 이 벽에 닿고, 다른 날개가 가운데서 옆 그룹의 날개와 맞닿습니다. 스무 규빗의 방을 두 쌍의 날개가 정확히 가로지릅니다. 벽 사방과 두 문에도 같은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이 새겨지고, 그 위로 금이 덮입니다. 안뜰이 다듬은 돌 세 켠과 백향목 한 켠로 둘러싸입니다. 마지막 자막 — 넷째 해 시브월에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이 다 이루어졌으니, 칠 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출애굽에 고정된 첫 돌에서 열려, 소리 없는 공정과 끼어든 조건의 약속을 지나, 정금의 지성소와 퍼진 두 날개로 — 칠 년 만에 마치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거하리라 — 짓는 손 한가운데 끼어든 약속"

P02 이진우: "칠 년의 수미, 한 문장의 단절 — 측량 사이로 솟은 음성"

P04 최현국: "바깥은 돌, 안쪽은 정금 — 거꾸로 화려해지는 집"

P05 김미영: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건축 현장 — 고요 속에 차오른 영광"

P07 오지혜: "두 날개가 가로지른 정육면체 — 보는 이 없는 곳의 금빛"

P11 나경아: "*bayit · shakan* — 짓는 집과 거하실 분"

부제 제안: "출애굽 사백팔십 년에 성전 건축이 본격화하고(6:1) 다듬은 돌이 미리 마름질되어 와 성전 안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데(6:7) — 그 한복판으로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6:12-13)는 조건의 약속이 끼어들고, 안쪽 지성소의 두 그룹과 벽·문·마루를 온통 금으로 입혀(6:19-30) 칠 년 만에 마치는 — 영광의 집을 짓는 손 위로 임재의 조건이 새겨지는 성전 건축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거대한 집을 짓는 한가운데서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 내가 거하리라" 들은 솔로몬 겉으로, 그리고 소리 없이 차오른 그 고요한 현장 안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일이 가장 조용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연장 소리 하나 없이 한 집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크기나 금이 아니라 '법을 따르면 거하리라'는 한 문장이 그 한가운데 끼어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큰 것을 세우려 분주할 때, 정작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멈춰 듣지 못한 적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크기로 임재를 사려 하지 않았는지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6장은 건축 명세에서 임재의 조건으로, 다시 완공으로 움직여요. 1~10절이 뼈대, 11~13절이 끼어든 약속, 14~38절이 안쪽과 완공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장 이하가 남북 분열과 우상,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그리고 권의 향방이 한 물음으로 찍혀 있어요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 6장의 성전, 임재가 머물 영광의 집은 권 흐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그런데 그 봉우리 한가운데 이미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이라는 조건이 끼어 있어요. 영광의 정점에서 권은 이미 그 영광이 조건에 매여 있음을 적어 뒀요. 6장은 권이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그 긴 내리막의 출발점, 가장 높은 곳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6:13의 *shakan* — '거하다·장막을 치고 머물다'. 성막의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가 쓴 바로 그 동사예요. 거대한 돌집을 짓는데, 그 집의 목적이 한 동사로 적혀요 — 거하려고요. 그리고 그 동사 앞에 'im(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어요(12절). 임재가 건물이 아니라 순종에 매여요. 그리고 6:1의 출애굽 기점이 또 한 단서예요 — 종살이에서 나온 백성과 그들 가운데 거하실 집이 한 시간선 위에 놓여요. 나온 백성을 거할 처소로 데려가는 그 긴 호의 한 매듭이 이 장이에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채의 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임재의 처소를 향한 손길 같아요. 모든 치수와 금이 향하는 곳은 결국 가장 안쪽, 두 그룹이 선 어두운 방이고, 그 방의 목적은 단 한 가지 — 거하시려고예요. 보는 이가 없는 곳에 가장 귀한 것을 들이는 그 거꾸로 된 화려함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영광이 아니라 그분이 머무실 곳을 향한 결임을 가리켜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그 긴 호의 가장 높은 매듭이 이 정금의 방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집을 짓는 바로 그 순간에,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이라는 조건이 끼어들어요. 영광과 조건이 한 장 안에서 부딪쳐요. 다 지었다고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긴장이에요. 그리고 권을 더 읽으면 알게 돼요 — 이 집을 지은 솔로몬이 끝내 이방 신을 따르고, 나라가 갈라져요(11~12장). 6장의 영광이 높을수록, 그 한가운데 새겨진 조건이 더 무겁게 읽혀요. 본문은 그 긴장을 6장 안에서 풀지 않아요. 그냥 영광 한복판에 조건을 한 문장 둘 뿐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출애굽의 첫 돌에서 정금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6장이 끝나도 성전은 아직 봉헌되지 않았어요 — 구름이 가득 차고 영광이 임하는 장면은 8장에서야 와요. 6장은 그 임재를 맞을 집을 준비하는 셈이에요. 짓는 한 것이, 다음의 봉헌과 그 너머의 조건(9장)을 미리 결 지어 뒀요. 영광의 집을 세운 자가 그 영광을 지킬지를 묻는 순서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7절이 불씨 같아요. 가장 큰 일이 가장 조용히 일어난 그 현상이요. 망치 소리도, 자랑하는 외침도 없이 한 집이 차올라요. 저는 무언가를 세울 때 그 소리부터 키우려 하는데, 이 집은 소리를 지우고 차올라요. 제가 세우는 일들이 소란 없이도 차오를 수 있는지, 그 일의 가장 안쪽에 무엇을 들이고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건축 명세에서 끼어든 조건으로, 출애굽의 첫 돌에서 정금의 지성소로, 영광의 정점에서 그 영광에 매인 조건으로 — 가장 큰 집을 짓는 한가운데서 임재의 결을 묶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제 자기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6:11-13 — 건축 명세 한가운데 끼어든 조건의 약속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완공된 봉헌(8장)이 아니라 짓는 도중에, '내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 거하리라'는 조건과 약속이 끼어든다. 솔로몬의 반응은 적히지 않고 곧장 건축으로 돌아간다(14절). 이 끼어들을 '순종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명세 한복판에 임한 음성의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6:7 — 성전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다듬은 돌을 채석장에서 미리 가공해 와 현장은 고요했다. 이유는 적히지 않는다. 공법인지, 거룩한 정숙인지, 다른 결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후대의 '철은 무기의 재료' 독법을 단정으로 끌어오지 않고, 큰 일이 조용히 일어났다는 사실로만 보존.

Q3. 6:13 — '거하리라'(shakan)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조건(법도)에 매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거대한 집을 짓되, 그 집의 목적이 한 동사 '거하려고'에 있고, 그 거하심 앞에 '만일'이 붙는다. 임재가 규모가 아니라 순종에 걸린다. 이 결을 '내면의 성전' 알레고리로 닫지 않고, shakan 어휘와 출 25:8 성막과의 어휘권으로만 보존.

Q4. 6:20 — 가장 안쪽·가장 어두운 지성소를 통째로 정금으로 입힌 거꾸로 된 화려함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바깥은 돌, 안으로 갈수록 백향목, 가장 안쪽은 정금이다. 보는 이가 없는 방이 가장 귀하다. 본문은 이유를 적지 않고 치수와 금으로만 적는다. 이 방향을 '겸손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재료 배치의 사실로만 보존.

Q5. 6:23-28 — 감람나무로 만들어 금 입힌 두 그룹이 지성소를 가로질러 날개를 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두 그룹의 날개가 스무 규빗의 방을 정확히 가로지른다. 같은 형상이 방 가운데와 사방 벽·문에도 반복된다. 이 도상을 '천사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물의 치수·재료와 출 25-31장 성막과의 어휘권, ANE 그룹 도상 배경으로만 보존.

Q6. 6:1 — 출애굽 사백팔십 년을 성전 건축의 기점으로 삼은 연대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성전 짓는 이야기가 사백팔십 년 전 출애굽에서부터 셈을 시작한다. MT는 사백팔십 년, LXX는 사백사십 년으로 어긋난다. 이 수를 연대 확정으로 닫지 않고, 종살이에서 나온 백성과 거할 집을 한 시간선에 묶은 사실과 본문비평 배경으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7장

1K1-007 · 역사서 · 히브리어

칠 년 만에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자기 궁은 십삼 년에 걸쳐 짓고(7:1) 레바논 나무 궁과 두 낭실을 세우는데 — 두로의 후람이 놋으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부어 성전 앞에 세우고(7:21), 열두 소가 받친 둥근 못바다와 받침대 열·물두명 열을 빛난 놋으로 만들어 그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하게 하며(7:23-47), 금 단과 등잔대와 모든 금 기물로 성전 안을 채워(7:48-50) 다윗이 드린 은금을 곳간에 들이며 성전의 일이 끝나는(7:51) — 영광의 집을 안에서부터 채우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둘로 갈림: 전반부는 왕궁 단지(레바논 나무 궁·두 낭실·처소 1~12절), 후반부는 성전 앞·마당과 후람의 주물 작업장(13~51절).
- 무대의 방향: 사람의 거처(백향목)에서 후람의 놋(마당)으로, 다시 안쪽 금(성소)으로 들어감(2·15·48절).
- 소품: 놋(nechoshet 15·23·45절), 백향목(arazim 2절), 다듬은 돌(9~11절), 기둥 머리·그물·석류·백합화(17~20절), 금 단·상·등잔대(48~50절).
- 소품의 부재: 놋 무게의 수 — 기물이 심히 많아 그 무게를 측량하지 않음(47절). 헤아려야 할 수가 빠짐.
- 소재의 결: 처음은 헛수·거처(십삼 년·왕궁·바로의 딸), 가운데는 장인의 놋(후람·부어 만듦·세움), 끝은 금·마침(정금·들이고·끝나니라).
- 형식 소재: 두 기둥의 이름이 명세를 여담음(21·41~42절), 칠 년/십삼 년의 헛수 대조(6:38·7:1), 51절의 종결('모든 일이 끝나니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풍성하면서 묵직함 — 끝없는 놋 기물 목록의 풍성함 아래로 칠 년/십삼 년 헛수의 무게가 깔림(7:1).
- 사망을 향한 압도 — 열두 소가 북·서·남·동을 향해 직경 열 규빗의 큰 바다를 받침(23~25절).
- 네 번 옮겨 가는 명암 — 백향목의 빛, 진흙 거푸집 주물의 어둠(46절), 마당의 놋, 안쪽의 금.
- 호명과 '달지 아니함'으로 솟은 어조 — 측량의 산문이 두 기둥의 이름(21절)과 무게 포기(47절)에서 한 번 씩 끊김.
- 질량과 물의 감각 — 묵직한 놋(높이 열여덟 규빗 기둥)과 그 안에 담긴 정결의 큰 물(23·38절).
- 구비된 한 장인의 손 — 후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여'(14절, 출 31:3 브살렐의 어휘권) 일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이 끝나매...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와의 성전 공간에 두었더라."
- 자기 궁의 준공으로 열려,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의 마침과 다윗의 성물을 공간에 들임으로 닫힘.
- 6장 끝(성전 칠 년)에서 곧장 7:1(자기 궁 십삼 년)로 — 성전에서 자기 거처로 시선이 옮겨 갔다가, 끝에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옴.
- 시작의 자기 궁(1~12절, 사람의 거처) ↔ 끝의 금 기물과 다윗의 성물(48~51절, 하나님의 처소) — 거처에서 성전 살림으로.
- 두 기둥의 이름(21절)이 후반부 늦 명세를 열고, 41~42절이 그 두 기둥을 되짚어 닫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전반부 행위자 — 자기 궁·낭실·처소를 지음), 후람(13~14절 두로에서 불러 온 늦 장인 — 후반부 거의 모든 동사가 그의 손), 무대 뒤의 다윗(51절 미리 드린 성물). 짓는 자·빚는 자·미리 드린 자.
- 중심 사상: 영광의 집의 완비 — 6장이 뼈대였다면 7장은 살림(정결의 큰 물·물두멍·금 등잔대·금 상). 성전이 세워질 뿐 아니라 채워짐.
- 세 손의 잇뎌: 솔로몬(거처 1~12)·후람(늦 13~47)·솔로몬(금 48~50)·다윗(성물 51). 본문은 풀지 않고 차곡 차곡 적음.
- 닫히지 않은 한 줄: 바로의 딸의 처소(8절) — 영광의 정점에 한 이방 거처가 평가 없이 적힘. 권 흐름(11장 이방 아내)이 향하는 곳.
- 측량을 넘는 영광: 그 모든 늦의 무게를 달지 않음(47절) — 사람이 만들었으나 그 양을 헤아릴 엄두를 내지 않음.
- Yakin('그가 세우신다')·Boaz('그에게 능력이 있다'): 자립 기둥의 이름에 한 문장이 담김(21절, 어휘 독법 배경).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2절): 왕궁 단지 — 자기 궁 십삼 년(1), 레바논 나무 궁(2~5), 두 낭실(6~7), 솔로몬·바로 딸의 처소(8), 다듬은 돌·큰 뜰(9~12).
- 컷 2 (13~22절): 후람과 두 기둥 — 두로의 늦 장인(13~14), 두 늦기둥과 머리·그물·석류·백합화(15~20), 성전 앞에 세우고 야긴·보아스라 이름함(21~22).
- 컷 3 (23~39절): 늦바다와 받침대 — 직경 열 규빗 둥근 바다와 열두 소(23~26), 받침대 열과 사자·소·그룹 부조(27~37), 물두멍 열(38~39).
- 컷 4 (40~51절): 기물과 마침 — 솔·부삽·대접과 무게를 달지 못한 늦(40~47), 금 단·상·등잔대(48~50), 모든 일의 마침과 다윗의 성물을 공간에 들임(51).
- 컷의 단층: 컷 1(거처)→컷 2~3(늦의 살림)→컷 4(금의 살림). 거처에서 늦으로, 늦에서 금으로, 마당에서 안쪽 성소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echoshet*(נְחֹשֶׁת) — 늦·청동(14·15·45·47절). 이 장 후반부를 꿰는 핵심어.
- *ammud*(עַמֻּד) — 기둥(15·21절). 두 자립 기둥 / *Yakin*(יָקִין)·*Boaz*(בֹּעַז) — 두 기둥의 이름(21절).
- *yam*(יָם) — 바다, 둥근 늦 대야(23절). / *baqar*(בָּקָר) — 소, 받침 열두(25절).

- mekonah(מֶכֹנָה) — 받침대(27절). / kiyor(כִּיּוֹר) — 물두멍(38절).
- Hiram(חִירָם) — 후람, 두로의 놋 장인(13절, '지혜·충명·재능을 구비'함 14절).
- menorah(מְנוֹרָה) — 금 등잔대(49절). / shulchan(שֻׁלְחָן) — 금 상(48절). / amah(אָמָה) — 규빗(2·15·23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왕궁 명세(1~12) + 후람의 놋 살림(13~47) + 금 기물과 마침(48~51) — 거처에서 놋으로, 놋에서 금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채움의 구조.
- 두 기둥 인클루지오: 야긴·보아스의 호명(21절)이 놋 명세를 열고, 41~42절이 그 두 기둥을 되짚어 닫음 — 형태 관찰.
- 칠 년/십삼 년 대조: 성전 칠 년(6:38)과 왕궁 십삼 년(7:1)이 나란히 놓임. 평가 없이 햇수만 적힘.
- 측량 불가 모티프(uncountable): 잴 수 있는 부분은 다 재되, 그 모든 놋의 총량은 '달지 아니함'(47절) — 영광의 양이 저울을 넘음.
- 금으로 닫는 마침(inner gold closure): 마당의 놋(13~47)에서 안쪽의 금(48~50)으로, 51절이 성전 일 전체를 닫음.
- 열두 소의 방위: 셋씩 북·서·남·동을 향해 큰 바다를 받침(25절) — 사방을 향한 동심 배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신전 앞 자립 기둥 — 구조를 떠받치지 않는 한 쌍의 독립 기둥을 신전 입구 양편에 세우던 페니키아·시리아 양식. 7:15~22의 배경.
- 두로의 청동 주조 — 거푸집에 쇳물을 부어 대형 기물을 만들던 페니키아 금속 공예. 후람의 솜씨와 요단 진흙 거푸집 주조(46절)의 배경.
- 신전 마당의 큰 물 대야 — 정결 의식을 위해 신전에 큰 물그릇을 두던 관습. 동근 놋바다(23~26절)의 배경.
- 짐승상 받침과 합성 존재 부조 — 신성한 물체를 짐승으로 떠받치고 받침대에 사자·소·그룹을 새기던 도상. 열두 소·받침대 부조(25·29절)의 배경.
- 왕궁·신전 한 단지 배치 — 왕의 통치와 신의 처소를 한 영역에 잇대던 도성 양식. 7:1~12 왕궁 명세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야긴('그가 세우시리라')·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를 한 문장으로 읽고, 성전 칠 년·왕궁 십삼 년의 햇수 차이를 짚어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7장 ↔ 왕상 6장 (칠 년 만에 마친 성전 — 7장 왕궁·기물 명세의 직접 앞 배경)
- 왕상 7:15-26 ↔ 대하 3-4장 (두 기둥·놋바다·금 기물의 평행 기록)
- 왕상 7:23-26 ↔ 출 30:17-21; 38:8 (성막의 물두멍과 놋거울로 만든 대야 — 놋바다·물두멍의 모형)
- 왕상 7:49 ↔ 출 25:31-40 (성막의 등잔대 — 금 등잔대 열의 모형)
- 왕상 7:13-14 ↔ 왕상 5:1-12 (히람[두로 왕]과의 동맹과 재료 — 후람[장인]과 놋의 배경)
- 왕상 7:51 ↔ 삼하 8:11; 대상 18:11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은금 — 곳간에 들인 성물의 배경)
- 왕상 7:8 ↔ 왕상 11:1-8 (바로의 딸·이방 아내·이방 신당 — 권이 향하는 곳)
- 왕상 7장 ↔ 왕상 9:10-19 (성전·왕궁 이십 년과 성읍 건축 — 권 흐름상 귀결)

- 왕상 7:15-26 ↔ 렘 52:17-23 (바벨론이 두 기둥과 못바다를 부수어 가져감 — 영광의 못이 권 끝에서 향하는 곳)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의 한 단지. 자막 — 솔로몬이 자기 궁을 십삼 년 동안 지어 준공하니라. 카메라가 백향목 네 줄 기둥이 늘어선 레바논 나무 궁 안을 지난다. 길이 백 규빗, 너비 십 규빗. 그 곁으로 기둥 낭실, 재판하는 보좌의 낭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거할 처소가 잇닿는다. 다듬은 값진 돌이 기초와 큰 뜰을 두른다. 화면이 두로로 옮겨간다. 한 사람이 불러 온다 — 후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못을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장인. 화면이 어두운 주물 작업장으로 바뀐다. 요단 평지 진흙 거푸집에 쇳물이 부어진다. 두 기둥이 일어난다 — 높이 각각 열여덟 규빗, 머리에 그물과 석류 이백 개, 백합화 모양이 얹힌다. 두 기둥이 성전 현관 앞에 세워진다.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라 이름이 붙는다. 카메라가 마당으로 내려간다 — 직경 열 규빗의 둥근 못바다가 부어진다. 테두리에 박 모양이 돌고, 그 아래 열두 소가 받친다. 셋은 북, 셋은 서, 셋은 남, 셋은 동을 향한다. 그 곁으로 받침대 열이 늘어서고, 사자와 소와 그룹이 새겨지고, 위에 물두멍 열이 얹힌다. 솔과 부삽과 대접이 빛난 못으로 만들어진다. 자막 —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화면이 다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간다. 금 단, 진설병의 금 상, 좌우 다섯씩 금 등잔대,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 빛이 금빛이 된다. 마지막 자막 — 여호와와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이 끝나매,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 공간에 두었더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야긴과 보아스 — 무게를 달지 못한 못으로 채운 영광의 집"
- 초벌 부제: "칠 년 만에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자기 궁을 십삼 년에 걸쳐 짓고(7:1) — 두로의 후람이 못으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부어 성전 앞에 세우고(7:21), 열두 소가 받친 둥근 못바다와 받침대 열·물두멍 열을 빛난 못으로 만들어 그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하게 하며(7:47), 금 단과 등잔대와 모든 금 기물로 안을 채워(7:48-50) 다윗이 드린 은금을 공간에 들이며 성전의 일이 끝나는(7:51) — 영광의 집을 안에서부터 채우는 성전 완비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echoshet·ammud·yam·mekonah·kiyor·Hiram·Yakin·Boaz·menorah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기둥 인클루지오 + 칠 년/십삼 년 대조 + 측량 불가 모티프 + ANE 자립 기둥·청동 주조·신전 물 대야)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7:1의 칠 년/십삼 년 대조를 '신앙보다 자기 영광을 앞세운 솔로몬'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행수를 나란히 적은 본문 형태와 bayit 어휘 관찰로만 됨. 본문이 평가하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7:21의 두 기둥과 그 이름을 '믿음의 두 기둥' 같은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자립 기둥의 치수·장식 사실과 Yakin·Boaz 어휘 독법, ANE 신전 기둥 배경으로만 보존.
- 7:47의 '무게를 달지 아니함'을 '하나님 은혜의 측량 불가'로 알레고리화하지 않고, 기물이 심히 많아 측량을 멈춘 본문의 사실로만 둬.
- 7:8의 바로의 딸 처소를 '솔로몬의 타락의 씨앗'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고, 평가 없이 한 줄 적힌 본문 형태로만 기록. 권 흐름(11장)으로 향하는 점은 교차 참조 배경으로만.
- 7:23-26의 낫바다와 열두 소를 '열두 지파의 상징'으로 달지 않고, 사물의 치수·방위 배치와 출 38:8 성막 대야와의 어휘권, ANE 짐승상 받침 도상으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7장은 성전을 칠 년 만에 세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십삼 년에 걸쳐 짓고 레바논 나무 궁과 두 낭실과 바로의 딸의 처소를 세우는데(7:1-12) — 두로에서 불러 온 후람(Hiram)이 낫으로 두 기둥을 부어 성전 앞에 세워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하고(7:15-22), 직경 열 규빗의 둥근 낫바다를 열두 소가 받치게 하며(7:23-26) 받침대 열과 물두멍 열과 술·부삽·대접을 빚은 낫으로 만들어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게 하고(7:27-47), 금 단과 진설병 상과 등잔대와 모든 금 기물로 안을 채워(7:48-50) 다윗이 드린 은금과 기명을 성전 공간에 들이며 성전의 모든 일이 끝나는(7:51), 영광의 집을 안에서부터 채우는 성전 완비의 장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의 한 단지. 솔로몬이 자기 궁을 십삼 년에 걸쳐 준공한다. 백향목 네 줄 기둥의 레바논 나무 궁, 기둥 낭실, 재판의 낭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거할 처소가 잇닿고, 값진 다듬은 돌이 기초와 큰 뜰을 두른다. 화면이 두로로 옮겨 가, 낫 다루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한 장인 후람을 데려온다. 어두운 진흙 거푸집에서 두 기둥이 일어선다 — 높이 각각 열여덟 규빗, 머리에 그물과 석류 이백 개와 백합화. 성전 앞에 세워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 이름한다. 마당에는 직경 열 규빗의 둥근 낫바다가 부어지고, 열두 소가 셋씩 사방을 향해 그것을 받친다. 받침대 열이 늘어서 사자와 소와 그룹을 새기고 물두멍 열을 인다. 기구가 심히 많아 그 무게를 달지 못한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금 단과 금 상과 금 등잔대가 빛을 채운다.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이 끝나매, 다윗이 드린 은과 금을 성전 공간에 둔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왕궁 단지에서 후람의 주물 작업장으로 옮겨 가는 무대, 낫·백향목·다듬은 돌·금의 소품과 빠진 낫 무게의 수 — 거처에서 낫으로, 낫에서 금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햇수가 깔린 풍성함. 사방을 향한 열두 소의 압도. 백향목·주물·낫·금으로 옮겨 가는 명암. 호명과 '달지 아니함'으로 솟은 어조. 구비된 한 장인의 손.
3 시작과 끝	자기 궁의 준공(1절)으로 열려 성전 일의 마침과 다윗의 성물(51절)로 닫힘. 시작의 거처와 끝의 성물이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짓는 자 솔로몬, 빚는 자 후람, 미리 드린 자 다윗. 영광의 집의 완비. 평가 없이 적힌 바로의 딸의 처소(8절).
5 장면 컷	

단계	핵심 발견
	왕궁 단지(1~12)/후람과 두 기둥(13~22)/놏바다와 받침대(23~39)/금 기물과 마침(40~51) 4컷. 거처→놏→금의 단층.
6 의문·발견·정보	bayit의 두 집 짜임. 두 기둥 인클루지오. 측량 불가(47절). 칠 년/십삼 년 대조. 열두 소의 방위.
7 동영상	자기 궁의 준공 → 두로의 장인과 진흙 거푸집 → 야긴·보아스 → 사방을 향한 열두 소 → 안쪽의 금 → 다윗의 성물로 마침.
8 초벌 제목·부제	"야긴과 보아스 — 무게를 달지 못한 놏으로 채운 영광의 집"
9 기도·내면	어떤 집에 가장 오래 머물렀는가, 영광 곁에 무엇을 함께 들었는가 — 이름 없이 받치는 손을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영광의 완비 곁에 적힌 자기 거처:**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6장이 그 봉우리의 뼈대였다면, 7장은 그 봉우리를 놏과 금으로 채워 완성한다. 그런데 본문은 그 완비를 마냥 부풀리지 않는다. 첫 절이 곧장 자기 궁 십삼 년을 적고(7:1), 그 사이로 바로의 딸의 처소를 한 줄 둔다(7:8). 성전 칠 년보다 긴 자기 거처가, 영광의 한복판에 평가 없이 놓인다. 권의 향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인데, 7장은 그 영광의 완비 곁에 이미 한 거처를 슬그머니 적어 둔다. 봉우리에서 본문은 다음 내리막의 곁을 가늠하게 한다.

2. **결 2 — 측량을 넘어선 영광, 이름 없는 손:** 이 장은 줄곧 수를 적는다 — 열여덟 규빗, 열 규빗, 이백 개, 열 둘. 그런데 그 모든 놏의 총량 앞에서 측량을 멈춘다 — "심히 많으므로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7:47). 영광의 양이 사람의 저울을 넘는다. 그 영광을 빚은 손은 두로의 한 장인 후람이다. 그의 이름은 두 기둥에도 바다에도 새겨지지 않는다. 그저 부어 만들 뿐이다. 측량을 넘는 영광이 이름을 남기지 않는 손을 통과해 채워진다. 본문은 이 방향을 설명하지 않고 치수와 '달지 않았다'는 사실로만 적는다.

3. **결 3 — 세대를 잇는 완비:** 7장의 마침은 한 사람의 위업으로 닫히지 않는다. 솔로몬이 만든 모든 일이 끝난 뒤, 아버지 다윗이 미리 구별해 드린 은과 금이 성전 공간에 들어간다(7:51). 한 세대가 짓고 채운 영광의 집에, 앞 세대가 미리 드려 둔 성물이 더해진다. 6장에서 시작된 건축이 여기서 비로소 닫히는데, 그 마지막 손길이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권의 첫 결, 영광의 정점이 한 사람의 손에서만 솟지 않고 세대를 잇는 손으로 완비되는 단면을 7장이 한 공간으로 비춰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6장 — 칠 년 만에 마친 성전 건축 — 7장 왕궁·기물 명세의 직접 앞 배경.
- 대하 3·4장 — 두 기둥·놏바다·금 기물의 평행 기록.
- 출 30:17-21; 38:8 — 성막의 물두멍과 놏거울로 만든 대야 — 놏바다·물두멍의 모형.
- 출 25:31-40 — 성막의 등잔대 — 금 등잔대 열의 모형.
- 왕상 5:1-12 — 히람(두로 왕)과의 동맹과 재료 — 후람(장인)과 놏의 배경.
- 삼하 8:11; 대상 18:11 —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은금 — 공간에 들인 성물의 배경.
- 왕상 7:8 ↔ 왕상 11:1-8 — 바로의 딸·이방 아내 — 권이 향하는 곳.
- 왕상 9:10-19 — 성전·왕궁 이십 년과 성읍 건축 — 권 흐름상 귀결.
- 렘 52:17-23 — 바벨론이 두 놏기둥과 놏바다를 부수어 가져감 — 영광의 놏이 권 끝에서 향하는 곳.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7:1에서 시작한다 — 성전 칠 년 다음에 곧장 적힌 자기 궁 십삼 년. 두 집의 햇수가 나란히 놓인 그 결을 듣는다.
- **멈춤 1:** 7:21에서 멈춘다 — 구조를 떠받치지 않는 두 기둥과 그 이름. 무엇을 위한 기둥인지 비워 둔 채 야긴·보아스를 쥔다.
- **멈춤 2:** 7:47에서 멈춘다 — 무게를 달지 못한 놋. 영광이 사람의 저울을 넘는 그 측량의 포기를 쥔다.
- **끝:** 7:51에서 멈춘다 — 다윗의 성물을 곳간에 들이는 마지막 손길. 내 완비가 앞 세대의 손과 이어지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왕궁 단지(1~12)·후람과 두 기둥(13~22)·놋바다와 받침대(23~39)·금 기물과 마침(40~51)의 네 컷 완결
- [x] 두 기둥 인클루지오(21·41~42)와 칠 년/십삼 년 대조(6:38·7:1)
- [x] nechoshet(놋)에서 zahav(금)로의 살림 이동과 측량 불가 모티프(47절)
- [x] 열두 소의 방위 배치(25절)와 출 38:8 성막 대야와의 다리
- [x] 자기 거처(1·8절)와 봉헌(8장)·변질(11장)으로 열린 이월

G · 구축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이는데, 7장은 권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안에서부터 채워 완성하는 국면이다. 6장이 빈 집의 뼈대를 세웠다면, 7장은 정결의 큰 물과 씻을 물두멍과 안쪽의 빛과 양식을 들여 그 집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구축사의 호에서 보면, 성막의 물두멍과 놋 대야(출 38:8)와 등잔대(출 25:31)가 이제 더 큰 놋과 금의 살림으로 일어선다. 두로의 장인 후람이 성막의 브살렐과 같은 어휘('지혜·충명·재능을 구비', 출 31:3)로 묶여, 성막을 빛은 손과 성전을 채운 손이 한 결로 이어진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의 한 매듭이 여기서는 영광의 집을 완비하는 살림으로 나타난다. 권의 heart, 8장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7장에서는 측량을 넘는 풍성한 놋과 세대를 잇는 다윗의 성물(7:51)로 먼저 그 결을 드리운다. 7장의 완비가 8장의 봉헌과 그 너머 11~12장의 분열로 이어지는 긴 호의 봉우리를 닫으며, 그 완비 결에 이미 자기 거처 십삼 년(7:1)과 바로의 딸의 처소(7:8)가 평가 없이 적혀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람의 거처(7:1-12)에서 후람의 놋 살림(7:13-47)으로, 다시 안쪽의 금과 마침(7:48-51)으로 / 두로의 진흙 거푸집에서 성전 앞 마당으로 / 측량을 넘는 영광 곁에 슬며시 적힌 자기 거처로 — 영광의 집을 안에서부터 채우면서 그 곁에 무엇을 함께 들이는지를 묻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6장에서 세워진 빈 집을 놋과 금으로 채워 완성하는 운동이다. 거처의 산문(1~12절)이 한 번 두로로 옮겨 가 한 장인을 들이고, 그 장인의 손을 지나 화면이 마당의 놋(13~47절)과 안쪽의 금(48~50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7장이 끝나도 성전은 아직 봉헌되지 않는다 — 구름이 가득 차고 영광이 임

하는 장면은 8장에서야 온다. 7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렐의 불로' 끌고 가는 호의 봉우리를 닫는 출발점이며, 그 호 전체가 한 줄 적힌 자기 거처(7:1·8)를 '영광이 자기 것이 되려 할 때 기울고, 그 기움 속에서도 끝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18:39)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거대한 놋과 금의 살림 목록이다 — 누가 무엇을 부어 만들었고, 치수가 얼마였고, 어디에 세웠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영광의 집을 살아 움직이게 채우는 손길이다. 6장의 빈 집, 7장은 정결의 큰 물(놋바다)과 씻을 물두멍과 빛(금 등잔대)과 양식(금 상)을 들인다. 세워진 집이 채워지는 그 채움이, 모든 놋과 금이 향하는 결이다. 둘째, 영광이 측량을 넘되 이름을 남기지 않는 손을 통과한다는 사실이다. 그 모든 놋의 무게를 달지 못할 만큼 풍성한데(7:47), 그것을 빛은 후람의 이름은 어느 기물에도 새겨지지 않는다(7:13-14). 영광의 양은 저울을 넘고, 영광의 손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솔로몬의 완비를 미화로 달지 않는다. 성전 칠 년보다 긴 자기 궁 십삼 년(7:1)과 바로의 딸의 처소(7:8)를 평가 없이 한 줄씩 적는다. 권을 더 읽으면 그 이방 거처가 끝내 그의 마음을 돌린다(11장). 본문은 영광과 자기 거처를 나란히 둘 뿐, 그 둘 사이의 거리를 7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단지의 살림으로만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떤 집을 짓는 데 가장 오래 머무는가 — 영광의 집 곁에 내 거처를 더 크게 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이름을 남기는 손인가, 이름 없이 받치는 손인가 — 측량을 넘는 영광을 빛되 그 영광에 내 이름을 새기려 하지 않는가, 앞 세대가 미리 드러 둔 것을 내 완비의 끝에 들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풍성한 것을 채우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성전 칠 년 곁에 적힌 자기 궁 십삼 년을 보여 주고, 두로에서 불러 와 이름 없이 놋을 부은 한 장인을 보여 주고,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한 영광을 보여 주고, 그 마지막에 아버지 다윗이 미리 드린 성물을 공간에 들이는 손길을 보여 준다. 영광의 완비와 자기 거처가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무언가를 채우는 풍성한 한가운데서 그것 곁에 무엇을 함께 들이는지 한 번 살피는 일, 영광에 내 이름을 새기려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앞 세대와 다음 세대의 손을 잇는 지점에 서는 일. 측량을 넘는 놋이 한 장인의 이름 없는 손을 통로로 흐르고, 그 살림이 임재를 맞을 집을 채우고, 그 솔로몬이 끝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권이 이제 봉헌으로 나아간다 — 그 완비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성전이 안에서부터 다 채워졌다 —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기고(8:6),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며, 온 회중 앞에 무릎을 꿇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를 아뢰는 봉헌의 장으로 들어선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choshet* — 놋.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의 한 단지. 자막 — 솔로몬이 자기 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카메라가 백향목 기둥이 네 줄로 늘어선 레바논 나무 궁 안을 지납니다. 길이 백 규빗, 너비 십 규빗, 높이 서

른 규빗. 그 곁으로 기둥 낭실이, 재판하는 보좌의 낭실이, 그리고 솔로몬과 바로의 딸이 거할 처소가 잇닿습니다. 값진 다듬은 돌이 기초와 큰 뜰을 두릅니다. 화면이 두로로 옮겨 갑니다. 한 사람이 불러 옵니다 — 후람.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의 늦쇠 장인입니다. 그가 늦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다고 자막이 흐릅니다. 화면이 어두운 주물 작업장으로 바뀝니다. 요단 평지 숙곳과 사르단 사이 진흙 거푸집에 쇠물이 부어집니다. 두 기둥이 일어섭니다 — 높이 각각 열여덟 규빗, 둘레가 열두 규빗. 머리에 그물 같은 무늬와 석류 이백 개가 두 줄로 돌고, 백합화 모양이 엮힙니다. 두 기둥이 성전 현관 앞으로 운반되어 세워집니다. 오른쪽 기둥에 야긴이라, 왼쪽 기둥에 보아스라 이름이 붙습니다. 카메라가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 직경 열 규빗, 높이 다섯 규빗의 둥근 늦바다가 부어집니다. 테두리 아래로 박 모양이 두 줄로 돌고, 그 큰 바다를 열두 소가 받칩니다. 셋은 북을, 셋은 서를, 셋은 남을, 셋은 동을 향하고, 소의 뒤가 모두 안쪽을 향합니다. 그 곁으로 받침대 열이 좌우로 늘어섭니다. 받침대의 옆판에 사자와 소와 그룹이 새겨지고, 그 위에 물두멍 열이 엮힙니다. 솔과 부삽과 대접이 빛난 늦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막 —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화면이 다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금 단, 진설병을 두는 금 상, 좌우 다섯씩 모두 열 개의 금 등잔대, 금 꽃과 등잔과 불집게, 금 잔과 부젓가락. 빛이 금빛으로 잠깁니다. 마지막 자막 — 솔로몬 왕이 여호와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이 끝나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와의 성전 공간에 두었더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자기 궁의 준공에서 열려, 두로의 한 장인과 무게를 달지 못한 늦을 지나, 사방을 향한 열두 소와 안쪽의 금으로 — 다윗의 성물을 공간에 들이며 성전의 일이 끝나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야긴과 보아스 — 무게를 달지 못한 늦으로 채운 영광의 집"

P02 이진우: "성전 칠 년, 자기 궁 십삼 년 — 두 집의 햇수 사이에서"

P04 최현국: "두로의 한 장인이 빛은 늦 — 진흙 거푸집에서 성전 앞으로"

P05 김미영: "사방을 향한 열두 소가 받친 큰 바다 — 정결의 물을 떠받치다"

P07 오지혜: "거처에서 성전 살림으로 — 다윗의 성물로 닫히는 완비"

P11 나경아: "*nechoshet · zahav* — 마당의 늦과 안쪽의 금"

부제 제안: "칠 년 만에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자기 궁은 십삼 년에 걸쳐 짓고(7:1) — 두로의 후람이 늦으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부어 성전 앞에 세우고(7:21), 열두 소가 받친 둥근 늦바다와 받침대 열·물두멍 열을 빛난 늦으로 만들어 그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하게 하며(7:47), 금 단과 등잔대와 모든 금 기물로 안을 채워(7:48-50) 다윗이 드린 은금을 공간에 들이며 성전의 일이 끝나는(7:51) — 영광의 집을 안에서부터 채우는 성전 완비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한 늦으로 영광의 집을 채우고, 그 한가운데 자기 궁도 십삼 년에 걸쳐 지은 솔로몬 곁으로, 그리고 두로에서 불러 와 묵묵히 늦을 부은 한 장인의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봄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영광의 집이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무게를 다 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늦과, 사방을 향해 큰 물을 받친 열두 소와, 안쪽을 채운 금을요. 그리고 그 영광 곁에 슬며시 적힌 자기 궁의 십삼 년도요. 제가 어떤 집을 짓는 데 가장 오래 머물렀는지, 그 영광 곁에 무엇을 함께 들고 있었는지를 들

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뚝을 부은 그 장인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받치는 일이 제 안에 있는지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7장은 사람의 거처에서 성전의 살림으로, 뚝에서 금으로 움직여요. 1~12절이 왕궁, 13~47절이 후람의 뚝, 48~51절이 안쪽의 금과 마침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장 이하가 남북 분열,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권의 향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예요. 6장이 봉우리의 한쪽이었다면, 7장은 그 봉우리를 채워 완성하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그 완비의 첫 절(7:1)이 이미 묘해요 — 자기 궁 십삼 년이 성전 칠 년보다 길어요. 영광의 정점에서 본문은 자기 거처를 슬그머니 적고, 끝에선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 닫아요. 6장의 끼어든 조건에 이어, 7장은 영광의 완비 곁에 자기 거처를 한 줄 뒹요. 권이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기우는 그 곁의 첫 그림자가 여기 있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7:1·8·12·51의 *bayit* — '집'이 솔로몬의 궁과 바로의 딸의 처소와 여호와와 성전을 함께 가리켜요. 같은 단어가 사람의 거처와 하나님의 처소를 같이 담는데, 들인 헛수가 갈려요 — 성전 칠 년, 왕궁 십삼 년. 그리고 7:14의 후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여' 일했다는 표현은 출 31:3 성막의 브살렐과 같은 어휘권이에요. 성막을 빛은 손과 성전을 빛은 손이 같은 어휘로 묶여요. 영광의 집이 한 장인의 구비된 손을 통과해 채워져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거대한 뚝과 금의 살림 목록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영광의 집을 살아 움직이게 채우는 손길 같아요. 6장에서 세워진 빈 집에, 7장은 정결의 큰 물과 씻을 물두멍과 안쪽의 빛과 양식을 들여요. 그리고 그 채움의 끝이 다윗의 성물이에요(51절) — 한 세대가 미리 구별해 둔 것이 다음 세대의 손에서 공간에 들어가요. 영광이 한 사람의 위업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손길로 완비된다는 곁이,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한 그 뚝 아래에 흐르고 있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예요. 영광의 집을 더없이 풍성하게 채우는 바로 그 장에, 자기 궁 십삼 년(7:1)과 바로의 딸의 처소(7:8)가 평가 없이 한 줄씩 적혀요. 영광과 자기 거처가 한 장 안에서 나란히 놓이는 긴장이예요. 본문은 둘을 비교해 꾸짖지 않아요. 그냥 같이 적어요. 그런데 권을 더 읽으면 알게 돼요 — 그 바로의 딸을 비롯한 이방 아내들이 끝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요(11장). 7장의 영광이 풍성할수록, 그 곁에 슬며시 적힌 자기 거처가 뒤에 가서 더 무겁게 읽혀요. 본문은 그 긴장을 7장 안에서 풀지 않아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두로의 진흙 거푸집에서 성전 앞 마당으로, 다시 안쪽 금으로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7장이 끝나면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이 마쳐요(51절) — 6장에서 시작한 건축이 여기서 비로소 닫혀요. 그런데 봉헌은 아직이에요. 구름이 가득 차고 영광이 임하는 장면은 8장에서야 와요. 7장은 그 임재를 맞을 집을 안에서부터 다 채운 셈이에요. 빛은 한 것이, 다음의 봉헌(8장)과 그 너머의 변질(11장)을 미리 결 지어 뒹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후람이 불씨 같아요. 두로에서 불려 와 묵묵히 뚝을 부은 한 장인이요. 그의 이름은 두 기둥에도 바다에도 새겨지지 않아요. 그저 빛을 뿐이에요. 저는 무언

가를 만들 때 제 이름이 남는지부터 살피는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광의 집을 받쳐요. 제가 세우는 일들이 이름 없이도 받치는 손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영광 곁에 무엇을 함께 들고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사람의 거처에서 성전의 살림으로, 진흙 거푸집에서 안쪽의 금으로,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한 영광 곁에 슬며시 적힌 자기 거처로 — 영광의 집을 안에서부터 채우면서 그 곁에 무엇을 함께 들이시기를 묻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 채운 그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온 회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열왕기상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7:1 — 성전 칠 년보다 긴 자기 궁 십삼 년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6:38의 성전 칠 년 바로 다음에 7:1의 왕궁 십삼 년이 나란히 적힌다. 본문은 이유도 평가도 적지 않는다. 이 햇수 대조를 '자기 영광을 앞세운 솔로몬'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집(bayit)을 나란히 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7:21 — 구조를 떠받치지 않는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보아스라 이름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성전 현관 앞에 자립 기둥 둘을 세우고 이름을 붙이되, 그 이름의 뜻을 풀지 않는다. 무엇을 위한 기둥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어휘 독법(Yakin·Boaz)과 ANE 신전 기둥 배경으로만 보존하고, 교훈으로 닫지 않는다.

Q3. 7:47 — 그 모든 낫의 무게를 달지 아니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잴 수 있는 부분은 줄곧 재면서도, 기물이 심히 많아 그 총량은 측량하지 않는다. 영광의 양이 사람의 저울을 넘는다. 이 측량의 포기를 '은혜의 측량 불가' 알레고리로 닫지 않고, 본문이 적은 사실로만 보존.

Q4. 7:8 — 영광의 완비 한가운데 적힌 바로의 딸의 처소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궁 명세 사이로 이방 왕가의 딸이 거할 처소가 평가 없이 한 줄 적힌다. 본문은 꾸짖지도 칭찬하지도 않는다. 권 흐름(11장 이방 아내)으로 향하는 점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닫히지 않은 한 줄의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7:23-26 — 열두 소가 사방을 향해 받친 둥근 못바다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직경 열 규빗의 큰 바다를 열두 소가 셋씩 북·서·남·동을 향해 받친다. 같은 정결의 물이 받침대 위 물두멍 열에도 담긴다. 이 형상을 '열두 지파의 상징'으로 닫지 않고, 사물의 치수·방위와 출 38:8 성막 대야와의 어휘권, ANE 짐승상 받침 도상으로만 보존.

Q6. 7:51 — 다윗이 드린 은금을 곳간에 들이며 성전의 일을 달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솔로몬이 만든 모든 일이 끝난 뒤, 아버지 다윗이 미리 구별해 드린 성물이 곳간에 들어간다. 한 세대의 완비가 앞 세대의 손과 이어진다. 이를 '세대 계승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마침과 성물을 들인 사실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8장

1K1-008 · 역사서 · 히브리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로 메어 들이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충만하며(8:10-11) — 솔로몬이 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었으리이까"(8:27) 묻고, 일곱 간구를 "주는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잇대며(8:30-53), 끝으로 온 회중을 축복하고 화목제로 열나흘을 즐거워하는 — 손으로 지은 집에 영광이 임하되 그 집도 담지 못할 분께 들으시기를 비는 성전 봉헌의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지성소(궤가 들어가는 어두운 방)→본채·뜰(구름이 가득해 제사장이 서지 못함)→백성의 뜰(솔로몬이 단 앞에 섬)로 옮겨 가는 세 겹(6·11·22절). 안에서 밖으로, 궤에서 백성으로.
- 무대의 방향: 안쪽으로 메어 들이던 시선이 11절에서 막혀 밀려 나오고, 14절에서 백성 쪽으로 돌아섬 — 들임에서 향함으로.
- 소품: 언약궤(aron brit 1·6절), 두 돌판(luchot 9절), 구름(anan 10절), 펴진 두 손(kapayim 22·54절), 돛 단(22·64절), 셀 수 없는 소·양(63절).
- 소품의 결: 만져지는 궤·돌판·단·짐승에서 만질 수 없는 구름·손·말로 옮겨 감 — 의례의 사물에서 기도의 행위로.
- 소재의 결: 처음은 궤·구름·영광(임재가 들어옴), 가운데는 듣다·용서하다·이 곳을 향하여(비는 어휘), 끝은 축복·화목제·즐거움(잔치).
- 형식 소재: 축복의 수미(14절·55절)가 봉헌 기도를 감쌌, 일곱 간구(31~53절)가 같은 박자로 반복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압도에서 겸허로 꺾이는 벽참 — 영광이 가득해 제사장이 서지 못하다가(11절), 27절에서 '이 집도 주를 담지 못한다'로 낮아짐.
- 곤경이 깊어질수록 또렷해지는 간절함 — 맹세에서 사로잡힌 땅까지 점점 멀고 깊어지되 매번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올라옴(31~50절).
- 임재의 어둠과 펴진 손의 명암 — 감감한 데 계시겠다는 처소(12절)와 그 앞에 두 손을 편 한 사람(22절).
- 서술·기도·서술로 솟았다 가라앉는 어조 — 의례(1~11)→간구(22~53)→축복·보고(54~66). 가운데가 가장 높은 마루.
- 제물의 무게와 잔치의 소리 — 이만 이천 소·십이만 양(63절)과 큰 소리의 축복·열나흘의 절기(55·65절).
- '들으소서'(shama 30절)는 한 동사 — 임재의 집 앞에서 구하는 것이 보소서·받으소서가 아니라 들으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 66절: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 궤를 메어 올리려 백성을 모으는 것으로 열려, 그 백성이 즐거워하며 흠어드는 것으로 닫힘 — 모음과 보냄의 호.
- 집 자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올 궤에서 시작 — 집이 주인공이 아니라 임재가 주인공.
- 1~11절(임재가 들어옴) ↔ 27절(그 임재가 이 집에 갇히지 않음) — 들이되 가두지 않음.
- 모인 행렬(1·4절) ↔ 흠어진 분산(66절) — 봉헌 기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모음과 보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모으고·축복하고·기도하고·봉헌하는 중심 행위자), 제사장(궤를 메어 들이나 구름에 서지 못함 6·11절), 온 회중(보고·축복받고·즐거워하며 흠어짐 14·65절), 무대 뒤의 여호와(구름과 영광으로 임함 11절).
- 중심 사상: 들으심을 비는 처소 — '이름을 두리라 하신 이 곳을 향하여 빌면 하늘에서 들으소서'(29~30절). 집이 임재를 가두는 상자가 아니라 들으심으로 열린 곳.
- 세 동작의 협주: 들임(1~11)·빔(22~53)·즐거워함(62~66). 임재가 임했어도 거듭 들으시기를 빔 — 한 번 임함이 끝이 아님.
- 27절의 물음: 임재가 막 가득 찬 순간에 '이 집이 주를 담겠습니까' 고백 — 받았으되 가두지 않는 두 마음.
- 궤 안의 두 돌판(9절): 가장 깊고 화려한 처소에 든 것이 결국 언약의 말씀. 뭇 채를 남겨 둠(8절) — 들였으되 길 떠날 채비.
- shama/salach(듣다·용서하다 30절): 들으심이 곧 용서하심으로 이어짐. 향하는 '이 곳'과 들으시는 '하늘'이 한 기도에 잇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절): 궤의 입성과 구름 — 백성을 모음(1~5), 궤를 그룹 날개 아래로 들임(6~8), 두 돌판(9), 구름·영광 충만으로 제사장이 서지 못함(10~11).
- 컷 2 (12~21절): 축복과 회고 — 캄캄한 데 계시겠다(12~13), 백성을 향해 축복(14), 다윗의 약속이 이뤄짐(15~21).
- 컷 3 (22~30절): 퍼진 손과 물음 — 손을 펴(22),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송축(23~26), 27절의 물음, 이 곳을 향한 기도를 들으소서(28~30).
- 컷 4 (31~53절): 일곱 간구 — 맹세·패전·가뭄·기근·이방인·전쟁·사로잡힘, 매번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 컷 5 (54~66절): 마지막 축복과 화목제 — 온 회중 축복(54~61), 헤아릴 수 없는 화목제(62~64), 열나흘의 절기와 즐거운 보냄(65~66).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aron brit(ארון ברית) — 언약궤(1·6절). 두 그룹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핵심 소품.

- *kavod*(כבוד) — 영광(11절). / *anan*(אנן) — 구름(10절). 성전을 가득 채워 제사장을 물려서게 함.
- *shama*(שמע) — 듣다(28~49절 거듭). 일곱 간구를 잇는 핵심 동사. / *salach*(סלח) — 용서하다(30·34절).
- *shamayim*(שמים) — 하늘(27절)과 '하늘들의 하늘' — 그조차 담지 못함. / *makom*(מקום) — 처소·이 곳(29절).
- *tefillah*(תפילה) — 기도 / *techinnah*(תחנו) — 간구(28절). / *kapayim*(כפיים) — 편 두 손(22·54절).
- *luchot*(לוחות) — 돌판(9절). / *shelamim*(שלמים) — 화목제(62절). / *chag*(חג) — 절기(65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들임(1~11) + 송축·물음·청함(12~30) + 일곱 간구(31~53) + 축복·화목제(54~66) — 의례가 기도를 품고 다시 잔치로 풀리는 액자 구조.
- 축복 인클루지오: 14절(백성을 향한 축복)과 55절(다시 큰 소리로 축복)이 봉헌 기도를 앞뒤로 감쌌 — 형태 관찰.
- 일곱 간구 아나포라: 맹세·패전·가뭄·기근·이방인·전쟁·사로잡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의 후렴으로 반복(31~53절).
- 수사 물음의 정점: 27절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 — 송축과 간구 사이의 문지방.
- 향함과 들으심의 분리: 기도는 '이 곳을 향하여'(29절), 들으심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30·32·39·43·49절) — 한 동사로 두 곳을 잇뎀.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신전 봉헌 의례 — 임재의 상징을 지성소에 들이고 제사·축제로 봉헌하던 관습. 8:1~11·62~66의 배경.
- 왕의 봉헌 집전 — 왕이 신전을 짓고 직접 제사·기도를 집전하던 근동 왕권 이념. 8:14·22의 배경.
- 구름·연기의 신현 도상 — 신의 임재가 구름으로 신전에 임한다는 도상. 구름이 가득해 제사장이 서지 못한 8:10~11의 배경.
- 절기의 다일 잔치 — 절기에 신전에 모여 여러 날 잔치하던 축제 관습. 열나흘 잔치(8:65)의 배경.
- 제단 앞 맹세 — 맹세·재판을 성소·제단 앞에서 행하던 관습. 8:31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8:65의 열나흘을 봉헌 절기와 초막절의 합산으로, 8:27을 '임재가 성전에 매이지 않고 동시에 임재함'으로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8:10-11 ↔ 출 40:34-35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함 — 구름·영광 충만의 직접 모형)
- 왕상 8:6 ↔ 출 25:21-22 (증거판을 궤에 두고 그룹 사이에서 만나리라 — 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배경)
- 왕상 8:13 ↔ 왕상 6:11-13 (건축 한가운데 '내가 거하리라'의 조건 — 그 거하심이 8장에서 구름과 영광으로 도착)
- 왕상 8:20 ↔ 삼하 7:12-13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 솔로몬이 그 성취를 고함)
- 왕상 8:29 ↔ 신 12:5-11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 이름을 둔 처소 신학의 배경)
- 왕상 8장 ↔ 왕상 9:1-9 (봉헌 후 다시 임한 조건의 약속과 경고 — 기도 응답하며 조건 재확인)
- 왕상 8장 ↔ 대하 6-7장 (역대기의 평행 봉헌 기도와 불이 내려 제물을 사름 — 나란히 읽히는 본문)
- 왕상 8:30 ↔ 왕상 18:36-39 ('들으시고'가 향하는 권의 도착점 —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 왕상 8:27 ↔ 사 66:1-2; 행 7:48-50; 계 21:22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발등상·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음 — 손으로 짓지 않은 처소로 가는 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의 성전 뜰. 자막 —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모은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에서 올라온다. 헤아릴 수 없는 소와 양이 궤 앞에서 드러진다. 카메라가 궤를 따라 가장 안쪽 지성소로 들어간다 — 두 그룹의 큰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는다. 채가 너무 길어 성소 앞에서 그 끝이 보인다. 궤 안을 비추면 든 것은 두 돌판뿐. 그 순간 화면이 흐려진다 —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고 물러난다. 자막 —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솔로몬이 입을 연다 —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처소를 지었나이다. 그가 백성을 향해 돌아서 축복한다. 다시 단 앞으로 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편다. 한 물음이 자막으로 흐른다 —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고서 그가 비는데 — 맹세하는 자를 위하여, 패하여 돌아온 자를 위하여, 비가 막힌 땅을 위하여, 기근과 재앙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을 위하여, 싸우러 나간 군사를 위하여, 끌려가 사로잡힌 백성을 위하여 — 일곱 번, 같은 마디가 돌아온다 —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기도가 멎고 그가 무릎에서 일어나 다시 큰 소리로 온 회중을 축복한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다 — 소 이만 이천, 양 십이만. 늦 단이 작아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한다. 칠 일에 칠 일을 더한 열나흘을 온 백성이 즐거워한다. 마지막 자막 — 여덟째 날에 백성을 돌려보내매 그들이 마음에 즐거워하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페이드아웃.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들으시고 사하소서 — 담지 못할 집에 임한 영광"
- 초별 부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로 들이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 제사장이 서지 못하고 영광이 충만한데(8:10-11) — 솔로몬이 단 앞에서 손을 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8:27) 묻고서 일곱 간구를 '주는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잇대며(8:30-53), 끝으로 온 회중을 축복하고 화목제로 열나흘을 즐거워하는(8:54-66) — 손으로 지은 집에 영광이 임하되 그 집도 담지 못할 분께 들으시기를 비는 성전 봉헌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aron_brit·kavod·anan·shama·salach·shamayim·makom·tefillah·shelamim 등 16+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축복 인클루지오 + 일곱 간구 아나포라 + 27절 수사 물음 + ANE 봉헌·신현·절기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8:10-11의 구름·영광 충만을 '예배의 감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출 40:34-35 성막과의 어휘권과 anan·kavod 관찰, 신현 도상 배경으로만 둬.
- 8:27의 물음을 '겸손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임재가 막 임한 순간에 솟은 수사 물음의 본문 형태와 shamayim 강조형 관찰로만 기록. 솔로몬이 왜 이 순간 물었는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8:30-53의 일곱 간구를 '기도 응답의 법칙'으로 닫지 않고, shama·salach의 거듭됨과 '이 곳을 향하여/하늘에서 들으시고'의 분리를 형태 관찰로만 둬.
- 8:9의 두 돌판만 든 궤를 '말씀 중심의 교훈'으로 알레고리화하지 않고, 사물의 사실과 출 25장 성막과의 어휘권으로만 보존. 멜 채를 남겨 둔 8:8도 사물 관찰로만.
- 8:65의 열나흘 절기를 절기 확정으로 닫지 않고, 봉헌 절기와 초막절 합산 독법을 독법 배경으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8장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메어 올려 지성소 두 그룹의 날개 아래로 들이자(8:6)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충만하며(8:10-11) —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8:27) 묻고서, 맹세·패전·가뭄·기근·이방인·전쟁·사로잡힘의 일곱 간구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잇대며(8:30-53), 끝으로 온 회중을 축복하고 헤아릴 수 없는 화목제를 드려 칠 일에 칠 일 열나흘을 즐거워하다 백성을 돌려보내는(8:54-66), 손으로 지은 집에 영광이 임하되 그 집도 담지 못할 분께 들으시기를 비는 성전 봉헌의 장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의 성전 뜰.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에서 올라온다. 행렬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소와 양이 드러진다. 궤가 가장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 두 그룹의 큰 날개 아래 놓이고, 그 안에는 호렙의 두 돌판뿐이다. 그 순간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 제사장들이 물러난다 — 여호와와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돌이켜 축복하고, 다시 단 앞으로 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편다. 한 물음이 솟는다 —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담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러고서 그가 빈다 — 맹세하는 자를 위하여, 패하여 돌아온 자를 위하여, 비 막힌 땅을 위하여, 기근을 위하여, 먼 나라의 이방인을 위하여, 싸우러 나간 군사를 위하여, 끌려간 백성을 위하여 — 일곱 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기도가 멎고 그가 일어나 다시 큰 소리로 축복한다. 화목제로 소 이만 이천, 양 십이만을 드려 늦 단이 작아 뜰을 구별하고, 열나흘을 즐거워하다, 여덟째 날에 백성을 즐거이 돌려보낸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지성소에서 백성의 뜰로 옮겨 가는 무대, 궤·돌판·구름·편 손·늦 단·셀 수 없는 제물의 소품 — 들이고 빌고 즐거워하는 세 결의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압도에서 겸허로 꺾이는 벽참. 곤경이 깊어질수록 또렷해지는 간절함. 임재의 어둠과 퍼진 손의 명암. '들으소서'(shama 30절)는 한 동사.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궤를 메어 올리려 모음(1절)으로 열려 즐거워하며 흠어짐(66절)으로 닫힘. 임재가 들어옴(1~11절)과 그 임재가 갇히지 않음(27절)이 마주 봄.
4 등장인물·사상	모으고·축복하고·기도하는 솔로몬. 궤를 메나 서지 못하는 제사장. 임하시는 여호와. 들으심을 비는 처소 (무조건 갇히는 집이 아님).
5 장면 컷	궤의 입성과 구름(1~11)/축복과 회고(12~21)/퍼진 손과 물음(22~30)/일곱 간구(31~53)/축복과 화목제 (54~66) 5컷. 컷 3의 물음은 간구의 문지방.
6 의문·발견·정보	shama의 거듭됨('이 곳'과 '하늘'을 잇냄). 점점 멀어지는 일곱 간구. 27절의 물음. 두 돌판만 든 궤. 봉헌·신 현·절기 배경.
7 동영상	다윗 성의 궤 → 구름과 영광 충만 → 퍼진 손과 물음 → 일곱 간구 → 화목제와 열나흘의 즐거움.
8 초별 제목·부제	"들으시고 사하소서 — 담지 못할 집에 임한 영광"
9 기도·내면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이 먼저 자기 일의 한계를 말함 — 이룬 것 안에 주를 가두려 하지 않았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영광의 정상에 솟은 담지 못함:**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권의 봉우리가 5~8장의 성전 건축과 봉헌이고, 8장은 그 봉우리의 정상이다 — 6장이 영광의 집을 지었다면 8장은 그 집에 영광이 임하고 봉헌된다. 그런데 본문은 영광을 마냥 부풀리지 않는다. 구름과 영광이 막 가득 찬 그 순간,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묻는다 —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8:27). 가득함의 정점에서 본문은 그 가득함이 한 집에 매이지 않음을 밝힌다. 권의 향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 로다"(18:39)인데, 8장은 그 영광의 정상에서 이미 임재가 한 처소에 갇히지 않음을 적어 둔다. 정상에서 본문 은 다음 내리막을 가늠하게 한다.

2. **결 2 — 들으심으로 열린 집:** 솔로몬이 이 집을 두고 끝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갇혀 사시기'가 아니라 '백성이 이 곳을 향하여 빌면 하늘에서 들으시기'(8:29-30). 그래서 임재는 매임이 아니라 들으심의 약속 으로 풀린다. 일곱 간구가 맹세에서 사로잡힌 먼 땅까지 점점 깊은 곤경으로 내려가도(8:31-50), 매번 같은 마 디로 올라온다 —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향하는 곳은 '이 곳'이되 들으시는 곳은 '하늘'이다. 같은 동사 shama가 두 곳을 한 기도에 잇댄다. 본문은 이 분리를 설명하지 않고 일곱 번 반복으로만 둔다. 그 무평 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 집을 향해 빌되 집 안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는 결을.

3. **결 3 — 가장 깊은 곳에 든 언약:** 8장은 가장 화려한 처소의 가장 안쪽을 한 번 열어 보인다. 칠 년을 들여 지 은 집, 그 안의 정금의 방, 그 방의 두 그룹 날개 아래로 들인 궤 — 본문은 그 궤 안을 꼭 집어 적는다. "그 안 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8:9). 가장 귀한 곳이 향한 가장 깊은 곳에 든 것은 화려한 무엇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다. 권의 봉우리, 영광의 집을 봉헌하는 그 정상이, 그 안쪽에 결국 무엇 을 들였는가를 8장이 한 궤로 비취 둔다. 뭇 채를 빼지 않아 그 끝이 보였다는 작은 사실(8:8)까지, 들였으되 길 떠날 채비를 남긴 결로 함께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출 40:34-35 —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함 — 8:10-11의 직접 모형.
- 출 25:21-22 — 증거판을 궤에 두고 그룹 사이에서 만나리라 — 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8:6의 배경.

- 왕상 6:11-13 — 건축 한가운데 '내가 거하리라'의 조건 — 그 거하심이 8장에서 구름과 영광으로 도착.
- 삼하 7:12-13 —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 8:20에서 그 성취를 고함.
- 신 12:5-11 —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 8장의 이름을 둔 처소 신학의 배경.
- 왕상 9:1-9 — 봉헌 후 다시 임한 조건의 약속과 경고 — 8장의 기도에 응답하며 조건 재확인.
- 대하 6-7장 — 역대기의 평행 봉헌 기도와 불이 내려 제물을 사름 — 나란히 읽히는 본문.
- 왕상 18:36-39 —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 8장의 '들으시고'가 향하는 권의 도착점.
- 사 66:1-2; 행 7:48-50; 계 21:22 —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발등상·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음 — 손으로 짓지 않은 처소로 가는 길.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8:6의 입성에서 시작한다 — 칠 년의 집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궤를 먼저 본다. 집이 주인공이 아니라 임재가 주인공인 그 차례를 듣는다.
- 멈춤 1: 8:10-11에서 멈춘다 — 구름에 밀려난 제사장. 영광이 사람을 물려서게 하는 그 가득함을 쫓는다.
- 멈춤 2: 8:27에서 멈춘다 — 가득함 한가운데 솟은 물음. 받았으되 가두지 않는 그 두 마음을 쫓는다.
- 끝: 8:9에서 멈춘다 — 두 돌판만 든 궤. 내가 세우는 일의 가장 안쪽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궤의 입성과 구름(1~11)·축복과 회고(12~21)·퍼진 손과 물음(22~30)·일곱 간구(31~53)·축복과 화목제(54~66)의 다섯 컷 완결
- [x] 축복 인클루지오(14~55)와 일곱 간구 아나포라(31~53)의 반복 구조
- [x] shama·salach(듣다·용서하다 30절)와 '이 곳을 향하여/하늘에서 들으시고'의 분리
- [x] 27절의 수사 물음과 두 돌판만 든 궤(9절)의 사물 사실
- [x] 6장의 거하리라(6:13)에서 도착한 구름·영광과 9장의 조건 재확인으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이는데, 8장은 권의 가장 높은 정상 — 영광의 집에 영광이 임하고 봉헌되는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성막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출 25:8)와 6장 한가운데 끼어든 '내가 거하리라'(6:13)의 조건이, 이제 8장에서 구름과 영광으로 한 집에 도착한다. 출 40장의 성막을 덮은 구름이 그대로 성전을 덮는다(8:10-11).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의 정점이 여기서는 영광의 임함과 들으심을 비는 봉헌 기도로 나타난다. 권의 heart, 8장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이 바로 이 장의 기도 그 자체이며,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과 한 결로 이어진다. 8장의 봉헌이 9장의 조건 재확인과 그 너머 11~12장의 분열로 이어지는 긴 호의 정상이며, 그 정상의 한복판에 이미 '이 집이 주를 담겠습니까'(8:27)라는 물음이, 영광이 한 처소에 매이지 않음을 새겨 둔다.

임재의 들임(8:1-11)에서 들으심의 간구(8:22-53)로, 다시 축복과 잔치(8:54-66)로 / 다윗 성의 궤(8:6)에서 하늘로 퍼진 손(8:22)으로 / 영광의 정상에서 그 영광에 매이지 않는 물음(8:27)으로 — 가득한 집 앞에서 담지 못할 분께 들으시기를 비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6장이 지은 영광의 집에 영광이 임하고 봉헌되는 정상의 운동이다. 의례의 서술(1~11절)이 송축과 물음(12~30절)으로 쏘고, 그 물음을 지나 일곱 간구(31~53절)로 깊어졌다가, 축복과 잔치(54~66절)로 풀린다. 그러나 8장이 끝나도 봉헌의 끝은 9장에서 다시 임한 조건의 약속과 경고로 이어진다 — '네가 만일 행하면... 그러나 만일 돌이키면 끊으리라.' 8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 끌고 가는 호의 가장 높은 정상이며, 그 호 전체가 한 번의 물음(8:27)과 일곱 번의 '들으시고'를 '영광이 한 처소에 매이지 않고, 멀리서도 들으시며, 그 매임이 어긋나도 끝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18:39)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성전의 봉헌식이다 — 누가 궤를 메었고, 구름이 언제 임했고, 무엇을 일곱 번 빌었고, 제물이 얼마였고, 며칠을 잔치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들으심을 비는 손길이다. 솔로몬이 끝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집에 간섭 사시기가 아니라, 백성이 이 곳을 향하여 빌면 하늘에서 들으시기다(8:30). 성막에서 시작된 임재가 이제 한 집에 도착하되, 그 임재는 매임이 아니라 들으심의 약속으로 적힌다. 둘째, 영광이 한 처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득함이 막 임한 그 순간 본문은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담지 못한다'(8:27)를 둔다. 임재를 받고도 그 임재를 가두지 않는 결이 영광의 정상에 놓인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을 미화로만 담지 않는다. 일곱 간구의 마지막은 이미 패전·기근·사로잡힘을 내다본다(8:33-50) — 이 백성이 범죄하여 끌려갈 날을 봉헌의 기쁨 한가운데 적어 둔다. 권을 더 읽으면 이 집을 봉헌한 자가 끝내 이방 신을 따르고 나라가 갈라진다(11~12장). 본문은 영광과 그 영광이 어긋날 가능성을 나란히 둘 뿐, 그 둘 사이의 거리를 8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봉헌 기도로만 둔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이루고 그 안에 무엇을 가두려 하는가 — 다 이루었으니 되었다 여기고 듣기를 구하지 않은 적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향하는 곳과 들으시는 곳이 다름을 잊지 않는가 — 영광이 가득한 그 순간에 '이 집도 주를 담지 못합니다' 한 번 멈춰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큰 것을 봉헌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칠 년의 집보다 그 안에 들어올 궤를 먼저 보여 주고, 구름에 밀려난 제사장을 보여 주고, 영광 한가운데 솟은 '이 집이 주를 담겠습니까'를 보여 주고, 가장 깊은 곳에 든 두 돌판을 보여 주고, 멀리 끌려간 땅에서도 이 곳을 향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기를 빈 일곱 마디를 보여 준다. 가득함과 담지 못함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무언가를 이루고도 그 안에 임재를 가두지 않는 일, 다 이루었어도 거듭 들으시기를 비는 일, 그리고 향하는 곳과 들으시는 곳이 다름을 잊지 않는 일. 한 번 솟은 물음과 일곱 번의 '들으시고'가 한 봉헌 기도를 통로로 흐르고, 그 집이 들으심으로 열린 처소가 되고, 그 솔로몬이 끝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권이 이제 더 깊이 열린다 — 그 정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봉헌이 열나흘로 끝났다 —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시고(9:3), 행하면 왕위를 굳히고 돌이키면 이 성전을 던지리라는 조건을 다시 두며, 영광의 정상 너머로 갈림길을 펼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ama* — 들으시고.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의 성전 뜰. 자막 —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 시온에서 올라옵니다. 행렬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소와 양이 드러져,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궤를 따라 본채를 지나 가장 안쪽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 감람나무로 깎아 금 입힌 두 그룹이 큰 날개를 펴 궤와 그 메는 채를 위에서 덮습니다. 채가 너무 길어 성소 앞에서 그 끝이 보입니다. 궤 안을 비추면, 호렙에서 모세가 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흐려집니다 —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자막 —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입을 엽니다 —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처소, 영원히 머무실 곳을 지었나이다. 그가 얼굴을 백성에게로 돌이켜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다시 여호와와 단 앞으로 가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입니다. 한 물음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고서 그가 빙니다 — 이웃에게 맹세시킴을 받고 이단 앞에서 맹세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에게 패하고 돌아와 비는 자를 위하여, 하늘이 단혀 비가 없는 땅을 위하여, 기근과 염병과 재앙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을 위하여, 주께서 보내사 싸우리 나간 군사를 위하여, 범죄하여 사로잡혀 끌려간 먼 땅의 백성을 위하여 — 일곱 번, 같은 마디가 돌아옵니다 —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 기도가 멎고, 그가 여호와와 단 앞 무릎에서 일어나 다시 큰 소리로 온 회중을 축복합니다 —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시다 — 소 이만 이천, 양 십이만. 숫 단이 그 많은 제물을 다 받기에 작아, 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합니다. 칠 일에 칠 일을 더한 열나흘을 온 백성이 큰 회중으로 즐거워합니다. 마지막 자막 —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여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다윗 성에서 올라온 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구름과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한 물음과 일곱 간구를 지나, 마지막 축복과 화목제로 — 열나흘을 즐거워하며 흠어지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들으시고 사하소서 — 담지 못할 집에 임한 영광"

P02 이진우: "축복이 감싼 일곱 간구 — '하늘에서 들으시고'의 후렴"

P04 최현국: "구름에 밀려난 제사장 — 캄캄한 처소에 퍼진 두 손"

P05 김미영: "두 돌판만 든 궤 — 가장 깊은 곳에 든 언약"

P07 오지혜: "맹세에서 끌려간 땅까지 — 멀어질수록 또렷해지는 향함"

P11 나경아: "*shama · salach* — 들으심이 곧 용서하심"

부제 제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로 들이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 제사장이 서지 못하고 영광이 충만한데(8:10-11) — 솔로몬이 단 앞에서 손을 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 성전이오리이까'(8:27) 묻고서 일곱 간구를 '주는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잇대며(8:30-53), 끝으로 온 회중을 축복하고 화목제로 열나흘을 즐거워하는(8:54-66) — 손으로 지은 집에 영광이 임하되 그 집도 담지 못할 분께 들으시기를 비는 성전 봉헌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영광이 가득한 그 집 앞에서 "이 성전이 주를 담겠습니까" 묻고도 "그래도 들으소서" 빈 솔로몬 겹으로, 그리고 일곱 번 같은 마디를 잇댄 그 펴진 두 손 겹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이 가장 먼저 자기 일의 한계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영광이 가득한 그 집을 두고 '이 집도 주를 담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가두려 하지 않고 '그래도 들으소서'를 일곱 번 잇댔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 안에 주를 가두려 한 적은 없는지, 다 이루었으니 되었다 여기고 듣기를 구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를 듣고 머물겠습니다. 향하는 곳과 들으시는 곳이 다를 것을 잊지 않겠어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8장은 임재의 들임에서 들으심의 간구로, 다시 축복과 잔치로 움직여요. 1~11절이 궤와 구름, 12~30절이 송축과 물음과 청함, 31~53절이 일곱 간구, 54~66절이 축복과 화목제예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그리고 권의 향방이 한 물음으로 찍혀 있어요 —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시로다"(18:39). 6장이 영광의 집을 짓는 봉우리였다면, 8장은 그 봉우리의 정상 — 그 집에 영광이 임하고 봉헌되는 국면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 한가운데에 27절의 물음이 솟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본문은 이미 이 집이 임재를 가두지 못함을, 영광이 한 처소에 매이지 않음을 적어 뒀어요. 8장은 권이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그 긴 호의 가장 높은 정점이에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8:30의 *shama* — '들다·경청하다'. 일곱 간구를 잇는 핵심 동사예요. 영광이 임한 집을 두고 솔로몬이 거듭 구하는 것이 한 가지 — 들으심이에요. 그리고 그 들으심 옆에 늘 *salach*(용서하다)가 따라와요(30·34·36·39·50절). 들으심이 곧 사하심으로 이어져요. 또 한 단서, 8:27의 *shamayim*과 '하늘들의 하늘'이에요 — 가장 넓은 공간조차 담지 못함을 겹쳐 말해요. 임재가 한 처소에 들되 그 처소에 갇히지 않는 결을 한 어구가 가리켜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성전의 봉헌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들으심을 비는 손길 같아요. 솔로몬이 이 집을 두고 끝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갇혀 계시기'가 아니라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빌면 하늘에서 들으시기'예요(29~30절). 그래서 임재는 매임이 아니라 들으심의 약속으로 풀려요.

일곱 간구가 점점 먼 곤경으로 내려가도 매번 같은 마디로 올라오는 것은, **임재가 곁에 간혀 있어서가 아니라 멀리서도 들으시기 때문**임을 가리켜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그 긴 호의 가장 높은 매듭이 이 봉헌의 기도예요.

P01 한나래: 긴장이예요. 임재가 막 가득 찬 바로 그 순간에, '이 집이 주를 담겠습니까'라는 물음이 솟아요. 가득함과 담지 못함이 한 장 안에서 부딪쳐요. **영광이 임했어도 그 영광이 이 집에 매이지 않는다는 긴장**이예요. 그리고 권을 더 읽으면 알게 돼요 — 이 집을 봉헌한 솔로몬이 끝내 이방 신을 따르고, 나라가 갈라져요(11~12장). 8장의 영광이 높을수록, 그 한가운데 솟은 27절의 물음이 더 무겁게 읽혀요. 본문은 그 긴장을 8장 안에서 풀지 않아요. 그냥 가득함 한복판에 담지 못함을 한 물음으로 둘 뿐이예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다윗 성에서 올라온 궤에서 하늘로 퍼진 두 손으로 움직이는 운동**이예요. 6장이 영광의 집을 준비했다면, 8장은 그 집에 영광이 임하고 봉헌되는 셈이예요. 그런데 8장이 끝나도 그 봉헌의 끝은 9장에서 다시 임한 조건의 약속과 경고로 이어져요 — '네가 만일 행하면... 그러나 만일 돌이키면!' 봉헌의 기쁨이 다음의 조건과 경고를 미리 결 지어 뒀어요. 영광의 집을 봉헌한 자가 그 영광을 지킬지를 묻는 순서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9절이 불씨 같아요. 가장 깊고 화려한 처소에 들인 궤, 그 안을 열어 보니 든 것은 두 돌판뿐인 그 사실이요. 가장 귀한 곳이 향한 가장 안쪽에 결국 든 것이 언약의 말씀이예요. 저는 무언가의 가장 안쪽에 화려한 것을 들이려 하는데, 이 궤는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들어요. 제가 세우는 일들의 가장 안쪽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임재의 들임에서 들으심의 간구로, 다윗 성의 궤에서 하늘로 퍼진 손으로, 영광의 정점에서 그 영광에 매이지 않는 물음으로 — 가득한 집 앞에서 담지 못할 분께 들으시기를 비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행하면 복이요 돌이키면 끊으리라는 조건을 다시 두십니다.

열왕기상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8:27 — 임재가 막 가득 찬 순간에 솟은 '이 집이 주를 담겠습니까'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영광이 충만한 바로 그 국면에서(11절), 그 집을 지은 사람이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담지 못한다'고 물어 자기 집의 한계를 먼저 말한다. 본문은 왜 이 순간에 이 물음을 두었는지 풀어 주지 않는다. 이 물음을 '겸손의 교훈'으로 단지 않고, 받았으되 가두지 않는 두 마음의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8:30-53 — 일곱 간구가 '이 곳을 향하여' 빌되 '하늘에서' 들으심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기도는 이 곳을 향하여 드리되, 들으심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온다(29~30절). 같은 동사 shama가 '이 곳'과 '하늘'을 한 기도에 잇댄다. 향하는 곳과 들으시는 곳의 갈림을 '기도 응답의 법칙'으로 단지 않고, shama·salach의 거듭됨과 향함/들으심의 분리를 형태 관찰로만 보존.

Q3. 8:10-11 — 구름이 가득해 제사장이 서지 못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물러난다. 영광이 사람을 밀어낸다. 출 40:34-35의 성막과 같은 어휘권이다. 이 장면을 '예배의 감격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anan·kavod 어휘와 성막과의 어휘권, 신현 도상 배경으로만 보존.

Q4. 8:9 —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꼭 집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가장 깊고 화려한 정금의 방에 들인 궤, 그 안에 든 것은 호렙의 두 돌판뿐이다. 본문은 그 사실만 또렷이 적고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말씀 중심의 교훈'으로 알레고리화하지 않고, 사물의 사실과 출 25장 성막과의 어휘권으로만 보존.

Q5. 8:54-66 — 봉헌 기도 뒤에 해야될 수 없는 화목제와 열나흘의 잔치가 잇따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소 이만 이천·양 십이만의 화목제로 늦 단이 작아 뜯을 구별하고(63~64절), 칠 일에 칠 일을 더한 열나흘을 즐거워하다 백성을 돌려보낸다. 압도하던 가득함이 끝에 풀려 즐거움이 된다. 이 잔치를 절기 확정으로 단지 않고, 봉헌과 절기의 합산 독법을 독법 배경으로만 보존.

Q6. 8:14-55 — 봉헌 기도를 앞뒤로 감싼 두 번의 축복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이 백성을 향해 돌이켜 축복하고(14절), 기도 뒤에 다시 큰 소리로 축복한다(55절). 기도가 두 축복 사이에 놓인다. 이 수미를 '예배 순서의 교훈'으로 단지 않고, 봉헌 기도를 감싼 축복 인클루지오의 형태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9장

1KI-009 · 역사서 · 히브리어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째 나타나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9:3) 하시되, 곧바로 "만일 너희가 돌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 버려 지나는 자마다 놀라리라"(9:6-9)는 조건의 경고를 붙이고 — 갈릴리 스무 성읍이 가 불이라 불리며(9:13) 부역·국고성과 오빌의 금(9:15-28)이 이어지는, 영광의 정점에서 분열로 가는 길목이 열리는 전환의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형상 없는 두 번째 현현의 곳(9:2)→갈릴리 스무 성읍(9:11)→요새 성읍들(9:15-19)→홍해 에시온게 벨과 오빌 항로(9:26-28). 한 음성에서 먼 바다로 넓어지는 무대.
- 무대의 방향: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음성에서 손에 잡히는 땅·바다의 위협으로 시선이 내려옴.
- 소품(말): 다 지은 두 집(9:1-10), '내 이름·눈·마음'의 약속(9:3), 던져진 성전·폐허·비웃음의 환영(9:7-8).
- 소품(실물): 히람에게 준 스무 성읍과 '가불'(9:11-13), 부역(mas 9:15), 배와 오빌의 금 사백이십 달란트(9:26-28).
- 소재의 결: 처음은 약속(이름·영원히·마음), 가운데는 경고(만일·돌아서면·끊고·던지고·폐허), 끝은 행정·부(성읍·부역·금).
- 형식 소재: 두 번째 현현(9:2)이 첫 번째(3:5)를 불러옴. 6:11-13의 조건과 짝을 이루는 9:1-9의 확장된 경고. 1~9절(하늘 음성)/10~28절(땅의 보고)의 단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환한 국면에 드리운 서늘함 — 봉헌 직후 따뜻한 약속(9:3) 곧바로 뒤에 '만일'과 폐허(9:4-8).
- 화려한 보고 속의 작은 균열 — 동맹 히람이 선물을 퇴짜 놓고 '가불'이라 부름(9:11-13).
- 빛 가운데 한 점 어둠의 명암 — 위협의 대낮 위로 무너진 성전·손가락질의 그림자(9:7-8). 6장의 '어둠 속 금빛'과 반대.
- 약속·경고·보고로 두 번 꺾이는 어조 — 너그러운 1인칭 약속→무서운 가정법 경고→담담한 행정 산문.
- 환청 같은 비웃음과 손에 잡히는 금 — 아직 안 일어난 수군거림(9:8)과 오빌의 금 사백이십 달란트(9:28)가 한 장에.
- 마음을 두신 집을 던지신다는 결 — '항상 거기에'(lev·ayin 9:3)와 '던져 버리리라'(natash 9:7)가 같은 음성 안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이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룬 때에."
- 28절: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 '다 이룬 때'(위업의 완성)로 열려 '금을 가져왔더라'(부의 도착)로 닫힘 — 처음과 끝이 둘 다 절정.
- 그 절정 사이에 '만일 돌아서면 던지리라'(9:6-7)의 폐허 경고가 끼어 있음.
- 9:3(임재의 약속) ↔ 9:28(부의 축적) — 그 사이에 신을 바꿀 위험(9:6)이 적힘. 무엇을 향하느냐의 갈림.
- 보이지 않는 음성(9:2)에서 손에 잡히는 금(9:28)으로 — 하늘에서 땅·바다로 내려오는 시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다 이루고·성읍을 주고·부역을 일으키고·배를 짓는 행위자), 여호와(두 번째 현현 9:2에서 약속과 경고를 발화), 히람(선물을 퇴짜 놓고 '가불'이라 부름·금 백이십 달란트), 이름 없는 부역의 무리(이방 남은 자손·신복·뱃사람).
- 중심 사상: 조건에 매인 임재 —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마음이 거기 있으리라'(9:3)와 '만일 돌아서면 이 성전이라도 던지리라'(9:6-7)가 한 호흡에. 6:12-13의 조건이 완공 후 경고로 확장됨.
- 미리 적힌 미래: 던져진 성전을 보고 지나가는 자가 묻는 물음(9:8)과 그 답(9:9,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므로')이 경고 안에 미리 들어 있음.
- 두 음성과 한 손: 하늘의 음성은 약속·조건(2-9절), 땅의 일은 솔로몬의 손(10-28절). 본문은 경고 바로 뒤에 위업을 놓아 둘을 잇당게 함.
- 가불의 균열: 영광의 왕이 동맹에게 준 선물이 퇴짜 맞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보존됨(9:13). 화려한 보고 속의 작은 흠집.
- 저주 어휘권: karat(꺾다)·natash(던지다)·놀람·비웃음(9:7-8)은 신 28:37·29:24-28의 언약 저주 어휘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두 번째 현현과 약속 — 다 이룬 때(1) 나타나(2), 이름·눈·마음을 거기 두며(3), 다윗처럼 행하면 왕위를 견고히(4-5).
- 컷 2 (6~9절): 조건의 경고 — 돌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끊고 이 성전을 던져,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묻고 그 답이 주어짐.
- 컷 3 (10~14절): 히람과 가불 — 이십 년 만에 두 집을 짓고(10), 갈릴리 스무 성읍을 줌(11), 히람이 못마땅해 '가불'이라 부름(12-13), 금 백이십 달란트(14).
- 컷 4 (15~28절): 부역과 금 — 밀로·성벽·하솔·므깃도·게셀·국고성·병거성(15-19), 이방 자손의 노역과 이스라엘의 군사·관리직(20-23), 바로의 딸(24), 일 년 세 번 제사(25), 에시온게벨의 배와 오빌의 금(26-28).
- 컷 구조: 컷 1·2는 한 음성 안의 약속→경고. 컷 3·4는 그 음성이 맺은 뒤의 위업 — 본문이 경고 바로 뒤에 위업을 잇당게 놓음. 솔로몬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9장에서 닫히지 않고 이월.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shem*(שֵׁם) — 이름(9:3·7).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끊으리라'에 거듭.
- *lev*(לֵב) — 마음 / *ayin*(עַיִן) — 눈(9:3).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 *im*(אִם) — 만일(9:4·6). 순종의 조건과 배반의 조건, 두 갈림.

- *shuv*(שׁוּב) — 돌아서다 / *natash*(נָטַשׁ) — 던지다·내버리다 / *karat*(כָּרַת) — 끊다(9:6-7).
- *Kabul*(קָבַל) — 가불(9:13). 스무 성읍에 붙은 못마땅함의 이름. / *mas*(מַס) — 부역(9:15).
- *Ofir*(אֹפִיר) — 오빌 / *Etsyon Gever*(עֵצְיוֹן גֶּעֶר) — 에시온게벨 / *kikkar*(כִּכָּר) — 달란트(9:26-28).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두 번째 현현 인클루지오: 9:2 '두 번째로 나타나'가 3:5 기브온의 첫 현현을 불리와 솔로몬의 통치를 두 만 남 사이에 묶음 — 형태 관찰.
- 약속 다음 조건(promise-then-condition): 9:3의 너그러운 약속 곧바로 뒤에 9:4-6의 두 '만일' — 임재가 조건에 매임을 형식으로 드러냄.
- 만일-그러면 경고(if-then warning): 9:6-9가 신 28장 저주 양식을 따라 '돌아서면→끊고 던지고 폐허가 되리라'로 전개.
- 미래 대화 삽입: 9:8-9에 던져진 성전을 보는 자의 물음과 답이 미리 들어옴 — 신 29:24-28과 같은 결.
- 지명 명명 설화(etiology): 9:13 '가불'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보존되는 명명 설화 형식.
- 행정 목록(administrative catalog)과 오빌의 금 코다: 9:15-25 건축·부역 목록과 9:26-28 금 무역으로 닫는 끝맺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왕실 건축 행정 — 국고성·병거성·요새 성읍을 부역으로 짓고 비문에 남기던 통치 과시. 9:15-19의 배경.
- 이중 노동 체계 — 정복지 원주민을 부역 노예(*mas-obed*)로, 자국민은 군사·관리로 둔 관습. 9:20-22의 배경.
- 왕들 사이의 영토 양도 — 한 왕이 다른 왕에게 성읍·자원을 넘기던 외교 관습. 9:11-14의 배경.
- 원거리 해상 무역 — 홍해 에시온게벨을 거점으로 오빌까지 금을 실어 오던 항로. 9:26-28의 배경.
- 신전 유기 모티프 — 신이 처소를 버리면 도성이 폐허가 된다는 근동 관념. 9:7-8 '이 성전을 던지리라'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9:13 '가불'을 척박·진흙의 땅으로, 9:3 '마음이 거기에'를 조건에 매인 임재의 지속으로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9:2 ↔ 왕상 3:5-14 (기브온의 첫 현현 — '두 번째로 나타나'가 가리키는 첫 번째)
- 왕상 9:1-9 ↔ 왕상 6:11-13 (건축 도중의 조건의 약속 — 완공 후 재확인·확장)
- 왕상 9:3 ↔ 왕상 8:22-53 (솔로몬의 봉헌 기도 —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가 응답하는 곳)
- 왕상 9:6-9 ↔ 신 28:15-68 (언약을 떠나면 임할 저주 — 조건 경고의 율법 배경)
- 왕상 9:8-9 ↔ 신 29:24-28 (이 땅이 어찌 이같이 되었느냐 — '지나는 자마다 놀라리라'의 직접 결)
- 왕상 9:6 ↔ 왕상 11:1-13 (솔로몬이 이방 신을 따르고 나라가 갈라질 예고 — 조건이 어긋나는 곳)
- 왕상 9:7-8 ↔ 왕하 25:8-9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짐 — '이 성전을 던지리라'가 도착하는 끝)
- 왕상 9:1-9 ↔ 대하 7:11-22 (같은 두 번째 현현의 병행 기록)
- 왕상 9:19-26-28 ↔ 신 17:14-17 (왕이 말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 병거성·금 축적의 율법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 자막 — 솔로몬이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룬 때. 화면이 어두워지고 형상 없는 한 음성이 임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 음성이 먼저 따뜻하다 —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네가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행하면, 네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음성의 결이 식는다 — 그러나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라. 화면에 환영이 비친다 — 높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 비웃으며 묻는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면 답하리라 —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므로. 음성이 멎고 환영이 사라진다. 화면이 대낮으로 바뀐다. 자막 — 솔로몬이 두 집을 이십 년에 걸쳐 지었더라. 갈릴리의 스무 성읍을 히람에게 준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둘러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 내 형제여, 당신이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그가 그 땅을 가불이라 부른다. 카메라가 넓어진다. 부역하는 무리가 돌을 나른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읍이 솟는다. 바로의 딸이 자기 집으로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바다로 간다 —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시온게벨. 배들이 지어지고, 솔로몬의 종들과 히람의 뱃사람이 함께 오른다. 배가 오빌에 닿아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싣는다. 그 금이 솔로몬에게 도착한다.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만일 돌아서면 — 다 이룬 곳에 드리운 경고"
- 초벌 부제: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9:3) 하시되 — 그 약속 곧바로 뒤에 '만일 너희가 돌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 버려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리라'(9:6-9)는 조건의 경고가 붙고, 갈릴리 스무 성읍이 '가불'이라 불리며(9:13) 부역·국고성과 오빌의 금(9:15-28)이 이어지는 — 영광의 정점에서 분열로 가는 길목이 열리는 전환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shem·lev·ayin·im·shuv·natash·karat·Kabul·mas·Ofir·Etsyon_Gever·kikkar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번째 현현 인클루지오 + 약속-조건 형식 + 미래 대화 삽입 + 가불 명명 설화 + ANE 신전 유기·이중 노동·해상 무역)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9:6-9의 조건의 경고를 '심판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약속 곧바로 뒤에 붙은 '만일' 구문과 karat·natash 어휘, 신 28·29장 저주 어휘권의 관찰로만 둬. 솔로몬의 반응이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9:3의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를 '무조건적 임재'로 단정하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조건(9:6)과 함께 한 단락의 형태로만 기록. lev·ayin 어휘 관찰로만.
- 9:11-13의 가불을 '솔로몬의 인색함' 또는 '히람의 탐욕'으로 평가하지 않고, 선물이 퇴짜 맞고 이름이 '오늘 까지' 보존된 명명 설화의 사실과 적박한 땅이라는 후대 독법 배경으로만 둬.
- 9:15-22의 부역을 '압제의 고발'로 끌고 가지 않고, 왕실 건축 행정과 이중 노동 체계라는 ANE 배경, mas 어휘의 사실로만 보존. 평가는 권을 더 읽으며 이월.
- 9:26-28의 오빌의 금을 '탐욕의 증거'로 닫지 않고, 해상 무역의 사실과 신 17:14-17 왕의 규례 어휘권으로만 둬. 솔로몬의 부가 권 흐름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9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룬 그때(9:1)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9:2)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9:3) 약속하시되 — 그 약속 곧바로 뒤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아서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고 이 성전이라도 던져 버려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으리라"(9:6-9)는 조건의 경고를 붙이고, 그 음성이 몇자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갈릴리 스무 성읍이 '가불'이라 퇴짜를 맞으며(9:11-13) 부역으로 국고성·병거성을 세우고(9:15-22) 에시온게벨의 배가 오빌에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실어 오는(9:26-28), 영광의 정점에서 그 영광이 조건에 매여 분열로 가는 길목을 여는 전환의 장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 솔로몬이 두 집을 다 짓고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룬 그때, 형상 없는 한 음성이 두 번째로 임한다. 음성이 먼저 따뜻하다 — 네 기도를 들었고,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내가 다윗처럼 행하면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결이 식는다 — 너희가 돌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땅에서 끊고 이 성전이라도 던져 버리리니, 높던 집이 무너져 지나는 자마다 놀라 묻고, 그 답이 주어지리라 —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므로. 음성이 멎고 환영이 사라진다. 화면이 대낮으로 바뀐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스무 성읍을 주나 히람이 못마땅해 '가불'이라 부른다. 부역하는 무리가 밀로와 성벽, 하술·므깃도·게셀, 국고성과 병거성을 세운다. 바로의 딸이 자기 집으로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바다로 간다 — 에시온게벨에서 지은 배가 오빌에 닿아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싣고 솔로몬에게 도착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형상 없는 음성에서 성읍·요새·먼 바다로 넓어지는 무대. 약속·폐허라는 말의 소품과 성읍·부역·금이라는 실물의 소품. 약속→경고→위업으로 옮겨 가는 소재.

단계	핵심 발견
2 첫 느낌·분위기	환한 국면에 드리운 서늘함. 화려한 보고 속의 가불의 균열. 빛 가운데 한 점 어둠의 명암. 약속·경고·보고로 두 번 꺾이는 어조.
3 시작과 끝	'다 이룬 때'(9:1)로 열려 '금을 가져왔더라'(9:28)로 닫힘 — 처음과 끝이 둘 다 절정. 그 사이에 폐허 경고(9:6-7).
4 등장인물·사상	다 이룬 솔로몬, 두 번째 나타난 여호와, 선물을 퇴짜 놓는 히람, 부역의 무리. 조건에 매인 임재. 미리 적힌 미래의 물음과 답(9:8-9).
5 장면 컷	두 번째 현현과 약속(1~5)/조건의 경고(6~9)/히람과 가불(10~14)/부역과 금(15~28) 4컷. 경고 바로 뒤에 위업이 잇닿음.
6 의문·발견·정보	bayit의 결이 '다 이룬 집'에서 '던질 집'으로. 경고 안에 미리 적힌 미래 대화. 가불의 명명 설화. ANE 신전 유기·이중 노동·해상 무역.
7 동영상	다 이룬 때의 두 번째 음성 → 약속과 식어 가는 경고와 폐허의 환영 → 가불의 균열 → 부역의 성읍들 → 오빌의 금 도착.
8 초별 제목·부제	"만일 돌아서면 — 다 이룬 곳에 드리운 경고"
9 기도·내면	가장 많이 이룬 순간에 가장 무거운 경고가 옴 — 가진 것의 크기로 안전을 사려 하지 않았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영광의 정점에 길어진 조건:**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권의 봉우리가 5~8장의 성전 건축과 봉헌이고, 6장이 그 봉우리의 한복판이라면, 9장은 그 봉우리에서 내리막으로 발을 떼는 첫 걸음이다. 6:12-13에서 짓는 도중에 짧게 끼어들었던 조건이, 9:1-9에서 완공 후 다시, 이번엔 폐허와 비웃음의 그림까지 그린 긴 경고로 자란다(9:6-9). 다 이루었다고 임재가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경고다. 권의 향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임이시로다"(18:39)인데, 9장은 그 영광의 정점에서 이미 그 영광이 방향에 매여 있음을, 그 방향이 어긋나면 무너질 수도 있음을 길게 적어 둔다. 봉우리에서 본문은 다음 내리막을 가늠하게 한다.

2. **결 2 — 경고 바로 뒤에 잇닿은 위업:** 본문은 하늘의 음성(9:1-9)과 땅의 보고(9:10-28)를 풀어 잇지 않고 그냥 잇닿게 둔다. '만일 돌아서면 던지리라'가 몇자마자, 솔로몬이 무엇을 지었고 무엇을 거뒀는지가 줄줄이 온다 — 스무 성읍, 부역, 국고성과 병거성, 오빌의 금. 위업의 목록 바로 앞에 경고가 놓여서, 읽는 이가 그 위업을 경고의 빛 아래서 보게 된다. 그리고 가불의 작은 균열(9:11-13)이 그 빛을 더 또렷이 한다 — 영광의 왕이 동맹에게 준 선물이 퇴짜를 맞고, 그 못마땅함의 이름이 '오늘까지' 보존된다. 본문은 평가의 말을 보태지 않고 경고와 위업을 나란히 둘 뿐이다. 그 무평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3. **결 3 — 미리 그려진 폐허와 미래의 물음:** 9장은 아직 서 있는 새 성전 위로 먼 폐허의 환영을 한 번 비춘다(9:7-8). 보통 경고는 '하지 말라'로 끝나는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간다 — 성전이 무너진 뒤 지나가는 자가 묻는 물음 "어찌하여 이같이 되었는고"까지, 그 답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므로"까지 미리 적는다(9:8-9).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날의 대화가 현재의 경고에 들어와 있다. 신 29:24-28의 그 물음·답과 같은 결인데, 본문은 그 답음을 설명하지 않고 미래의 대화를 현재에 넣어 둘 뿐이다. 권의 첫 결, 영광의 봉우리에서 본문은 그 영광의 끝까지를 한 음성에 담아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3:5-14 — 기브온의 첫 현현 — 9:2 '두 번째로 나타나'가 가리키는 첫 번째.

- 왕상 6:11-13 — 건축 도중의 조건의 약속 — 9:1-9에서 완공 후 재확인·확장.
- 왕상 8:22-53 — 솔로몬의 봉헌 기도 — 9:3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가 응답하는 곳.
- 신 28:15-68 — 언약을 떠나면 임할 저주 — 9:6-9 조건 경고의 율법 배경.
- 신 29:24-28 — 이 땅이 어찌 이같이 되었느냐 — 9:8-9 '지나는 자마다 놀라리라'의 직접 결.
- 왕상 11:1-13 — 솔로몬이 이방 신을 따르고 나라가 갈라질 예고 — 9:6 조건이 어긋나는 곳.
- 왕하 25:8-9 —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짐 — 9:7-8 '이 성전을 던지리라'가 도착하는 끝.
- 대하 7:11-22 — 같은 두 번째 현현의 병행 기록.
- 신 17:14-17 — 왕이 말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 9:19·26-28 병거성·금 축적의 율법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9:1의 '다 이론 때'에서 시작한다 — 사람이 원하던 모든 것을 이론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한 음성이 임하는 시작점임을 듣는다.
- **멈춤 1:** 9:3에서 멈춘다 —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임재가 머문다는 따뜻한 약속의 온도를 전다.
- **멈춤 2:** 9:6-7에서 멈춘다 — 같은 음성의 '만일 돌아서면 던지리라.' 약속과 경고가 한 호흡에 붙은 그 결을 전다.
- **끝:** 9:8에서 멈춘다 — 던져진 성전을 보고 묻는 미래의 물음. 다 이론 그 집도 방향이 어긋나면 던져진다는 그림 앞에, 내가 쌓는 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두 번째 현현과 약속(1~5)·조건의 경고(6~9)·히람과 가불(10~14)·부역과 금(15~28)의 네 컷 완결
- [x] 약속(9:3)과 경고(9:6-7)가 한 음성에 잇닿은 약속-조건 형식
- [x] shem·natash·im(9:3·6·7)과 신 28·29장 저주 어휘권의 다리
- [x] 경고 안에 미리 적힌 미래의 물음과 답(9:8-9)
- [x] 첫 현현(3:5)·6장 조건(6:12-13)으로 열리고 11~12장 분열·왕하 25장으로 향하는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렐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렐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6장이 권의 가장 높은 봉우리였다면, 9장은 '변질과 분열의 예고'라는 국면이 시작되는 첫 매듭이다 — 영광이 아직 환한데 그 영광에 조건이 길게 새겨지는 전환점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성막의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출 25:8)가 6장에서 한 채의 집으로 일어섰고, 8장에서 구름이 가득 차 봉헌되었으며, 9장에서 그 임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가 두 번째 음성으로 또렷이 새겨진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이 9장에서는 '내 이름을 영원히 두되, 돌아서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 끊으리라'(9:3·7)는 두 결의 음성으로 나타난다. 권의 heart, 8장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세미한 소리로 세우시는 자상함이, 9장에서는 던지기 전에 길게 경고하시는 그 미리 말씀하심 — 폐허의 그림과 미래의 물음까지 미리 보여 주시는 — 으로 드리운다. 9장의 두 번째 음성이 8장의 봉헌과 그 너머 11~12장의 분열, 마침내 왕하 25장의 성전 함락으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의 출발점이며, 그 길목의 한복판에 '만일'이라는 조건이 길게 새겨져 있다.

약속(9:1-5)에서 조건의 경고(9:6-9)로, 다시 부역과 부의 위업(9:10-28)으로 / 하늘의 형상 없는 음성(9:2)에서 오빌의 손에 잡히는 금(9:28)으로 / 영광의 봉우리에서 분열로 가는 첫 내리막으로 — 다 이룬 곳에서 임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묻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솔로몬이 다 이룬 영광(1절) 위에 두 번째 음성을 받는 운동이다. 따뜻한 약속(1~5절)이 한 번 식어 긴 경고(6~9절)가 되고, 그 음성이 몇자 화면은 성읍과 부역과 금의 분주한 손으로 내려온다(10~28절). 6장의 벡터가 첫 돌에서 정금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상승이었다면, 9장의 벡터는 거꾸로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내려오는 하강이다. 9장의 운동은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가장 높은 출발점에서 첫 내리막으로 발을 떼며, 그 호 전체가 한 음성의 '만일 돌아서면'(9:6)을 '영광이 방향에 매여 있고, 그 방향이 어 곳나도 끝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다 이룬 왕의 영광이다 — 두 집을 짓고, 스무 성읍을 주고, 요새들을 세우고, 오빌의 금을 실어 온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임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또렷이 새기는 일이다. 모든 위업의 목록 바로 앞에 '만일 돌아서면 던지리라'(9:6-7)가 놓여서, 그 영광 전체가 한 조건의 빛 아래 놓인다. 건물의 크기도, 부의 무게도 임재를 붙잡지 못한다는 결이 영광의 한복판에 새겨진다. 둘째, 같은 '이름'(shem)이 두 결로 갈리는 사실이다. 9:3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와 9:7의 '내 이름으로 인하여 끊으리라'가 한 단락 안에 있다. 임재의 영광과 임재의 떠남이 같은 이름에 매여, 그 갈림이 백성이 누구를 섬기느냐(9:6)에 달린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솔로몬의 위업을 미화로 닫지 않는다. 그가 이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지 않고 곧장 행정 보고로 돌아간다(9:10). 가불의 작은 균열도, 부역의 노동도, 오빌의 금도 평가 없이 나열될 뿐이다. 권을 더 읽으면 이 성전을 지은 자가 끝내 이방 신을 따르고 나라가 갈라지며(11~12장) 마침내 이 성전이 정말 불탄다(왕하 25장). 본문은 영광과 경고를 나란히 둘 뿐, 그 둘 사이의 거리를 9장 안에서 풀지 않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안심하는가 — 그 다 이룬 곳이 끝인가, 아니면 어디로 향하느냐의 갈림인가.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의 크기로 안전을 사려 하지 않는가 — 다 쌓으면 그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 여기지 않는가, 영광의 한복판에서 '만일 돌아서면'이라는 음성에 한 번 멈춰 설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많이 이루라고도, 덜 이루라고도 명하지 않는다. 다만 다 이룬 그 순간에 임한 두 번째 음성을 보여 주고, 따뜻한 약속 곧바로 뒤에 길어진 '만일'을 보여 주고, 아직 서 있는 새 집 위에 미리 그려진 폐허와 미래의 물음을 보여 주고, 그 경고가 몇자 곧장 성읍과 금으로 분주해지는 손을 보여 준다. 영광과 경고가 한 음성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 여기는 그 순간에 그것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 번 멈춰 듣는 일, 가진 것의 크기로 안전을 사려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쌓는 것의 방향을 살피는 일. 한 음성의 '만일'이 한 채의 새 집을 통로로 흐르고, 그 집을 지은 자가 끝내 흔들려 나라가 갈라져도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심'(18:39)을 끝내 드러내시는 권이 이제 그 첫 내리막을 연다 — 그 갈림의 길목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다 이룬 곳에 경고가 드리웠다 —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부의 소문이 스바 여왕에게까지 닿아(10장), 그가 직접 와서 보고 숨이 막히고, 금과 향품과 보석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 영광이 절정에 이른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im* — 만일.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 자막 —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이룬 때. 화면이 어두워지고, 형상 없는 한 음성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 첫 번째는 기브온이었지요. 음성이 먼저 따뜻합니다. 자막 — 내가 내 앞에서 한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음성의 온도가 식습니다. 자막 —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화면에 환영이 떠오릅니다 — 높던 성전이 무너져 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 비웃으며 수군댁니다. 자막이 그들의 입을 움깁니다 —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러면 답하리라 — 그들이 자기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므로. 음성이 멎고 환영이 사라집니다. 화면이 환한 대낮으로 바뀝니다. 자막 —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십 년 동안 지었더라. 솔로몬이 갈릴리 땅 성읍 스물을 히람에게 줍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그 성읍들을 둘러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막 — 내 형제여, 당신이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그가 그 땅을 가불이라 부릅니다 — 오늘까지 그렇게 불린다고 자막이 덧붙입니다. 카메라가 넓어집니다. 부역하는 무리가 돌을 나릅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이 돌리고, 하솔과 므깃도와 게셀이 다시 서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읍이 솟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 자기 집으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일 년에 세 번 제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바다로 갑니다 — 에돔 땅 홍해 물가 에시온게벨. 배들이 지어지고, 솔로몬의 종들과 바닷길을 아는 히람의 뱃사람이 함께 옵니다. 배가 오빌에 닿아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싣습니다. 그 금이 솔로몬 왕에게 도착합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다 이룬 때에 임한 두 번째 음성에서, 약속과 식어 가는 경고와 폐허의 환영을 지나, 가불의 작은 균열과 부역의 성읍들을 거쳐, 오빌의 금이 도착하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만일 돌아서면 — 다 이룬 곳에 드리운 경고"

P02 이진우: "약속 다음 한 호흡에 온 '만일' — 두 번째 음성의 두 온도"

P04 최현국: "하늘의 음성에서 오빌의 금까지 — 시선이 내려온 한 장"

P05 김미영: "가불이라는 이름 — 영광의 보고에 새겨진 작은 균열"

P07 오지혜: "지나는 자마다 놀라리라 — 새 성전 위에 미리 그려진 폐허"

P11 나경아: "*shem · natash* — 영원히 둔 이름과 던질 집"

부제 제안: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9:3) 하시되 — 그 약속 곧바로 뒤에 '만일 너희가 돌아서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던져 버려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리라'(9:6-9)는 조건의 경고가 붙고, 갈릴리 스무 성읍이 '가불'이라 불리며(9:13) 부역·국고성과 오빌의 금(9:15-28)이 이어지는 — 영광의 정점에서 분열로 가는 길목이 열리는 전환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다 이룬 그 영광의 순간에 "만일 너희가 돌아서면 이 성전이라도 던지리라" 들은 솔로몬 곁으로, 그리고 그 경고 바로 뒤에서 성읍과 부역과 금으로 분주해지는 그 손길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많이 이룬 그 순간에 가장 무거운 경고가 함께 온 것을 보았습니다 — '영원히 두겠다'와 '던지겠다'가 한 호흡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들은 손이 곧바로 성읍과 금으로 분주해진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고 여길 때, 그 지점이 끝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의 갈림인 것을, 다 가졌다고 안심하던 그 순간에 한 번 멈춰 듣지 못한 적은 없는지를 듣고 머물렀습니다. 가진 것의 크기로 안전을 사려 하지 않았는지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9장은 약속에서 조건의 경고로, 다시 위업의 보고로 움직여요. 1~5절이 약속, 6~9절이 경고, 10~28절이 행정 보고예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장 이하가 남북 분열과 우상,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그리고 권의 향방이 한 물음으로 찍혀 있어요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 6장이 그 영광의 봉우리였다면, 9장은 그 봉우리에서 내리막으로 발을 떼는 첫 걸음이에요. 6:12-13의 짧은 조건이 9:6-9에서 긴 경고로 자라고, 그 경고 곧바로 뒤에 솔로몬의 부역과 부가 줄줄이 와요. 권은 9장을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그 전환의 길목으로 뒤요. 11~12장의 분열이 여기서 이미 그림자를 드리워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9:3의 *shem*(שֵׁם) — '이름',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그런데 같은 단어가 9:7에서 다시 와요 — '내 이름으로 인하여 끊으리라.' 같은 '이름'이 한 단락 안에서 영원히 둘 곳이자 끊을 까닭이 돼요. 그리고 6절의 *im*(אִם) '만일'과 *shuv*(שׁוּב) '돌아서다'가 그 갈림을 여는 단어예요. 6:12의 'im(만일)'이 짧게 한 번 왔다면, 9장에서는 'im'이 두 번(4·6절) 갈려요 — 행하면 견고히, 돌아서면 던지리라. 임재가 건물이 아니라 방향에 매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다 이룬 왕의 영광이에요 — 두 집, 스무 성읍, 요새들, 오빌의 금.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임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또렷이 새기는 일이에요. 모든 위업의 목록 바로 앞에 '만일 돌아서면 던지리라'가 놓여서, 그 영광 전체가 한 조건의 빛 아래 놓여요. 건물의 크기도, 부의 무게도 임재를 붙잡지 못한다는 결이에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9장은 그 물

음을 미리 깔아 뒹요 — 이 백성이 끝내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던져진 성전을 보고 묻는 미래의 물음(9:8)이, 권 전체가 답할 그 물음의 씨앗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다 이루고 봉헌까지 마친 그 영광의 순간에, '만일 너희가 돌아서면'이라는 경고가 와요. 영광과 경고가 한 음성 안에서 부딪쳐요. **다 가졌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긴장**이에요. 그리고 권을 더 읽으면 알게 돼요 —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끝내 이방 신을 따르고(11장), 나라가 갈라지고(12장), 마침내 이 성전이 정말 불타요(왕하 25장). 9장의 영광이 높을수록, 그 한가운데 미리 그려진 폐허가 더 무겁게 읽혀요. 본문은 그 긴장을 9장 안에서 풀지 않아요. 그냥 영광 한복판에 경고를 길게 둘 뿐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하늘의 형상 없는 음성에서 오빌의 손에 잡히는 금으로** 시선이 내려오는 운동이에요. 6장은 첫 돌에서 정금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운동이었는데, 9장은 거꾸로 하늘에서 땅과 바다로 내려와요. 그리고 9장이 끝나도 솔로몬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아직 닫히지 않아요 — 그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본문은 적지 않고 곧장 성읍과 금으로 넘어가요. 짓는 일과 모으는 일이 한창인데, 그 분주함의 방향은 다음 장들(10~11장)에서야 드러나요. 영광을 다 이룬 자가 그 영광을 지킬지를 묻는 순서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9:8의 그 물음이 불씨 같아요. 던져진 성전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 그 물음이에요. "어찌하여 이같이 되었는고." 본문은 그 답까지 미리 줘요 —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므로. 저는 무언가를 다 이루면 그게 안전이라 여기는데, 이 장은 다 이룬 그 집도 방향이 어긋나면 던져진다고 미리 말해요. 제가 쌓는 것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다 이룬 그 순간에 한 번 멈춰 들을 수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약속에서 조건의 경고로, 하늘의 음성에서 오빌의 금으로, 영광의 봉우리에서 분열로 가는 첫 내리막으로 — 다 이룬 곳에서 임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묻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의 소문이 이제 스바 여왕에게까지 닿습니다.

열왕기상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9:1-9 — 다 이룬 영광의 순간에 약속과 함께 온 긴 조건의 경고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6장에서는 짓는 도중에 짧은 조건(6:12-13)이 끼어들었는데, 9장에서는 완공 후에 폐허·비웃음의 그림까지 그린 긴 경고가 온다. 솔로몬의 반응은 적히지 않고 곧장 행정 보고로 넘어간다(9:10). 이 경고를 '심판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약속 곧바로 뒤에 붙은 '만일' 구문의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9:3 —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와 9:7 '이 성전을 던지리라'가 한 음성 안에 붙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영원히 두겠다는 약속과 던지겠다는 경고가 같은 단락에 잇닿는다. 임재가 무조건이 아니라 방향(다른 신을 섬기느냐)에 매인다. 이 결을 '조건부 사랑'으로 단정하지 않고, shem·lev·natash 어휘와 약속-조건 형식으로만 보존.

Q3. 9:8-9 — 던져진 성전을 보는 미래의 물음과 답이 경고 안에 미리 적힌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날의 대화 — '어찌하여 이같이 되었는고'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으므로' — 가 현재의 경고에 들어와 있다. 신 29:24-28과 같은 결이다. 이 삼입을 '예언의 성취'로 닫지 않고, 미래 대화가 경고에 들어온 본문 형태로만 보존.

Q4. 9:11-13 — 영광의 왕이 동맹에게 준 선물이 퇴짜 맞고 '가불'이라는 이름이 보존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성전의 목재와 금을 댄 히람이 갈릴리 스무 성읍을 못마땅해하며 '가불'이라 부르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남는다. 본문은 솔로몬도 히람도 평가하지 않는다. 이 작은 균열을 '인색함'이나 '탐욕'으로 단지 않고, 명명 설화의 사실과 척박한 땅이라는 후대 독법 배경으로만 보존.

Q5. 9:15-22 — 부역으로 국고성·병거성을 세우고 이방 자손을 노역에 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솔로몬이 부역(mas)을 일으켜 요새 성읍을 짓고, 이방의 남은 자손을 노역에, 이스라엘은 군사·관리로 둔다. 본문은 이를 고발도 변호도 하지 않는다. 이 노동을 '압제의 증거'로 끌어오지 않고, 왕실 건축 행정과 이중 노동 체계라는 ANE 배경, mas 어휘의 사실로만 보존. 평가는 권을 더 읽으며 이월.

Q6. 9:26-28 — 예시온게벨의 배와 오빌의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솔로몬이 홍해 예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온다. 신 17:14-17은 왕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했다. 본문은 이 부를 칭송도 경계도 하지 않고 사실만 적는다. 이 금을 '탐욕의 증거'로 단지 않고, 해상 무역의 사실과 왕의 규제 어휘권으로만 보존. 솔로몬의 부가 권 흐름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0장

1KI-010 · 역사서 · 히브리어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를 보고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10:7) 하며 정신이 황홀해지고 — 해마다 들어온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10:14), 상아에 정금을 입힌 큰 왕좌와 여섯 층계의 사자(10:18-20), 은을 돌같이 여기게 한 부귀(10:27), 그리고 애굽에서 사 온 병거와 말(10:28-29)로 영광이 정점에 이르되 — 그 화려한 목록 한가운데로 신명기 왕의 율법(신 17:16-17)과의 긴장이 소리 없이 흐르는 솔로몬의 절정과 균열의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두 막 — 알현실(여왕과 솔로몬이 마주 앉은 한 방, 1~13절)과 왕국 전체를 훑는 부귀의 목록(곳간·의장실·옥좌실·마구간, 14~29절).
- 무대 안의 시선: 1막은 여왕의 눈으로 음식·신하·시종·층계까지 위로 올라가는 클로즈업, 2막은 사람이 빠진 군마의 와이드샷(26·28절).
- 소품: 향품·금·보석(여왕의 예물 2·10절), 상아 왕좌(18절), 열두 사자상(19~20절), 금 방패 오백(16~17절), 흔해진 은(27절), 병거와 말(28~29절).
- 소품의 도드라짐: 금 잔만 있고 은 잔은 하나도 없음 — 은이 천대받는 결(21절).
- 소재의 결: 처음은 듣고 묻는 말(소문·문제·시험·대답), 가운데는 보고 황홀해짐(4~5절), 끝은 수량의 나열(달란트·이백·삼백·육백육십육·천사백).
- 형식 소재: 명성의 수미(1절 듣고 옴·24절 천하가 얼굴을 보기 원함), 경첩이 된 "절반도 못 들었다"(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압도 — 어려운 문제로 겨루러 온 여왕이 보고 황홀하여 숨이 멎음(5절), "절반도 못 들었다"는 항복(7절).
- 점점 더해지는 무게 — 사람의 무게(1막)에서 금속의 무게(2막)로, 금이 넘쳐 은을 돌같이(27절).
- 식어 가는 명암 — 따뜻한 알현실의 사람 빛에서 차가운 마구간의 군마로(28절).
- 하강하는 어조 — 대화(1~3절)에서 감탄·송축(8~9절)으로, 다시 건조한 목록(14~29절)으로.
- 향과 금빛의 감각 — 다시 오지 않을 만큼 많은 향품(10절)과 온통 금인 잔·방패·왕좌, 그 한가운데 천대받는 은(21·27절).
- 이방 여왕의 송축 — 금이 아니라 정의·공의(mishpat·tsedaqah)를 짊어 여호와를 송축함(9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스바 여왕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 28~29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헛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았더라."
- 한 여왕이 명성을 듣고 온 데서 열려, 애굽에서 사 온 군마·병거의 중개무역으로 닫힘 — 지혜로 열려 군마로 닫힘.
- 시작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1절), 끝은 여호와가 빠진 거래(28~29절) — 그 사이의 거리.
- 1절(듣고 온 사람) ↔ 7절(절반도 못 들었다는 항복) ↔ 28~29절(사람이 빠진 목록) — 한 사람의 황홀이 가운데, 명성과 목록이 양옆.
- 가까운 한 손님의 클로즈업(2절) ↔ 사람 없는 군마의 와이드샷(26절) — 영광이 펼쳐질수록 사람이 비어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답하고 베풀고 쌓고 사들임), 스바 여왕(시험하고 보고 황홀해하고 송축하고 바치고 돌아감), 무대 뒤의 여호와(여왕의 입에 두 번 호명 1·9절), 무명의 무리(신하·시종·천하의 왕들 5·8·24~25절).
- 중심 사상: 지혜·부귀가 명성으로 흘러넘침 — 3:13의 약속(구하지 않은 부귀·영광)이 도착한 곳(23·27절). 단 그 목록에 신명기가 금한 말·은금이 끼어 있음(신 17:16-17).
- 두 방향의 영광: 바깥으로 번짐(명성이 스바까지·천하가 얼굴을 보려 옴 1·24절)과 안으로 쌓임(금·방패·왕좌·병거의 축적 14~28절). 본문은 둘을 나란히 둠.
- 여왕의 항복과 송축: 멀리서는 못 믿었으나 보고 항복(7절), 결국 부귀가 아니라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공의를 짚음(9절).
- 상아 왕좌: 정금 입힌 큰 왕좌·여섯 층계·열두 사자상, 어느 나라에도 없던 옥좌(18~20절). 여왕은 그 왕좌를 여호와와 세우심에 연결(9절).
- ruach(숨 5절)·ashrei(복되도다 8절): '황홀'은 낮이 나감, '복되도다'는 시편 1편의 어휘 — 듣는 자가 복되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여왕의 도착과 시험 —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옴(1), 낙타에 향품·금·보석을 싣고 마음을 다 말함(2), 솔로몬이 다 대답함(3).
- 컷 2 (4~9절): 황홀과 송축 — 지혜·궁·음식·신하·층계를 보고 낮이 나감(4~5), "절반도 못 들었다"(6~7), 듣는 자가 복되다(8), 정의·공의를 짚어 여호와를 송축함(9).
- 컷 3 (10~13절): 예물 교환과 작별 — 여왕이 금·향품·보석을 바침(10), 오빌의 금·백단목이 들어옴(11~12),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여왕이 돌아감(13).
- 컷 4 (14~29절): 쌓이는 부귀의 목록 — 해마다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14), 금 방패 오백(16~17), 상아 왕좌(18~20), 천대받는 은(21~27), 천하 왕보다 큰 지혜·매년 예물(23~25), 애굽 군마의 중개(28~29).
- 컷 2의 척추 위치: 듣고 시험함(컷 1)과 사람 빠진 목록(컷 4) 사이, 봄(4~5)→항복(6~7)→송축(8~9)의 세 단 — 가장 사람다운 순간이 가장 화려한 목록 바로 앞.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malkat Sheva*(מַלְכַּת שֶׁבַע) — 스바 여왕(1절). / *chidot*(חִידוֹת) — 어려운 문제·수수께끼(1절). / *shema*(שָׁמָּה) — 명성·소문(1·6·7절).
- *ruach*(רוּחַ) — 숨·정신(5절). '황홀하다'는 '숨이 더 이상 없었다'의 직역.

- *ashrei*(אֲשֶׁרֵי) — 복되도다(8절). 시 1:1을 여는 어휘. 듣는 자가 복되다.
- *kisse*(כִּסֵּי) — 왕좌(9·18절). 여호와와 세우신 왕좌이자 상아·금의 큰 옥좌.
- *zahav*(זָהָב) — 금(2·10·11·14·16·18·21·22절). 예물→무역→세입→의장→일상의 그릇으로 결이 옮겨 감. / *kese*(כֶּסֶף) — 은(21·27절), 돌같이 흔해짐.
- *susim*(סוּסִים) — 말 / *merkavah*(מְרֻכָּבָה) — 병거(28절). 애굽에서 사 온 군마. / *ophir*(אֹפִיר)·*almuggim*(אַלְמוֹגִים) — 오빌·백단목(11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여왕의 시험·황홀·송축(1~13) + 쌓이는 부귀의 목록(14~29) — 한 사람의 만남이 건조한 목록 앞에 놓인 이중 구조.
- 명성의 인클루지오: 듣고 온 한 사람(1절)과 얼굴을 보기 원하는 온 천하(24절)가 처음과 끝을 묶음 — 형태 관찰.
- "절반도 못 들었다"(7절) 절정: 가장 큰 수가 아니라 압도된 한 문장이 영광의 정점을 표현함.
- *zahav*의 의미 이동: 예물의 금(2)→무역의 금(11)→세입의 금(14)→의장의 금(16~18)→일상의 금(21)→은을 돌로 만든 금(27) — 한 단어가 다른 금속을 천대하게 만들.
- 신명기 왕의 율법과의 긴장: 말(28)·은금(14·27)·(다음 장의) 아내가 신 17:16-17이 금한 셋과 닿음 — 영광의 정점에 새겨진 균열의 씨앗, 형태 관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향료·금 교역로 — 남아라비아·동아프리카 측의 향품·금 산지에서 낙타 대상이 와 왕을 알현하던 교역 외교. 10:1·2·10의 배경.
- 수수께끼 거름 — 통치자 사이에 어려운 문제로 지혜를 겨루던 궁정 관습. 10:1의 배경.
- 사자 옥좌 도상 — 사자상으로 왕좌를 호위하던 근동 왕권 도상. 10:18~20 여섯 층계와 열두 사자상의 배경.
- 군마 중개무역 — 애굽과 길리기아 사이에서 병거·말을 사들여 되팔던 무기 교역. 10:28~29의 배경.
- 금 방패 의장 — 의례용 금 방패로 왕권의 위엄을 전시하던 궁정 관습. 10:16~17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14절의 '육백육십육'을 과도한 축적의 표징으로, 어려운 문제(chidot)를 수수께끼 일화로 확장해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0:14·26·28 ↔ 신 17:16-17 (말·은금·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 부귀 축적과 정면으로 닿는 왕의 율법)
- 왕상 10:23·27 ↔ 왕상 3:5-14 (지혜를 구한 자에게 부귀·영광도 더하심 — 약속이 도착한 곳)
- 왕상 10:1·24 ↔ 왕상 4:29-34 (동방·애굽보다 뛰어난 지혜에 만민이 들으러 옴 — 명성의 직접 배경)
- 왕상 10장 ↔ 왕상 11:1-13 (영광 바로 다음에 오는 많은 아내·우상·분열 예고 — 권이 향하는 곳)
- 왕상 10장 ↔ 대하 9:1-28 (스바 여왕·부귀의 평행 기사 — 같은 사건의 다른 전승)
- 왕상 10:1-9 ↔ 마 12:42 (남방 여왕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앞에 증인이 됨 — 신약의 결)
- 왕상 10:21-23 ↔ 마 6:29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꽃만 못함 — 영광의 상대화)

- 왕상 10:1-10 ↔ 시 72:10-15; 사 60:6 (스바·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림·열방이 빛으로 옴 — 왕의 시·예언이 가리키는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의 한 궁정. 먼 길의 끝에서 낙타 대상이 멈춰 선다.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실은 짐이 내려진다. 한 여왕이 든다 — 스바 여왕. 자막 —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왔노라. 그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한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하나도 막힘 없이 다 답한다. 카메라가 여왕의 시선을 따라 움직인다 — 솔로몬의 지혜, 건축한 궁, 상에 차려진 음식, 줄지어 앉은 신하들, 시중드는 자들의 차림, 술 관원, 그리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시선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 그 끝에서 여왕의 입이 닫힌다 — 자막 — 정신이 황홀하더라. 그가 입을 연다 — 내가 들은 소문보다 그 지혜와 복이 더하도다,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복되도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예물이 오간다. 여왕이 금과 향품을 바치고,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주어 보낸다. 여왕이 돌아간다. 그가 떠난 화면이 넓어진다 — 이제 사람은 없고 수량만 흐른다. 해마다 들어온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 친 금 방패 이백, 작은 방패 삼백이 레바논 나무 궁에 걸린다.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어 정금을 입힌다 — 여섯 층계, 둥근 좌석, 팔걸이의 두 사자, 층계 양쪽의 열두 사자. 자막 —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모든 잔이 금이다 —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다시스의 배가 금·은·상아·원숭이·공작을 싣고 온다. 천하가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해마다 예물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마구간으로 옮겨 간다 — 천사백 병거, 만 이천 마병. 자막 —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고, 헛과 아람의 왕들에게 되팔았더라. 따뜻한 알현실에서 차가운 마구간으로,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절반도 못 들었다 — 영광의 정점에 끼어든 한마디"
- 초벌 부제: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10:7) 하며 — 해마다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10:14), 상아에 정금 입힌 큰 왕좌와 여섯 층계의 사자(10:18-20), 은을 돌같이 여기게 한 부귀(10:27), 애굽에서 사 온 병거와 말(10:28-29)로 영광이 정점에 이르되 — 그 화려한 목록 한가운데로 신명기 왕의 율법(신 17:16-17)과의 긴장이 소리 없이 흐르는 솔로몬의 절정과 균열의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malkat_Sheva·chidot·ruach·ashrei·zahav·kisse·kesef·susim·ophir·almuggim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명성 인클루지오 + "절반도 못 들었다" 절정 + 신명기 왕의 율법 긴장 + ANE 향료 교역·사자 옥좌·군마 중개)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0:7의 "절반도 못 들었다"를 '겸손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압도된 여왕의 항복이라는 본문 형태와 shema·ruach 어휘 관찰로만 둬.
- 10:9의 정의·공의 송축을 '이방 선교의 모범'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이방 여왕의 입에서 나온 발화의 본문 형태와 mishpat·tsedaqah·kisse 어휘 관찰로만 기록.
- 10:14·27의 넘치는 금과 천대받는 은을 '물질주의 경고'로 단정하지 않고, zahav 의미 이동과 은을 돌같이 만든 부귀의 사실로만 둬. 미화도 비난도 하지 않음.
- 10:28-29의 애굽 군마 중개를 '죄의 시작'으로 단정하지 않고, 거래의 사실과 신 17:16-17과 닿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권을 더 읽으며 이월.
- 10:14의 육백육십육을 후대 상징 독법으로 단정하지 않고, 또렷이 적힌 수치와 본문비평 배경으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0장은 스바 여왕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와(10:1)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니(10:2-3), 그 지혜와 궁과 음식과 신하들과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내가 들은 소문보다 그 지혜와 복이 더 하도다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10:6-7) 하며 정의·공의로 여호와를 송축하고(10:9) — 해마다 들어온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10:14), 금 방패 오백(10:16-17), 상아로 만들고 정금을 입힌 큰 왕좌와 여섯 층계의 열두 사자(10:18-20), 은을 돌같이 여기게 한 부귀(10:21-27), 애굽에서 사 온 병거와 말(10:28-29)로 영광이 그 정점에 이르되 그 부귀의 목록 한가운데로 신명기 왕의 율법(신 17:16-17)과의 긴장이 소리 없이 흐르는 솔로몬의 절정과 균열의 장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의 한 궁정. 먼 길 끝에서 낙타 대상이 멈춰 서고, 향품과 금과 보석이 내려진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 들어선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솔로몬이 막힘없이 다 답한다. 카메라가 여왕의 시선을 따라 음식과 신하와 시종과 성전 층계까지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다, 그 끝에서 여왕의 입이 닫힌다 — 정신이 황홀하더라. 그가 항복한다 — 절반도 못 들었다. 그리고 짊는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예물이 오가고 여왕이 돌아간다. 그가 떠난 화면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수량만 흐른다. 해마다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 금 방패 오백, 상아에 정금 입힌 여섯 층계의 옥좌와 열두 사자, 다시스 배의 진물. 모든 잔이 금이라 은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 천하가 그 얼굴을 보려 와 해마다 예물을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마구간으로 옮겨 간다 — 천사백 병거, 만 이천 마병, 애굽에서 들여와 헛과 아람 왕들에게 되판 군마. 따뜻한 알현실에서 차가운 마구간으로 화면이 식어 간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알현실과 왕국 전체를 훑는 두 막, 향품·금·상아·사자·금 방패·천대받는 은·군마의 소품 — 듣고 묻는 말에서 보고 황홀해지는 말로, 다시 수량의 나열로 옮겨 가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저름에서 항복으로 가는 압도. 사람의 무게에서 금속의 무게로. 따뜻한 알현실에서 차가운 마구간으로 식어 가는 명암. 이방 여왕의 정의·공의 송축(9절).

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명성을 듣고 온 한 사람(1절)으로 열려 애굽 군마 중개(28~29절)로 닫힘. 여호와와 이름에 매인 명성과 여호와가 빠진 거래 사이의 거리.
4 등장인물·사상	영광에 앉은 솔로몬, 시험하고 황홀해하고 송축하는 여왕, 호명되는 여호와(1·9절). 3:13 약속이 도착한 곳 이되 신 17:16-17이 금한 셋이 끼어듦.
5 장면 컷	도착과 시험(1~3)/황홀과 송축(4~9)/예물 교환과 작별(10~13)/쌓이는 부귀의 목록(14~29) 4컷. 컷 2는 사람다운 순간이 화려한 목록 앞에 놓인 척추.
6 의문·발견·정보	zahav의 의미 이동(예물→일상의 그릇→은을 돌로). 명성 인클루지오. 한 사람의 입에 놓인 절정(7절). 군마로 닫히는 영광의 침묵.
7 동영상	듣고 온 한 사람 → 황홀과 송축 → 사람이 빠진 금·상아·군마의 목록 → 마구간으로 식어 가는 화면.
8 초벌 제목·부제	"절반도 못 들었다 — 영광의 정점에 끼어든 한마디"
9 기도·내면	정점에 이르렀다 느낄 때 그 정점을 누가 세우셨는지 짚을 수 있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영광의 정점에 새겨진 균열:**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10장은 솔로몬 영광의 가장 높은 봉우리 — 지혜와 부귀가 명성이 되어 열방이 그 얼굴을 보러 오는 절정이다(10:23-25). 그런데 본문은 그 영광을 마냥 부풀리지 않는다. 봉우리 한가운데에 이미 균열이 적혀 있다. 해마다 쌓이는 금(10:14)과 애굽에서 사 온 군마(10:28)는 신명기가 왕에게 두지 말라 한 바로 그것이다(신 17:16-17). 다음 장에서 솔로몬이 많은 아내로 무너지고 나라가 갈라진다(11~12장). 권의 향방이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인데, 10장은 그 향방으로 가는 능선의 가장 높은 점에서 이미 내리막을 가늠하게 한다.
- 결 2 — 영광이 누구의 것인가:** 본문은 영광을 두 손에 나눠 둔다. 한 손은 여왕의 송축이다 —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정의의 통치라는(10:9). 또 한 손은 쌓이는 목록이다 — 금·방패·왕좌·군마가 사람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며 고인다(10:14-28). 가장 압도된 사람(이방 여왕)은 금이 아니라 그 영광을 세우신 분과 그분의 정의·공의를 짚는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옥좌(여섯 층계의 상아 왕좌)조차 여호와와 세우신 왕좌(10:9)에 매인다. 본문은 영광이 세우신 분께 돌아가는 결과 쌓는 자에게 고이는 결을 나란히 둘 뿐, 그 둘 사이를 평하지 않는다. 그 무평가가 독자를 관찰자로 세운다.
- 결 3 — 절정은 한 사람의 입에 있다:** 10장은 온통 수량의 목록이지만, 그 정점은 가장 큰 수가 아니라 한 문장이다 —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10:7). 가장 화려한 영광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은 금의 무게가 아니라 압도되어 숨이 멎은(ruach 10:5) 한 사람의 행복이다. 멀리서 못 믿던 사람이 직접 보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다. 본문은 영광의 절정에서 카메라를 금더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넋 나간 얼굴에 둔다. 권의 첫 결,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영광의 무게보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의 행복이 더 크게 적힌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신 17:16-17 — 말·은금·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 10:14·26·28 부귀 축적과 정면으로 닿는 왕의 율법.
- 왕상 3:5-14 — 지혜를 구한 자에게 부귀·영광도 더하심 — 10:23·27 약속이 도착한 곳.
- 왕상 4:29-34 — 동방·애굽보다 뛰어난 지혜에 만민이 들으러 옴 — 10:1·24 명성의 직접 배경.
- 왕상 11:1-13 — 많은 아내·우상·분열 예고 — 영광 바로 다음에 오는 균열, 권이 향하는 곳.

- 대하 9:1-28 — 스바 여왕·부귀의 평행 기사 — 같은 사건의 다른 전승.
- 마 12:42 — 남방 여왕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앞에 증인이 됨 — 신약의 결.
- 마 6:29 —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꽃 하나만 못함 — 영광의 상대화.
- 시 72:10-15 — 스바·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만왕이 부복함 — 왕의 시가 가리키는 결.
- 사 60:6 — 스바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 여호와와 영예를 전함 — 열방이 빛으로 오는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0:1의 명성에서 시작한다 — 한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소문을 듣고 먼 길을 와 직접 확인하려는 그 걸음을 듣는다.
- **멈춤 1:** 10:5-7에서 멈춘다 — 겨루러 온 입이 닫히고 "절반도 못 들었다" 항복하는 그 황홀을 준다.
- **멈춤 2:** 10:9에서 멈춘다 — 압도된 사람이 금이 아니라 세우신 분의 사랑과 정의를 짚는 그 결을 준다.
- **끝:** 10:28에서 멈춘다 — 영광의 끝이 애굽 군마로 식어 가는 그 화면. 내 정점의 끝에 무엇이 고이고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도착과 시험(1~3)·황홀과 송축(4~9)·예물 교환(10~13)·부귀의 목록(14~29) 네 컷 완결
- [x] 명성 인클루지오(1·24)와 "절반도 못 들었다"(7)의 절정 구조
- [x] zahav의 의미 이동과 은을 돌같이 만든 부귀(27)의 형태
- [x] 신 17:16-17과 닿는 말·은금의 긴장과 9절 정의·공의 송축
- [x] 3:13 약속의 도착(23·27)과 11~12장 분열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렐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렐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이는데, 10장은 솔로몬 영광의 가장 높은 봉우리 — 지혜와 부귀가 명성이 되어 열방이 그 얼굴을 보러 오는 절정의 국면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에서 지혜를 구한 왕에게 더하신 부귀·영광의 약속(3:13)이 여기서 도착한다. 스바에서 온 한 여왕이 그 절정을 직접 확인하고, 금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공의를 송축한다(10:9).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의 흐름에서, 10장은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미 그 영광이 한 율법(신 17:16-17)에 매여 있음을 소리 없이 적어 둔다. 권의 heart, 8장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10장에서는 이방 여왕의 입을 빌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10:9)라는 송축으로 한 번 드러난다. 5대 대명령의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열방이 빛으로 향해 오는 '제자·증인'의 그림자(마 12:42의 남방 여왕)와, 영광이 통치자에게 고이지 않고 세우신 분께 돌아가야 하는 '거룩'의 결이 함께 비치는 봉우리다. 그 정점의 한복판에 이미 군마와 은금이라는 균열의 씨앗이 같이 적혀 있다.

명성을 듣고 온 시험(10:1)에서 황홀한 행복(10:7)으로, 정의·공의의 송축(10:9)에서 쌓이는 부귀의 목록(10:14-28)으로 / 따뜻한 알현실의 한 사람에서 차가운 마구간의 군마로 / 영광의 정점에서 그 정점에 새겨진 균열로 — 가장 높이 오른 영광 한가운데서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인지를 묻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3~4장)와 성전(5~8장) 위에 명성이라는 영광의 정점을 세우는 운동이다. 대화(1~3절)가 황홀과 송축(4~9절)으로 솟았다가, 사람이 빠진 목록(14~29절)으로 내려앉는다. 카메라가 한 사람의 클로즈업에서 마구간의 와이드샷으로 물러나며, 영광이 펼쳐질수록 그 안에서 사람이 비어 간다. 그러나 10장이 끝나도 솔로몬은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 — 무너짐은 다음 장에서 온다(11장). 10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영광의 정점에서 변질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18:39) 끌고 가는 능선의 가장 높은 출발점이며, 그 능선 전체가 한 번 끼어든 균열(신 17:16-17과 닿는 말·은금)을 '영광이 세우신 분께 매여 있고, 그 매임이 어긋나도 끝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의 부귀 목록이다 — 누가 와서 무엇을 보았고, 금이 얼마였고, 옥좌가 어떠했고, 군마가 몇이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영광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가장 압도된 사람이 결국 짚는 것은 금이 아니라 그 영광을 세우신 여호와와 그분의 정의·공의(10:9)다. 가장 높은 옥좌조차 여호와와 세우신 왕좌에 매인다. 영광의 절정에서 본문이 호명하게 두는 것은 쌓은 자가 아니라 세우신 분이다. 둘째, 영광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다. 본문은 가장 화려한 목록 한가운데에 신명기가 금한 말·은금을 같이 적는다(10:14-28; 신 17:16-17). 정점에 이르렀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결이 영광의 한복판에 놓인다. 셋째, 정직의 보존이다. 본문은 솔로몬의 위업을 미화로 닫지 않는다. 그의 군마 거래를 평 없이 적고(10:28-29),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영광을 누린 자가 끝내 무너지고 나라가 갈라진다(11~12장). 본문은 영광과 균열을 나란히 둘 뿐, 그 둘 사이의 거리를 10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봉우리로만 둔다. 사람 전체의 회복 — 지성·의지·욕망까지 — 의 결로 보면, 수면 아래의 물음은 '넘치는 것에 취해 가장 귀한 것을 돌같이(10:27) 여기고 있지 않은가'로 향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무엇을 정점이라 여기며 쌓고 있는가 — 그 정점을 누가 세우셨는지 한 번 짚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멀리서 다 안다고 여기다가도, 직접 보고 "절반도 못 들었다"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 넘치는 것에 취해 가장 귀한 것을 돌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큰 영광을 쌓으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먼 길을 와 직접 확인한 한 여왕을 보여 주고, 겨루러 온 입이 황홀하여 닫히는 장면을 보여 주고, 그 압도의 끝에서 금이 아니라 세우신 분의 사랑과 정의를 짚은 입을 보여 주고, 그 영광의 목록이 군마로 식어 가는 화면을 보여 준다. 영광과 균열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무언가를 정점이라 여기며 쌓는 분주함 한가운데서 그 정점을 누가 세우셨는지 한 번 짚는 일, 멀리서 다 안다 여기던 판단을 직접 보고 내려놓는 일, 그리고 넘치는 것에 취해 가장 귀한 것을 흔하게 여기지 않는 일. 한 여왕의 행복이 한 권의 봉우리를 통로로 흐르고, 그 봉우리가 다음 장의 균열로 기울고, 그 솔로몬이 끝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심'(18:39)을 드러내시는 권이 이제 그 절정을 지난다 — 그 봉우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끝에서 왔으나 솔로몬보

다 더 큰 이가 있다(마 12:42)는 신약의 결이, 이 봉우리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해 열방으로 번지는 운동으로 잇는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영광이 정점에 섰다 —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11:1) 그 마음이 늙으막에 다른 신들에게 기울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나라를 그 손에서 찢어 신복에게 주리라 하시며 분열이 예고되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shrei* — 복되도다 (듣는 자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의 한 궁정. 먼 길 끝에서 낙타 대상이 멈춰 섭니다.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실은 짐이 차례로 내려집니다. 한 여왕이 그 사이로 듭니다 — 스바 여왕입니다. 자막 —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왔노라. 그가 솔로몬 앞에 앉아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한 가지도 막힘 없이 다 답합니다. 화면이 여왕의 시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 솔로몬의 지혜, 그가 건축한 궁, 상에 차려진 음식, 줄지어 앉은 신하들, 시종드는 자들의 차림과 그 술 관원들, 그리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시선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갑니다. 그 끝에서 여왕의 입이 닫힙니다 — 자막 — 정신이 황홀하더라. 잠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엽니다 —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신하들이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예물이 오갑니다. 여왕이 금 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바치고, 솔로몬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주어 보냅니다. 여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난 화면에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납니다 — 이제 사람은 없고 수량만 흐릅니다. 자막 — 솔로몬에게 해마다 들어온 금의 무게가 육백육십육 달란트라. 친 금 방패 이백과 작은 금 방패 삼백을 만들어 레바논 나무 궁에 둡니다.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어 정금으로 입힙니다 — 여섯 층계, 둥근 좌석, 양쪽 팔걸이의 두 사자, 여섯 층계 양쪽에 늘어선 열두 사자. 자막 —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의 모든 잔이 금이요, 은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은은 그의 시대에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다시스의 배가 삼 년에 한 번씩 금·은·상아·원숭이·공작을 싣고 옵니다. 천하가 다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해마다 예물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이 마구간으로 옮겨 갑니다 — 병거 천사백, 마병 만 이천. 자막 —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고, 헛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았더라. 따뜻한 알현실에서 차가운 마구간으로 화면이 식어 가며,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듣고 시험하러 온 한 사람에서 황홀과 송축을 지나, 사람이 빠진 금과 상아와 군마의 목록으로 — 영광이 정점에 이르되 그 끝이 애굽 군마로 식어 가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절반도 못 들었다 — 영광의 정점에 끼어든 한마디"

P02 이진우: "명성의 수미, 한 사람의 항복 — 듣던 것이 본 것에 못 미친 날"

P04 최현국: "따뜻한 알현실에서 차가운 마구간으로 — 영광이 식어 간 화면"

P05 김미영: "은을 돌같이 — 금이 넘쳐 가장 귀한 것이 흔해진 시대"

P07 오지혜: "여섯 층계 위의 옥좌, 그 끝의 군마 — 정점에 새겨진 균열"

P11 나경아: "*shema · ruach* — 듣던 사람이 보고 숨이 멎다"

부제 제안: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10:7) 하며 — 해마다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10:14), 상아에 정금 입힌 큰 왕좌와 여섯 층계의 사자(10:18-20), 은을 돌같이 여기게 한 부귀(10:27), 애굽에서 사 온 병거와 말(10:28-29)로 영광이 정점에 이르되 — 그 화려한 목록 한가운데로 신명기 왕의 율법(신 17:16-17)과의 긴장이 소리 없이 흐르는 솔로몬의 절정과 균열의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어려운 문제를 들고 와 겨루려다 다 보고 나서 "절반도 못 들었다" 항복한 그 여왕 곁으로, 그리고 영광이 정점에 이르되 그 끝이 군마로 식어 가는 그 궁정 안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화려한 영광을 본 사람이 결국 짙은 것이 금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의 사랑과 정의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목록이 군마와 은금의 축적으로 식어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어긋날 씨앗이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정점에 이르렀다 느낄 때, 그 정점을 누가 세우셨는지 한 번 짚을 수 있는지를 들고 머물렀습니다. 넘치는 것에 취해 가장 귀한 것을 돌같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도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0장은 명성을 듣고 온 시험에서 황홀한 항복으로, 다시 쌓이는 부귀의 목록으로 움직여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장 이하가 남북 분열과 우상,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그리고 권의 향방이 한 물음으로 적혀 있어요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요. 10장은 권 흐름에서 솔로몬 영광의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 지혜와 부귀가 명성이 되어 열방이 그 얼굴을 보러 오는 절정이에요. 그런데 그 봉우리 한가운데에 이미 균열이 적혀 있어요. 말·은금의 축적이 신명기가 왕에게 금한 바로 그것(신 17:16-17)이고, 바로 다음 장에서 솔로몬이 많은 아내로 무너져요(11장). 10장은 권이 '성전과 영광의 정점에서 분열로 기우는' 그 능선의 가장 높은 점이고, 거기서 이미 내리막이 시작돼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0:5의 *ruach* — '숨·정신'. '황홀하더라'가 직역하면 '그에게 더 이상 숨이 없었다'예요. 겨루려 온 사람이 숨이 멎도록 압도돼요. 그리고 10:8의 *ashrei* — '복되도다', 시편 1편의 어휘예요. 그 복을 여왕은 금 가진 자가 아니라 듣는 자에게 돌려요 —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신하들'에게요. 그리고 10:9의 *kisse*(왕좌)를 여호와와 세우심에 매요 — 가장 높은 옥좌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와 사랑과 정의에 매여 있다는 결이에요. 가장 화려한 영광의 한가운데서 본문이 호명하게 두는 것이 금이 아니라 듣는 복과 세우신 분이예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왕의 부귀 목록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영광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 같아요. 본문은 영광을 두 손에 나눠 줘요. 한 손은 여왕의 송축이에요 — 이 모든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정의의 통치라는(9절). 또 한 손은 쌓이는 목록이에요 — 금·방패·왕좌·군마가 사람을 화면 밖으로 밀어내며 쌓여요. **영광이 세우신 분께 돌아가느냐, 쌓는 자에게 고이느냐** — 그 갈림이 수면 아래에 있어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10장은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인가를 미리 한 번 묻는 봉우리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다음에 가장 위태로운 목록이 와요. 명성·지혜·송축의 절정(1~13절) 뒤에, 신명기가 금한 말·은금의 축적(14~28절)이 붙어요. 영광과 균열이 한 장 안에서 부딪쳐요. **정점에 이르렀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긴장**이에요. 그리고 권을 더 읽으면 알게 돼요 — 이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 끝내 무너지고 나라가 갈라져요(11~12장). 10장의 영광이 높을수록, 그 한가운데 끼어든 군마와 은금이 더 무겁게 읽혀요. 본문은 그 긴장을 10장 안에서 풀지 않아요 — 그냥 영광과 균열을 나란히 둘 뿐이에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듣고 온 한 사람에서 사람이 빠진 군마로** 카메라가 물러나는 운동이에요. 1막은 여왕의 클로즈업, 마지막은 마구간의 와이드샷이에요. 영광이 펼쳐질수록 그 안에서 사람이 비어가요. 그리고 10장이 끝나도 솔로몬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 무너짐은 다음 장에서 와요(11장). 10장은 그 무너짐을 맞을 절정을 쌓는 셈이에요. 영광의 한 컷이, 다음의 변질과 분열을 미리 결 지어 줘요. 가장 높이 오른 자가 그 높이를 지킬지를 묻는 순서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7절이 불씨 같아요. "절반도 못 들었다"는 그 한마디요. 겨루러 온 사람이 다 보고 나서 자기가 들은 게 절반도 안 됐다고 솔직히 인정해요. 저는 무언가를 멀리서 판단하고 다 안다고 여길 때가 많은데, 이 여왕은 직접 와서 보고 자기 판단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 압도의 끝에서 금이 아니라 세우신 분을 짚어요. 제가 보는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을 누가 세웠는지 짚을 수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명성을 듣고 온 시험에서 황홀한 행복으로, 송축에서 쌓이는 군마의 목록으로, 영광의 정점에서 그 정점에 새겨진 균열로 — 가장 높이 오른 영광 한가운데서 그 영광이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제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0:7 — 겨루러 온 여왕의 "절반도 못 들었다"는 행복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러 온 사람이 다 보고 나서 들은 것이 절반도 못 됐다고 인정한다. 보통 소문은 부풀려지는데 여기선 실물이 소문을 넘는다. 이 행복을 '겸손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압도된 한 사람의 발화라는 본문 형태와 shema·ruach 어휘로만 보존.

Q2. 10:9 — 이방 여왕이 금이 아니라 정의·공의를 짚어 여호와를 송축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가장 화려한 부귀를 본 이방의 여왕이 결국 짚은 것이 솔로몬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공의(mishpat·tsedaqah)다. 이 송축을 '선교의 모범'으로 끌어오지 않고, 여왕의 입에서 나온 발화의 본문 형태와 kisse(왕좌)를 여호와의 세우심에 매는 결로만 보존.

Q3. 10:14-27 — 해마다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와 은을 돌같이 만든 부귀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금이 넘쳐 가장 귀한 은이 흔해지고, 해마다 들어온 금이 육백육십육 달란트로 또렷이 적힌다. 본문은 미화도 비난도 하지 않고 수치만 둔다. 이 풍요를 '물질주의 경고'로 단정하지 않고, zahav의 의미 이동과 은을 돌로 만든 부귀의 사실로만 보존.

Q4. 10:18-20 — 상아에 정금 입힌 여섯 층계의 큰 왕좌와 열두 사자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어느 나라에도 없던 옥좌가 사자 열네 마리에 둘러싸여 여섯 층계 위에 높이 선다. 여왕은 그 왕좌를 여호와의 세우심에 연결한다(9절). 이 옥좌를 '왕권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물의 형상·재료와 ANE 사자 옥좌 도상, 그리고 9절과의 연결로만 보존.

Q5. 10:28-29 — 영광의 목록이 애굽에서 사 온 병거와 말로 닫힌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부귀의 절정이 애굽 군마의 중개무역으로 닫힌다. 신명기는 왕에게 '말을 많이 두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신 17:16) 했다. 영광의 끝이 정확히 그 금지된 길과 닿는다. 이 닫힘을 '죄의 시작'으로 단정하지 않고, 거래의 사실과 신 17:16-17과 닿는 형태 관찰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Q6. 10장 전체 — 영광의 정점 한가운데 신명기 왕의 율법과의 긴장이 흐르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말·은금·(다음 장의) 아내가 신 17:16-17이 금한 셋과 닿는다. 본문은 이 긴장을 연결해 평하지 않고, 영광과 균열을 나란히 둔다. 이를 '솔로몬 단죄'로 닫지 않고, 영광의 절정에 새겨진 균열의 씨앗이라는 형태로만 보존. 11~12장의 분열과 함께 재방문.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1장

1K1-011 · 역사서 · 히브리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이 나이 많을 때에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니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11:1-4) —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르며 그모스와 몰룩을 위해 산당을 지어(11:5-8)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되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남기리라"(11:11-13) 선언하시고, 대적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시며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 영광의 정점이 분열의 씨앗으로 터지는 권의 분수령.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내전(후궁 칠백·첩 삼백 3절)→예루살렘 앞 산(산당 7절)→변방(에돔·다메섹·들판 14·23·29절)으로 넓어지는 세 겹.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공적인 국경으로.
- 무대의 방향: 한 사람의 기운 마음이 도성 앞 제단으로, 다시 나라 사방의 대적으로 번짐.
- 소품: 이방 여인들(모압·암몬·에돔·시돈·헷 1·3절), 다른 신들의 이름(아스다롯·밀곰·그모스·몰룩 5·7절), 산당(bamah 7절), 새 옷(salmah 30절)과 열두 조각(31절).
- 소품의 부재: 다윗의 '온전한 마음' —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함(4절). 있어야 할 그 마음이 빠짐.
- 소재의 결: 처음은 사랑·마음(사랑하여·마음이 돌이켜), 가운데는 진노·빼앗음(진노하사·나라를 빼앗아), 끝은 대적·분할(하닷·르손·여로보암·열 조각).
- 형식 소재: 사랑(1절)에서 죽음(43절)으로 닫히는 수미, 두 번 올리는 '찢음'(qara 11~13절의 선언과 30~31절의 옷).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절정 다음 페이지의 추락 — 10장의 영광 바로 뒤, 11:1에서 단번에 결이 꺾임. '진노'(9절)가 솔로몬에게 처음 붙음.
- 사적인 기움에서 공적인 분할로의 점층 — 한 사람의 사랑(1)→마음(4)→산당(7)→나라의 분할(11·31).
- 영광의 노을에 차오르는 변방의 그늘 — '나이 많을 때'(4절)의 저녁빛, 14절부터 도성 밖에서 일어나는 대적.
- 책망과 보존이 부딪치는 두 어조 — 진단·판결의 산문과 '다윗을 위하여'(12·13·32·34·36절)의 보존이 팽팽함.
- 산당의 향과 찢기는 옷의 감각 — 이방 신에게 분향함(8절), 들에서 새 옷이 열두 조각으로 찢김(30절).
-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9절) — 처벌보다 '그토록 가까이 만나 주셨는데'의 안타까움.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 한 왕의 그릇된 사랑으로 열려, 그 왕의 죽음과 한 아들의 등극으로 닫힘 — 사랑에서 갈라짐으로 가는 호.
- '사랑'으로 여는 타락 — 미움·반역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단어가 가장 무거운 결과의 통로가 됨.
- 1절(솔로몬이 행함)과 43절(솔로몬에게 일어남) 사이에 11~13절(빼앗되 한 지파는 남김)이 새겨짐.
- 내전(3절)에서 죽음·계승(43절)으로 — 한 마음의 기움에서 한 나라의 분할까지가 사십 년(42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솔로몬('돌이켜지는' 수동의 주어 — 사랑하고·돌이켜지고·진노받고·죽음), 무대 뒤의 여호와(진노·선언·대적을 일으키심), 세 대적(에돔의 하닷·다메섹의 르손·신하 여로보암), 선지자 아히야(옷을 찢어 열 조각을 줌), 거울이자 보존의 이유 다윗('다윗을 위하여' 6회).
- 중심 사상: 나뉜 마음(lev 4절) — 행위 이전에 마음이 진단됨. 영광·지혜·성전이 마음 하나가 기울자 무너지기 시작함. 기움의 통로는 사랑(가장 가까운 관계).
- 진단·판결·집행의 연쇄: 진단(1~10 마음이 돌이켜 온전치 못함)→판결(11~13 빼앗되 한 지파는 남김)→집행(14~40 하닷·르손·여로보암). 모든 대적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14·23절)로 적음.
- '그러나'와 '오직': 무서운 선언에 '그러나'·'오직'이 끼어들어 심판이 매번 좁혀짐(11~13절) — 진노 안에 새겨진 보존.
- 아히야의 새 옷(29~31절): 한 벌의 옷이 열두 지파가 되고 손에서 찢겨 열과 둘로 갈라짐 — 말로 선언된 분할이 사물로 가시화됨.
- lev(마음)와 qara(찢다): 나뉜 마음이 찢긴 나라를 낳음 — 마음의 분열과 나라의 분열이 어휘로 맞물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기운 마음과 산당 — 이방 여인을 사랑함·후궁 칠백·첩 삼백(1~3), 나이 많을 때 마음이 돌이킴(4), 아스다롯·밀곰을 따름(5), 예루살렘 앞 산에 그모스·몰록 산당을 짓고 분향(7~8).
- 컷 2 (9~13절): 진노와 빼앗음의 선언 — 두 번 나타나셨음에도 마음이 돌이킨 데 진노(9~10), 나라를 빼앗되 다윗을 위하여 생전엔 아니하고 한 지파는 남김(11~13).
- 컷 3 (14~25절): 일어난 대적들 — 에돔 사람 하닷(어릴 적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다 돌아옴 14~22), 다메섹의 르손(아람 왕이 되어 평생 대적 23~25).
- 컷 4 (26~43절): 찢긴 옷과 죽음 — 신하 여로보암(26~28),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줌(29~39),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함(40), 사십 년 통치·죽음·르호보암 계승(41~43).
- 컷 2의 경첩 위치: 행위(컷 1)와 귀결(컷 3·4) 사이, 판결이 끼어들 — 진노(9)→이유(9~10)→판결(11~13)의 세 단이 세 인물로 집행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lev(לֵב) — 마음(2·3·4·9절). 이 장의 진단을 꿰는 핵심어. / shalem(שָׁלֵם) — 온전한, 나뉘지 않은(4절).

- ahav(אהב) — 사랑하다(1절). / nashim nokriyot(נָשִׁים נְכָרִיּוֹת) — 이방 여인들(1절).
- qara(קָרָא) — 찢다·빼앗다(11·12·13·31절). 나라를 찢는 동사와 옷을 찢는 동사가 같음.
- bamah(בָּמָה) — 산당, 노천 제단(7절). / satan(שָׂטָן) — 대적, 일으키신 자(14·23·25절).
- ashtoret(אַשְׁתֹּרֶת)·milkom(מִלְכָּם)·kemosh(כְּמוֹשׁ)·molek(מֹלֵךְ) — 시돈·암몬·모압·암몬의 신들(5·7절).
- asarah shevatim(אַסְרָה שְׁבָטִים) — 열 지파(31절). / salmah(שָׁלְמָה) — 옷(30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진단(1~10) + 판결(11~13) + 집행(14~43) — 마음의 기움이 판결을 거쳐 세 대적의 등장으로 펼쳐지는 연쇄 구조.
- 사랑→죽음 수미: 1절의 '사랑하였으니'와 43절의 죽음·계승이 사십 년을 묶음 — 형태 관찰.
- qara(찢다)의 두 겹: 11~13절(여호와와 입에서 선언된 찢음)과 30~31절(아히야의 손에서 행한 찢음)이 같은 어근으로 올림.
- '다윗을 위하여'(lema'an David)의 거듭됨: 12·13·32·34·36·39절 — 보존의 근거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약속.
- 열둘에서 열을 떼면 둘인데 '한 지파'를 남김(13·36절): 셈이 정확히 맞지 않는 한 칸의 어긋남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정략혼 — 주변국 공주를 아내로 맞아 동맹을 봉인하던 왕실 외교 관습. 다국적 후궁(1~3절)이 제국 외교 규모를 드러내는 배경.
- 왕비가 들이는 제의 — 외국 왕비가 자기 신의 제단을 궁정에 들이던 관행. 예루살렘 앞 산의 그모스·몰록 산당(7절) 건립의 사회 배경.
- 국가신 — 그모스(모압, 메사 비석에 주신으로 등장)·밀곰(암몬)·아스다롯(시돈). 5~7절 신명 목록의 배경.
- 산당(bamah) — 언덕에 세운 노천 제단으로 근동 전역에 보편적. 예루살렘 한 처소 신학(신 12장)과 충돌하는 7~8절의 배경.
- 선지자의 상징 행위 — 옷·도구를 찢어 나라의 분할을 예표하던 예언 전승. 아히야의 옷 찢음(29~31절)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1~8절을 '개종 의도'의 변호적 독법과 신 17:17 위반의 책망적 독법으로 갈라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1:1-4 ↔ 신 17:14-20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 위반이 메아리치는 율법)
- 왕상 11:2 ↔ 신 7:1-4 (가나안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리라 — 직접 배경)
- 왕상 11:9-10 ↔ 왕상 3:5-14; 9:1-9 (기브온의 첫 현현과 봉헌 후 두 번째 현현 — '두 번이나 나타나신' 그 두 번)
- 왕상 11장 ↔ 왕상 6:11-13 (건축 한가운데 끼어든 '만일 법도를 따르면 거하리라' — 11장에서 그 조건이 어긋남)

- 왕상 11:13-36 ↔ 삼하 7:12-16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리라 — 한 지파를 남기는 다윗 언약 배경)
- 왕상 11장 ↔ 왕상 12:1-20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남북 분열 — 예고가 실제로 터지는 곳)
- 왕상 11:29-39 ↔ 왕상 14:1-16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심판을 다시 전함 — 약속의 뒷날)
- 왕상 11:1-8 ↔ 느 13:23-27 (솔로몬조차 이방 여인 때문에 범죄함을 든 후대의 회고)
- 왕상 11:4 ↔ 마 6:24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 나뉜 마음의 신약적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 왕궁의 안채. 자막 —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후궁 칠백 명, 첩 삼백 명이 거하는 넓은 내전이 펼쳐진다. 시간이 흐르고, 자막 — 그가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카메라가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 예루살렘을 마주 보는 동쪽 산에 오른다. 거기 모압의 그모스를 위한 산당과 암몬의 몰록을 위한 산당이 세워진다. 솔로몬이 그 앞에서 분향한다. 성전이 멀리 보이는 그 산에 이방 제단의 연기가 오른다. 그 순간 화면이 멈추고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른다 —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돌아섰기 때문이니, 여호와께서 이미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셨으나 그가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자막이 이어진다 —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생전에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며, 한 지파는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음성이 멎고, 화면이 변방으로 옮겨 간다. 에돔에서 하닷이 일어나고, 다메섹에서 르손이 무리를 모은다. 그리고 들판 —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난다. 둘만 있을 때 아히야가 그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는다. 열 조각을 여로보암의 손에 쥐어 주며 말한다 —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 마지막 자막 — 솔로몬이 사십 년 동안 다스리고,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기운 마음, 찢긴 나라 — 영광의 정점에서 터진 분열의 씨앗"
- 초벌 부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나이 많을 때 그 마음이 돌이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11:1-4) —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르며 그모스와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11:5-8) 두 번이나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되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리라'(11:9-13) 선언하시고, 대적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시며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11:26-39) — 영광의 집을 지은 손이 이제 다른 신의 제단을 세워 권의 분열이 비로소 예고되는 분수령"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lev·ahav·qara·bamah·satan·ashtoret·milkom·kemosh·molek·shalem 등 12+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랑→죽음 수미 + qara의 두 겹 + '다윗을 위하여' 6회 + ANE 정략혼·산당·국가신·상징 행위)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1:1-3의 천 명의 여인을 '음욕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정략혼이라는 ANE 외교 관습과 신 17:17-7:1-4 율법과의 메아리, nashim nokriyot 어휘 관찰로만 둬. 솔로몬의 동기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1:4의 '마음이 돌이켰다'를 '점진적 신앙 후퇴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lev·shalem 어휘와 다윗과의 비교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나뉜 마음의 내부가 적히지 않은 점도 보존.
- 11:7의 산당 건립을 '세속화의 알레고리'로 닫지 않고, 도성 앞 산이라는 무대 사실과 bamah 어휘, 한 처소 신학과의 충돌 배경으로만 둬.
- 11:14-23의 '대적을 일으키셨다'를 '별의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satan(대적) 어휘와 정치사가 한 선언의 집행으로 적힌 본문 형태로만 보존. 정치적 동인은 ANE 배경으로만.
- 11:13-36의 '한 지파'와 11:31의 '열 조각'의 썸 어긋남을 해석으로 메우지 않고, 형태 관찰로만 둬. '다윗을 위하여'의 보존도 솔로몬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약속의 사실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11:1)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니 그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온전하지 못하였고(11:4) —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르며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룩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bamah)을 지어 분향하므로(11:5-8) 두 번이나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찢어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주리라"(11:11-13) 고 선언하시고, 대적 에돔 사람 하닷과 다메섹의 르손을 일으키시며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어 열 지파를 약속하는(11:26-39), 영광의 정점이 분열의 씨앗으로 터지는 권의 분수령이다.

한 문단: 예루살렘 왕궁의 안채. 후궁 칠백 명, 첩 삼백 명이 거하는 넓은 내전이 펼쳐진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카메라가 도성 밖으로 빠져 예루살렘을 마주 보는 동쪽 산에 오른다 —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룩을 위한 산당이 서고, 솔로몬이 그 앞에서 분향한다. 멀리 성전이 보이는 그 언덕에 이방 제단의 연기가 오른다. 그 순간 한 음성이 끼어든다 —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 명령하셨으나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찢어 빼앗되 다윗을 위하여 네 생전엔 아니하고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남기리라. 화면이 변방으로 옮겨 간다 — 에돔의 하닷이 일어나고, 다메섹의 르손이 무리를 모은다. 들판에서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쥐어 준다. 솔로몬이 사십 년을 다스리고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내전→도성 앞 산→변방으로 넓어지는 세 겹 무대. 이방 여인·다른 신들의 이름·산당·새 옷과 열두 조각의 소품 — 사랑·마음에서 진노·분할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절정 다음 페이지의 추락. 사적인 기움에서 공적인 분할로의 점층. 책망과 보존이 부딪치는 두 어조.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9절)의 안타까움.
3 시작과 끝	'사랑'(1절)으로 열려 죽음·계승(43절)으로 닫힘. 솔로몬이 행함과 그에게 일어남 사이에 '빼앗되 한 지파는 남김'(11~13절)이 새겨짐.
4 등장인물·사상	'돌이켜지는' 수동의 주어 솔로몬. 진노·선언·대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세 대적(하닷·르손·여로보암)과 선지자 아히야. 진단의 중심은 나뉜 마음(lev 4절).
5 장면 컷	기운 마음과 산당(1~8)/진노와 빼앗음의 선언(9~13)/일어난 대적들(14~25)/찢긴 옷과 죽음(26~43) 4컷. 컷 2는 행위와 귀결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qara(찢다)의 두 겹. '다윗을 위하여'(6회)의 거듭됨. 열둘에서 열을 떼면 둘인데 '한 지파'를 남기는 셈의 어긋남. 비워진 동기와 나뉜 마음의 내부.
7 동영상	천 명의 여인이 거하는 내전 → 도성 앞 산의 산당 → 두 번 만나신 분의 진노 → 변방의 대적 → 들판의 찢긴 옷 → 사십 년 만의 죽음.
8 초별 제목·부제	"기운 마음, 찢긴 나라 — 영광의 정점에서 터진 분열의 씨앗"
9 기도·내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가장 단순한 경계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너짐 — 내 마음이 슬그머니 둘로 나뉘지 않았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영광의 정점에서 어긋난 조건:**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6장이 그 영광의 봉우리였고, 그 건축 한복판에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거하리라'(6:12)는 조건이 끼어 있었다. 11장은 그 조건이 정확히 어긋나는 지점이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져 다른 신들을 따르고(11:4-5), 두 번이나 나타나 경계하신 그분을 등진다(11:9). 영광이 순종에 매여 있다고 적어 둔 그 매임이 풀리자, 권은 비로소 destination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 — 를 향한 긴 내리막을 시작한다. 6장의 봉우리에서 11장의 분수령으로, 본문은 영광이 어떻게 분열로 기우는지를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 보여 준다.

2. **결 2 — 나뉜 마음이 낳은 찢긴 나라:** 본문의 진단은 행위 이전에 마음(lev)이다. 산당을 짓고 분향한 것이 죄목이지만, 본문이 먼저 짚는 것은 '마음이 돌이켜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11:4)이다. 그리고 그 나뉜 마음이 찢긴 나라로 이어진다 — 같은 어근 qara가 나라를 '찢는' 선언(11:11)과 옷을 '찢는' 행위(11:31)를 맞물린다. 안에서 일어난 마음의 분열이 밖에서 한 나라의 분열로 옮겨 온다. 영광도 지해도 성전도, 마음 하나가 둘로 갈리자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본문은 그 통로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11:1)이었음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마음의 방향을 정했음을 적는다.

3. **결 3 — 진노 안에 새겨진 한 지파:** 11장의 심판은 끝까지 가지 않는다. '빼앗으리라' 곁에 '그러나'·'오직'·'다윗을 위하여'가 거듭 끼어들어(11:11-13) 심판이 매번 좁혀진다. 빼앗되 다 빼앗지 않고, 솔로몬 생전엔 아니고, 한 지파는 남긴다. 그 보존의 근거는 솔로몬의 무엇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삼하 7장)이다. 정작 잘못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 약속이 한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한다(11:36). 본문은 분열

을 예고하면서도, 그 예고 한가운데 회복의 한 칸을 미리 남겨 둔다. 사람의 마음은 기울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결은 기울지 않는다는 것을, 한 지파라는 한 칸이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신 17:14-20 —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 11:1-4 위반이 메아리치는 율법.
- 신 7:1-4 — 가나안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리라 — 11:2의 직접 배경.
- 왕상 3:5-14; 9:1-9 — 기브온의 첫 현현과 봉헌 후 두 번째 현현 — 11:9의 '두 번이나 나타나신' 그 두 번.
- 왕상 6:11-13 — 건축 한가운데 끼어든 '만일 법도를 따르면 거하리라' — 11장에서 그 조건이 어긋남.
- 삼하 7:12-16 —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리라 — 한 지파를 남기는 11:13-36의 다윗 언약 배경.
- 왕상 12:1-20 —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남북 분열 — 11장의 예고가 실제로 터지는 곳.
- 왕상 14:1-16 —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심판을 다시 전함 — 11:29-39 약속의 뒷날.
- 느 13:23-27 — 솔로몬조차 이방 여인 때문에 범죄함을 든 후대의 회고.
- 마 6:24 —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라 — 나뉜 마음의 신약적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1:1의 '사랑하였으니'에서 시작한다 — 타락이 미움이나 반역이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단어로 열리는 그 결을 듣는다.
- 멈춤 1: 11:4에서 멈춘다 —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온전하지 못했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둘로 나뉜 그 상태를 진다.
- 멈춤 2: 11:7에서 멈춘다 — 성전을 마주 보는 산에 선 다른 신의 산당. 영광의 집을 지은 손이 세운 다른 제단을 진다.
- 끝: 11:13에서 멈춘다 —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리라.' 진노 안에 새겨진 그 한 칸이 내게도 깔려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기운 마음과 산당(1~8)·진노와 빼앗음의 선언(9~13)·일어난 대적들(14~25)·찢긴 옷과 죽음(26~43)의 네 컷 완결
- [x] 사랑→죽음 수미(1~43)와 qara(찢다)의 두 겹(11~13·30~31)의 맞물림 구조
- [x] lev(나뉜 마음 4절)와 신 17:17·7:1-4 율법과의 다리
- [x] '다윗을 위하여'(6회)의 거듭됨과 삼하 7장 언약과의 연결
- [x] 두 번의 현현(3·9장) 회상과 12장 실제 분열·14장 약속의 뒷날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18:39)와 호렘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1장은 권의 가장 높은 봉우리(5~8장의 성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분수령 — 변질과 분열의 예고 국면(9~11장)의 절정이다. 6장의 건축 한복판에 끼어 있던 조건의 약속,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리라'(6:12)가, 이 장에서 정확히 어긋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다윗 언약(삼하 7장)의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리라'가 솔로몬의 실패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는데, 본문은 그 언약을 무르지 않는다 —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리라'(11:13·36)로 한 등불을 보존한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의 첫 큰 전환이 여기서 일어난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11장에서는 진노 한가운데 끼어든 '그러나 한 지파는 남기리라'(11:13)는 보존의 결로 먼저 비친다. 11장의 기운 마음이 12장의 실제 분열로, 그 너머 남북 왕들의 긴 우상과 끝내 갈렐의 불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의 가장 높은 출발점이며, 그 출발점에 이미 '한 지파'라는 회복의 한 칸이 남겨져 있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운 마음(11:1-10)에서 빼앗음의 선언(11:11-13)으로, 다시 대적과 찢긴 옷(11:14-43)으로 / 내전의 사적인 기움에서 변방의 공적인 분할로 / 영광의 정점에서 분열의 예고로 — 그러나 그 예고 한가운데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기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1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1~10장) 위에서 그 마음이 둘로 나뉘며 권 전체를 분열 쪽으로 처음 기울이는 운동이다. 진단의 산문(1~10절)이 한 번 멈춰 판결의 음성(11~13절)을 들이고, 그 판결을 지나 화면이 변방의 대적과 들판의 찢긴 옷으로 빠져나간다(14~43절). 그러나 11장이 끝나도 나라는 아직 실제로 갈라지지 않는다 — 르호보암 앞에서 열 지파가 떠나는 장면은 12장에서야 온다. 11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렐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첫 큰 굽이이며, 그 호 전체가 한 번 어긋난 조건(6:12 → 11:9-10)을 '영광이 순종에 매여 있고, 그 매임이 깨져도 약속을 무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왕의 노년의 실패다 — 누구를 사랑했고, 무슨 신을 따랐고, 어떤 진노를 받았고, 어떤 대적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나뉜 마음의 무게다. 본문의 진단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lev)이다. 영광도 지혜도 성전도, 마음 하나가 다윗처럼 '온전하지'(shalem) 못하게 되자 함께 흔들린다(11:4).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무너짐이 지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둘째, 가장 부드러운 통로다. 본문은 솔로몬이 우상을 사모했다거나 여호와를 반역했다고 적지 않는다. 다만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11:1) 그 마음이 기울었다고 적는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조용히,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 셋째, 무르지 않는 약속이다. 솔로몬이 조건을 어겨 나라가 찢기는데, 그 찢김 한가운데서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긴다'(11:13)는 결정이 내린다. 심판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기울어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결은 기울지 않는다. 본문은 영광과 실패와 보존을 나란히 둘 뿐, 그 사이의 거리를 11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사람의 일생으로만 둔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내 마음은 지금 온전히 한 곳을 향하고 있는가 — 아니면 슬그머니 둘로 나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따라, 가장 부드러운 통로로 마음이 어느새 기운 적은 없는가 — 완전히 떠나는 큰 배반보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다른 데로 기우는 작은 나뉘음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굳게 결심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분명한 경계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무너짐이 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서서히 나뉘는 결이었음을 보여 주고, 영광의 집을 지은 손이 다른 신의 제단을 세운 그 산을 보여 주고, 그 진노 한가운데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리라'고 새겨 둔 한 칸을 보여 준다. 영광과 실패와 보존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서 마음이 슬그머니 둘로 갈리지 않았는지 살피는 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내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보는 일, 그리고 그렇게 기운 내게도 한 약속이 버팀목으로 깔려 있음에 기대는 일. 한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 한 나라가 찢기는데, 그 찢김 곁에 끝내 꺼지지 않는 한 등불을 남기시고, 그 솔로몬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여호와 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권이 이제 본격으로 열린다 — 그 분수령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 온 이스라엘이 세겔에 모여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 청하나,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버리고 젊은 신하의 말을 따라 더 무거운 멍에를 답하니 (12:1-14), 11장에 예고된 열 지파의 떠남이 비로소 눈앞에서 터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lev* — 마음.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 왕궁의 안채. 자막 —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후궁 칠백 명, 첩 삼백 명이 거하는 넓은 내전이 펼쳐집니다. 화면에 세월이 흐르고, 자막이 한 진단을 적습니다 — 그가 나이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카메라가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 예루살렘을 마주 보는 동쪽 산에 오릅니다. 거기 모압의 그모스를 위한 산당과 암몬의 몰룩을 위한 산당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그 앞에서 서서 분향합니다. 멀리 성전이 보이는 그 언덕에 이방 제단의 연기가 오릅니다. 그 순간 화면이 멈추고,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돌아섰기 때문이니, 여호와께서 이미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이 일을 명령하셨으나 그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막이 이어집니다 —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찢어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생전에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며, 온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음성이 멎습니다. 화면이 변방으로 옮겨 갑니다. 에돔에서 하닷이 — 어릴 적 학살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다 자란 왕족이 — 돌아와 일어납니다. 다메섹에서 르손이 무리를 모아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들판입니다 — 선지자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들에 둘만 있을 때,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그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습니다. 열 조각을 여로보암의 손에 쥐어 주며 말합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리라.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그가 애굽으로 피합니다. 마지막 자막 —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이 사십 년이라.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페이지 아웃.

성령일 선교사: 천 명의 여인이 거하는 내전에서 기운 마음으로 열려, 도성 앞 산의 산당과 두 번 만나신 분의 진노를 지나, 변방의 대적과 들판에서 찢긴 옷으로 — 사십 년을 마치고 한 아들에게 넘기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기운 마음, 찢긴 나라 — 영광의 정점에서 터진 분열의 씨앗"

P02 이진우: "qara, 두 번 찢기다 — 선언된 빼앗음과 손으로 행한 찢음"

P04 최현국: "내전에서 변방까지 — 한 마음이 기울자 사방이 어두워지다"

P05 김미영: "산당의 향, 들판의 옷 — 영광의 집을 지은 손이 세운 다른 제단"

P07 오지혜: "그러나, 오직, 다윗을 위하여 — 진노 안에 새겨진 한 지파"

P11 나경아: "lev · qara — 나뉜 마음이 낳은 찢긴 나라"

부제 제안: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나이 많을 때 그 마음이 돌이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11:1-4) — 아스다룻과 밀곰을 따르며 그모스와 물룩을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11:5-8) 두 번이나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되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리라'(11:9-13) 선언하시고, 대적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시며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11:26-39) — 영광의 정점에서 권의 분열이 비로소 예고되는 분수령"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가장 지혜로운 왕이 나이 많을 때에 마음이 기울어 진노를 들은 그 곁으로, 그리고 영광의 곁에 다른 신의 산당이 선 그 산 위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단순한 경계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것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그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서서히 나뉘는 결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따라 마음이 어느새 기운 적은 없는지를 듣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운 체계도 '다윗을 위하여' 같은 한 약속이 버팀목으로 깔려 있음을, 그 분에 기대어 머물렀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1장은 기운 마음에서 빼앗음의 선언으로, 다시 대적과 찢긴 옷으로 움직여요. 1~10절이 진단, 11~13절이 판결, 14~43절이 집행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장 이하가 실제 분열과 금송아지,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권의 향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고요. 6장이 권의 가장 높은 봉우리, 영광의 집을 세운 국면이었다면, 11장은 그 봉우리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분수령이에요. 6장 한복판에 끼어 있던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면'(6:12)이라는 조건이, 11장에서 정확히 어긋나요. 영광이 조건에 매여 있다고 적어 둔 그 조건이 깨지자, 권은 비로소 destination을 향해 — 영광에서 분열로 — 기울기 시작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1:4의 lev(마음)와 11:11의 qara(찢다)가 한 쌍으로 움직여요. 마음이 나뉘자(lev), 나라가 찢겨요(qara). 안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마음의 분열이 밖에서 한 나라의 분열로 그대로 옮겨 와

요. 그리고 그 qara가 아히야의 손에서 한 번 더 와요(31절) — 새 옷이 열두 조각으로 찢기는 사물로요. 말로 선언된 찢음과 눈에 보이는 찢음이 같은 어근으로 맞물려요. 또 하나, '다윗을 위하여'(lema'an David)가 여섯 번 끼어드는 게 단서예요. 심판의 한복판마다 보존의 이유로 한 이름이 호명돼요. **나닌 마음이 나라를 찢는데, 그 찢음 곁에 늘 '그래도 한 지파는 남긴다'는 약속이 붙어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왕의 노년의 실패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언약의 신실하심 같아요. 솔로몬이 조건을 어겨 나라가 갈라지는데, 그 갈라짐 한가운데서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긴다'(13절)는 결정이 내려요. 심판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다윗에게 한 약속(삼하 7장) 때문에 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남아요(왕상 11:36). 사람의 마음은 기울어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곁은 기울지 않아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그 긴 호가 시작되는 분수령이 바로 이 장이에요 — 사람이 흔들려도 끝내 자신을 드러내실 분의 신실하심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분명한 경계 앞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랑을 통해 무너져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한 사람 안에서 부딪쳐요. 그리고 더 큰 긴장은 진노와 보존이 한 선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 '빼앗으리라' 곁에 '그러나 한 지파는 남기리라'가 붙어요(11~13절).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긴장**이에요. 본문은 이 긴장을 11장 안에서 풀지 않아요. 다 빼앗지 않은 그 한 지파가 무엇이 될지는 권을 더 읽어야 알게 돼요. 영광의 정점에서 분열이 예고되지만, 그 예고 안에 이미 회복의 한 칸이 남겨져 있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안채에서 변방으로** 빠져나가는 운동이에요. 가장 사적인 마음의 기울(1~4절)이 도성 앞 산의 산당으로(7절), 다시 에돔·다메섹·들판의 대적으로(14~40절) 번져요. 그리고 11장이 끝나도 나라는 아직 실제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답을 하고 열 지파가 떠나는 장면은 12장에서야 와요. 11장은 그 분열을 예고하고 씨앗을 심는 셈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이 기우는 한 것이, 다음 장의 실제 분열과 그 너머 남북 왕들의 긴 역사를 미리 결 지어 뒀어요. 영광의 집을 세운 자가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할 때 무엇이 오는지를 보여 주는 순서예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4절이 불씨 같아요.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그 한 마디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나닌 상태요. 저는 무언가를 완전히 버리는 큰 배반보다, 마음 한쪽이 슬그머니 다른 데로 기우는 작은 나뉘미가 더 가까워요. 가장 잘 안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따라, 어느새 마음이 둘로 갈리는 그 곁이요. 제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한 곳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슬그머니 둘로 나뉘어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기운 마음에서 찢긴 나라로, **안채에서 변방으로, 영광의 정점에서 분열의 예고로** — 그러나 그 예고 한가운데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기시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한 답을 기다립니다.

열왕기상 1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1:1-3 — 가장 지혜로운 왕이 가장 분명한 율법의 경계에서 무너진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신 17:17:7:1-4가 분명히 경계한 일을, 잠언을 쓴 솔로몬이 행한다. 본문은 동기를 적지 않는다 — 외교인지 사랑인지 자만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 무너짐을 '음욕의 교훈'으로 달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자의 가장 단순한 무너짐이라는 사실과 비워진 동기만 보존.

Q2. 11:4 — '마음이 돌이켜 온전하지 못하였다'(lev·shalem)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나뉘었다, 온전하지(shalem) 못했다고 적는다. 나뉜 마음의 내부 — 가책인지 후회인지, 여호와도 섬기며 다른 신도 섬긴 건지 — 는 적히지 않는다. 이 나뉜을 '신앙 후퇴의 단계론'으로 닫지 않고, lev 어휘와 다윗과의 비교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1:7 — 영광의 집을 지은 손이 예루살렘 앞 산에 다른 신의 산당을 세운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성전을 마주 보는 그 산에 그모스·몰록의 산당이 들어서고 솔로몬이 분향한다. 한 도성에 성전과 산당이 함께 선다. 이 대조를 '세속화의 알레고리'로 닫지 않고, 도성 앞 산이라는 무대 사실과 bamah 어휘, 한 처소 신학과의 충돌 배경으로만 보존.

Q4. 11:11-13 — 진노의 선언 한가운데 '그러나·오직·다윗을 위하여'가 거듭 끼어든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빼앗으리라' 곁에 '네 생전엔 아니하고'·'한 지파는 남기리라'가 붙어 심판이 매번 좁혀진다. 보존의 근거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에게 한 약속이다. 이 보존을 솔로몬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다윗을 위하여'(6회)의 거듭됨이라는 본문 형태와 삼하 7장 언약 배경으로만 보존.

Q5. 11:29-31 — 아히야가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준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들에서 한 벌의 옷이 열두 조각으로 찢기고 열을 여로보암에게 준다. 말로 선언된 찢음(qara 11절)이 손으로 행한 찢음(qara 31절)으로 가시화된다. 열둘에서 열을 떼면 둘인데 '한 지파'를 남긴다는 셈의 어긋남은 적히지 않는다. 이 상징 행위를 '예언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salmah·qara 어휘와 ANE 상징 행위 배경, 형태의 어긋남으로만 보존.

Q6. 11:14-23 — 하닷·르손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고 적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정치적 반란과 외교적 위기를 '여호와께서 대적(satan)을 일으키셨다'로 적어, 사람의 정치사와 그 뒤의 손을 한 화면에 겹친다. 이 겹침을 '응보의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satan 어휘와 한 선언의 집행으로 적힌 본문 형태로만 보존. 정치적 동인은 ANE 배경으로만 두고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2장

1KI-012 · 역사서 · 히브리어

온 이스라엘이 세겔에서 르호보암에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 청하나(12:1-4),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소년들의 말을 따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나라"(12:10)고 답하니 — 열 지파가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12:16) 외치며 갈라서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벰엘과 단에 두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12:28) 외치는 — 11장의 예고가 현실로 터지는 권의 분수령.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세겔(즉위 회합지 1절)→두 겹의 자문 회의실(노인·소년 6·8절)→갈라진 두 지도와 두 제단(벰엘·단 28~29절)으로 옮겨 다님. 옛 도성이 아닌 부족 중심지에서 결별의 지도로.
- 무대의 방향: 한곳에 모인 즉위식이 두 자문으로 갈리고, 거친 답을 거쳐 두 나라·두 송아지로 번짐.
- 소품: 멍에(ol 4절), 두 무리의 자문(노인·소년 7·10절), 새끼손가락과 허리(10절), 채찍과 전갈(11절), 금송아지 둘(벰엘·단 28~29절).
- 소품의 부재: 가볍게 한 멍에 — 백성이 청한 그 가벼움(4절)은 끝내 무대에 오르지 않음.
- 소재의 결: 처음은 청·자문(멍에·가볍게·노인·소년), 가운데는 결별(새끼손가락·전갈·장막·갈라짐), 끝은 우상(금송아지·벰엘·단·제사장·절기).
- 형식 소재: 무겁게(qashah)와 가볍게(qalal)의 대비,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15·24절)로 표시된 한 말씀의 성취 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막을 수 있었던 답답함 — 백성의 청은 무리하지 않았고 노인의 자문도 옳았는데(4·7절) 르호보암이 길을 닫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15절)가 묘하게 겹침.
- 협상 결렬에서 결별로, 결별에서 새 우상으로의 점층 — 협상(1~5)→두 자문(6~11)→거친 답(14)→결별(16)→아도람의 죽음(18)→분열(20)→금송아지(28).
- 빛과 어둠이 엇갈리다 우상으로 기우는 명암 — 거친 답(14)·결별(16)·돌에 맞은 아도람(18)의 어둠, 스마야가 칼을 멈춘 빛(24), 다시 금송아지(28)의 어둠.
- 사람의 어리석음과 한 말씀의 성취가 부딪치는 두 어조 — 새끼손가락·전갈(10~11)의 허세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 아히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15절)의 표지.
- 날아간 돌(18절)·달아나는 수레(18절)·다시 외쳐진 옛말('애굽에서 인도한 신들' 28절)의 감각.
-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24절) — 처벌의 매서움보다 '이 갈라짐조차 내 손 안에 있다'의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로 정하고 벳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 온 이스라엘이 한곳에 모이는 데서 열려, 한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자기가 세운 제단에서 분향하는 데로 달함 — 모임에서 독단으로 가는 호.
- '왕으로 삼고자'(1절)의 모임 — 거부가 아니라 즉위를 받아들일려 모인 회중이 한 답에 결별로 뒤집힘.
- 1절(사람이 모임)과 33절(사람이 분향함) 사이에 15·24절('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이 두 번 새겨짐.
- 세겜의 한곳 모임(1절)에서 벳엘의 홀로 분향(33절)으로 — 협상의 마당이 독단의 마당으로 바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르호보암(세겜에 가고·자문하고·노인 말을 버리고·거친 답·결별당하고·칼을 멈춤), 여로보암(애굽에서 돌아와 열 지파의 왕이 되고·금송아지를 세움), 두 자문 무리(노인·소년), 부역 감독 아도람(돌에 맞아 죽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형제와 싸우지 말라'), 무대 뒤의 여호와('내게로 말미암았다' 15·24절).
- 중심 사상: 섬김과 군림 — 노인의 자문은 '섬기면 영원히 종을 얻는다'(avad 7절)의 섬김의 역설, 소년의 자문은 더 무겁게 누르는 군림. 르호보암은 군림을 택해 다스릴 백성을 잃음.
- 협상·결별·두 귀결의 연쇄: 협상(1~5 가볍게 해 달라)→결별(6~15 두 자문이 갈려 거친 답)→정치적 분열(16~24 열 지파의 떠남·아도람의 죽음·멈춘 칼)→종교적 분열(25~33 두려움에서 난 금송아지).
- 두 분열의 다른 결: 정치적 분열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15절)의 성취, 종교적 분열은 여로보암의 '마음에 생각하되'(26절)의 계책 — 본문이 따로 적음.
- 금송아지 둘(28~29절): 벳엘·단 두 처소로 한 처소(예루살렘)의 수고를 뉘 —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출 32:4의 옛 문구가 되살아남.
- avad(섬김의 역설 7절)와 egel(옛 우상의 되풀이 28절): 한 장의 두 끝에 놓인 두 어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세겜의 청 — 온 이스라엘이 왕 삼으려 모임(1), 여로보암과 회중이 멩에를 가볍게 해 달라 청함(2~4), 사흘 뒤 다시 오라 함(5).
- 컷 2 (6~14절): 두 자문과 거친 답 — 노인의 자문(섬기면 종을 얻으리라 6~7), 그 말을 버리고 소년과 의논함(8~9), 소년의 자문(새끼손가락·전갈 10~11), 거친 답(12~14).
- 컷 3 (15~24절): 결별과 멈춰 선 칼 — 여호와께로 말미암음(15),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16~17),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고 르호보암 도망(18~19),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왕이 됨(20), 십팔만을 모았으나 스마야의 말씀에 멈춤(21~24).
- 컷 4 (25~33절): 두 금송아지 — 세겜·부느엘 건축(25),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워함(26~27), 금송아지 둘을 벳엘·단에 두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 선언(28~30), 산당·제사장·자기 정한 절기를 세움(31~33).
- 컷 2의 경첩 위치: 청(컷 1)과 두 귀결(컷 3·4) 사이, 한 답이 끼어듦 — 노인의 자문(6~7)→버림(8)→거친 답(13~14)이 정치·종교 두 분열로 펼쳐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ol*(על) — 명에(4·9·10·11·14절). 협상을 꾀는 핵심어. / *qashah*(קָשָׁה) — 무겁게/가혹하게 하다(4절).
- *etsah*(עֵצָה) — 자문(6·8·13절). / *avad*(עָבַד) — 섬기다·종이 되다(7절). 섬기는 자와 종이 같은 어근.
- *zeqenim*(זִקְנִים) — 노인들(6절) / *yeladim*(יְלָדִים) — 소년들·아이들(8절). 두 자문 무리.
- *qaton*(קָטָן) — 새끼손가락·작은 것(10절) / *motnayim*(מוֹתְנַיִם) — 허리(10절). 새끼손가락과 허리의 과장.
- *shotim*(שׁוֹטִים) — 채찍(11절) / *aqrabim*(אֶקְרָבִים) — 전갈(11절). 두 장치 도구.
- *ohel*(אֹהֶל) — 장막(16절) / *chelqenu*(חֶלְקֵנוּ) — 분깃·유업(16절) / *egel zahav*(עֵגֶל זָהָב) — 금송아지(2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협상(1~5) + 결렬(6~15) + 정치 분열(16~24) + 종교 분열(25~33) — 한 청이 두 자문을 거쳐 두 종류의 갈라짐으로 펼쳐지는 연쇄 구조.
- 모임→독단 수미: 1절의 '온 이스라엘이 모임'과 33절의 '자기 마음대로 정함'이 서른세 절을 묶음 — 형태 관찰.
- 무겁게(*qashah*)와 가볍게(*qalal*)의 대비: 4·9·10·14절에서 같은 명어를 두고 두 방향의 동사가 부딪침.
-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의 두 겹: 15절(거친 답을 두고)과 24절(멈춘 칼을 두고)이 같은 표지로 올림 — 같은 손이 분열은 허락하고 형제의 피는 막음.
- 출 32:4의 메아리: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가 12:28에서 다시 들림 — 옛 형상의 되풀이, 형태로만 돛.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즉위 협약 — 새 왕이 옛 도성이 아닌 부족 중심지에서 백성·장로와 통치 조건을 협상하던 관습. 세겜의 즉위·명에 협상(1~4절)의 배경.
- 강제 부역(*mas*) — 근동 왕실이 백성을 동원해 국책 공사를 진행하던 노동 제도. 솔로몬의 부역과 '무거운 명에'(4절)의 사회 배경.
- 세겜 — 에발산·그리심산 사이의 부족 회합지로,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수 24장) 이래 지파 연합의 상징 공간. 1절 즉위지 선택의 배경.
- 황소·송아지 형상 — 근동에서 신이거나 신이 올라타는 받침대로 쓰이던 도상. 벤엘·단의 금송아지(28절)가 출 32장 형상과 같은 도상 전승에 닿음.
- 벤엘·단 — 남북 경계의 오래된 성소 지점으로, 야곱의 벤엘(창 28장)·미가의 단(삿 18장) 전승을 잇는 제의 공간. 29절 두 처소 선택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8절의 '함께 자란 소년들'을 포레 자문의 미숙함의 본보기로 읽되 분열은 11:31의 예언 성취로 봄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2:20 ↔ 왕상 11:29-39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줌 — 예고의 성취)
- 왕상 12:20-24 ↔ 왕상 11:9-13 (나라를 빼앗되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리라 — 분열의 배경)
- 왕상 12:1-19 ↔ 대하 10:1-19 (르호보암의 세겜 즉위와 분열의 병행 기사)

- 왕상 12:28 ↔ 출 32:1-8 (아론의 금송아지와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 선언이 메아리치는 본문)
- 왕상 12:1 ↔ 수 24:1-28 (세겔의 언약 갱신 — 즉위지의 배경)
- 왕상 12:16 ↔ 삼하 20:1 (세바의 '우리가 다윗과 상관이 없다 각기 장막으로' — 같은 결별의 문구)
- 왕상 12:28-29 ↔ 신 12:5-14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처소 — 두 처소 건립과 충돌하는 율법)
- 왕상 12:32-33 ↔ 왕상 13:1-10 (벧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 — 제단의 뒷날)
- 왕상 12:28-30 ↔ 왕하 17:21-23 (여로보암의 죄가 북왕국 멸망의 뿌리로 회고됨 — 긴 그림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중부 고지의 세겔. 자막 — 르호보암이 세겔으로 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모였음이라. 한 무리가 앞으로 나서고,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그들과 함께 청한다. 자막 —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사흘 뒤 다시 오라 한다. 화면이 자문의 방으로 옮겨 간다 —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 말한다. 자막 —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버리고,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로 돌아선다. 소년들이 말한다 —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사흘이 지나 백성이 다시 온다. 르호보암이 거칠게 답한다. 그 순간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른다 —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다. 온 이스라엘이 외친다 — 이스라엘아 다윗의 집이여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부역 감독 아도람이 보내지자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르호보암이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아난다. 르호보암이 십팔만 군사를 모아 치려 하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한다 —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느니라. 칼이 멈춘다. 화면이 북으로 옮겨 간다 — 여로보암이 마음에 생각한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하다 마음이 돌아설까 두렵다.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벧엘에 하나는 단에 둔다. 자막 —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가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에 벧엘 제단에 올라 분향한다.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무거운 답, 갈라진 나라 — 가벼운 멍에 한 번을 아껴 모두를 잃다"
- 초벌 부제: "온 이스라엘이 세겔에서 르호보암에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 청하나(12:1-4), 르호보암이 노인의 '섬기면 종을 얻으리라'는 자문을 버리고 소년의 말을 따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12:10-14) 답하니 — 열 지파가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12:16) 외치며 갈라서고, 여로보암이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벧엘과 단에 두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12:28) 선언하는 — 11장의 예고가 현실로 터지고 새 우상의 처소가 세워지는 분수령"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ol·qashah·etsah·avad·zeqenim·yeladim·aqrabim·ohel·egel 등 12+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모임→독단 수미 + 무겁게/가볍게 대비 +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두 겹 + ANE 즉위 협약·부역·세겔·송아지 도상)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2:10-11의 새끼손가락·전갈을 '폭군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qaton·motnayim·aqrabim 어휘와 노인·소년 두 자문의 대비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버린 동기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2:7의 '섬기면 종을 얻으리라'를 '섬김의 리더십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avad 어휘의 두 겹과 두 자문의 대비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 12:16의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를 '저항의 정당화'로 닫지 않고, ohel·chelqenu 어휘와 삼하 20:1 세바의 같은 문구라는 형태로만 둬.
- 12:15·24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를 '예정의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표지가 분열은 허락하고 형제의 피는 막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그 한 칸의 결은 풀지 않음.
- 12:28의 금송아지를 '우상 일반론'으로 닫지 않고, egel 어휘와 출 32:4의 메아리, 여로보암의 두려움('마음에 생각하되' 26절)에서 난 계책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2장은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 모여(12:1) 솔로몬이 메운 무거운 멍에(ol)를 가볍게 해 달라 청하나(12:4), 르호보암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들이 영원히 종이 되리라"는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함께 자란 소년들의 말을 따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12:10-11)고 거칠게 답하므로 —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이여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12:16) 외치며 갈라서고,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왕이 되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벰엘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12:28-29)고 선언하는, 11장의 예고가 현실로 터지고 새 우상의 처소가 세워지는 권의 분수령이다.

한 문단: 중부 고지의 세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 삼으려 모여,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과 함께 청한다 — 왕의 아버지가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르호보암이 사흘을 두고 두 무리에게 묻는다. 노인들은 답한다 — 오늘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시면 영원히 종을 얻으리이다. 소년들은 답한다 —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버리고 소년의 말을 따라 거칠게 답한다. 그 순간 한 음성이 끼어든다 —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온 이스라엘이 외친다 — 다윗의 집이여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부역 감독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고, 르호보암이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난다. 르호보암이 십팔

만을 모아 치려 하나, 스마야가 형제와 싸우지 말라 전하니 칼이 멈춘다. 북으로 간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마음이 돌아설까 두려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벤엘과 단에 두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 외치며, 산당과 제사장과 자기 정한 절기를 세우고 벤엘 제단에 올라 분향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세겜→두 겹의 자문 회의실→벤엘·단의 두 제단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멍에·두 자문·새끼손가락과 허리·채찍과 전갈·금송아지 둘의 소품 — 청·자문에서 결별·우상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막을 수 있었던 답답함. 협상 결렬에서 결별로, 결별에서 우상으로의 점층. 사람의 어리석음과 한 말씀의 성취가 부딪치는 두 어조. '내게로 말미암았다'(24절)의 결.
3 시작과 끝	'온 이스라엘이 모임'(1절)으로 열려 '자기 마음대로 정함'(33절)으로 닫힘. 사람이 모임과 분향함 사이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15·24절)가 두 번 새겨짐.
4 등장인물·사상	노인을 버리고 소년을 따른 르호보암. 약속을 받고도 두려워한 여로보암. 두 자문 무리·아도람·스마야. '내게로 말미암았다'로만 들리는 여호와. 진단의 중심은 섬김과 군림(avad 7절).
5 장면 컷	세겜의 청(1~5)/두 자문과 거친 답(6~14)/결별과 멈춰 선 칼(15~24)/두 금송아지(25~33) 4컷. 컷 2는 청과 두 귀결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의 두 겹(분열은 허락·살육은 막음). 두 분열의 다른 결(성취 vs 두려움의 계책). 노인을 버린 비워진 동기. 출 32:4의 메아리.
7 동영상	세겜의 모임 → 두 자문 → 거친 답과 한 말씀 → 결별과 돌에 맞은 아도람 → 멈춰 선 칼 → 두 금송아지와 자기 정한 절기의 분향.
8 초벌 제목·부제	"무거운 답, 갈라진 나라 — 가벼운 멍에 한 번을 아껴 모두를 잃다"
9 기도·내면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적게 내어 주려다 모두 잃음 — 한 번 가볍게 답하면 될 일을 자존심으로 무겁게 답한 적은 없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예고가 현실로 터진 분열:**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11장이 그 분열을 예고하고 씨앗을 둔 분수령이었다 —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열 지파를 약속했다(11:30-31). 12장은 그 예고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본문은 르호보암의 거친 답을 두고 두 번 적는다 —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12:15). 한 선지자의 옷이 찢긴 그 상징이, 한 장 만에 한 나라가 찢긴 현실로 온다. 11장의 봉우리에서 12장의 실제 분열로, 본문은 예고된 운동이 어떻게 현실의 분열로 옮겨 오는지를 한 즉위식을 통해 보여 준다.

2. **결 2 — 가벼운 멍에 한 번을 아낀 큰 상실:** 본문의 갈림길은 한 답이다. 백성의 청은 무시하지 않았고(12:4), 노인의 자문도 옳았다 — 오늘 섬기면 영원히 종을 얻으리라(12:7). 권력을 내려놓을수록 권력을 얻는다는 역설(avad)이 분명히 제시됐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한 자문을 버리고 더 무겁게 누르는 군림을 택한다(12:14). 더 세계 쥐려다 손에 든 것을 놓친다. 본문은 그가 잔인했다거나 악했다고 길게 말하지 않는다. 다만 가벼운 멍에 한 번을 아끼려다 한 나라를 잃었다고 적는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적게 내어 주려다 모두 잃는 그 결을, 무겁게(qashah)와 가볍게(qalal)의 대비가 한 장 내내 들고 있다.

3. **결 3 — 갈라짐을 허락하되 형제의 피는 막는 손:** 12장의 심판은 갈라짐까지는 가되 형제의 살육까지는 가지 않는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가 거친 답(12:15)에도 붙고 멈춰 선 칼(12:24)에도 붙는다. 같은 손이 한

번은 분열을 허락하고, 한 번은 형제의 피를 막는다 — 르호보암이 십팔만을 모았을 때 스마야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느니라"(12:24) 전하니 칼이 멈춘다. 분열은 한 말씀의 성취이지만, 그 분열에 대한 두려움에서 난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제책이다(12:26-28). 본문은 허락된 갈라짐과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같은 무게로 두지 않는다. 사람이 나라를 갈라 놓아도, 형제의 피를 막고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분의 결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한 마디가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1:29-39 —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열 지파를 약속함 — 12장에서 그 예고가 성취됨.
- 왕상 11:9-13 — 나라를 빼앗되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기리라 — 12:20·24의 배경.
- 대하 10:1-19 — 르호보암의 세겜 즉위와 분열의 병행 기사.
- 출 32:1-8 — 아론의 금송아지와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 12:28 선언이 메아리치는 본문.
- 수 24:1-28 — 세겜의 언약 갱신 — 12:1 즉위지의 배경.
- 삼하 20:1 — 세바의 '우리가 다윗과 상관없다 각기 장막으로' — 12:16과 같은 결별의 문구.
- 신 12:5-14 —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처소 — 벤엘·단 두 처소 건립(12:28-29)과 충돌하는 율법.
- 왕상 13:1-10 — 벤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 — 12:32-33 제단의 뒷날.
- 왕하 17:21-23 — 여로보암의 죄가 북왕국 멸망의 뿌리로 회고됨 — 12:28-30의 긴 그림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2:4의 '가볍게 하소서'에서 시작한다 — 무리하지 않은 한 청, 막을 수 있었던 갈림길 앞에 선다.
- 멈춤 1: 12:7에서 멈춘다 — '섬기면 영원히 종을 얻으리라.' 권력을 내려놓을수록 얻는다는 역설을 진다.
- 멈춤 2: 12:16에서 멈춘다 —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 한 답 한 번에 끊긴 한 왕가와와의 인연을 진다.
- 끝: 12:28에서 멈춘다 —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 약속을 받고도 두려움으로 세운 송아지가 내게도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세겜의 청(1~5)·두 자문과 거친 답(6~14)·결별과 멈춤 선 칼(15~24)·두 금송아지(25~33)의 네 컷 완결
- [x] 모임→독단 수미(1:33)와 무집계/가볍게(qashah/qalal)의 대비 구조
- [x] avad(섬김의 역설 7절)와 신 12장 한 처소 율법과의 다리
- [x]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15·24절)의 두 겹과 11:31 예고 성취와의 연결
- [x] 출 32:4 회상과 13장 벤엘 제단·왕하 17장 멸망의 뿌리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2장은 11장의 예고가 현실로 터지는 지점 — 분열과 우상의 국면(12~16장)이 시작되는 첫 단추다. 11장에서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그 상징(11:30-31)이, 이 장에서 한 나라가 둘로 찢긴 현실로 이루어진다 — 본문이 두 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12:15·24)로 표시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다윗 언약(삼하 7장)의 '한 등불'(11:36)이 분열 가운데서도 유다에 남고, 동시에 북쪽에는 새 우상의 처소(벤엘·단)가 세워져 한 처소 신학(신 12장)이 정면으로 어긋난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의 무대가, 여기서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넓어진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12장에서는 분열 한가운데 '형제와 싸우지 말라'(12:24)며 칼을 멈춰 세우시는 결로 먼저 비친다. 12장의 실제 분열은 13장의 벤엘 제단을 향한 외침으로, 그 너머 남북 왕들의 긴 우상과 끝내 갈멜의 불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의 결정적 첫걸음이며, 그 첫걸음에 이미 '한 등불'(유다)과 '형제를 치지 말라'는 두 칸이 함께 남겨져 있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겜의 한 청(12:1-5)에서 거친 답(12:6-14)으로, 다시 결별과 두 금송아지(12:15-33)로 / 한곳의 모임에서 둘로 갈라진 두 나라·두 제단으로 / 11장의 예고에서 현실의 분열로 — 그러나 그 갈라짐 한가운데 '형제와 싸우지 말라' 멈춰 세우고 '내게로 말미암았다'고 새기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2장은 11장이 예고한 분열(11:31)을 현실로 옮기는 운동이다. 협상의 산문(1~5절)이 두 자문으로 갈리고(6~11절), 거친 답(14절)을 지나 화면이 결별과 돌에 맞은 부역 감독과 멈춰 선 칼로(15~24절), 다시 두 금송아지로(25~33절) 빠져나간다. 그러나 12장이 끝나도 분열은 되돌려지지 않는다 — 벤엘 제단을 향한 한 외침은 13장에서야 오고, 남북 왕들의 긴 역사는 그 너머에 있다. 12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결정적 굽이이며, 그 호 전체가 한 번 갈라진 나라(11:31 → 12:15)를 '사람이 갈라 놓아도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고 형제의 피는 막으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어리석은 왕의 정치 실패다 — 누가 무엇을 청했고, 어떤 답을 했고, 어떻게 갈라졌고, 무슨 송아지를 세웠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말씀의 성실하심이다. 르호보암이 거친 답을 해 나라가 갈라지는데, 본문은 그 갈라짐을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12:15)이라고 적는다. 11장의 예고가 빈말이 아니었다 — 찢긴 옷이 한 장 만에 찢긴 나라로 온다. 사람의 자존심과 두려움이 일을 벌여도, 그 일조차 한 말씀이 이미 가리킨 방향으로 간다. 둘째, 작은 양보를 아낀 큰 상실이다. 본문은 르호보암이 거대한 죄를 지었다고 적지 않는다. 다만 가벼운 명에 한 번을 아끼려고 더 무겁게 답했고(12:14), 그 한 답이 나라를 갈랐다고 적는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가장 적게 내어 주려다 모두 잃는다. 셋째, 갈라짐을 허락하되 형제를 치지 못하게 하는 손이다. 같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가 분열을 허락하고(15절) 또 살육을 막는다(24절). 분열은 한 말씀의 성취이고, 우상은 한 사람의 두려움의 제책이다(26-28절) — 본문은 돌을 따로 둔다. 사람의 마음은 갈라져도, 형제의 피를 막고 한 등불을 남기시는 분의 결은 흔들리지 않는다. 본문은 어리석음과 분열과 우상을 나란히 둘 뿐, 그 사이의 거리를 12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즉위식의 하루로만 둔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한 번 가볍게 답하면 될 일을 자존심 때문에 무겁게 답한 적은 없는가 — 작은 양보 한 번을 아끼려다 더 큰 것을 잃은 적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받은 약속조차 신뢰하지 못해, 기다리는 대신 두려움으로 내 손에 다른 송아지를 세운 적은 없는가 — 큰 배반이 아니라 슬그머니 찌는 나만의 안전망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강한 지도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적게 내어 주려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여 주고, 옳은 자문이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또래의 거친 말을 따라간 한 선택을 보여 주고, 약속을 받은 사람조차 두려움에 못 이겨 자기 손으로 송아지를 세운 것을 보여 주고, 그 갈라짐 한가운데 '형제와 싸우지 말라'(12:24)고 칼을 멈춰 세운 한 마디를 새겨 둔다. 어리석음과 분열과 우상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작은 양보 한 번을 어디서 아끼고 있는지 살피는 일, 가장 가까운 또래의 말이 내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있는지 보는 일, 그리고 받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두려움으로 세운 안전망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일. 한 즉위식의 거친 답 한 번이 한 나라를 돌로 가르는데, 그 갈라짐 곁에 형제를 치지 못하게 하시고 한 등불을 끝내 남기시며, 사람이 흔들려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권이 이제 본격으로 열린다 — 그 분수령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여로보암이 벤엘 제단에 올라 분향하는데 —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 그 제단을 향해 외치고(13:1-2), 왕이 손을 펴 그를 잡으라 하자 그 손이 말라 거두지 못하니, 12장에 세워진 새 제단이 곧바로 한 외침과 한 표징 앞에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ol* — 멩에.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중부 고지의 세겜. 자막 —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한 무리가 앞으로 나서고,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그들과 함께 청합니다. 자막 —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멩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메운 무거운 멩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사흘 뒤 다시 오라 합니다. 화면이 자문의 방으로 옮겨 갑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이 말합니다 —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르호보암이 그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로 돌아섭니다. 소년들이 말합니다 —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사흘이 지나 백성이 다시 옵니다. 르호보암이 노인의 말을 버리고 소년의 말을 따라 거칠게 답합니다. 그 순간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온 이스라엘이 외칩니다 — 이스라엘아 다윗의 집이여 우리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너의 유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르호보암이 부역 감독 아도람을 보내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납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에서 십팔만 명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느니라. 칼이 멈춥니다. 화면이 북으로 옮겨 갑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하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 나를 죽일까 두렵다. 그가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벤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자막 —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벤엘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합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온 이스라엘이 모인 세겔의 청에서 열려, 노인을 버리고 소년을 따른 거친 답과 한 말씀의 성취를 지나, 결별과 돌에 맞은 부역 감독과 멈춰 선 칼을 거쳐 — 두려움에서 난 두 금송아지와 자기가 정한 절기의 분향으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무거운 답, 갈라진 나라 — 가벼운 멍에 한 번을 아껴 모두를 잃다"

P02 이진우: "무겁게나 가볍게나 — 두 자문 사이에서 갈린 한 나라"

P04 최현국: "세겔에서 뻗엘까지 — 모임이 갈라지고 한 사람이 홀로 정하다"

P05 김미영: "새끼손가락과 금송아지 — 더 세계 쥐려다 손에 든 것을 놓다"

P07 오지혜: "섬기면 종을 얻으리라 — 버려진 한 자문과 두 갈래의 분열"

P11 나경아: "*ol·egel* — 가벼이 못 한 멍에가 낳은 금빛 송아지"

부제 제안: "온 이스라엘이 세겔에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 청하나(12:1-4),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소년의 말을 따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전갈로 징치하리라'(12:10-14) 답하니 — 열 지파가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12:16) 외치며 갈라서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뻗엘과 단에 두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12:28) 선언하는 — 11장의 예고가 현실로 터지는 분수령"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가벼운 멍에 한 번을 아껴 한 나라를 잃은 그 답 결으로, 그리고 두려움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세운 그 마음 결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적게 내어 주려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 더 세계 쥐려다 손에 든 것을 놓치는 것들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조차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의지하는 대신, 두려움에 못 이겨 자기 손으로 안전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볍게 답하면 될 일을 자존심 때문에 무겁게 답한 적은 없는지, 받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스스로 안전망을 만든 적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갈라 놓고도 형제의 피는 막으시는 그 손에 기대어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2장은 한곳의 모임에서 거친 답으로, 다시 갈라진 두 나라와 두 송아지로 움직여요. 1~5절이 협상, 6~15절이 두 자문과 결렬, 16~24절이 정치적 분열, 25~33절이 종교적 분열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장 이하가 실제 분열과 금송아지,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권의 향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 시로다"(18:39)고요. 11장이 분열을 예고하고 씨앗을 둔 분수령이었다면, 12장은 그 씨앗이 눈앞에서 터지는 국면이에요.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준 그 예고(11:31)가, 12장에서 정확히 이루어져요.

—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12:15)라고 본문이 두 번 표시해 뒀요. 예고된 분열이 현실의 분열로 옮겨 오면서, 권은 destination을 향한 긴 내리막을 본격으로 시작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2:4의 *ol*(명예)과 12:28의 *egel*(송아지)이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가벼이 하지 못한 한 명예가, 갈라진 끝에서 금빛 송아지로 이어져요. **한 번의 거친 답이 정치의 갈라짐을 낳고, 그 갈라짐의 두려움이 다시 종교의 갈라짐을 낳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avad*(섬기다 7절)예요 — 노인은 '섬기면 종을 얻는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은 군림을 택해 섬길 백성을 잃어요. 또 하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15:24절)가 두 번 끼어드는 게 단서예요. 사람의 어리석은 답도, 멈춰 선 칼도, 한 말씀의 손 안에서 읽혀요. **사람이 나라를 갈라 놓는데, 그 갈라짐 끝에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는 음성이 두 번 불어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어리석은 왕의 정치 실패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한 말씀의 성실하심 같아요. 르호보암이 거친 답을 해 나라가 갈라지는데, 본문은 그 갈라짐을 '아히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15절)이라고 적어요. 11장의 예고가 빈말이 아니었어요 — 한 선지자의 옷이 찢긴 그 상징(11:30)이, 한 장 만에 한 나라가 찢긴 현실로 와요. 사람의 자존심과 두려움이 일을 벌이는데, 그 일조차 한 말씀이 이미 가리킨 방향으로 가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그 긴 호가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기서 처음 또렷이 보여요 — 사람이 흔들려도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그 성실하심이에요.

P01 한나래: 긴장이예요. 가벼운 명예 한 번이면 될 일을, 르호보암이 무겁게 답해 모두를 잃어요. 작은 양보와 큰 상실이 한 답 안에서 부딪쳐요. 그리고 더 큰 긴장은 같은 손이 분열은 허락하고 형제의 피는 막는다는 거예요 —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가 거친 답(15절)에도 붙고 멈춰 선 칼(24절)에도 붙어요. **심판이 갈라짐까지는 가되 형제의 살육까지는 가지 않는 긴장이예요.** 본문은 이 긴장을 12장 안에서 다 풀지 않아요. 갈라진 두 나라가 어디로 갈지는 권을 더 읽어야 알게 돼요. 분열이 현실이 됐지만, 그 분열 한가운데에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한 마디가 새겨져 있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세겜에서 베엘로 옮겨 가는 운동**이예요. 한곳에 모인 즉위식(1절)이 거친 답으로 갈리고(14절), 갈라진 열 지파가 북으로 가고(20절), 마침내 베엘과 단에 두 송아지가 서요(28~29절). 그리고 12장이 끝나도 분열은 되돌려지지 않아요 — 13장에서 베엘 제단을 향한 한 외침이 오고, 그 너머 남북 왕들의 긴 역사가 이어져요. 12장은 그 긴 역사의 첫 단추예요. 한 즉위식의 협상이 한 나라의 분열과 새 제의로 굳어지는 순서예요. 함께 세우려던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한 처소가 두 처소로 나뉘는 그 결정적 갈림을 12장이 들고 있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26절이 불씨 같아요. '여로보암이 마음에 생각하되'라는 그 한 줄이요. 그는 열 지파를 약속으로 받았는데(11:31),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의지하는 대신 두려움에 못 이겨 자기 손으로 처소를 만들어요. 저는 큰 배반보다, 받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슬그머니 자기 안전망을 짜는 그 마음이 더 가까워요. 가장 확실히 받은 것조차 의심이 들 때, 기다리는 대신 내 손으로 무언가를 세우려는 그 결이요. 제가 지금 받은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른 송아지를 세우고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곳의 모임에서 거친 답으로, 거친 답에서 두 나라와 두 송아지로 — 그러나 그 갈라짐 한가운데 '형제와 싸우지 말라' 멈춰 세우시고 '내게로 말미암았다'고 새기시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로보암이 베엘 제단에 올라 분향하는데,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 그 제단을 향해 외칩니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2:8 — 르호보암이 옳은 자문(노인)을 버리고 또래(소년)의 말을 따른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노인들은 솔로몬을 모셨던 경험 많은 자문이고 그 답은 분명히 옳았다 — 섬기면 종을 얻으리라(7절).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버리고 함께 자란 소년의 말을 따른다. 본문은 동기를 적지 않는다 — 자존심인지, 또래에 대한 신뢰인지, 아버지처럼 강해 보이려는 것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 선택을 '청년 자문의 어리석음'으로 닫지 않고, '버렸다·따랐다'(8·13절)는 사실과 비워진 동기만으로 보존.

Q2. 12:7 — '섬기면 영원히 종을 얻으리라'(avad)는 노인의 역설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는다는 역설을 같은 어근(avad)으로 적는다. 권력을 내려놓을수록 권력을 얻는다는 그 결을, 본문은 풀어 설명하지 않고 자문의 한 마디로만 둔다. 이 역설을 '리더십 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avad 어휘의 두 겹과 두 자문의 대비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2:16 — '이스라엘아 네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결별의 외침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집' 전체와의 인연을 끊는 외침이다(ohel·chelqenu). 삼하 20:1의 세바의 외침과 같은 문구다. 이 외침을 '정당한 저항'이나 '반역'의 어느 한쪽으로 닫지 않고, 같은 결별의 문구가 다윗 왕조 안에서 두 번 울린 본문 형태로만 보존.

Q4. 12:15·24 —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가 거친 답과 멈춘 칼에 두 번 붙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같은 표지가 한 번은 분열을 허락하고(15절) 한 번은 형제의 피를 막는다(24절). 사람의 어리석은 답도, 칼을 멈춘 일도 같은 손 안에서 읽힌다. 이 두 겹을 '예정'의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말씀이 갈라짐을 허락하고 살육을 막는 본문 형태와 11:31 예고의 성취로만 보존.

Q5. 12:26-27 — 여로보암이 약속을 받고도 두려움에 못 이겨 처소를 만든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여호와께서 열 지파를 주셨는데(11:31), 그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의지하는 대신 백성이 마음을 돌릴까 두려워 스스로 처소를 만든다. 본문은 그 두려움이 정당했는지, 속내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생각하되'(26절) 한 줄로만 적는다. 이 두려움을 '불신앙의 표본'으로 닫지 않고, 받은 약속과 스스로 세운 안전 사이의 거리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12:28 — 금송아지 둘과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라'는 선언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출 32:4의 그 옛 문구가 새 나라의 첫 제의에서 다시 들린다. 두 송아지로 한 처소의 수고를 덜어 주는 편의가, 옛 광야의 형상을 되살린다. '신들이라'(복수)를 한 신의 두 처소로 읽을지 다신 선언으로 읽을지는 적히지 않는다. 이 되풀이를 '우상 일반론'으로 닫지 않고, egi 어휘와 출 32:4의 메아리, 두려움에서 난 계책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3장

1KI-013 · 역사서 · 히브리어

여로보암이 벰엘 제단에 올라 분향할 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제단아 제단아"(13:2) 외치고 재가 쏟아지매, 왕의 손이 말랐다 빌어 회복되나(13:4-6) — 떡도 물도 들지 말라는 명을 받은 그가,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 초청에 돌아와 떡을 먹고(13:18-19), 그 어김으로 사자에게 죽어 한 무덤에 묻히는(13:24-31) —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의 한 표징.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벰엘 제단 위(외침·표징 1절)→벰엘의 집과 식탁(거짓 초청 15·19절)→벰엘에서 유다로 가는 길(사자·죽음 24절)로 옮겨 다님. 외침의 처소가 식탁을 거쳐 길 위의 무덤으로.
- 무대의 방향: 제단 곁의 한 외침이 한 식탁의 어김을 거쳐 한 길의 죽음과 한 무덤으로 변집.
- 소품: 갈라진 제단과 쏟아진 재(deshen 3·5절), 마른 손(yad 4절), 들지 말라던 떡과 물(lechem·mayim 8·9절), 나귀(13·27절), 사자(aryeh 24절), 한 무덤과 뼈(qever·etsamot 30~31절).
- 소품의 부재: 들지 않았어야 할 그 떡 — 끝내 식탁에 오른 그 자국(19절).
- 소재의 결: 처음은 말씀·표징(여호와와 말씀·제단아·재·손·마름), 가운데는 시험·어김(떡·물·돌아가지 말라·천사·거짓·식탁), 끝은 죽음·무덤(사자·시체·나귀·묘실·뼈).
- 형식 소재: '여호와와 말씀'(devar YHWH)이 아홉 번 도는 틀, '떡도 물도 들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9절)는 세 겹 금지와 '돌아와 떡을 먹음'(19절)의 어김 대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웅게 시작한 사람이 동료 앞에서 무너지는 서늘함 — 왕의 절반 앞에서도 끊은(8절)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한 마디(18절)에 돌아섬. 19절의 조용한 한 문장이 더 서늘함.
- 표징의 승리에서 식탁의 어김으로, 어김에서 길의 죽음으로의 점층 — 외침·표징(1~6)→거절(7~10)→거짓 초청(11~19)→선고(20~22)→사자(24)→안 돌아킨 왕(33).
- 환했다 두 겹 어둠으로 닫히는 명암 — 곧은 외침과 회복된 손의 정오(1~6), 거짓의 그늘(18), 식탁·사자의 어둠(19·24), 안 돌아킨 여로보암의 더 긴 어둠(33).
- 사람은 흔들리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두 어조 — 왕 앞에서 끊고 동료 앞에서 돌아선 약함과, 거짓의 입에까지 임해 죽음을 선고하고 길에서 이룬 말씀(20~24).
- 갈라진 제단(5절)·굳은 손(4절)·길의 고요(사자가 으르렁대지 않고 셋이 가만히 선 28절)의 감각.
-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다'(26절) — 짐승의 사나움보다 '이 일도 한 말씀 안에 있다'의 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벰엘에 이르렀으니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선 때라."
-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 한 말씀이 유다에서 벰엘로 올라와 제단 곁에 서는 데서 열려, 그 표징과 죽음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은 여로보암 집의 멸망으로 닫힘 — 임한 말씀에서 닫힌 마음으로 가는 호.
-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1절)로 온 자가, 끝에서는 그 말씀을 어겨 길에 누움 — 말씀으로 시작한 자의 무너짐.
- 2절(요시야 예언, 먼 시간)과 34절(여로보암 집 멸망) — 한 장 안에 곧 이루어질 표징과 한참 뒤 이루어질 예언이 함께 걸림.
- 제단 곁의 한 외침(1절)에서 한 무덤(31절)과 끊어진 한 집(34절)으로 — 한 표징이 한 죽음과 한 멸망으로 변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하나님의 사람(말씀으로 와서 외치고·표징을 주고·청을 끌고·거짓에 돌아서고·선고받고·사자에게 죽음), 여로보암(분향하려다 손이 굳고·빌어 회복되나·끝내 안 돌이킴), 벰엘의 늙은 선지자(거짓으로 청하고·식탁에서 참말씀을 받아 전하고·시체를 장사하며 '내 뼈를 그 곁에' 이룸), 사자와 나귀(죽이되 먹지 않고·곁에 멀쩡히 섬), 무대 뒤의 여호와('여호와와 말씀'과 '사자에게 넘기셨다' 26절로만 들림).
- 중심 사상: 직접 받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분별 — 명은 분명했고(9절) 새 말은 '속임'(18절)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받은 명을 나중에 온 더 그럴듯한 말로 덮음.
- 표징의 승리·어김의 추락의 연쇄: 표징(1~6)→거절(7~10)→시험(11~19)→선고(20~22)→성취(23~32)→안돌이킨 왕(33~34).
- 거짓의 입에 임한 참말씀: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끌어들었으나(18절), 그 입에 식탁에서 진짜 여호와와 말씀이 임해 죽음을 선고함(20~22절) — 본문이 둘을 따로 둠.
- 먹지 않은 사자·찢지 않은 나귀(28절): 한 죽음이 짐승의 우연이 아니라 한 말씀의 일임을, 두 짐승의 멧은 본성이 길 위에 세워 둠.
- kichesh(속이다 18절)와 aryeh(여호와께서 넘기신 사자 24·26절): 거짓이 끌어들이고 말씀이 마무리하는 두 매듭.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절): 제단의 외침과 표징, 단호한 거절 — '제단아 제단아'와 요시야 예언(1~2), 재가 쏟아짐(3), 마른 손과 회복(4~6), 나라의 절반 앞에서도 떡·물·돌아감을 끊음(7~10).
- 컷 2 (11~19절): 식탁의 거짓 초청 —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 만남(11~14), 거절(15~17), '천사가 일렀다'는 거짓(18), 돌아와 떡과 물을 듚(19).
- 컷 3 (20~24절): 식탁의 선고와 길의 죽음 — 식탁에서 죽음을 선고함(20~22), 길을 떠남(23), 사자가 물어 죽음(24).
- 컷 4 (25~34절): 먹지 않은 시체와 한 무덤, 안 돌이킨 왕 — 시체를 거둠(25~29), 제 묘실에 장사하고 '내 뼈를 그 곁에'(30~32), 여로보암이 안 돌이켜 집이 끊어짐(33~34).

- 컷 2의 경첩 위치: 표징의 승리(컷 1)와 추락(컷 3·4) 사이에 한 식탁이 끼어듦 — 쫓아가 만남(11~14)→거짓 초청(18)→떡을 먹음(19)이 선고·죽음·무덤으로 펼쳐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devar YHWH*(דְּבַר־יְהוָה) — 여호와와 말씀(1·2·5·9·17·18·20·26·32절). 장을 꿰는 핵심구. / *ish haelohim*(אִישׁ הָאֱלֹהִים) — 하나님의 사람(1절).
- *mizbeach*(מִזְבֵּחַ) — 제단(2절) / *qatar*(קָטַר) — 분향하다(2절) / *deshen*(דֶּשֶׁן) — 재(3·5절).
- *yad*(יָד) — 손(4절) / *yavesh*(יָבֵשׁ) — 마르다(4절). 퍼다 굳은 왕의 손.
- *lechem*(לֶחֶם) — 떡(8절) / *mayim*(מַיִם) — 물(8절) / *shuv*(שׁוּב) — 돌아가다(9절). 세 겹 금지.
- *navi*(נָבִיא) — 선지자(18절) / *kichesh*(כִּי־שֶׁשׁ) — 속이다(18절). '나도 선지자라' 뒤의 거짓.
- *aryeh*(אַרְיֵה) — 사자(24절) / *nevelah*(נֶבֶלָה) — 시체(24절) / *qever*(קֶבֶר) — 무덤(30절) / *etsamot*(עֲצָמוֹת) — 뼈(31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표징(1~6) + 거절(7~10) + 거짓 초청(11~19) + 선고와 죽음(20~24) + 무덤과 안 돌아킨 왕(25~34) — 한 외침이 한 식탁을 거쳐 한 죽음과 두 결말로 펼쳐지는 연쇄 구조.
- 임한 말씀→어긴 죽음 수미: 1절의 '여호와와 말씀으로 옴'과 34절의 '말씀을 보고도 안 돌아킨 멸망'이 서른네 절을 묶음 — 형태 관찰.
- '여호와와 말씀'(devar YHWH)의 아홉 겹: 1·2·5·9·17·18·20·26·32절에서 거듭 올려 장 전체가 한 말씀의 틀 안에 놓임.
- 명령·어김 대비: '떡도 물도 들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9절)와 '돌아와 떡을 먹음'(19절)이 동사 *akal·shatah·shuv*로 정확히 맞부딪침.
- 두 시간의 표징: 곧 이루어진 제단 갈라짐(3·5절)과 한참 뒤 이루어질 요시야 예언(2절, 왕하 23장 성취) — 작은 표징이 큰 예언의 참됨을 받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벨엘 — 야곱이 사다다리를 본 곳(창 28장) 아래의 오래된 성소 지점으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둔 두 처소 중 하나(왕상 12:29). 13장 제단의 무대 배경.
- 분향(*qatar*)과 제단의 재(*deshen*) — 근동 제의에서 향을 사르고 기름·재가 제단 위에 쌓이던 절차. 재가 쏜 아짐(5절)이 제의 절차의 역전으로 읽히는 배경.
- 표징(*ot/mofet*) — 근동에서 신탁·예언이 참임을 증명하던 가시적 징조. 마른 손·갈라진 제단(3~5절)이 말씀의 참됨을 받치는 관습의 배경.
- 사자(*aryeh*) — 가나안·근동 도상에서 신적 심판·왕권의 짐승으로 쓰임. 먹지 않고 곁에 선 사자(28절)의 비상함이 그 위에서 도드라짐.
- 선지자 집단 — 성소 인근에 예언 무리가 거하던 관습. 벨엘에 거한 늙은 선지자(11절)의 사회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하나님의 사람을 잇도로 보는 독법과 익명으로 두는 독법으로 갈리고, 18절의 거짓을 두고 늙은 선지자가 본래 참선지자였는지 변절한 자인지 여러 독법으로 갈림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3:1 ↔ 왕상 12:28-33 (여로보암이 벳엘에 금송아지·제단·산당·자기 정한 절기를 세움 — 13장이 곧 바로 그 제단을 향함)
- 왕상 13:2 ↔ 왕하 23:15-20 (요시야가 벳엘 제단을 헐고 뼈를 사르되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둠 — 예언의 성취)
- 왕상 13:18 ↔ 신 13:1-5 (표징을 행해도 다른 길로 꺾는 자를 따르지 말라 — 거짓 초청과의 율법 다리)
- 왕상 13:1-2 ↔ 신 18:18-22 (참선지자의 표징과 거짓 선지자의 분별 — 표징·거짓 초청의 율법 배경)
- 왕상 13:20-22 ↔ 민 22-24 (발람의 입에 둔 말씀·말하는 나귀 — 거짓된 입에 임한 참말씀의 배경 결)
- 왕상 13:1 ↔ 창 28:10-22 (야곱의 벳엘 — 그 성소가 우상의 처소가 된 13장 제단의 긴 배경)
- 왕상 13:33-34 ↔ 왕상 14:7-16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멸망을 전함 — 안 돌이킨 결말의 뒷날)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벳엘 제단 위. 자막 —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선 때라. 한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 제단을 향해 외친다. 자막 —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사하리라. 그가 표징을 준다 — 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의 재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이 손을 펴 외친다 — 그를 잡으라. 그 손이 말라 거두지 못한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다. 왕이 빌어 손이 돌아온다. 왕이 청한다 — 나와 함께 집에 가 쉬라,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끊는다 —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떡도 물도 들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떡도 물도 들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명하셨음이라. 그가 다른 길로 돌아선다. 화면이 벳엘의 한 집으로 옮겨 간다 — 늙은 선지자가 그 소문을 듣고 나귀를 타고 쫓아가 만난다. 그가 청한다 — 나와 함께 집에 가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끊는다 — 그리 못 하리이다. 늙은 선지자가 말한다 —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너를 데리고 와 떡을 먹게 하라 하더라. 본문이 적는다 —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가 함께 돌아와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 그 식탁에서 한 음성이 임한다 — 네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어겨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가 떠난다. 길에서 사자가 만나 그를 물어 죽인다.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고, 나귀와 사자가 그 곁에 선다 — 사자는 먹지 않고 나귀는 찢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나며 보고 알린다. 늙은 선지자가 가서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 슬피 울며 제 묘실에 장사하고 이른다 — 내가 죽거든 그의 뼈 곁에 나를 두라, 그가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화면이 다시 제단으로 돌아간다 — 여로보암이 이 모든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 일이 그 집에 죄가 되어 끊어지게 된다.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먹지 말라던 한 떡 — 왕은 못 꺾은 사람을 동료의 한 마디가 꺾다"
- 초벌 부제: "여로보암이 벳엘 제단에 올라 분향할 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와서 '제단아 제단아'(13:2) 외치고 재가 쏟아지매 왕의 손이 말랐다 회복되나(13:4-6), '떡도 물도 들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13:9)는 명을 받은 그가 — 벳엘의 한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말씀으로 일렀다'(13:18) 거짓으로 청하니 돌아와 떡을 먹고, 그 어김으로 사자에게 죽어(13:24) 한 무덤에 묻히되, 여로보암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13:33) —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의 한 표징"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devar_YHWH·ish_haelohim·deshen·yad·yavesh·lechem·mayim·shuv·kichesh·aryeh·qever·etsamot 등 12+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임한 말씀→어김 수미 + '여호와와 말씀' 아홉 겹 + 명령/어김 대비 + 두 시간의 표징 + ANE 벤엘·분향·표징·사자 도상)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3:18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을 '거짓 권위 분별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kichesh 어휘와 신 13:1-5·신 18장의 율법 배경, 직접 받은 명을 나중의 말로 덮은 본문 형태로만 둬.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믿은 동기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3:8의 '나라의 절반 앞에서도 끊음'을 '청렴의 본보기'로 끌고 가지 않고, 세 겹 금지(akal·shatah·shuv)와 큰 시험은 이기고 작은 시험에 진 본문 형태로만 기록.
- 13:20-22의 '거짓의 입에 임한 참말씀'을 '예언자론'으로 닫지 않고, 본문이 거짓(18절)과 참말씀(20~22절)을 따로 적은 형태와 발람(민 22~24장)과 닿는 결로만 둬.
- 13:24-26의 사자의 죽임을 '징벌의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셨다'는 본문 표지와 먹지도 찢지도 않은 두 짐승의 비상한 정지라는 형태로만 보존.
- 13:2·32의 요시아 예언을 '예언 성취 도식'으로 닫지 않고, 곧 갈라진 제단(작은 표징)과 한참 뒤 요시아(왕하 23장 성취)의 두 시간이 한 장에 걸린 형태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3장은 여로보암이 벤엘 제단에 올라 분향할 때(13:1)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유다에서 와서 "제단아 제단아 ...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사하리라"(13:2) 외치고, 재가 쏟아지는 표징으로 제단이 갈라지며 왕의 손이 말랐다 빌어 회복되나(13:3-6) — 그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13:9)는 명을 받고도, 벤엘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라 천사가 말씀으로 너를 데려오라 하셨다"(13:18, 본문은 '속임이라' 표시)는 거짓에 돌아와 떡을 먹으며 — 그 어김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만나 물어 죽이되 시체를 먹지도 나귀를 찢지도 않고 곁에 서고(13:24-28),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거두어 제 묘실에 장사하며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13:31-32) 이르되, 여로보암은 그 모든 일 후

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여 그 집이 끊어지게 되는, 새 우상의 제단을 한 말씀이 처음 마주 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의 한 표징이다.

한 문단: 벤엘 제단 위. 여로보암이 분향하려 선 곁에, 한 사람이 유다에서 말씀으로 올라와 제단을 향해 외친다 — 제단아 제단아,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서 네 위의 산당 제사장을 사르리라. 그가 표징을 준다 —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리라. 왕이 손을 펴 "그를 잡으라" 하자 그 손이 굳고, 제단이 갈라진다. 왕이 벌여 손이 돌아온다. 왕이 청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의 절반 앞에서도 끊는다 — 떡도 물도 들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으리니, 여호와께서 그리 명하셨음이라. 그가 다른 길로 떠난다. 벤엘의 한 늙은 선지자가 쫓아가 청한다 — 함께 가 떡을 먹으라. 끓기자 그가 거짓을 댄다 — 나도 선지자라, 천사가 일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와 떡을 먹는다. 그 식탁에서 늙은 선지자의 입에 참말씀이 임한다 — 네가 명을 어겼으니 네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가 길을 떠나자 사자가 만나 물어 죽이는데, 먹지도 찢지도 않고 셋이 길에 선다.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거두어 제 묘실에 장사하고, 내 뼈를 그 곁에 두라 이른다. 여로보암은 이 모든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않아, 그 집이 끊어지게 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벤엘 제단→집과 식탁→길 위의 무덤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갈라진 제단과 재·마른 손·들지 말라던 떡과 물·나귀·사자·한 무덤의 소품 — 말씀·표징에서 시험·어짐을 거쳐 죽음·무덤으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옹게 시작한 사람이 동료 앞에서 무너지는 서늘함. 표징의 승리에서 식탁의 어짐으로, 어짐에서 길의 죽음으로의 점층. 사람은 흔들리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두 어조. '사자에게 넘기셨다'(26절)의 결.
3 시작과 끝	'여호와와 말씀으로 옴'(1절)으로 열려 '보고도 안 돌이켜 끊어짐'(34절)으로 닫힘. 곧 갈라진 제단(표징)과 한 참 뒤 요시야(예언 2절)가 한 장에 걸림.
4 등장인물·사상	큰 시험은 이기고 작은 식탁에 진 하나님의 사람. 표징을 보고도 안 돌이킨 여로보암. 거짓으로 청하고 참말씀을 전한 늙은 선지자. 먹지 않은 사자·찢지 않은 나귀. 중심은 직접 받은 말씀의 순종과 분별.
5 장면 컷	제단의 외침·표징·거절(1~10)/식탁의 거짓 초청(11~19)/선고와 길의 죽음(20~24)/먹지 않은 시체·한 무덤·안 돌이킨 왕(25~34) 4컷. 컷 2는 승리와 추락 사이의 정점.
6 의문·발견·정보	두 시간의 표징(곧 제단·먼 요시야). 거짓의 입에 임한 참말씀. 직접 받은 명을 새 말로 덮은 비워진 동기. 발람(민 22~24장)과 닿는 결.
7 동영상	제단의 외침과 표징 → 단호한 거절 → 늙은 선지자의 거짓 초청 → 식탁의 어짐과 선고 → 길의 사자와 먹지 않은 시체 → 한 무덤과 안 돌이킨 왕.
8 초벌 제목·부제	"먹지 말라던 한 떡 — 왕은 못 꺾은 사람을 동료의 한 마디가 꺾다"
9 기도·내면	큰 시험은 이기고 작은 식탁에서 넘어짐 — 한 번 분명히 들은 것을 더 그럴듯한 말로 덮은 적은 없는지, 보고도 안 돌이킨 국면은 없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새 우상의 제단을 처음 마주 선 한 말씀:**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12장이 그 분열을 현실로 터뜨리고 벤엘·단에 두 금송아지와 제단을 세웠다(12:28-33). 13장은 바로 그 제단을 향해 여호와와 말씀이 처음으로 또렷이 외쳐지는 지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13:1) 올라와 "제단아 제단아"(13:2) 외치고, '여호와와 말씀'(devar YHWH)이 이 장에 아홉 번 돈다. 우상의 처소가 세워지자마자 한 말씀이 그 위에 와서 선다. 분열의 내리막 한가운데서, 권의 향방인 "여호와 그는 하

나뉘어시라"(18:39)의 물음이 벤엘 제단 앞에서 처음 던져진다. 12장의 세움에서 13장의 마주섬으로, 본문은 우상이 세워지는 곳에 곧바로 한 말씀이 임함을 한 외침을 통해 보여 준다.

2. 절 2 — 전령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본문의 가장 아픈 갈림은 한 식탁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절반 앞에서도 끊었고(13:8), 높은 선지자의 첫 청도 끊었다(13:16). 그런데 '천사가 일렀다'(13:18)는 한 마디에 돌아선다 — 본문은 곧바로 '속임이라' 표시한다. 직접 받은 명이 분명했는데, 나중에 온 더 높아 보이는 말이 그것을 덮는다. 그가 식탁에 앉자 도리어 그 거짓된 입에 참말씀이 임해 죽음을 선고하고(13:20-22), 길에서 사자가 그대로 이론다(13:24). 본문은 전령의 약함과 거짓을 또렷이 적으면서도, 그 약함이 말씀의 참됨을 흐리게 두지 않는다. 사람은 흔들려 무너지는데,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 제단은 그날 갈라졌고(13:5), 요시야는 먼 뒷날 그대로 온다(왕하 23장).

3. 절 3 — 죽음까지 정확하되 한 무덤이 둘을 품는 손: 13장의 심판은 매섭게 정확하다. 명을 어긴 자가 죽고, 사자가 죽이되 먹지 않고, 나귀도 찢기지 않고 셋이 길에 선다(13:28) —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셨다'(13:26). 짐승의 우연이 아니라 한 말씀의 일임을 두 짐승의 멧은 본성이 세워 둔다. 그런데 그 정확한 심판 곁에, 거짓으로 그를 넘어뜨린 높은 선지자가 시체를 거두어 슬피 울고 제 묘실에 장사하며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13:31) 이론다. 그가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13:32) 증언한다. 죽음은 정확하되, 그 주검은 버려지지 않고 한 무덤이 둘을 품는다. 그리고 그 한 무덤은 먼 요시야의 날까지 보존된다(왕하 23:18). 어김의 정확한 대가와, 그 주검을 끝내 거두고 그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손이, 한 무덤 안에 함께 놓인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2:28-33 — 여로보암이 벤엘에 금송아지·제단·산당·자기 정한 절기를 세움 — 13장이 곧바로 그 제단을 향함.
- 왕하 23:15-20 — 요시야가 벤엘 제단을 헐고 뼈를 사르되 하나님의 사람의 뼈는 그대로 둠 — 13:2 예언의 성취.
- 신 18:18-22 — 참선지자의 표징과 거짓 선지자의 분별 — 13장 표징·거짓 초청의 율법 배경.
- 신 13:1-5 — 표징을 행해도 다른 길로 꺾는 자를 따르지 말라 — 13:18 거짓 초청과의 다리.
- 민 22-24 — 발람의 입에 둔 말씀·말하는 나귀 — 거짓된 입에 임한 참말씀(13:20-22)의 배경 곁.
- 창 28:10-22 — 야곱의 벤엘 — 그 성소가 우상의 처소가 된 13장 제단의 긴 배경.
- 왕상 11:29-39 — 아히야가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약속함 — 여로보암 제의의 배경.
- 왕상 14:7-16 —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멸망을 전함 — 13:33-34 안 돌이킨 결말의 뒷날.
- 암 7:10-13 — 벤엘 제사장 아마샤가 예언자를 내쫓음 — 벤엘 제단을 향한 예언의 긴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3:2의 '제단아 제단아'에서 시작한다 — 우상의 처소를 향한 한 외침, 곧 갈라질 제단 앞에 선다.
- **멈춤 1:** 13:8에서 멈춘다 —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큰 것 앞에서 끊은 단호함을 전다.
- **멈춤 2:** 13:18-19에서 멈춘다 — '천사가 일렀다'는 거짓에 돌아온 한 식탁. 큰 시험은 이기고 작은 시험에 진 자국을 전다.
- **끝:** 13:33에서 멈춘다 — '이 일 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안 돌이킨 마음이 내게도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제단의 외침·표징·거절(1~10)·거짓 초청(11~19)·선고와 죽음(20~24)·무덤과 안 돌이킨 왕(25~34)의 네 컷 완결
- [x] 임한 말씀→어긴 죽음 수미(1:34)와 '여호와와 말씀'(devar YHWH) 아홉 겹의 틀
- [x] 명령·어김 대비(akal·shatah·shuv)와 신 13장·신 18장 분별 율법과의 다리
- [x] 거짓의 입에 임한 참말씀(20~22절)과 발람(민 22~24장)·먹지 않은 사자(26절)와의 연결
- [x] 두 시간의 표징(곧 제단·먼 요시야)과 왕하 23장 성취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렐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렐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3장은 12장이 세운 우상의 제단을 한 말씀이 처음으로 또렷이 마주 서는 지점 — 분열과 우상의 국면(12~16장) 한가운데서, 권의 핵심 도구인 '예언자를 통한 말씀'이 본격으로 무대에 오르는 첫 장이다. 12장에서 여로보암이 베엘·단에 금송아지와 제단을 둔(12:29-33) 바로 그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와 말씀으로'(13:1) 올라와 외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 외침은 두 시간을 한꺼번에 새긴다 — 곧 갈라지는 제단(13:5)은 그날의 표징이고, 요시야 예언(13:2)은 수백 년 뒤 왕하 23장에서 그 제단을 헐고 뼈를 사르는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다. 우상이 세워지는 그곳에 이미 그 우상의 끝이 한 이름(요시야)으로 새겨진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의 도구가, 여기서 '예언자의 말씀'으로 처음 또렷이 작동한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로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13장에서는 어김의 정확한 심판 결에서 그 주점을 끝내 거두어 한 무덤에 품으시고 그 말씀을 먼 요시야까지 이루시는 결로 비친다. 13장의 한 외침은 14장 이후 남북 왕들의 긴 우상과 끝내 갈렐의 불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에서, 우상의 제단을 처음 흔든 결정적 표징이며, 그 표징에 이미 '요시야와'한 무덤'이라는 두 약속이 함께 새겨져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베엘 제단의 한 외침(13:1-10)에서 식탁의 어김(13:11-19)으로, 다시 길의 죽음과 한 무덤(13:20-34)으로 / 우상의 제단을 처음 마주 선 한 말씀에서 그 말씀의 그대로 됨으로 / 곧 갈라진 제단에서 먼 요시야로 — 그러나 명령이 흔들려도 그 입에까지 임하고, 주점을 끝내 한 무덤에 거두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3장은 12장이 세운 우상의 제단(12:32-33)을 한 말씀이 처음 흔드는 운동이다. 제단의 외침과 표징(1~6절)이 단호한 거절(7~10절)을 지나, 화면이 식탁의 거짓과 어김으로(11~19절), 다시 선고와 길의 죽음과 한 무덤으로(20~34절) 빠져나간다. 그러나 13장이 끝나도 분열은 되돌려지지 않는다 — 여로보암은 안 돌이키고(33절), 남북 왕들의 긴 우상은 그 너머에 있다. 13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언자의 말씀으로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렐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한 굽이이며, 그 호 전체가 우상의 제단(12:33 → 13:2)을 '전령은 약해도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고 그 주점까지 거두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예언자의 비극적 실족이다 — 누가 무엇을 외쳤고, 어떤 표징이 있었고, 어떻게 한 식탁에 넘어졌고, 길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말씀의 끊을 수 없는 정확함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명을 어겨 길에서 죽는데, 본문은 그 죽음을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셨다'(13:26)고 적고, 그가 외친 제단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13:32)고 다시 증언한다. 전령은 흔들려 무너져도, 그 입을 통과한 말씀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다. 제단은 그날 갈라졌고(13:5), 요시야는 먼 뒷날 그대로 온다. 둘째, 큰 시험은 이기고 작은 시험에 지는 사람의 결이다. 본문은 그가 거대한 죄를 지었다고 적지 않는다. 왕의 절반 앞에서도 끊은(13:8) 사람이, 동료의 '천사가 일렀다'(13:18)는 한 마디에 직접 받은 명을 덮는다. 가장 분명히 들은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나중의 말 앞에서 흔들린다. 셋째, 정확한 심판 곁에 주점을 거두는 손이다. 사자는 죽이되 먹지 않고, 늙은 선지자는 그를 거두어 한 무덤에 품고, 그 무덤은 먼 요시야의 날까지 보존된다(왕하 23:18). 어김의 대가는 정확하되, 그 주점은 버려지지 않는다. 본문은 표징과 어김과 죽음을 나란히 둘 뿐, 전령의 약함이 말씀의 참됨을 왜 흐리지 못하는지를 13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무덤의 한 쪽으로만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한 번 분명히 들은 것을, 더 높아 보이고 더 그럴듯한 나중의 한 마디 앞에서 슬그머니 덮은 적은 없는가 — 왕의 절반은 끊고도 동료의 식탁에는 앉은 그 사람처럼, 큰 것은 이기고 작은 것에 진 적은. 그리고 나는 갈라진 제단과 마른 손과 사자를 다 보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 왕처럼, 분명히 보고도 한 걸음을 떼지 않은 대목은 없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단단한 사람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의 절반 앞에서도 끊은 사람이 동료의 한 마디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 주고, 직접 받은 명이 분명했는데 '천사가 일렀다'는 더 높아 보이는 말이 그것을 덮은 한 선택을 보여 주고, 그 어김이 길 위의 한 죽음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 주고, 그러면서도 그 주점을 끝내 거두어 한 무덤에 품고 그 말씀을 먼 요시야까지 이루시는 손을 새겨 둔다. 표징과 약함과 죽음과 보존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분명히 들은 한 말씀을 어디서 더 그럴듯한 새 말로 덮고 있는지 살피는 일, 큰 국면에서는 굳센데 가장 가까운 식탁 앞에서 어디가 무른지 보는 일, 그리고 충분히 보고도 안 돌이킨 한 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일. 우상의 제단을 향한 한 외침이 곧바로 한 어김과 한 죽음을 통과하는데, 그 통과 끝에 한 무덤이 돌을 품고 먼 요시야까지 보존되며, 사람이 흔들려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예언자의 말씀으로 드러내실 권이 이제 그 도구를 본격으로 든다 — 그 표징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여로보암이 이 모든 표징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데(13:33) — 14장에서 그 집의 아이가 병들때 아내를 변장시켜 늙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 묻게 하니, 13장에 새겨진 '여호와 집의 멸망'이 이제 그 집의 한 아이를 두고 또렷한 선고로 돌아온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avar* — 말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베엘 제단 위입니다. 자막 —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선 때라. 한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 여호와와 말씀으로 제단을 향해 외칩니다 —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사하고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그가 표징을 줍니다 — 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이 손을 펴 외칩니다 — 그를 잡으라. 펴서 가리킨 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그 위에서 쏟아집니다. 왕이 청합니다 —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빌매 왕의 손이 본래대로 돌아옵니다. 왕이 다시 청합니다 —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끊습니다 — 왕이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명하시되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가 다른 길로 떠납니다. 화면이 베엘의 한 집으로 옮겨 갑니다. 그 성읍에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사는데, 아들들이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을 그에게 고합니다. 그가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쫓아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청합니다 —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끊습니다 —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떡도 물도 들지 못하리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그리 명하셨음이라. 늙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내게 일러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더라. 자막 —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 그를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와 말씀이 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여호와와 입의 명령을 어기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떠납니다. 길에서 사자가 그를 만나 물어 죽입니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는데 —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가서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 슬피 울며 제 묘실에 장사하고 이릅니다 — 슬프다 내 형제여. 그가 아들들에게 이릅니다 —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여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와 말씀으로 베엘 제단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화면이 다시 제단으로 돌아옵니다. 자막 —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산당의 제사장을 세웠으니, 이 일이 그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제단 곁의 한 외침과 표징에서 열려, 나라의 절반 앞에서도 끊은 단호함을 지나, 늙은 선지자의 거짓 초청과 식탁의 어김을 거쳐 — 거짓의 입에 임한 선고와 길의 사자, 먹지 않은 시체와 한 무덤, 그래도 돌이키지 않은 왕으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먹지 말라던 한 떡 — 왕은 못 꺾은 사람을 동료의 한 마디가 꺾다"

P02 이진우: "여호와와 말씀 아홉 번 — 사람은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다"

P04 최현국: "제단에서 무덤까지 — 한 외침이 한 죽음과 한 멸망으로 번지다"

P05 김미영: "먹지 않은 사자, 찢지 않은 나귀 — 길 위에 세워진 한 말씀"

P07 오지혜: "직접 들은 명과 나중에 온 말 — 더 그럴듯한 한 마디가 덮은 것"

P11 나경아: "*davar · aryeh* — 거짓이 끌어들이고 말씀이 마무리하다"

부제 제안: "여로보암이 베엘 제단에 분향할 때 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아 제단아'(13:2) 외치고 표징을 주매 왕의 손이 말랐다 회복되나(13:4-6), '떡도 물도 들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13:9) 명받은 그가 늙은 선지자의 거짚 초청(13:18)에 돌아와 떡을 먹고 — 그 어김으로 사자에게 죽어(13:24) 한 무덤에 묻히되, 여로보암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13:33) —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의 한 표징"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큰 시험은 이기고 작은 식탁 앞에서 넘어진 그 사람 곁으로, 그리고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은 그 마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큰 시험은 이긴 사람이 가장 작은 한 식탁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왕의 절반 앞에서는 끊었는데, 동료의 한 마디 앞에서는 돌아서는 것ですよ. 그리고 직접 받은 명이 분명한데도, 나중에 온 더 그럴듯한 말이 그것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 분명히 들은 것을, '천사가 일렀다'는 식의 더 높아 보이는 말 앞에서 슬그머니 바꾼 적은 없는지, 그리고 그 모든 표징을 보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은 왕처럼, 분명히 보고도 내 길을 고치지 않은 국면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그 손에 기대어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3장은 제단의 한 외침에서 한 식탁의 어김으로, 다시 한 길의 죽음과 한 무덤으로 움직여요. 1~10절이 표징과 거절, 11~19절이 거짚 초청과 어김, 20~24절이 선고와 죽음, 25~34절이 무덤과 안돌이킨 왕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2장이 분열과 두 금송아지였고, 12~16장이 분열·금송아지·남북 왕들의 국면이에요. 13장은 그 국면 안에서 새로 세워진 우상의 제단을 한 말씀이 곧바로 마주 서는 지점이에요. 권의 향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18:39)고요. 12장이 우상의 처소를 세웠다면, 13장은 그 처소를 향해 여호와와의 말씀이 처음으로 또렷이 외쳐지는 국면이에요 —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홉 번 도는 게 그 표시예요. 그리고 그 외침은 한참 뒤 요시야(왕하 23장)까지 가는 긴 예언을 미리 새겨 뒀요. 분열의 내리막 한가운데서, 누가 참하나님인가의 물음이 베엘 제단 앞에서 처음으로 던져져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절의 *devar YHWH*(여호와와의 말씀)와 24절의 *aryeh*(사자)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말씀으로 온 사람이, 말씀이 넘긴 사자에게 마무리돼요. 한 외침이 우상의 제단을 흔들고, 한 어김이 그 외친 자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shuv*(돌아가다 9절)예요 —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던 명을, 그가 '돌이켜 돌아옴'(19절)으로 어겨요. 또 하나, *kichesh*(속이다 18절)와 '여호와와의 말씀'(20절)이 한 식탁에 같이 놓이는 게 단서예요. 거짚된 입에 도리어 참말씀이 임해요. 사람이 속이고 여기는데, 그 어김 식탁에서까지 한 말씀이 정확히 자기 길을 가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예언자의 비극적 실족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한 말씀의 끊을 수 없는 정확함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명을 어겨 길에서 죽는데, 본문은 그 죽음을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셨다'(26절)고 적고, 그가 외친 제단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32절)고 늙은 선지자의 입

으로 다시 확정해요. 사람은 흔들려 무너지는데,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아요 — 제단은 그날 갈라졌고(5절), 요시아는 먼 뒷날 그대로 와요(왕하 23장).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그 답을 받칠 토대가 여기서 놓여요 — 전령은 약해도 말씀은 참되다는 것, 그게 우상의 제단 앞에서 처음 또렷이 증명돼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같은 사람이 왕 앞에서는 꿇고 동료 앞에서는 무너져요. 큰 시험의 승리와 작은 시험의 패배가 한 사람 안에서 부딪쳐요. 그리고 더 큰 긴장은 거짓된 입에 참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 속인 자(18절)가 진짜 선고(20~22절)를 전해요. **전령의 거짓·약함과 말씀의 참됨이 한 식탁에서 갈라지지 않는 긴장**이에요. 본문은 이 긴장을 13장 안에서 다 풀지 않아요. 거짓으로 넘어뜨린 늙은 선지자가 왜 그 말씀을 끝내 증언하고 뼈 곁에 묻히려는지(31~32절)는 닫지 않아요. 한 사람의 어김 곁에, 그 어김으로도 못 흐리는 한 말씀이 나란히 서 있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제단에서 무덤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우상의 제단을 향한 한 외침(1~2절)이 식탁의 한 떡으로 흔들리고(19절), 흔들린 자가 길에서 죽고(24절), 마침내 한 무덤이 돌을 품어요(31절). 그리고 13장이 끝나도 분열은 되돌려지지 않아요 — 여로보암은 안 돌이키고(33절), 그 너머 남북 왕들의 긴 우상이 이어지고, 끝내 갈멜의 불(18장)이 와요. 13장은 그 긴 내리막에서 우상의 제단을 한 말씀이 처음 흔든 한 표징이에요. 새로 세운 처소가 곧바로 한 외침과 한 표징 앞에 서는 그 결정적 마주섬을 13장이 들고 있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33절이 불씨 같아요.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니'라는 그 한 줄이요. 그는 갈라진 제단도, 마른 손도, 사자의 죽음도 다 봤어요. 그렇게 분명한 표징을 보고도 길을 고치지 않아요. 저는 큰 죄보다, 분명히 보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이 더 가까워요. 충분히 봤는데도 한 걸음을 안 떼는 그 결이요. 제가 지금 분명히 보고도 고치지 않고 있는 국면은 어디인지, 어떤 표징 앞에서 안 돌이키고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제단의 한 외침에서 식탁의 어김으로, 어김에서 길의 죽음과 한 무덤으로 — 그러나 전령이 흔들려도 그 입에까지 임해 정확히 자기 길을 가고, 우상의 제단을 처음 흔들며 먼 요시아까지 새겨 두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는데, 이번엔 그 집의 병든 아이를 두고 한 선지자에게 묻는 일이 옵니다.

열왕기상 1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13:18 —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받은 명을 늙은 선지자의 새 말로 덮은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그는 자기가 직접 받은 명을 분명히 알았다 — 떡도 물도 들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9절). 그런데 '나도 선지자라, 천사가 일렀다'(18절)는 한 마디에 돌아선다. 본문은 동기를 적지 않는다 — 동료에 대한 신뢰인지, 지친 몸인지, '천사'라는 권위인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말이 '속임'(kichesh 18절)이었다고만 적는다. 이 선택을 '분별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직접 받은 명을 나중에 온 말로 덮은 사실과 비워진 동기만으로 보존.

Q2. 13:8 — 나라의 절반 앞에서도 꿇은 사람이 작은 식탁 앞에서 넘어진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왕의 집 절반을 줄지라도 떡도 물도 들지 않겠다 꿇은(8절) 사람이, 한 동료의 식탁에서 돌아선다(19절). 본문은 큰 시험의 승리와 작은 시험의 패배를 한 사람 안에 나란히 둔다. 이 대비를 '인간 약함의 보편 교

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세 겹 금지(akal·shatah·shuv)와 큰 것은 이기고 작은 것에 진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3:20-22 — 거짓으로 끌어들이는 늙은 선지자의 입에 참말씀이 임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늙은 선지자는 거짓으로 끌어들이었는데(18절), 그 입에 식탁에서 진짜 여호와와 말씀이 임해 죽음을 선고한다(20~22절). 거짓으로 부른 자가 참된 선고를 전한다. 이 겹침을 '거짓 선지자도 쓰임받는다'는 도식으로 달지 않고, 본문이 거짓과 참말씀을 따로 적은 형태와 발람의 입에 둔 말씀(민 22~24장)과 닿는 결로만 보존.

Q4. 13:24-26 — 사자가 죽이되 먹지 않고 나귀를 찢지 않은 비상한 정지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시체를 먹지 않고, 결의 나귀도 찢지 않고, 셋이 길에 나란히 선다(28절). 본문은 이를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넘기셨다'(26절)고 적는다. 이 정지를 '심판의 신학'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짐승의 멍은 본성과 '넘기셨다'는 본문 표지라는 형태로만 보존.

Q5. 13:31-32 — 거짓으로 넘어뜨린 자가 그 말씀을 증언하고 뼈 곁에 묻히려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늙은 선지자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다. 그런데 시체를 장사하며 슬피 울고, 그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인정하며, '내 뼈를 그 곁에 두라'(31절) 이른다. 본문은 그 속내를 — 죄책인지, 뒤늦은 경외인지, 요시야의 날 제 뼈를 지키려는 계산인지(왕하 23:18에서 실제로 그리됨) — 길게 풀지 않는다. 이 비움을 그대로 보존.

Q6. 13:2-32 — 곧 갈라진 제단과 한참 뒤 요시야의 두 시간이 한 장에 걸린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본문은 두 가지를 미리 알린다 — 그날 갈라진 제단(작은 표징 3·5절)과 수백 년 뒤 요시야(먼 예언 2절, 왕하 23장 성취). 작은 표징이 큰 예언의 참됨을 받친다. 본문은 그 둘 사이의 긴 시간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두 시간을 '예언 성취 도식'으로 달지 않고, 곧 이루어진 표징과 한참 뒤 이루어질 예언이 한 장에 함께 걸린 형태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4장

1KI-014 · 역사서 · 히브리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그 아내가 변장하고 눈먼 아히야에게 가나(14:1-4), 발소리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14:6) 하며 그 집의 멸망을 선고하고 — 오직 아비야만 무덤에 들어가 슬픔을 받으리니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음이라(14:13) 이르고, 유다에는 산당과 우상이 일어나고 애굽 시삭이 성전 보물과 금방패를 빼앗아 가매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대신하는(14:25-27) — 남북 두 집에 심판이 내리고 영광이 놋으로 바뀌는 권의 한 굵이.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북쪽 여로보암의 병상(디르사 1절)→실로의 늙어 눈먼 선지자의 어두운 방(4·6절)→집 문지방(17절)→남쪽 예루살렘의 산당과 빈 보물고(23·26절)로 옮겨 다님. 북쪽 한 집의 병상에서 남쪽 한 성전의 빈 보물고로.
- 무대의 방향: 한 아들의 병이 한 집 전체의 멸망 신탁으로 변지고, 화면이 남쪽으로 넘어가 또 한 집의 죄와 약탈로 이어짐.
- 소품: 떡과 과자와 꿀 한 병(3절), 변장한 옷(2절), 발소리(6절), 개와 새(11절), 금방패와 놋방패(26~27절).
- 소품의 부재: 알아봐 줄 눈 — 보는 선지자의 눈은 멀었으나(4절) 보지 못하는 그가 가장 정확히 봄(6절).
- 소재의 결: 앞은 변장·간파(병·떡·발소리·알아봄), 가운데는 심판(다른 신·등 뒤·개·새·무덤·선한 것), 끝은 약탈·대체(산당·시삭·금·놋).
- 형식 소재: 보지 못함과 봄의 대비, 그리고 14:1~20(북)과 14:21~31(남) 두 집을 거울처럼 나란히 적는 평행 구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처음부터 정해진 서늘함 — 여호와께서 미리 일러 주셨으므로(5절) 변장이 통하지 않고, 문에 들어서기 전에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6절)가 기다림. 17절에서 신탁이 한 절 만에 그대로 이루어짐.
- 한 집의 멸망에서 또 한 집의 약탈로의 점층 — 병상(1)→집 전체 신탁(10~11)→한 아이의 죽음(17)→남쪽의 죄(22~24)→시삭의 약탈(26).
- 한 점 빛이 비쳤다가 두 집이 각기 다른 어둠으로 내려가는 명암 — 실로 방의 어둠(7~11) 속 13절의 한 칸, 17절의 죽음, 그리고 남쪽 26~27절 금에서 놋으로 바뀐 회색빛.
- 신탁의 단호함(개·새 11절)과 한 아이를 향한 부드러움('선한 것' 13절)과 사관의 담담함(산당·약탈 23·26절)이 겹치는 세 어조.
- 문에서 들린 발소리(6절)·문지방을 밟는 발소리(17절)·금에서 놋으로 바뀐 방패의 둔탁한 소리(27~28절)의 감각.

- '선한 것'(davar tov 13절) — 심판의 매서움만이 아니라, 온 집을 살피 한 점 선한 것까지 헤아리시는 결. 그 '선한 것'의 내용은 적히지 않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 나라."
- 한 아들의 병으로 열려, 한 왕의 죽음과 그 아들의 즉위로 닫힘 — 북쪽 병상에서 남쪽 무덤과 왕위 계승으로.
- '병들었다'(1절)의 작은 병상이 한 집 전체의 멸망 신탁으로 변지고, '조상들과 함께 자니'(31절)의 평범한 죽음 정형구로 닫힘.
- 북쪽 단락(1~20)과 남쪽 단락(21~31)이 똑같이 '한 왕이 다스리다 조상들과 함께 잤다'(20·31절)로 닫힘 — 같은 형식, 다른 결말.
- 디르사의 병상(1절)에서 다윗 성의 무덤(31절)으로 — 두 집의 흥망이 한 장에 마주 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여로보암(아내를 변장시켜 보냄), 여로보암의 아내(변장하나 발소리에 간파되고 문지방에서 아들의 죽음을 맞음), 아히야(11장의 약속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제 집의 멸망을 선고함), 아비야(집에서 유일하게 '선한 것'이 보여 무덤에 들어가 슬픔을 받는 아이), 르호보암(산당·우상이 그 아래 일어나고 시삭에게 약탈 당함), 시삭(애굽 왕, 보물을 거둬 감), 무대 뒤의 여호와(미리 일러 주시고 5절 두 집을 함께 살피심).
- 중심 사상: 받은 자가 등을 돌림 —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achar gav 9절). 열 지파를 약속으로 받은 여로보암(11:31)이 그 약속의 주인을 등 뒤로 던지고, 이름을 두신 성읍(21절)에서 산당이 일어남.
- 두 집의 평행 심판: 북쪽(병→변장→간파→집 전체 멸망→한 아이의 죽음→여로보암의 죽음)과 남쪽(통치→산당·우상·남색→시삭의 약탈→눗방패→르호보암의 죽음).
- 두 집의 다른 심판 도구: 북쪽은 한 선지자의 신탁(7~16절), 남쪽은 한 이방 왕의 칼(25절) — 그러나 둘 다 여호와와의 틀 안(아히야 말씀 18절·신 28장 율법).
- 금방패와 눗방패(26~27절): 시삭이 솔로몬의 금방패를 거둬 가매 르호보암이 눗방패로 대신함 — 영광의 모조, 빈 것을 채운 시늉이 계속됨(28절).
- achar gav(등 돌림 9절)와 zahav→nechosheth(금에서 놋으로 26~27절): 한 장의 두 끝에 놓인 두 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절): 변장한 길 — 아비야가 병들(1),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 떡·과자·꿀을 들려 실로로 보냄(2~3), 아히야는 늙어 눈이 멀(4), 여호와께서 미리 일러 주심(5).
- 컷 2 (6~16절): 간파와 신탁 — 발소리로 간파(6), 받은 자가 다른 신을 만들어 등 뒤로 던짐(7~10), 개와 새의 저주(11), 한 아이만은 슬픔을 받음·선한 것이 보였음(12~13), 집을 끊고 강 너머로 흠으심(14~16).
- 컷 3 (17~20절): 문지방의 죽음 — 왕비가 문지방을 밟을 때 아이가 죽음(17), 아히야의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장사·애도(18), 여로보암의 이십이 년 통치와 죽음·나답의 계승(19~20).

- 컷 4 (21~31절): 남쪽의 약탈 — 르호보암의 즉위와 십칠 년 통치(21), 유다의 산당·마체바·아세라·남색 (22~24), 다섯째 해 시삭의 침공과 보물·금방패 약탈(25~26), 늦방패 대체와 호위병(27~28), 르호보암의 죽음과 아비얌의 계승(29~31).
- 컷 2의 경첩 위치: 변장한 접근(컷 1)과 문지방의 죽음(컷 3) 사이, 긴 신탁이 끼어들 — 간파(6)→죄목 (7~9)→선고(10~11)→한 칸(12~13)이 컷 4의 남쪽 거울로 이어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chalah*(חָלַח) — 병들다(1·5절). 단락을 여는 동작. / *nakar*(נָכַר) — 히트파엘 '다른 체하다'(2절)와 니팔 '알아 보다'(6절)가 같은 어근의 두 절.
- *raglayim*(רַגְלַיִם) — 두 발·발소리(6절). 얼굴보다 먼저 도착한 소리. / *achar gav*(אַחַר גַּב) — 등 뒤로(9절). 받은 약속의 주인을 던지는 동작.
- *kelev*(כֶּלֶב) — 개(11절) / *oph*(עוֹף) — 새(11절). 시신에 내린 저주 정형구. / *davar tov*(דָּבָר טוֹב) — 선한 것(13절).
- *qever*(קֶבֶר) — 무덤(13절). 온 집 중 한 아이만 들어감. / *bamot*(בָּמוֹת) — 산당(23절) / *matstsevoth*(מַצְטֵבוֹת) — 마체바·선돌(23절).
- *asherim*(אֲשֵׁרִים) — 아세라 목상(23절) / *qadesh*(קָדֵשׁ) — 남색하는 자(24절). 가나안 제의 어휘.
- *zahav*(זָהָב) — 금(26절) / *nechosheth*(נְחֹשֶׁת) — 늦(27절). 빼앗긴 영광과 그것을 메운 모조.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북쪽(1~20) + 남쪽(21~31)의 두 집 평행: 한 장 안에 남북 두 왕의 죄와 귀결이 거울처럼 마주 놓임 — 같은 등 돌림, 다른 심판 도구.
- 보지 못함과 봄의 역설: 멀쩡한 눈으로 변장한 왕비(2절)와 눈먼 선지자(4절), 정작 간파는 보지 못하는 쪽이 함(6절) — 형태 관찰.
- 신탁→성취 메모: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18절)가 17절의 죽음을 신탁의 성취로 표시 — 12:15·24의 같은 표지 형식.
- 저주 정형구: '개가 먹고 새가 먹으리라'(11절)가 신 28:26의 저주 율법 어휘를 되울림 — 형태로만 둠.
- 금→늦 대체 형식: 26절(금 약탈)과 27절(늦 대체)이 한 단락의 끝에서 영광의 상실과 그 모조를 두 절로 마주 적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실로 — 사사 시대 언약궤가 머물던 옛 성소 지점(삼상 1·3장). 늙은 선지자 아히야가 거기 있어 변장한 왕비가 그곳으로 가는(4절) 무대 배경.
- 변장 모티프 — 고대 근동에서 신탁을 청하는 측이 정체를 숨기고 점치는 자를 시험하던 관습. 왕비의 변장(2절)과 발소리로 간파됨(6절)의 배경.
- 시삭(쇼생크 1세) — 제22왕조 리비아계 파라오. 가나안 원정 기록(카르낙 성문 지명 목록)이 알려져, 다섯째 해 침공(25절)의 외부 배경.
- 성전·왕궁 보물 약탈 — 근동 정복 왕이 속국 신전과 궁의 귀금속을 전리품으로 거둬 가던 관행. 금방패의 약탈(26절)의 배경.
- 마체바·아세라 — 근동 가나안 제의의 선돌과 목상. 유다의 산당·우상(23절)이 그 제의 도상에 닿는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13절의 '선한 것'을 아비야가 우상 제의에서 떠나 성전으로 올라가려 한 마음으로 풀되, 본문이 그 내용을 비운 빈칸은 보존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4:7-9 ↔ 왕상 11:29-39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주며 조건을 건 약속 — 같은 선지자가 그 조건이 깨졌음을 선고)
- 왕상 14:9 ↔ 왕상 12:28-30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 — '다른 신을 만들었다'의 직접 배경)
- 왕상 14:10-11 ↔ 왕상 15:29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 호흡 있는 자를 남기지 않음 — 신탁의 성취)
- 왕상 14:1-18 ↔ 왕상 13:1-10 (벧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 — 여로보암 집 심판과 같은 줄기)
- 왕상 14:25-28 ↔ 대하 12:1-12 (시삭의 침공과 스마야의 말씀·르호보암의 겸비의 병행 기사)
- 왕상 14:21-23 ↔ 신 12:5-14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처소 — 예루살렘에 산당이 일어난 역설의 율법 배경)
- 왕상 14:11 ↔ 신 28:26 (시신을 새와 짐승이 먹는 저주 — 정형구의 율법 배경)
- 왕상 14:2-4 ↔ 삼상 1:9-3:21 (실로의 성소와 거기서 나타난 여호와와 말씀 — 실로 무대의 옛 배경)
- 왕상 14:9-16 ↔ 왕하 17:21-23 (여로보암의 죄가 북왕국 멸망의 뿌리로 회고됨 — 긴 그림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디르사의 한 방. 자막 —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한 아버지가 근심하며 아내를 부른다. 자막 — 당신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아히야 선지자가 있나니. 왕비가 떡과 과자와 꿀 한 병을 챙겨 길을 떠난다. 화면이 실로의 어두운 방으로 옮겨 간다 —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리 그에게 이르신다 —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일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문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한다 —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나는 흥한 일을 네게 전하라 명령을 받았노라. 그가 신탁을 쏟는다 — 내가 너를 백성 위에 세웠으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나를 노하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런데 한 음성이 부르러워진다 — 네가 일어나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라, 여로보암의 집에서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음이라. 왕비가 돌아온다. 디르사의 집 문지방을 밟는 그 순간, 아이가 죽는다 —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한다. 화면이 남쪽으로 통째로 옮겨 간다. 자막 —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다스리니라. 그 땅에 산당과 마체바와 아세라 목상이 서고,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 여호와를 노하게 한다. 다섯째 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온다. 그가 여호와와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거둬 간다. 르호보암이 그 빈 곳에 놋방패를 만들어 호위병에게 들게 한다.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이 그 놋방패를 들었다가, 다시 호위실로 가져가 둔다.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발소리에 들킨 변장 — 두 집에 내린 심판, 금에서 놋으로"
- 초벌 부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자 그 아내가 변장하고 눈먼 아히야에게 가나(14:1-4), 발소리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14:6) 하며 — 받은 자가 다른 신을 만들어"

등 뒤로 던졌으므로 그 집에 '개와 새가 먹으리라'(14:11) 선고하되 오직 한 아이만 선한 것이 보여 무덤에 들어가 슬픔을 받으리라(14:13) 이르고, 남쪽 유다에는 산당과 우상이 일어나고 애굽 시삭이 성전 금방패를 빼앗아 가매 르호보암이 늦방패로 대신하는(14:25-27) — 남북 두 집에 심판이 내리고 영광이 늦으로 바뀌는 분수령"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chalah·nakar·raglayim·achar gav·kelev·oph·davar tov·qever·bamot·matstsevat·asherim·qadesh·zahav·nechosheth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집 평행 구조 + 보지 못함/봄 역설 + 신탁→성취 메모 + ANE 실로·변장 관습·시삭·보물 약탈·가나안 제의 도상)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4:2-6의 변장과 간파를 '거짓은 들통난다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nakar 어근의 두 결과 눈먼 선지자·일러 주시는 여호와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왕비가 변장한 동기와 그 심정이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4:13의 '선한 것'을 '아이의 의로움' 또는 '신앙의 본보기'로 채우지 않고, davar tov 어휘와 그 내용이 비워진 빈칸, 일찍 데려가심의 부드러운 결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 14:9의 '등 뒤로 버렸다'를 '배교 일반론'으로 닫지 않고, achar gav 어구와 11:31 약속·12:28 송아지와와의 연결이라는 형태로만 둬.
- 14:11의 '개와 새가 먹으리라'를 '심판의 잔혹함'으로 정서화하지 않고, 저주 정형구와 신 28:26 율법 배경, 15:29 성취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14:25-27의 시삭과 금→늦을 '쇠락의 상징'으로 닫지 않고, zahav/nechosheth 어휘와 8장 성전 영광과의 대비, 대하 12장 병행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14:1) 그 아내가 변장하고 떡과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실로의 늙어 눈먼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나(14:2-4), 여호와께서 미리 일러 주시므로 아히야가 문에 들어서서 발소리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14:6) 하며 — 백성 위에 세움받은 자가 다윗과 같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14:9)므로 그 집에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14:11) 선고하되, 오직 아비야만 무덤에 들어가 슬

품을 받으리니 여로보암의 집에서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음이라(14:13) 이르고 — 화면이 남쪽으로 옮겨, 르호보암 아래 유다가 산당과 마체바와 아세라와 남색으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고(14:22-24), 다섯째 해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매 르호보암이 늦방패로 대신 만드느(14:25-27), 남북 두 집에 심판이 내리고 영광이 늦으로 바뀌는 권의 한 굵이다.

한 문단: 디르사의 한 방.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의 늙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낸다 — 떡과 과자와 꿀 한 병을 들려.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나, 여호와께서 미리 알려 주신다. 문에서 발소리가 나자 그가 말한다 —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그가 신탁을 쏟는다 — 너를 백성 위에 세웠으나 너는 다윗과 같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으니, 네 집에 속한 자는 개와 새가 먹으리라. 그러나 한 음성이 부르러워진다 — 한 아이는 슬픔을 받고 무덤에 들어가리니,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음이라. 왕비가 돌아와 집 문지방을 밟는 순간 아이가 죽는다 — 아히야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십이 년 다스리다 죽고 나답이 잇는다. 화면이 남쪽으로 옮겨 간다. 르호보암의 유다에 산당과 우상과 남색이 일어나 여호와를 노하게 하고, 다섯째 해에 애굽 시삭이 올라와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거둬 간다. 르호보암이 그 빈 곳에 늦방패를 만들어, 왕이 성전에 들 때마다 호위병이 들었다가 다시 가져가 둔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북쪽 병상→실로의 어두운 방→문지방→남쪽 산당과 빈 보물고로 옮겨 다니는 무대. 떡·과자·꿀·변장·발소리·개와 새·금방패와 늦방패의 소품 — 변장·간파에서 심판·약탈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처음부터 정해진 서늘함. 한 집의 멸망에서 또 한 집의 약탈로의 점층. 신탁의 단호함과 한 아이를 향한 부드러운 것과 사관의 담담함이 겹치는 세 어조. '선한 것'(13절)의 결.
3 시작과 끝	'아들이 병들었다'(1절)로 열려 '르호보암이 조상들과 함께 자니'(31절)로 닫힘. 북·남 두 단락이 똑같이 '한 왕이 다스리다 잤다'(20·31절)로 닫힘 — 같은 형식, 다른 결말.
4 등장인물·사상	변장한 왕비, 눈멀어 더 정확히 보는 아히야, 한 점 선한 것이 보인 아비야, 산당이 그 아래 일어난 르호보암, 약탈한 시삭, 두 집을 함께 살피시는 여호와. 진단의 중심은 받은 자의 등 돌림(achar gav 9절).
5 장면 컷	변장한 길(1~5)/간파와 신탁(6~16)/문지방의 죽음(17~20)/남쪽의 약탈(21~31) 4컷. 컷 2는 접근과 죽음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발소리가 얼굴보다 먼저 도착하는 역설. 두 집의 다른 심판 도구(신탁 vs 외세) 뒤의 같은 손. 비워진 '선한 것'의 내용. 신 28:26·신 12장 율법 배경.
7 동영상	병상 → 변장한 길 → 발소리에 들킨 정체 → 멸망 신탁과 한 칸 → 문지방의 죽음 → 남쪽 산당과 시삭의 약탈과 금에서 늦으로.
8 초벌 제목·부제	"발소리에 들킨 변장 — 두 집에 내린 심판, 금에서 늦으로"
9 기도·내면	가장 많이 받은 자가 그 주인을 등 뒤로 던짐 —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다 슬그머니 밀어낸 적은 없는지, 가장 작은 한 점까지 살피시는 눈 앞에 변장 없이 설 수 있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약속을 전한 입이 심판을 전하는 입:**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11장에서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조건을 걸었다 — 다윗처럼 행하면 견고한 집을 주리라(11:38). 14장은 같은 선지자가 그 조건이 깨졌음을 같은 입으로 선고하는 지점이다. 본문은 그 멸

망을 두고 적는다 —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14:18). 약속을 전한 입이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은 다시 바아사로 성취된다(15:29). 한 선지자의 입이 약속에서 심판으로, 심판에서 성취로 이어지는 그 긴 줄을, 본문은 한 집의 병상에서 시작해 또렷이 표시한다.

2. 결 2 — 받은 자가 등을 돌리니 영광이 모조로: 14장의 두 집은 같은 죄로 무너진다.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약속으로 받았으나 다른 신을 만들어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14:9)는 죄목을 받는다. 르호보암 아래 유다도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14:21)에서 산당과 우상을 세운다. 받은 자가 준 자에게 등을 돌린다(achar gav). 그 등 돌림의 끝에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zahav)를 시삭이 거둬 가고 르호보암이 놋방패(nechosheth)로 그 빈 곳을 메운다(14:26-27). 빛났던 영광이 한 세대 만에 광택 잃은 모조로 바뀐다. 받았던 것을 등 뒤로 던진 두 집이, 받았던 영광마저 놋으로 흉내 내며 지내는 그 결을, 두 금속의 이름이 한 단락의 끝에서 들고 있다.

3. 결 3 — 멸망의 신탁 한복판에 끼인 한 점 선한 것: 14장의 심판은 온 집을 끊되, 그 한복판에 한 칸을 비워 둔다. '개와 새가 먹으리라'(14:11)는 저주의 정형구 곁에,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다'(14:13)는 한 아이를 향한 애도가 나란히 온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살피셨는데, 단 한 점 선한 것까지 헤아리셨다 — 그리고 그 한 아이를 멸망 전에 데려가심으로, 그 시신이 욕을 면하게 하신다. 본문은 그 '선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적지 않는다. 다만 심판의 매서움과 한 아이를 향한 부드러움을 같은 입에 두고, 그 사이의 거리를 14장 안에서 풀지 않은 채 한 신탁으로만 둔다. 온 집을 끊으시면서도 가장 작은 한 점까지 헤아리시는 그 살핍이, 멸망의 신탁 한가운데 풀리지 않은 한 칸으로 새겨져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1:29-39 —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열 조각을 주며 조건을 건 약속 — 같은 선지자가 14:7-9에서 그 조건이 깨졌음을 선고함.
- 왕상 12:28-30 — 여로보암의 두 금송아지 — 14:9 '다른 신을 만들었다'의 직접 배경.
- 왕상 15:29 —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 호흡 있는 자를 남기지 않음 — 14:10-11 신탁의 성취.
- 왕상 13:1-10 — 벧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 — 14장 여로보암 집 심판과 같은 줄기.
- 대하 12:1-12 — 시삭의 침공과 스마야의 말씀·르호보암의 겸비의 병행 기사.
- 신 12:5-14 —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처소 — 14:21-23 예루살렘에 산당이 일어난 역설의 율법 배경.
- 신 28:26 — 시신을 새와 짐승이 먹는 저주 — 14:11 정형구의 율법 배경.
- 삼상 1:9-3:21 — 실로의 성소와 거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말씀 — 14:2-4 실로 무대의 옛 배경.
- 왕하 17:21-23 — 여로보암의 죄가 북왕국 멸망의 뿌리로 회고됨 — 14:9-16의 긴 그림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4:6의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에서 시작한다 — 변장이 통하지 않는, 가려질 수 없는 눈 앞에 선다.
- 멈춤 1: 14:9에서 멈춘다 —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받은 약속의 주인을 등 뒤로 던진 죄목을 전다.
- 멈춤 2: 14:13에서 멈춘다 —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음이라.' 멸망 한복판의 한 점 살핍을 전다.
- 끝: 14:27에서 멈춘다 —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빼앗긴 영광을 모조로 메운 시늉이 내게도 있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변장한 길(1~5)·간파와 신탁(6~16)·문지방의 죽음(17~20)·남쪽의 약탈(21~31)의 네 컷 완결

- [x] 북(1~20)·남(21~31) 두 집 평행 구조와 보지 못함/봄의 역설
- [x] achar gav(등 돌림 9절)와 신 12장·28장 율법과의 다리
- [x]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18절)의 신탁→성취 메모와 11:29-39·15:29와의 연결
- [x] zahav→nechosheth(금→놋 26~27절)와 8장 성전 영광·대하 12장·왕하 17장 멸망의 뿌리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4장은 12장에서 갈라진 두 나라에 각각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는 지점 — 분열과 남북 왕들의 국면(12~16장) 안에서, 두 집의 추락이 동시에 본격화되는 한 굵이다. 11장에서 아히야가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조건을 건 그 약속(11:38)이, 이 장에서 같은 선지자의 입으로 깨진 조건의 심판이 되어 돌아온다 — 본문이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14:18)로 표시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 의 무대에서, 두 집이 나란히 그 이름을 등 뒤로 던지고(14:9·22), 동시에 그 한복판에 한 점 선한 것을 헤아리시는 살핌(14:13)과 남쪽에 택하신 성읍(14:21)이 함께 남는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에 응답하시겠다는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14장에서는 멸망의 신탁 한 가운데 한 아이를 욕에서 면하게 데려가시고 그 한 점까지 헤아리시는 부드러움으로 먼저 비친다. 14장의 두 집 심판은 15장 바아사의 성취로, 그 너머 남북 왕들의 긴 우상과 끝내 갈멜의 불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의 동시적 한 단추이며, 그 단추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과 '한 점 선한 것을 살피심'의 두 칸이 함께 새겨져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쪽 한 집의 병상(14:1-5)에서 멸망의 신탁(14:6-16)으로, 문지방의 죽음(14:17-20)을 거쳐 남쪽 또 한 집의 약탈(14:21-31)로 / 받은 약속의 등 돌림에서 금이 놋으로 바뀐 영광의 상실로 / 11장의 약속에서 14장의 심판과 15장의 성취로 — 그러나 그 멸망 한복판에 한 점 선한 것을 헤아리고 말씀하신 대로 끝내 이루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4장은 12장이 갈라 놓은 두 나라에 심판이 동시에 내리기 시작하는 운동이다. 한 집의 병상(1절)이 멸망 신탁으로 변지고(11절), 문지방에서 한 아이가 죽고(17절), 여로보암이 죽는다(20절). 그리고 화면이 통째로 남쪽으로 넘어가 산당이 서고(23절), 시삭이 보물을 거둬 가고(26절),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든다(27절). 그러나 14장이 끝나도 두 집의 추락은 멈추지 않는다 — 여로보암 집의 끊김은 15:29에서 바아사로 이루어지고, 남북 왕들의 긴 역사는 그 너머에 있다. 14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두 집의 심판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한 굵이이며, 그 호 전체가 등을 돌린 두 집(14:9·22)을 '사람이 등을 돌려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한 점 선한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집의 멸망과 또 한 집의 약탈이다 — 누가 변장했고, 어떻게 들켰고, 무슨 신탁을 들었고, 누가 보물을 빼앗아 갔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말씀의 성실하심이다. 아히야가 선고한 신탁이 17절에서 한 절 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14:18), 그 심판이 다시 15장에서 성취된다(15:29). 11장의 약속을 전한 입이 14장의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이 끝내 현실로 온다 —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신다.

사람의 변장과 등 돌림과 우상이 일을 벌여도, 그 일조차 한 말씀이 이미 가리킨 방향으로 간다. 둘째, 받은 자의 등 돌림이다. 본문은 두 왕을 길게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큰 약속을 받은 두 집이 나란히 그 주인을 '등 뒤로'(14:9) 던졌고, 받았던 금이 늦으로 바뀌었다(14:26-27)고 적는다. 가장 많이 받은 자가 가장 빨리 등을 돌린다. 셋째, 멸망 한복판에 한 점을 비워 두시는 눈이다. 온 집을 끊는 신탁(11절) 끝에, 한 아이를 향한 애도(13절)가 나란히 있다. 심판은 온 집을 덮되, 그 가장 작은 한 점 선한 것까지 헤아려 그 아이를 욕에서 면하게 데려가신다. 본문은 매서움과 부드러움을 같은 입에 둘 뿐, 그 사이의 거리를 14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신탁의 한 칸으로만 둔다. 두 집이 무너져도, 한 점을 살피고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분의 결은 흔들리지 않는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분명히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다, 그 받은 것의 주인을 등 뒤로 슬그머니 밀어낸 적은 없는가 — 큰 배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점점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 미끄러짐을. 그리고 나는 가장 빛났던 것을 잃고도, 정직하게 마주하는 대신 늦방패 같은 모조로 그 빈 곳을 가리며 아무 일 없는 듯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흠 없는 사람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많이 받은 두 집이 나란히 그 주인을 등 뒤로 던진 것을 보여 주고, 멸망한 눈으로 변장했으나 보지 못하는 이에게 정확히 들킨 한 길을 보여 주고, 멸망의 신탁 한복판에 한 아이의 한 점 선한 것까지 헤아리신 눈을 보여 주고, 빼앗긴 금방패가 있던 곳을 늦으로 메운 시늉이 계속되는 한 단락을 새겨 둔다. 한 집의 멸망과 또 한 집의 약탈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받은 것을 어디서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는지 살피는 일, 가려질 수 없는 눈 앞에 변장 없이 서는 일, 그리고 잃어버린 진짜를 모조로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묻는 일. 두 집이 등을 돌려 무너지는데, 그 멸망 끝에 한 점 선한 것을 끝까지 헤아리시고 택하신 한 성읍을 남기시며, 사람이 등을 돌려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실 권이 한 굵이를 더 돌아간다 — 그 두 집의 추락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차례로 죽고 두 집의 추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 남북의 왕들이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 그 행적과 평가가 이어지고(15장), 여로보암의 집은 머지않아 바아사의 손에 호흡 있는 자 하나 남지 않게 끊겨, 14장의 신탁이 그대로 현실로 들어선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avar tov* — 선한 것.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디르사의 한 방. 자막 —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한 아버지가 근심하며 아내를 부릅니다. 자막 — 당신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왕비가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화면이 실로의 어두운 방으로 옮겨 갑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리 그에게 이르십니다 —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하리라,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문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흥한 일을 네게 전하랴 명령을 받았노라. 그가 신탁을 쏟습니다 —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네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아

니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나를 노하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끊어 버리되,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런데 한 음성이 부르러워집니다 —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라, 이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서 그에게만 선한 것이 보였음이라. 또 여호와께서 한 왕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집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흘으시리라 하십니다. 왕비가 일어나 떠나 디르사에 돌아옵니다. 집 문지방을 밟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죽습니다 —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합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날이 이십이 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화면이 남쪽으로 통째로 옮겨 갑니다. 자막 —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니,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사십일 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다스리니라. 유다가 그 조상들보다 여호와의 노를 일으키니, 그들이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들이 있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족속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니라.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갑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호위대 장관의 손에 맡깁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이 그 방패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호위실로 가져갑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한 아들의 병에서 열려, 변장한 길과 발소리에 들킨 정체와 한 집의 멸망 신탁을 지나, 문지방의 죽음과 한 아이만 받은 애도를 거쳐 — 남쪽 유다의 산당과 우상, 그리고 시삭의 약탈과 금에서 놋으로 바뀐 방패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발소리에 들킨 변장 — 두 집에 내린 심판, 금에서 놋으로"

P02 이진우: "보지 못하는 눈이 가장 정확히 보다 — 변장과 간파, 그리고 두 집의 평행"

P04 최현국: "디르사의 병상에서 다윗 성의 무덤까지 — 한 장에 마주 선 남북 두 집"

P05 김미영: "솔로몬의 금이 한 세대 만에 놋으로 — 빼앗긴 영광과 채운 시늉"

P07 오지혜: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 받은 두 집이 함께 등을 돌리다"

P11 나경아: "*davar tov* — 멸망의 신탁 안에 끼인 한 점 선한 것"

부제 제안: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자 그 아내가 변장하고 눈먼 아히야에게 가나(14:1-4), 발소리만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14:6) 하며 그 집의 멸망을 선고하되 한 아이만은 선한 것이 보여 슬픔을 받으리라(14:13) 이르고 — 남쪽 유다에는 산당과 우상이 일어나고 애굽 시삭이 성전 금방패를 빼앗아 가매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대신하는(14:25-27) — 남북 두 집에 심판이 내리는 분수령"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멀정한 눈으로 변장했으나 보지 못하는 이에게 들킨 그 길 곁으로, 그리고 받은 약속을 등 뒤로 던진 두 집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받은 것의 주인을 등 뒤로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리고 그 등 돌림이 남북 두 집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것들요. 그러면서도 그 멸망의 신탁 한복판에서, 온

집을 살피 한 아이의 한 점 선한 것까지 헤아리시고 그를 욕에서 면하게 데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다 그 주인을 등 뒤로 슬그머니 밀어낸 적은 없는지, 그러면서도 저의 가장 작은 한 점까지 살피시는 그 눈 앞에 변장 없이 설 수 있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듯해도 가장 정확히 보시는 그 눈에 기대어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4장은 북쪽 한 집의 병상에서 그 집의 멸망 신탁으로, 다시 남쪽 또 한 집의 약탈로 움직여요. 1~20절이 여로보암의 집, 21~31절이 르호보암의 집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장이 실제 분열과 금송아지, 12~16장이 분열과 남북 왕들이에요. 권의 향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고요. 12장이 나라를 갈랐고 13장이 벤엘 제단을 향해 외쳤다면, **14장은 그 갈라진 두 집에 각각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는 국면**이에요. 11장에서 아히야가 옷을 찢어 약속한 그 선지자가, 14장에서 같은 입으로 그 집의 멸망을 선고해요 — 약속을 전한 입이 심판을 전하는 입이 돼요. 권은 destination을 향한 긴 내리막에서 두 집이 동시에 무너지는 한 굽이를 지나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4:9의 *achar gav*(등 뒤로)와 14:26의 *zahav→nechosheth*(금에서 놋으로)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받은 약속의 주인을 등 뒤로 던진 두 집이, 갈라진 끝에서 빼앗긴 금과 그것을 흉내 낸 놋으로 이어져요. **받은 자가 등을 돌리니, 받았던 영광이 모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nakar*(2·6절)예요 — 왕비는 다른 체했는데, 보지 못하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일러 주신 대로 정확히 알아봐요. 또 하나, *davar tov*(13절)가 단서예요. 온 집의 멸망 한복판에서 한 아이의 한 점 선한 것까지 살피시는 그 눈이, 심판의 매서움 곁에 함께 새겨져 있어요. **두 집이 등을 돌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 곁에 한 점 선한 것을 헤아리는 눈이 붙어 있어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집의 멸망과 또 한 집의 약탈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긴 한 말씀의 성실하심 같아요. 아히야가 선고한 그 신탁이, 17절에서 한 절 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18절). 11장의 약속을 전한 입이 14장의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이 또 15장에서 바아사로 성취돼요(15:29). 한 선지자의 입이 약속에서 심판으로, 심판에서 성취로 이어지는 그 긴 줄을 본문이 표시해 줘요. 사람의 자존심과 두려움과 우상이 일을 벌여도, 그 일조차 한 말씀이 이미 가리킨 방향으로 가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두 집이 무너지는 이 국면에서 이미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성실하심이 뚜렷이 보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예요. 멸망의 신탁과 한 아이를 향한 애도가 한 입에서 같이 나와요. '개와 새가 먹으리라'(11절)는 매서움과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다'(13절)는 부드러움이 한 신탁 안에 나란히 있어요. **심판이 온 집을 꿰뚫고, 그 한복판에서 한 점 선한 것을 끝까지 헤아리는 긴장**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방식이 일찍 죽음이라는 것도 긴장이예요 — 멸망 전에 데려가심으로 그 시신을 욕에서 면하게 하시는, 슬프고도 부드러운 결이요. 본문은 이 긴장을 14장 안에서 다 풀지 않아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이었는데도 비워 줘요. 두 집이 무너지는 한 장 안에, 한 아이를 향한 한 칸이 풀리지 않은 채 새겨져 있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디르사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북쪽 한 집의 병상(1절)이 멸망 신탁으로 변지고(11절), 문지방에서 한 아이가 죽고(17절), 여로보암이 죽어요(20절). 그리고 화면이 통째로 남쪽으로 넘어가 — 산당이 서고(23절), 시삭이 보물을 거둬 가고(26절), 르호보암이 낫방패를 만들어요(27절). 14장이 끝나도 두 집의 추락은 멈추지 않아요 — 15장에서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끊고, 남쪽도 여러 왕을 지나 긴 역사가 이어져요. 14장은 그 긴 추락의 두 단추를 한꺼번에 채워요. 갈라진 두 나라가 각기 심판으로 들어서는데 그 동시의 굵이를 14장이 들고 있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27절이 불씨 같아요. 르호보암이 빼앗긴 금방패가 있던 곳에 낫방패를 만들어 들게 하는 그 한 줄이요. 영광은 이미 빠져나갔는데, 그는 비슷한 모양의 낫을 만들어 여전히 성전을 드나들어요. 저는 큰 배교보다, 빼앗긴 그곳을 모조로 메우고 아무 일 없는 듯 계속하는 그 결이 더 가까워요. 가장 빛났던 것을 잃고도 시늉으로 그 빈 곳을 채우며 지내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잃어버린 진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지, 아니면 낫방패로 빈 데를 가리고 들었다 놓았다 하며 지내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 집의 병상에서 두 집의 심판으로, 받은 약속의 등 돌림에서 금이 낫으로 바뀐 영광의 상실로 — 그러나 그 멸망 한복판에 한 점 선한 것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신 대로 끝내 이루시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두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남북의 왕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그 행적과 평가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14:2-6 — 멸망한 눈으로 변장한 왕비가 눈먼 선지자에게 간파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왕비는 눈으로 변장했고(nakar 히트파엘 2절), 선지자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한다(4절). 그런데 정작 정체를 알아보는 건 보지 못하는 쪽이다(nakar 니팔 6절) — 그가 얼굴이 아니라 발소리를 듣고, 그 위에 여호와께서 미리 일러 주신 말씀(5절)이 겹친다. 이 역설을 '거짓은 들통난다는 교훈'으로 닫지 않고, 같은 어근의 두 결과 보지 못함이 가장 정확히 봄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4:9 —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achar gav)는 죄목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여로보암은 받은 사람이다 — 11장에서 열 지파를 약속으로 받았다(11:31).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등 뒤로' 던진다(9절). 받은 자가 준 자에게 등을 돌리는 동작이다. 이 죄목을 '배교 일반론'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achar gav 어구와 11:31 약속·12:28 송아지와와의 연결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4:13 — 온 집의 멸망 한복판에서 한 아이에게만 '선한 것'(davar tov)이 보였다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살피셨는데 단 한 아이에게서만 '선한 것'이 보였다(13절). 본문은 그 '선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적지 않고, 그 은혜의 방식이 일찍 죽음으로 욕을 면하게 하심이라는 슬픈 결도 풀지 않는다. 이 한 칸을 '아이의 의로움'이나 '신앙의 본보기'로 채우지 않고, 비워진 내용과 온 집을 끝까지 살피시는 눈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4. 14:11 — '개가 먹고 새가 먹으리라'는 저주 정형구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시신을 개와 새가 먹는다는 저주는 신 28:26의 율법 어휘를 되울리고, 15:29에서 바아사로 성취된다. 이 정형구를 '심판의 잔혹함'으로 정서화하지 않고, 저주 율법의 배경과 신탁이 한 왕(바아사)으로 이루어지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4:21-24 — 죄의 주어가 '유다'(백성)인데 약탈은 성전·왕궁으로 온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본문은 르호보암 개인이 아니라 '유다'가 산당과 우상과 남색으로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고 적는다(22~24절). 그런데 시삭의 약탈은 왕의 성전과 왕궁 보물로 온다(26절). 백성이 지은 죄의 대가가 성전 보물로 치러지는 그 연결을 본문은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비움을 그대로 보존.

Q6. 14:25-27 — 시삭이 금방패를 빼앗고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대신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zahav)를 시삭이 다 거둬 가매, 르호보암이 놋방패(nechosheth)로 그 빈 곳을 메운다(26~27절). 영광이 빠져나간 곳을 모조가 채우는데, 왕은 그 놋방패를 여전히 들고 성전을 드나든다(28절). 이 대체를 '쇠락의 상징'으로 닫지 않고, 두 금속의 이름과 8장 성전 영광과의 대비, 대하 12장 병행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5장

1KI-015 · 역사서 · 히브리어

유다 아비얌이 아버지의 죄를 따르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고 (15:4), 그 아들 아사가 우상을 없애며 어머니 마아가의 아세라 상을 찍어 기드론에서 불사르고 (15:13), 바아사를 막으려 성전 공간을 비워 아람 벤하닷의 손을 사며(15:18-19), 북쪽에선 나답이 악을 행하다 바아사의 반역에 죽고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절해 아히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 남북 두 왕조가 교차하며 다윗을 위한 한 등불과 한 집의 멸절이 나란히 적히는 첫 교차 평가.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유다 예루살렘(아비얌·아사 1·10절)→두 나라 경계 라마(17·22절)→북쪽 겐브돈·디르사(27·33절)로 남북을 번갈아 옮겨 다님. 두 수도와 한 전선이 한 장에 같이 섬.
- 무대의 방향: 남쪽 한 왕조의 등불에서 북쪽 다른 왕조의 멸절로, 남에서 북으로 교차하며 빠르게 오감.
- 소품: 등불(ner 4절), 찍혀 불사른 아세라 상(13절), 비워진 공간의 은금(18절), 경계의 돌과 재목(22절), 끊긴 숨(neshamah 29절).
- 소품의 부재: 헐리지 않은 산당 — 아사가 우상을 없앴으나 산당만은 없애지 않음(14절).
- 소재의 결: 남쪽은 등불·다윗·정직·아세라 상·불의 평가·개혁 어휘, 북쪽은 반역·멸절·숨·여호와와 말씀의 찬탈·심판 어휘, 가운데는 공간·은금·동맹·라마의 전쟁 어휘.
- 형식 소재: 왕조 평가 공식(즉위 연도·통치 연수·어머니·평가·죽음)과 남북 교차 구조(남 아비얌→남 아사→북 나답→북 바아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보존과 멸절이 나란한 두 결 — 아비얌이 악해도 등불이 남고(4절), 북쪽 한 왕조는 숨 쉬는 자 하나 없이 멸절됨(29절).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는 공기.
- 남쪽의 오름과 북쪽의 미끄러짐 — 남쪽은 아비얌의 악(3)에서 아사의 개혁(11~13)으로, 북쪽은 나답의 악(26)에서 바아사의 멸절(29)로.
- 흐린 빛과 짙은 어둠의 엇갈림 — 아비얌의 회색(1~8), 아사의 개혁의 빛(9~15), 동맹의 흐림(16~22), 북쪽의 짙은 어둠(25~).
- 잣대의 어조와 약속·말씀의 어조 — '다윗 같이 정직히'·여로보암의 길'의 평가(11·26·34)와 다윗을 위한 등불(4)·아히야의 말씀 성취(29)가 번갈음.
- 태우는 냄새(아세라 상 13절)·비는 소리(공간 18절)·끊긴 숨의 정적(29절)의 감각.
- 잣대인 다윗에게도 한 흠('우리아의 일' 5절)을 같이 적는 정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 34절: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 한 유다 왕의 즉위 연도로 열려, 한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평가로 닫힘 — 즉위에서 평가로.
- 시작의 기준점도 '여로보암 열여덟째 해', 끝의 평가도 '여로보암의 길' — 남북이 서로를 기준점 삼아 한 연 대기에 엮임.
- 여로보암은 사라지고 그 집도 멸절되나(29절) 그 '길'은 북쪽에 남아 다음 왕도 그 길을 걸음(34절).
- 처음(즉위)과 끝(평가) 사이에 4절(다윗을 위한 등불의 약속)과 29절(아히야 말씀의 성취)이 두 번 새겨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비얌(악을 행하나 등불은 남음), 아사(우상을 없애고 아세라 상을 불사르며 벤하닷과 동맹), 마아가(아세라 상을 만들어 왕모 지위에서 폐위됨), 벤하닷(은금을 받고 동맹을 맺), 나답(악을 행하다 김브돈에서 죽음), 바아사(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 집을 멸절함), 무대 뒤의 여호와(등불 4절·말씀의 성취 29절로 들림).
- 중심 사상: 한 잣대와 두 결말 — 남북 모든 왕을 '다윗 같이 정직히'냐 '여로보암의 길'이냐로 재되, 다윗 언약(삼하 7장)이 받쳐 주는 남쪽엔 등불이 남고 반침 약속이 없는 북쪽엔 멸절이 임함.
- 두 왕조의 교차 연대기: 남 1막(1~8 악과 등불)→남 2막(9~24 개혁과 동맹)→북 1막(25~28 악과 반역)→북 2막(29~34 멸절과 즉위·평가).
- 두 성취의 다른 결: 남쪽 보존은 '다윗을 위하여'(4절)의 약속 성취, 북쪽 멸절은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29절)의 예고 성취 — 본문이 따로 적음.
- 비워진 공간(18절): 시삭의 약탈(14:26) 뒤 남은 은금마저 다 비워 이방 벤하닷의 손을 삼 — 개혁의 손과 공간을 비우는 손이 한 왕에게 같이 있음.
- lev shalem(온전한 마음 14절)과 neshamah(끊긴 숨 29절): 남북 두 왕조의 두 끝에 놓인 두 어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절): 악한 왕과 남은 등불 — 아비얌의 즉위(1~2), 아버지의 죄를 따름·온전치 못한 마음(3), 다윗을 위한 예루살렘의 등불(4~5), 아비얌의 죽음과 아사의 즉위(6~8).
- 컷 2 (9~24절): 아사의 개혁과 동맹 — 다윗 같이 정직·남색하는 자를 쫓아냄·우상 제거(9~12), 어머니 마아가의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사르고 지위를 폐함(13), 산당은 남으나 마음은 온전(14~15), 공간을 비워 벤하닷과 동맹해 바아사를 물러가게 함(16~22), 아사의 발병과 죽음(23~24).
- 컷 3 (25~28절): 나답의 악과 반역 — 나답이 이 년 다스리며 여로보암의 길로 악을 행함(25~26), 바아사가 모반하여 김브돈에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됨(27~28).
- 컷 4 (29~34절): 한 집의 멸절 —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음·아히야 말씀의 성취(29~30), 나답의 행적과 거듭된 전쟁(31~32), 바아사의 디르사 통치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평가(33~34).
- 컷 구조: 컷 1·2 남쪽 / 컷 3·4 북쪽. '둘째'의 국면에서 남쪽 아사는 개혁으로 올라가고(컷 2), 북쪽 둘째 사건은 한 집의 멸절로 끝남(컷 4) — 평행 속의 갈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er*(נֶר) — 등불(4절). 다윗을 위한 한 등불. / *david*(דָּוִד) — 다윗(3·4·5·8·11절). 남쪽 왕의 잣대.
- *lev shalem*(לֵב שָׁלֵם) — 온전한 마음(3·14절). 평가의 핵심. / *yashar*(יָשָׁר) — 정직한(11절) / *ra*(רָע) — 악한(26·34절).
- *miphletset*(מִפְּלֶטֶט) — 험오스러운 것·끔찍한 형상(13절). 마아가의 아세라 상을 가리키는 드문 말. / *asherah*(אֲשֵׁרָה) — 아세라.
- *kidron*(קִדְרוֹן) — 기드론 시내(13절). 우상을 불사른 곳. / *otsar*(אוֹצָר) — 곳간(18절) / *brit*(בְּרִית) — 언약·동맹(19절).
- *kashar*(קָשָׁר) — 모반하다·반역하다(27절). / *hikkah*(הִכָּה) — 치다·멸하다(29절).
- *neshamah*(נִשְׁמָה) — 숨(29절). 창 2:7의 생기와 같은 말. / *devar YHWH* — 여호와와의 말씀(29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왕조 평가 공식: 즉위 연도·통치 연수·어머니·'다윗 같이/여로보암의 길'의 평가·행적 출처·죽음이 네 왕(아비암·아사·나답·바아사)에게 반복됨.
- 남북 교차 구조: 남(아비암 1~8)→남(아사 9~24)→북(나답 25~28)→북(바아사 29~34) — 두 왕조를 한 잣대(다윗) 위에서 나란히 잴.
- 등불(*ner* 4절)과 말씀의 성취(*devar YHWH* 29절)의 두 겹: 한쪽은 약속이 왕조를 보존, 한쪽은 예고가 왕조를 끝냄 — 같은 손의 두 작용을 두 표지로만 나란히 둠.
- 온전한 마음과 없애지 못한 산당의 한 절(14절): 미완의 개혁과 온전한 마음이 한 호흡에 적함 — 완벽한 행적과 온전한 마음을 같은 것으로 두지 않음.
- 비워지는 보물의 거둬: 14:26 시삭의 약탈에 이어 15:18 아사가 남은 곳간을 또 비움 — 성전 보물이 거둬 빠져나가는 형태.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조약·동맹 매수 — 약소국이 성전·왕궁 보물을 강대국에 보내 기존 동맹을 깨고 군사 개입을 사던 외교 관행. 아사가 곳간을 비워 벤하닷에게 보낸 일(18~19절)의 배경.
- 변경 요새 건축·봉쇄 — 적국이 국경 성읍을 쥘아 왕래를 막던 군사 봉쇄. 바아사의 라마 건축(17절)과 아사의 게바·미스바 역축(22절)의 배경.
- 쿠데타·왕조 몰살 — 찬탈자가 전 왕조의 남자를 전멸시켜 복위의 씨를 없애던 관습.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친 일(29절)의 사회 배경.
- 아세라 — 가나안 모신으로 나무 기둥·형상으로 섬겨지던 도상. 마아가가 만든 '험오스러운 것'(*miphletset* 13절)의 배경.
- 왕모(*gebirah*)의 지위 — 근동 왕실에서 어머니가 누리던 공식 권좌.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그 지위를 폐한 일(13절)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4절의 등불(*ner*)을 다윗 언약(삼하 7장)의 보존과 연결해 읽되, 아비암의 악행에도 왕조가 끊기지 않은 이유를 다윗을 위한 약속으로 봄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5:4 ↔ 왕상 11:36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리라 — 등불의 약속)

- 왕상 15:4-5 ↔ 삼하 7:12-16 (다윗 언약 — 그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리라 — 등불의 뿌리)
- 왕상 15:29 ↔ 왕상 14:7-16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멸절을 예고함 — 그 성취)
- 왕상 15:29 ↔ 왕상 14:10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다 끊으리라 —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함'의 예고)
- 왕상 15:26 ↔ 출 32:4·왕상 12:28 (금송아지 — 나답이 따라 행한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
- 왕상 15:13 ↔ 신 7:5·12:3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사르라 — 아사가 마아가의 상을 찍어 불사른 일의 율법 배경)
- 왕상 15:9-24 ↔ 대하 14-16 (아사의 통치·종교 개혁·아람 동맹과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의 병행 기사)
- 왕상 15:18 ↔ 왕상 14:26 (시삭이 곳간을 약탈한 뒤 아사가 남은 곳간을 다시 비워 벤하닷에게 보냄 — 비워지는 보물의 거듭)
- 왕상 15:29-30 ↔ 왕상 16:1-4 (바아사 집의 멸절 예고 — 말씀이 여로보암 집에 이어 바아사 집에도 임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루살렘. 자막 —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어 삼 년을 다스리니, 그가 아버지의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그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더라. 그러나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른다 —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예루살렘을 건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였음이라. 아비얌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된다. 화면이 밝아진다 — 아사가 다윗 같이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앤다. 그가 어머니 마아가에게로 간다 — 그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 지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른다. 연기가 오른다. 자막 —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화면이 경계로 옮겨 간다 —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로 오가는 길을 막는다. 아사가 성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다 꺼내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한다 —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으니, 와서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소서.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치니 바아사가 라마에서 물러간다. 아사가 그 돌과 재목을 가져다 계바와 미스바를 쌓는다. 세월이 흘러 아사가 늙어 발에 병들고 죽는다. 화면이 북으로 옮겨 간다 —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을 다스리며,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한다. 나답이 블레셋 김브돈을 에워쌀 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여 거기서 그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된다. 그가 디르사에 이르러,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친다. 자막 —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아사가 왕좌에 올라, 그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페이드아웃.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별 제목: "**꺼지지 않은 등불, 끊긴 한 숨 — 같은 잣대 위에 걸린 두 왕조**"
- 초별 부제: "유다 아비얌이 아버지의 죄를 따르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고 (15:4), 그 아들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아세라 상을 찍어 기드론에서 불사르며(15:13) 바아사를 막으려 성전 곳간을 비워 아람 벤하닷의 손을 사고(15:18-20) — 북쪽에선 나답이 악을 행하다 바아사의 반역에 죽고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절해 아히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15:29) — 남북 두 왕조가 한 잣대 (다윗) 위에서 등불과 멸절로 갈리는 첫 교차 평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er·lev shalem·miphletset·asherah·kidron·otsar·brit·kashar·neshamah 등 12+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왕조 평가 공식 + 남북 교차 구조 + 등불·말씀 성취 두 겹 + ANE 동맹 매수·변경 봉쇄·왕조 몰살·아세라·왕모)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5:4의 등불을 '무조건적 은혜의 교리'로 일반화하지 않고, ner 어휘와 11:36·삼하 7장 다윗 언약의 연결, '다윗을 위하여'라는 본문 표현으로만 둬. 등불이 어떤 셈법으로 보존되는지는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5:13의 마아가의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사른 일을 '가족 우상 청산의 모범'으로 끌고 가지 않고, miphletset·asherah 어휘와 신 7:5·12:3 율법, 왕모 지위 폐위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아사의 마음 상태는 적히지 않은 채로 둬.
- 15:18-22의 공간을 비운 동맹을 '신앙 vs 외교'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otsar·brit 어휘와 14:26 시삭 약탈의 거듭, 대하 16장 하나니 책망과의 다리라는 형태로만 둬. 이 장 안에서 본문이 평가하지 않은 긴장을 그대로 보존.
- 15:14의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와 '마음이 온전하였더라'를 '부분 순종도 괜찮다'로 단정하지 않고, 미완의 개혁과 온전한 마음이 한 절에 놓인 본문 형태로만 보존. 그 한 칸의 결은 풀지 않음.
- 15:29의 여로보암 집 멸절을 '심판 일반론'으로 닫지 않고, neshamah·hikkah 어휘와 14:10 예고의 성취, 16:1-4 바아사 집에도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5장은 유다 아비얌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15:4) 왕조를 보존하시고, 그 아들 아사가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며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험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그 왕모 지위를 폐하되 산당은 없애지 못하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고"(15:14), 북쪽 바아사의 라마 봉쇄에 몰려 성전과 왕궁 공간의 은금을 다 가져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 동맹을 사 그를 물러가게 하며(15:18-22) —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아버지의 길로 악을 행하다 바아사의 모반에 깃브돈에서 죽고,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15:29) 되는, 남북 두 왕조가 한 잣대(다윗) 위에서 등불의 보존과 한 집의 멸절로 갈리는 분열 왕국의 첫 교차 평가다.

한 문단: 예루살렘.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어 아버지의 죄를 따라 행하나, 한 음성이 끼어든다 —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우셨으니,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정직 하였음이라. 아비얌이 죽고 아사가 왕이 된다. 아사가 다윗 같이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없애고,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아세라 상을 찍어 기드론에서 불사르며 그 지위를 폐한다. 산당은 남으나 그 마음은 온전하다. 북쪽 바아사가 라마를 쌓아 길을 막자, 아사가 성전 공간을 비워 벤하닷에게 보낸다 — 와서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깨소서.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치니 바아사가 물러가고, 아사는 그 돌로 게바와 미스바를 쌓는다. 아사가 늙어 죽고 여호사밧이 잇는다. 북으로 가면,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로 악을 행하다 김브돈에서 바아사의 손에 죽는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니, 아히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바아사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루살렘→경계 라마→북쪽 김브돈·디르사로 남북을 번갈아 옮겨 다니는 무대. 등불·찍혀 불사른 아세라 상·비워진 공간·경계의 돌·끓긴 숨의 소품 — 헐리지 않은 산당의 부재.
2 첫 느낌·분위기	보존과 멸절이 나란한 두 결. 남쪽의 오름과 북쪽의 미끄러짐. 잣대의 어조와 약속·말씀의 어조. 태우는 냄새·비는 소리·끓긴 숨의 감각.
3 시작과 끝	'여로보암 열여덟째 해'의 즉위(1절)로 열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34절)의 평가로 닫힘. 남북이 서로를 기준점 삼아 한 연대기에 엮임.
4 등장인물·사상	등불로 건딘 아비얌. 우상을 없애나 공간을 비운 아사. 형상을 만들어 폐위된 마아가. 죽은 나답. 멸절을 행한 바아사. 한 잣대(다윗)와 두 결말이 사상의 중심.
5 장면 컷	악한 왕과 남은 등불(1~8)/아사의 개혁과 동맹(9~24)/나답의 악과 반역(25~28)/한 집의 멸절(29~34) 4컷. 남쪽 둘은 오름, 북쪽 둘은 멸절.
6 의문·발견·정보	등불(4절)과 말씀의 성취(29절)의 두 겹. 온전한 마음과 없애지 못한 산당의 한 절(14절). 악행에도 남은 등불의 비워진 쉼법. 공간을 비운 동맹의 풀지 않은 긴장.
7 동영상	아비얌과 등불 → 아사의 우상 제거와 아세라 상을 태운 개혁 → 공간을 비운 동맹 → 나답의 죽음 → 여로보암 집의 멸절과 아히야 말씀의 성취.
8 초별 제목·부제	"꺼지지 않은 등불, 끓긴 한 숨 — 같은 잣대 위에 갈린 두 왕조"
9 기도·내면	내가 붙든 것이 내 자격에서 온 것인지 먼저 주어진 약속에서 온 것인지, 가장 가까운 곳의 형상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잣대 위에 갈린 두 결말:**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12장이 분열을 현실로 터뜨렸다면, 15장은 갈라진 두 나라가 한 잣대 위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처음으로 교차해 보여 준다. 본문은 남북 모든 왕을 같은 자로 잰다 — '다윗 같이 정직히'(15:11)나, '여로보암의 길'(15:26·34)이나. 그런데 그 잣대 위에서 결말이 정반대로 갈린다. 남쪽은 악한 아비얌조차 등불로 건디고(15:4), 북쪽은 악한 나답이 이 년 만에 죽고 그 집이 통째로 멸절된다(15:29). 같은 자로 재는데 받침대(다윗 언약)가 있고 없음이 운명을 가른다. 본문은 두 왕조를 한 틀에 담아 나란히 비교하며, 그 잣대 아래 무엇이 흥망을 떠받치는지를 교차로 드러낸다.

2. **결 2 — 왕의 자격이 아니라 한 약속이 지킨 등불:** 본문의 갈림길은 한 등불이다. 아비얌은 분명히 악했다 — 아버지의 모든 죄를 따라 행했고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15:3). 그런데 4절이 '그러나'로 등불을 둔다. 그 이유를 본문은 왕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둔다 — '다윗을 위하여.' 왕이 잘해서 남은 게 아니라, 한참 전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11:36, 삼하 7장) 때문에 등불이 남는다. 잣대인 다윗에게도 본문은 한 흠('우리아의 일' 15:5)을 같이 적는다. 잣대가 되는 사람조차 완전하지 않게 적히고, 그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불완전한 후손의 왕조를 견디게 한다. 자격과 무관하게 한 약속이 왕조를 받치는 그 결을, ner(등불)이라는 한 단어가 들고 있다.

3. **결 3 — 보존하는 약속과 끝내는 말씀이 같은 손:** 15장에는 두 표지가 남북 두쪽에 각각 한 번씩 놓인다. 남쪽은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15:4), 북쪽은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15:29). 한쪽은 한 약속이 왕조를 보존하는 표지, 한쪽은 한 예고가 왕조를 끝내는 표지다. 그런데 같은 여호와와 손이 한 번은 보존하고 한 번은 멸절한다. 다윗 언약이 받쳐 주는 남쪽엔 등불이 남고, 그런 약속이 없는 북쪽엔 예고된 심판이 임한다. 본문은 둘을 섞지 않고 따로 둔다 — 남쪽 보존은 약속의 성취, 북쪽 멸절은 예고의 성취. 사람이 왕좌를 잇고 빼앗아도, 보존하는 약속도 끝내는 말씀도 끝까지 성실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두 표지가 한 장 안에 나란히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1:36 —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리라 — 15:4 등불의 약속.
- 삼하 7:12-16 — 다윗 언약 — 그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전되리라 — 15:4-5의 뿌리.
- 왕상 14:7-16 —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멸절을 예고함 — 15:29에서 성취됨.
- 왕상 14:10 —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다 끊으리라 — 15:29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함'의 예고.
- 출 32:4·왕상 12:28 — 금송아지 — 나답이 따라 행한 '여로보암의 죄'(15:26)의 뿌리.
- 신 7:5·12:3 —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사르라 — 아사가 마아가의 상을 찍어 불사른 일(15:13)의 율법 배경.
- 대하 14:16 — 아사의 통치·종교 개혁·아람 동맹과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의 병행 기사.
- 왕상 14:26 — 시삭이 곳간을 약탈함 — 15:18 아사가 남은 곳간을 다시 비움의 배경.
- 왕상 16:1-4 — 바아사 집의 멸절 예고 — 말씀이 여로보암 집(15:29)에 이어 바아사 집에도 임함.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5:4의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에서 시작한다 — 악한 왕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한 등불 앞에 선다.
- **멈춤 1:** 15:13에서 멈춘다 — '아세라 상을 찍어 기드론에서 불살랐더라.' 가장 가까운 곳의 우상을 직접 끊은 손을 진다.
- **멈춤 2:** 15:14에서 멈춘다 —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미완의 개혁과 온전한 마음이 한 절에 놓인 결을 진다.
- **끝:** 15:29에서 멈춘다 —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받칠 약속이 없는 왕조의 끝이 무엇인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악한 왕과 남은 등불(1~8)·아사의 개혁과 동맹(9~24)·나답의 악과 반역(25~28)·한 집의 멸절(29~34)의 네 컷 완결

- [x] 즉위→평가 수미(1:34)와 남북 교차 구조(남 아비암→남 아사→북 나답→북 바아사)
- [x] ner(등불 4절)와 삼하 7장 다윗 언약·11:36과의 다리
- [x]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29절)와 14:7-16 예고 성취와의 연결
- [x] 신 7:5 율법 회상과 16:1-4 바아사 집 멸절 예고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5장은 분열과 남북 왕들의 국면(12~16장) 한가운데 놓인 첫 교차 평가 — 12장이 터뜨린 분열이 이제 두 왕조의 흥망 연대기로 굳어지는 지점이다. 14장에서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멸절을 예고했고(14:7-16), 그 예고가 이 장에서 한 집이 통째로 사라지는 현실로 이루어진다 — 본문이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15:29)로 표시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다윗 언약(삼하 7장)의 '한 등불'(11:36)이 분열 가운데서도 유다에 남아(15:4) 끝내 메시아로 이어질 한 줄기를 보존하고, 동시에 북쪽엔 반칠 약속이 없어 한 왕조가 멸절되고 또 다른 왕조(바아사)가 같은 길을 잇는다.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 이, 여기서는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한 예고를 어김없이 이루시는 두 손의 성실함으로 비친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의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15장에서는 다 잃어지 못한 아사를 '마음이 온전하였더라'(15:14) 불러 주시는 결로 먼저 비친다. 15장의 교차는 16장의 또 다른 멸절(바아사 집 16:1-4)로, 그 너머 아합과 갈멜의 불로 이어지는 긴 연대기의 첫 회전이며, 그 첫 회전에 이미 '한 등불'(유다)과 '말씀의 성취'(북쪽)라는 두 칸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쪽 한 왕조의 등불(15:1-24)에서 북쪽 다른 왕조의 멸절(15:25-34)로 / 한 잣대(다윗) 위에서 두 나라의 흥망이 처음으로 교차해 갈리는 회전으로 / 14장의 예고에서 현실의 멸절로 — 그러나 그 흥망 끝에 '다윗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예고를 이루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5장은 12장이 터뜨린 분열을 두 왕조의 교차 연대기로 옮기는 운동이다. 남쪽의 등불(4절)과 개혁의 불(13절)이 한쪽에서 켜지고, 북쪽의 반역(27절)과 멸절(29절)이 다른 쪽에서 깔린다. 화면이 예루살렘에서 라마의 전선으로, 다시 김브돈과 디르사로 옮겨 가며 남북을 번갈아 비춘다. 그러나 15장이 끝나도 두 왕조의 연대기는 닫히지 않는다 — 여로보암 집을 멸절한 바아사도 16장에서 같은 말씀 아래 멸절 예고를 받고(16:1-4), 남북 왕들의 긴 역사는 그 너머 아합과 엘리야의 갈멜로 흘러간다. 15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남북 왕들의 흥망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한 굽이이며, 그 호 전체가 한 번 갈라진 나라(12장)를 '사람이 흥하고 망해도 자기 약속을 지키고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두 왕조의 흥망 연대기다 — 누가 왕이 됐고, 어떻게 행했고, 누가 죽었고, 누가 멸절됐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약속의 성실하심이다. 남쪽은 악한 왕(아비암)조차 등불로 건디

는데, 본문은 그 보존을 왕의 자격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15:4)라고 적는다. 한참 전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삼하 7장, 11:36)이 불완전한 후손의 왕조를 받친다. 둘째, 한 말씀의 성실하심이다. 북쪽은 한 왕조가 숨 쉬는 자 하나 없이 사라지는데, 본문은 그 멸절을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15:29)라고 적는다. 14장의 예고가 빈말이 아니었다. 셋째, 행적과 마음을 같은 것으로 두지 않는 시선이다. 아사는 어머니의 우상을 찍어 태우면 서도(13절) 산당은 남겼고 공간을 비워 이방의 손을 샀다(18절). 그런데도 본문은 그 마음이 '온전하였다'(15:14)고 적는다 — 완벽한 행적과 온전한 마음을 같은 것으로 두지 않는다.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그 일 아래에서, 보존하는 약속도 끝내는 말씀도 끝까지 작동하고, 다 없애지 못한 사람을 향한 너그러운 시선도 함께 흐른다. 본문은 등불과 멸절과 미완의 개혁을 나란히 둘 뿐, 그 사이의 셈법을 15장 안에서 풀지 않고 두 왕조의 한 회전으로만 둔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 자격에서 온 것이라 여기는가, 아니면 내게 먼저 주어진 한 약속에서 온 것임을 아는가. 그리고 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차마 손대지 못하고 미뤄 둔 형상 하나를 —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가까워서 남겨 둔 산당 하나를 — 못 본 척하면서 마음은 온전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정직한 개혁가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악한 왕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한 등불이 왕의 자격이 아니라 한 약속에서 왔음을 보여 주고(15:4),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형상을 직접 찍어 태운 한 손을 보여 주고(15:13), 그러면서도 산당 하나는 남겨 둔 미완을 정직히 적고(15:14), 반칠 약속이 없는 한 왕조가 숨 쉬는 자 하나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 준다(15:29). 등불과 멸절과 미완의 개혁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붙든 것의 뿌리가 자격인지 약속인지 살피는 일, 가장 가까운 곳의 형상 하나를 어디서 미루고 있는지 보는 일, 다 없애지 못한 미완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묻는 일. 남쪽의 등불과 북쪽의 끊긴 숨이 한 잣대 위에서 갈리는데, 그 흥망 곁에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한 등불을 끝내 남기시며, 사람이 흥하고 망해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권이 본격으로 도는 첫 회전 — 그 교차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여로보암 집을 멸절하고 왕좌에 오른 바아사도 곧 같은 말씀 앞에 선다 — 예후가 바아사에게 나아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 세웠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16:2-3) 그 집도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리라 전하니, 15장에 멸절을 행한 손이 16장에서 같은 멸절의 예고 아래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r* — 등불.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예루살렘. 자막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열여덟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삼 년을 다스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한 음성이 자막으로 흐릅니다 —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그를 이어 왕이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

게 행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얌이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화면이 밝아집니다 —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그가 어머니 마아가에게로 향합니다 — 그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지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릅니다. 연기가 오릅니다. 자막 —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화면이 경계로 옮겨 갑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와 성전과 왕궁 공간에 남은 은금을 다 가져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맡겨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말합니다 —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으니, 내가 은금을 예물로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소서. 벤하닷이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니,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 건축을 그치고 디르사로 물러갑니다. 아사가 온 유다를 동원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목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사가 늙어 발에 병들고 죽어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 왕이 됩니다. 화면이 북으로 옮겨 갑니다. 유다 왕 아사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을 다스리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합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깃브돈을 에워쌀 때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여 거기서 그를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가 디르사에 이르러, 왕이 되자 곧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칩니다. 자막 — 그가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멸하고 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의 죄로 인함이더라.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이십사 년을 다스리며,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아비얌의 악과 다윗을 위한 등불에서 열려, 아사의 우상 제거와 어머니의 아세라 상을 불사른 개혁과 공간을 비운 동맹을 지나, 북쪽으로 옮겨 가 나답의 악과 바아사의 반역, 그리고 여로보암 온 집의 멸절과 아히야 말씀의 성취로 — 남쪽의 등불과 북쪽의 끊긴 숨이 한 장에 교차하며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꺼지지 않은 등불, 끊긴 한 숨 — 같은 잣대 위에 걸린 두 왕조"

P02 이진우: "다윗을 위하여 vs 아히야의 말씀과 같이 — 한 약속이 보존하고 한 예고가 끝낸다"

P04 최현국: "예루살렘에서 디르사까지 — 남쪽의 등불과 북쪽의 멸절이 교차하다"

P05 김미영: "어머니의 형상을 찍은 손, 공간을 비운 손 — 한 왕에게 있는 두 손"

P07 오지혜: "산당은 남았으나 마음은 온전하였더라 — 미완의 개혁과 온전한 마음"

P11 나경아: "*ner · neshamah* — 남은 등불 하나와 끊긴 숨 하나"

부제 제안: "아비얌이 악을 행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고(15:4),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사르며(15:13) 공간을 비워 벤하닷과 동맹하고 — 북쪽에선 나답이 죽고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절해 아히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15:29) — 남북 두 왕조가 한 잣대 위에서 걸리는 첫 교차 평가"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악한 왕의 시대에도 꺼지지 않은 그 등불 곁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형상을 직접 찍어 태운 그 손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 왕조가 왕의 자격이 아니라 한참 전의 한 약속 때문에 등불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잣대 위에서, 받쳐 줄 약속이 없는 한 집은 숨 쉬는 자 하나 없이 쓸려 나가는 것일요.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제 자격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제게 먼저 주어진 한 약속에서 온 것인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또 아사가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형상을 직접 찍어 태운 것을 보며 — 가장 끊기 어려운 가까운 곳의 우상을 저는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산당 하나는 남겨 둔 그 미완을 정직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없애지 못해도 마음이 온전하다 불러 주시는 그 너그러움에 기대어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5장은 남쪽 한 왕조의 등불에서 북쪽 다른 왕조의 멸절로 교차하며 움직여요. 1~8절이 아비암과 등불, 9~24절이 아사의 개혁과 동맹, 25~28절이 나답과 반역, 29~34절이 여로보암 집의 멸절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16장이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권의 향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고요. 12장이 분열을 현실로 터뜨렸다면, **15장은 그 분열된 두 나라가 한 잣대 위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처음으로 교차해 보여 주는 국면**이에요. 14:7-16의 아히야의 예고가, 15:29에서 정확히 이루어져요 — 본문이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29절)로 표시해 뒀어요. 분열 왕국의 긴 연대기가 여기서 본격으로 시작돼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5:4의 *ner*(등불)과 15:29의 *neshamah*(숨)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남쪽엔 다윗을 위한 한 등불이 켜져 있고, 북쪽엔 한 왕조의 숨이 끊겨요. **한쪽은 약속이 등불을 지키고, 한쪽은 예고된 말씀이 숨을 거둬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david*(다윗 4:11절)이에요 — 남쪽 왕을 재는 잣대이자, 남쪽에만 켜진 등불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 '다윗을 위하여'(4절)와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29절)가 두 표지로 끼어드는 게 단서예요. 한 왕조의 보존도, 한 왕조의 멸절도, 같은 손 안에서 읽혀요. **사람이 왕좌를 잇고 빼앗는데, 그 흥망 곁에 한 약속과 한 말씀이 각각 새겨져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두 왕조의 흥망 연대기예요 — 누가 왕이 됐고, 어떻게 행했고, 누가 죽었고, 누가 멸절됐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한 약속의 성실하심과 한 말씀의 성실하심 같아요. 남쪽은 악한 왕(아비암)조차 등불로 견디는데, 본문은 그 보존을 '다윗을 위하여'(4절)라고 적어요 — 왕의 자격이 아니라 한참 전의 한 약속(삼하 7장)이 왕조를 받쳐요. 북쪽은 한 왕조가 통째로 사라지는데, 본문은 그 멸절을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29절)라고 적어요 — 14장의 예고가 빈말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그 일 아래에서, 보존하는 약속도 끝내는 말씀도 끝까지 성실하게 작동해요.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그 긴 호가 한 약속과 한 말씀의 성실하심으로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예요. 같은 잣대(다윗)로 남북을 재는데, 그 결말이 정반대예요 — 남쪽은 악해도 등불이 남고, 북쪽은 악하면 멸절돼요. 같은 자로 재는데 받침대가 있고 없음이 운명을 가르는 그 긴장이요. 그리고 더 작은 긴장은 아사 한 사람 안에 있어요 — 어머니의 우상을 찍어 태운 손(13절)과 성전 공간을 비워 이방의 손을 산 손(18절)이 같이 있어요. 산당도 남겼고요(14절). 그런데도 본문은 그 마음이 '온전하였다'(14절)고 적어요. 완벽한 행적과 온전한 마음이 같지 않다는 긴장을, 본문은 15장 안에서 다 풀지 않아요. 미완의 개혁 한 가운데에 '마음이 온전하였더라'는 한 마디가 같이 새겨져 있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디르사로 교차하며 옮겨 가는 운동이예요. 남쪽의 등불(4절)과 개혁의 불(13절)이 한쪽에서 켜지고, 북쪽의 반역(27절)과 멸절(29절)이 다른 쪽에서 깔려요. 그리고 15장이 끝나도 두 왕조의 연대기는 계속돼요 — 16장에서 바아사의 집도 같은 말씀 아래 멸절 예고를 받고(16:1-4), 그 너머 아합과 엘리야의 갈멜로 이어져요. 15장은 그 긴 남북 교차 연대기의 첫 한 바퀴예요. 한 잣대 위에서 두 나라의 흥망이 처음으로 나란히 도는 그 첫 회전을 15장이 들고 있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13절이 불씨 같아요.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형상을 직접 찍어 기드론에서 불사른 그 장면이요. 가장 가까운, 자기를 낳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 가장 끊기 어려웠을 텐데, 그는 그 지위까지 폐하고 형상을 태워요. 저는 큰 우상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차마 손대지 못하고 미뤄 둔 작은 형상이 더 가까워요. 끊어야 할 줄 알면서도 가까워서 남겨 둔 산당 하나(14절)요. 제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의 어떤 형상을 못 본 척 미루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마음은 온전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남쪽의 등불에서 북쪽의 멸절로, 한 잣대 위에서 두 왕조가 갈리며 — 그러나 그 흥망 끝에 '다윗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예고를 이루시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로보암 집을 멸절한 바아사도 곧 같은 말씀 아래 서고, 북쪽 왕좌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열왕기상 1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림 단계로 이월.

Q1. 15:4 — 아비얌의 악행에도 등불이 남은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비얌은 아버지의 모든 죄를 따라 행했고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3절). 그런데 4절이 '그러나'로 등불을 둔다. 본문은 그 이유를 왕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둔다 — '다윗을 위하여.' 등불이 어떤 셈법으로, 언제까지 보존되는지는 적히지 않는다. 이 보존을 '무조건적 은혜의 교리'로 닫지 않고, ner 어휘와 11:36·삼하 7장 다윗 언약의 연결, 비워진 셈법으로만 보존.

Q2. 15:5 — 잣대인 다윗에게 '우리아의 일'이라는 한 흠을 같이 적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남북 왕을 재는 잣대로 다윗을 들면서, 그 다윗에게도 한 흠('헛 사람 우리아의 일')을 함께 적는다. 잣대가 되는 사람조차 완전하지 않게 적히는 그 정직을, '다윗도 죄인이었다'는 결론으로 닫지 않고, 잣대와 그 흠을 한 절에 같이 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5:13 —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의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사르고 그 지위를 폐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아사가 우상을 없애는데, 그 하나를 자기 어머니가 만들었다(miphletset). 그는 형상을 찍어 기드론에서 불사르고 어머니의 왕모 지위까지 폐한다. 본문은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망설였는지는 적지 않고 '찍어서'

불살랐다'고만 적는다. 이 행동을 '가족 우상 청산의 모범'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asherah·kidron 어휘와 신 7:5·12:3 율법, 왕모 지위 폐위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4. 15:14 —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와 '마음이 온전하였더라'가 한 절에 놓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아사를 '다윗 같이 정직히'(11절) 높이 평가하면서, 같은 단락에서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고 적고 바로 '그러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고 적는다. 미완의 개혁과 온전한 마음이 한 호흡에 놓인다. 이 한 절을 '부분 순종도 괜찮다'로 단정하지 않고, 완벽한 행적과 온전한 마음을 같은 것으로 두지 않은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5:18-22 — 아사가 성전 공간을 비워 벤하닷의 손을 산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정직히 행했다는 아사가(11절) 위기 앞에서 성전과 왕궁 공간의 은금을 다 비워 이방 군대를 움직인다(18절). 그 거래는 성공하나, 본문은 이 장 안에서 잘했거나 잘못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 다만 일어난 일을 적는다. 개혁의 손과 공간을 비우는 손이 한 왕에게 있는 그 거리를, '신앙 vs 외교'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otsar·brit 어휘와 14:26·대하 16장 하나니 책망과의 다리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15:29 — 여로보암 집의 멸절(숨 쉬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음)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숨 쉬는 자'(neshamah)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본문은 이 멸절을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29절)고 적어 14:10 예고의 성취로 둔다. 이 심판을 '심판 일반론'이나 '쿠데타의 정당화'로 닫지 않고, neshamah·hikkah 어휘와 14:10의 예고, 16:1-4 바아사 집에도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6장

1KI-016 · 역사서 · 히브리어

예후가 바아사를 책망하고(16:1-4), 엘라가 술 취한 사이 시므리가 칠 일 만에 무너지며(16:8-19),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사마리아를 세운 뒤(16:21-24) — 그 아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 신전과 아세라를 세워 "그 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시게"(16:33) 하고,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두 아들을 잃는(16:34) — 왕조가 피로 갈리고 아합 시대로 들어서는, 엘리야 등장 직전의 가장 어두운 굽이.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디르사(술판·불타는 왕궁 9·18절)→갈라진 두 진영(디브니·오므리 21절)→새 도성 사마리아(24절)→바알 신전(32절)→다시 쌓이는 여리고(34절)로 옮겨 다님. 무너지는 도성과 세워지는 도성이 번갈아 나옴.
- 무대의 방향: 한 왕가의 진멸에서 칠 일의 불로, 새 도성 건설을 거쳐 바알의 처소와 옛 저주의 성취로 흘러감.
- 소품: 예후의 신탁(1~4절), 술잔(shikkor 9절), 병거(merkavah 9절), 왕궁 위소의 불(18절), 은 두 달란트(kikkar kesef 24절), 바알 신전·제단·아세라(32~33절), 여리고의 기초와 성문(34절).
- 소품의 결: 술잔·불·두 아들의 죽음 — 손에 만져지는 게 거의 다 무너짐과 잃음 쪽.
- 소재의 결: 처음은 신탁·책망(예후·진토·주권자), 가운데는 모반·불(술·시므리·칠 일·진멸·왕궁), 그다음은 건설(오므리·사마리아·은), 끝은 우상·저주(이세벨·바알·아세라·여리고·두 아들).
- 형식 소재: 왕마다 붙는 같은 평가의 후렴(여로보암의 길·악을 행함)과 한 단계씩 무거워지는 '더욱'(25·30·33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7·12·34절)로 표시된 한 말씀의 성취 틀.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어지러운 왕위 교체와 안 바뀌는 죄 — 바아사·엘라·시므리·오므리·아합 다섯 이름이 서른네 절 안에서 왕위를 주고받는데, 같은 후렴(여로보암의 길 19·25·26절)이 그대로 흐름.
- 점층으로 어두워짐 — 한 왕가의 진멸(1~13)→칠 일의 불(15~18)→갈라짐과 승리(21~22)→새 도성(24)→바알 신전·아세라(32~33). '그 전의 모든 사람/왕보다 더욱'(25·30·33절).
- 어둠 일색 끝에 비스듬히 든 한 옛 말씀의 빛 — 34절의 두 아들 죽음을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 같이'로 적어, 가장 어두운 절에 한 옛 말씀의 표지가 들어옴.
- 거친 정치사와 그 위의 평가의 두 어조 — 모반·진멸·불의 거친 어조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노하시게 하였더라'(13·26·33절)의 평가 어조가 같은 사건에 겹침.
- 술잔(9절)·불길(18절)·두 번의 곡(34절)의 감각.
- '쓰임받은 손이 또 물어진다'(7절) — 바아사가 손으로 여로보암 집을 친 것이 책망의 까닭으로 적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 34절: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 한 말씀이 한 왕가를 꾸짖는 데서 열려, 또 한 옛 말씀이 한 사람의 두 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데로 닫힘 — 신탁에서 성취로 가는 호.
- '꾸짖어'(1절)로 열림 — 들어 올린 분이 그 들어 올린 자를 책망함(2절).
- 1·7·12·34절에 '여호와와 말씀'이 네 번 새겨짐 — 사람의 거친 정치사 위에 한 말씀의 표지가 따라붙음.
- 예후에게 임한 말씀(1절)에서 여리고의 두 아들(34절)로 — 가장 빠르게 도는 정치사의 양 끝을 같은 말씀이 받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후(바아사를 향한 신탁 1~7절), 바아사(들림받았으나 책망받음 2~7절), 엘라(디르사에서 술 취해 죽음 8~10절), 시므리(모반·칠 일·진멸·왕궁 불 속의 죽음 9~20절), 오므리(추대·내전·승리·사마리아 천도 16~28절), 디브니(절반이 따랐으나 패함 21~22절), 아합(이세벨·바알·아세라 28~33절), 이세벨(엣바알의 딸 31절), 히엘(여리고와 두 아들 34절), 무대 뒤의 여호와('말씀'·'여호와 보시기에'로만 들림).
- 중심 사상: 빠른 왕위와 안 바뀌는 죄 — 왕위는 칼·모반·추대·세습으로 빠르게 옮겨 가나, 왕마다 평가는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19·25·26절)이고 한 세대마다 한 칸씩 더 깊어짐.
- 왕조 사슬과 진입의 연쇄: 책망(1~7 예후→바아사)→진멸과 자멸(9~20 시므리)→내전과 천도(21~28 오므리)→우상의 진입(29~34 아합의 바알·아세라와 히엘의 여리고).
- 두 결의 분리: 왕조 교체는 '여호와와 말씀'의 성취로(7·12절), 아합의 우상은 어떤 말씀의 성취도 아닌 사람의 더 깊은 악으로(33절) — 본문이 따로 적음.
- 사마리아와 바알 신전(24·32절): 은 두 달란트로 산 새 산지·새 도성이 한 세대 만에 바알의 처소가 됨.
- qalal(큰 죄가 작아 보임 31절)과 ka'as(여호와를 노하시게 함 33절): 한 인물 아합에게서 만나는 두 어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4절): 예후의 책망과 엘라 — 바아사를 꾸짖어 집의 쓸어버림을 전함(1~4), 바아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됨(5~8), 같은 말씀이 임한 까닭(7), 엘라의 행적이 닫힘(8~14).
- 컷 2 (9~20절): 술판과 칠 일의 불 — 시므리가 술 취한 엘라를 쳐 죽이고 왕이 됨(9~10), 바아사의 온 집을 진멸해 예후의 말씀이 이루어짐(11~13), 칠 일 만에 오므리 추대·디르사 공격·왕궁 불 속의 죽음(15~20).
- 컷 3 (21~28절): 갈라진 진영과 새 도성 — 백성이 디브니·오므리로 나뉘(21), 오므리를 쫓은 자가 이김(22),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건축하고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함(23~28).
- 컷 4 (29~34절): 아합의 우상과 여리고 — 아합이 즉위해 그 전의 모든 왕보다 악을 행함(29~30), 이세벨·바알 신전·제단·아세라로 더욱 노하시게 함(31~33),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 두 아들을 잃음(34).
- 컷 2의 경첩 위치: 책망(컷 1)과 새 왕조·우상(컷 3·4) 사이, 진멸과 자멸이 끼어들 — 예후 신탁이 시므리의 손으로 성취되면서(11~12) 동시에 다음 왕가로 넘어가는 통로.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devar-yhwh*(דְּבַר־יְהוָה) — 여호와와의 말씀(1·7·12·34절). 사건을 꺾는 틀. / *ka'as*(כָּעַס) — 노하시게 하다(2·13·26·33절).
- *naga*(נָגַד) — 들다·세우다(2절) / *afar*(אָפַר) — 진토(2절) / *nagid*(נָגִיד) — 주권자(2절). 진토에서 들어 주권자로.
- *qashar*(קָשַׁר) — 모반하다(9·16·20절) / *shikkor*(שִׁכּוֹר) — 취함(9절). 모반과 방심.
- *bi'er*(בָּעַר) — 쓸어버리다·진멸하다(3·11·12절) / *shiv'at yamim*(שִׁבְעַת יָמִים) — 칠 일(15절).
- *kikkar kesef*(כִּכָּר כֶּסֶף) — 은 달란트(24절) / *shomron*(שֹׁמְרוֹן) — 사마리아(24절). 산 주인 세멜의 이름.
- *qalal*(קָלַל) — 가볍게 여기다(31절) / *ba'al*(בָּעַל)·*asherah*(אֲשֵׁרָה) — 바알·아세라(32~33절) / *bekhor-tse'ir* — 맏아들·막내아들(34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책망(1~7) + 진멸과 자멸(9~20) + 내전과 천도(21~28) + 우상의 진입(29~34) — 한 신탁이 한 손의 성취를 거쳐 새 왕조와 우상으로 넘어가는 연쇄 구조.
- 신탁→성취 수미: 1절의 '말씀이 임하여 꾸짖음'과 34절의 '말씀과 같이 됨'이 서른네 절을 묶음 — 형태 관찰.
- 왕마다 붙는 같은 후렴과 비교급의 점층: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13·19·25·30절)에 '그 전의 모든 사람/왕보다 더욱'(25·30·33절)이 더해짐.
- '여호와와의 말씀'의 네 겹: 1절(신탁 임함)·7절(까닭과 거듭됨)·12절(시므리의 진멸로 성취)·34절(여호수아 말씀의 성취)이 같은 표현으로 올림 — 같은 손이 죄를 짓는 동시에 한 말씀을 이룸.
- 칠 일 통치의 아이러니: 가장 짧은 치세(15절)에 가장 많은 피(11~12절)와 자기 불 속의 죽음(18절)이 함께 적힘 —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왕조 숙청 — 새 왕이 전 왕가 남자를 진멸해 보복의 씨를 없애던 근동 관습. 시므리의 바아사 집 진멸(11절)과 예후 신탁의 '쓸어버림'(3절)의 사회 배경.
-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의 천도 — 북왕국 초기 수도 디르사에서 오므리가 사들인 산지로 도성을 옮긴 이전. 24절 사마리아 건설의 배경.
- 토지 매매와 명명 — 은 두 달란트로 산을 사고 전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 사마리아라 부른 근동 관습(24절).
- 정략 혼인 — 동맹을 위해 인접 왕가와 혼인하던 근동 관습. 아합과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혼인(31절)의 배경.
- 바알·아세라 도상 — 가나안·페니키아의 폭풍·풍요 신과 그 배우자격 여신의 상징. 사마리아의 신전·제단·아세라(32~33절)가 그 제의에 닿음.
- 기초 봉헌 — 성읍·성문을 세울 때 사람을 바치던 관습이 근동에 알려져 있음. 히엘의 두 아들(34절)의 배경 — 본문은 여호수아 말씀 성취로만 적음.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6:1-4 ↔ 왕상 14:7-11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진멸을 전함 — 예후 신탁의 같은 어법)

- 왕상 16:11-12 ↔ 왕상 15:27-30 (바아사가 여로보암 집을 진멸함 — 시므리의 바아사 집 진멸과 같은 사슬)
- 왕상 16:12 ↔ 왕상 16:1-4 (예후의 신탁이 시므리의 진멸로 성취됨 — 장 내부의 신탁·성취 짝)
- 왕상 16:34 ↔ 수 6:26 (여호수아가 여리고 재건자에게 내린 저주 — 성취의 본문)
- 왕상 16:31-33 ↔ 왕상 21:25-26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가증한 일을 행함 — 뒷날)
- 왕상 16:33 ↔ 왕상 17:1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 비를 막음 — 직후의 등장)
- 왕상 16:32-33 ↔ 왕상 18:19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아세라 선지자 사백 — 제의의 규모)
- 왕상 16:33 ↔ 왕상 18:39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 어둠이 향하는 갈멜의 답)
- 왕상 16:1-12 ↔ 왕하 9:1-10 (예후가 아합 집을 진멸함 — 왕조 사슬의 먼 끝)
- 왕상 16:26-31 ↔ 왕하 17:21-23 (여로보암의 죄가 북왕국 멸망의 뿌리로 회고됨 — 후렴의 긴 그림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한 선지자의 방. 자막 —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을 범죄하게 하였은즉, 내가 바아사와 그 집을 쓸어버리리라. 화면이 디르사로 옮겨 간다. 바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된다. 엘라가 청지기의 집에서 취하도록 마신다. 병거 절반을 거느린 신하 시므리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시므리가 바아사의 온 집을 남김없이 진멸한다. 자막 — 이는 예후로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진을 친 백성이 시므리의 모반을 듣고 그 날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디르사로 올라온다.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 불을 놓고 그 불 속에 죽는다 — 왕이 된 지 칠 일째다. 화면이 갈라진다. 백성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른다. 오므리를 좇은 자가 이기고 디브니가 죽는다. 오므리가 세멜에게 은 두 달란트로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인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부른다. 자막 — 오므리가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된다. 자막 —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그 안에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다. 자막 — 아합이 그 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더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화면이 여리고로 간다. 벤엘 사람 히엘이 그 옛 성을 다시 쌓는다. 터를 쌓을 때 만아들 아비람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는다. 자막 —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빠른 왕좌, 안 바뀐 죄 — 칠 일짜리 왕과 더욱 깊어진 어둠**"
- 초벌 부제: "예후가 바아사를 책망하고(16:1-4), 엘라가 술 취한 사이 시므리가 칠 일 만에 무너지며(16:8-19),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사마리아를 세운 뒤(16:21-24) — 그 아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 신전과 아세라를 세워 '그 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시게'(16:33) 하고,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두 아들을 잃는(16:34) — 왕조가 피로 갈리고 아합 시대로 들어서면, 엘리야 등장 직전의 가장 어두운 굵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devar-yhwh·naga·afar·nagid·ka'as·qashar·shikkor·bi'er·kikkar·shomron·qalal·ba'al·asherah 등 13+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신탁→성취 수미 + 같은 후렴과 '더욱'의 점층 + '여호와와의 말씀' 네 겹 + ANE 속칭·천도·정략 혼인·바알 도상)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6:9의 엘라의 술 취함을 '방탕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shikkor·qashar 어휘와 술판에서의 모반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엘라가 왜 취했는지 동기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6:15의 칠 일 통치를 '권력 무상의 교훈'으로 끌고 가지 않고, shiv'at yamim 어휘와 가장 짧은 치세에 가장 많은 피가 적힌 본문 형태로만 기록.
- 16:24의 사마리아 건설을 '인간 업적의 허무'로 닫지 않고, kikkar kesef·shomron 어휘와 새 도성이 한 세대 만에 바알의 처소가 된 본문 형태로만 둬.
- 16:31의 '가볍게 여기며'(qalal)를 '교만의 심리'로 단정하지 않고, 큰 죄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한 인물의 비워진 속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16:34의 히엘의 두 아들을 '저주의 신학'으로 닫지 않고, 여호수아 6:26 저주의 성취라는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이' 표지와 가장 어두운 절에 든 한 옛 말씀의 빛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6장은 예후가 바아사를 향해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바아사와 그 집을 쓸어버리리라"(16:2-3)고 책망하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술 취하였을 때 시므리가 모반하여 칠 일 동안 왕 노릇 하며 바아사의 온 집을 진멸해 그 신탁을 이루나(16:8-13) — 백성이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디르사를 치니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놓고 죽고(16:15-19), 백성이 디브니와 오므리로 갈라졌다가 오므리를 쫓은 자가 이기며 오므리가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건축하고(16:21-24), 그 아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시돈 왕 엡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과 아세라를 세워 "그 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16:33)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며,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잃는(16:34), 북왕국의 왕조가 피로 갈리고 아합 시대로 진입하는 권의 가장 어두운 굵이다.

한 문단: 한 선지자의 방.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는다 — 진토에서 들어 주권자로 삼았거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그 집을 쓸어버리리라. 화면이 디르사로 옮겨 간다. 바아사가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청지기의 집에서 취하도록 마신다. 병거 절반을 거느린 신하 시므리가 그를 쳐 죽이고 왕위에 올라, 칠 일 동안 바아사의 온 집을 진멸한다 — 예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된다. 그러나 백성이 군대 장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디르사로 올라오자, 시므리가 왕궁 위소에 불을 놓고 그 안에 죽는다. 백성이 디브니

와 오프리로 갈라졌다가 오프리를 쫓은 자가 이기고, 오프리가 은 두 달란트로 산을 사 사마리아를 건축한다. 그 아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를 세워 그 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다. 마지막으로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쌓는데, 터를 놓을 때 맏아들을,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을 잃는다 —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디르사의 술판·불타는 왕궁→갈라진 두 진영→새 도성 사마리아→바알 신전→다시 쌓이는 여리고로 옮겨 다니는 무대. 예후의 신탁·술잔·왕궁의 불·은 두 달란트·바알과 아세라·여리고의 두 아들의 소품.
2 첫 느낌·분위기	어지러운 왕위 교체와 안 바뀌는 죄. 한 단계씩 어두워지는 점층('더욱' 25·30·33절). 어둠 일색 끝에 비스듬히 든 한 옛 말씀의 빛(34절).
3 시작과 끝	'말씀이 임하여 꾸짖음'(1절)으로 열려 '말씀과 같이 됨'(34절)으로 닫힘. 1·7·12·34절에 '여호와와 말씀'이 네 번 새겨짐.
4 등장인물·사상	예후·바아사·엘라·시므리·오프리·디브니·아합·이세벨·히엘, 그리고 '말씀'으로만 들리는 여호와. 진단의 중심은 빠른 왕위와 안 바뀌는 죄.
5 장면 컷	예후의 책망과 엘라(1~14)/술판과 칠 일의 불(9~20)/갈라진 진영과 새 도성(21~28)/아합의 우상과 여리고(29~34) 4컷. 컷 2는 성취와 교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여호와와 말씀'의 네 겹(신탁·까닭·시므리의 성취·여호수아의 성취). 표현으로 적힌 악의 점층. 쓰임받은 손이 또 물어짐(7절). 큰 죄가 작아 보임(31절).
7 동영상	예후의 신탁 → 디르사의 술판과 칠 일의 불 → 갈라진 진영과 사마리아 천도 →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 →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잃은 여리고의 두 아들.
8 초벌 제목·부제	"빠른 왕좌, 안 바뀐 죄 — 칠 일짜리 왕과 더욱 깊어진 어둠"
9 기도·내면	한때 크게 보이던 것이 자꾸 보다 보니 작아져 멈춰야 할 데를 지나친 적은 없는지 — 그 가장 어두운 끝의 한 말씀의 표지 곁에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겹

1. **결 1 — 왕은 바뀌어도 안 바뀌는 죄, 그러나 어김없는 말씀:**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기우는 권이다. 16장은 그 분열의 국면(12~16장)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칸이다. 본문은 다섯 왕의 왕위 교체를 빠르게 적으면서 — 바아사·엘라·시므리·오프리·아합 — 왕마다 같은 후렴을 붙인다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16:19·26). 왕위는 칼과 모반과 추대와 세습으로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데, 그 좌석에 앉은 죄는 한 번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 거친 정치사 위로 '여호와와 말씀'이 네 번 새겨진다(16:1·7·12·34). 신탁이 임하여 꾸짖고(1절), 그 말씀이 시므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12절), 끝내 여호수아의 옛 말씀까지 히엘의 두 아들로 이루어진다(34절). 사람의 왕위는 일곱 밤 만에 무너지지만, 한 말씀은 신탁이든 옛 저주든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2. **결 2 — 한 칸씩 더 깊어진 악:** 본문은 같은 후렴을 붙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비교급을 더한다. 오프리에 대해 —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16:25). 아합에 대해 — "그 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16:30),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욱 여호와를 노하시게"(16:33). 같은 죄가 그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마다 한 칸씩 더 깊어진다. 그 가장 깊은 칸이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다 —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여호와를 다른 형상으로 섬긴 것이었다면, 아합은 아예 다른 신을 들여온다. 본문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조차 '가볍게 여

졌다'(qalal 16:31)고 적는다. 한때 가장 큰 죄였던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갔다. 작게 본 죄가 가장 크게 노하시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 결을, 무거워지는 후렴이 한 장 내내 들고 있다.

3. 절 3 — 가장 어두운 끝에 든 한 빛, 엘리야 직전: 16장의 끝은 어둠 일색이다 — 바알 신전이 서고(32절), 아 세라가 세워지고(33절), 여리고에서 두 아들이 죽는다(34절). 그런데 본문은 그 가장 어두운 절을 두고 '여호와 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16:34)고 적는다. 정치사와 무관해 보이는 한 절이 갑자기 옛 말씀의 어김없는 성취로 붙는다. 우상의 어둠 바로 다음에, 한 옛 말씀이 빈말이 아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놓인다. 그리고 바로 그 끝에서 — 33절 다음 절부터 — 엘리야가 일어선다(17:1). 16장이 자꾸 '여호와와 말씀'을 호명하는 것은, 어쩌면 다음 장을 떠날 토포를 다지는 일이다. 왕은 다 실패했지만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 토포 위에서, 한 말씀의 사람이 가장 어두운 무대로 걸어 들어온다. 가장 깊은 어둠과 어김없는 말씀이 같은 장 끝에 나란히 놓인 그 인접을,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한 마디가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4:7-11 — 아히야가 여로보암 집의 진멸을 전함 — 16장 예후 신탁의 같은 어법.
- 왕상 15:27-30 — 바아사가 여로보암 집을 진멸함 — 16:11 시므리의 바아사 집 진멸과 같은 사슬.
- 수 6:26 — 여호수아가 여리고 재건자에게 내린 저주 — 16:34 성취의 본문.
- 왕상 21:25-26 — 아합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가증한 일을 행함 — 16:31-33의 뒷날.
- 왕상 17:1 —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 비를 막음 — 16:33 직후의 등장.
- 왕상 18:19 —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아세라 선지자 사백 — 16:32-33 제의의 규모.
- 왕상 18:39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 — 16장의 어둠이 향하는 갈멜의 답.
- 왕하 9:1-10 — 예후가 아합 집을 진멸함 — 16장 왕조 사슬의 먼 끝.
- 왕하 17:21-23 — 여로보암의 죄가 북왕국 멸망의 뿌리로 회고됨 — 16:26-31의 긴 그림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6:2의 '진토에서 들어'에서 시작한다 — 들어 올림받은 자가 그 들어 올린 분께 책망받는 갈림길 앞에 선다.
- **멈춤 1:** 16:15에서 멈춘다 — '칠 일 동안 왕이 되니라.' 빼앗으려 다 죽이고도 이레짜리였던 한 치세를 준다.
- **멈춤 2:** 16:31에서 멈춘다 — '가볍게 여기며.' 큰 죄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한 마음을 준다.
- **끝:** 16:34에서 멈춘다 —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가장 어두운 끝에도 어김없이 임하는 한 말씀이 내게도 닿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예후의 책망과 엘라(1~14)·술판와 칠 일의 불(9~20)·갈라진 진영과 새 도성(21~28)·아합의 우상과 여리고(29~34)의 네 컷 완결
- [x] 신탁→성취 수미(1·34)와 왕마다 붙는 후렴 '더욱'(25·30·33)의 점층 구조
- [x] devar-yhwh(말씀의 네 겹 1·7·12·34)와 수 6:26 옛 저주와의 다리
- [x] naga(들림 2절)와 qalal(가볍게 여김 31절)의 대비와 12장 여로보암의 길과의 연결
- [x] 17:1 엘리야 등장·18:39 갈멜의 답·왕하 9·17장 먼 끝으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6장은 그 분열·우상의 국면(12~16장)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칸 — 12장에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로 시작한 북왕국의 죄가, 다섯 왕을 거치며 한 칸씩 깊어지다가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에서 가장 어두운 데까지 이르는 굽이다. 본문은 그 어둠을 직접 표시한다 — 오므리는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16:25), 아합은 '그 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16:33)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다른 형상(금송아지)에서 아합의 다른 신(바알)으로 — 우상의 깊이가 한 종류 더 내려간다.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칸에 권의 intent —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예언자를 보내사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 의 예비가 함께 놓인다. '여호와와 말씀'이 거친 정치사 위에 네 번 새겨지고(16:1·7·12·34), 그 어김없음의 토대 위에서 바로 다음 절부터 엘리야가 일어선다(17:1).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는 자상함이, 16장에서는 가장 어두운 끝에까지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어김없음의 결로 비친다. 16장의 어둠은 17~19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로, 그 너머 destination인 18:39의 답으로 이어지는 반전의 가장 어두운 발판이며, 그 발판에 이미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는 한 표지가 남겨져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후의 책망(16:1-14)에서 칠 일의 불(16:9-20)로, 다시 새 도성과 바알의 신전(16:21-33)과 여리고의 옛 저주 성취(16:34)로 / 빠르게 도는 왕위에서 한 칸씩 더 깊어진 죄로 / 가장 어두운 국면으로 — 그러나 그 끝에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표지를 남겨 엘리야 직전(17:1)을 예비하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6장은 분열의 국면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운동이다. 예후의 책망(1~14절)이 시므리의 진멸과 자멸로(9~20절), 갈라진 나라가 오므리의 승리와 사마리아 천도로(21~28절), 다시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로(29~33절)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여리고의 두 아들로(34절) 닫힌다. 그러나 16장이 끝나도 어둠은 걷히지 않는다 — 한 사람이 아합 앞에 서는 것은 17장에서야 온다. 16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데서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멜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가장 낮은 굽이이며, 그 호 전체가 한 칸씩 깊어진 어둠(16:33)을 '사람이 다 무너져도 자기 말씀은 끝내 이루시고 그 어둠 속으로 예언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쪽으로 흘러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다섯 왕의 거친 정치사다 —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어디로 천도하고, 누가 무슨 신전을 지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한 말씀의 어김없음이다. 예후의 신탁이 시므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16:12), 여호수아의 옛 저주가 히엘의 두 아들로 이루어진다(16:34). 사람의 왕위는 일곱 밤 만에 무너지는데, 한 말씀은 신탁이든 옛 저주든 끝내 이루어진다. 가장 어두운 이 장에서 본문이 자꾸 '여호와와 말씀'을 호명하는 것은, 왕은 다 실패했지만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토대를 다지는 일이다. 둘째, 한 칸씩 깊어진 어둠이다. 본문은 같은 후렴에 비교급을 더해, 같은 죄가 한 세대마다 더 깊어진다고 적는다(16:25·30·33). 그 깊어짐의 마음은 '가볍게 여김'(16:31)이다 — 한때 가장 큰 죄였던 것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갔다. 셋째, 가장 어두운 끝에 놓인 한 빛이다. 바알 신전이 선 바로 다음 절에 여리고의 두 아들이 옛 말씀의 성취로 적힌다(16:34). 어둠이 바닥에 닿은 그 끝에 말씀의 어김없음이 또렷이

다져지고, 그 다져진 토대 위에서 엘리야가 일어선다(17:1). 본문은 거친 정치사와 깊어진 우상과 어김없는 말씀을 나란히 둘 뿐, 그 어둠이 어떻게 뒤집힐지는 16장 안에서 풀지 않고 가장 낮은 굽이로만 둔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한때 분명히 크게 보이던 어떤 것이 자꾸 보다 보니 작아져, 멈춰야 할 데를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가 — 익숙해지며 가벼워진 그 한 가지가 나를 한 칸 더 멀리 데려간 적은. 그리고 모든 것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그 끝에서도, 끝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한 말씀의 표지를 나는 알아보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강한 왕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왕좌가 빠르게 도는 데도 그 좌석에 앉은 죄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한 칸씩 더 깊어지는 것을 보여 주고, 한때 가장 큰 죄였던 것을 작게 본 한 마음이 어떻게 가장 멀리까지 갔는지를 보여 주고(16:31), 가장 짧게 권 왕위가 가장 많은 피와 함께 무너진 것을 보여 주고(16:15-18), 그 모든 어둠의 끝에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16:34)는 한 표지를 새겨 둔다. 거친 정치사와 깊어진 우상과 어김없는 말씀이 한 장 안에 나란히 놓인 이 권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 안에서 무엇이 작아지고 있는지 살피는 일, 익숙해지며 가벼워진 한 가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보는 일, 그리고 가장 어두운 국면에서도 어김없는 한 말씀의 표지를 알아보는 일. 다섯 왕이 무너지고 죄가 바닥까지 내려간 바로 그 끝에, 자기 말씀을 끝내 이루시고 그 어둠 속으로 한 예언자를 보내시며, 사람이 다 흔들려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18:39)을 드러내실 국면이 이제 열린다 — 그 가장 어두운 발판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바알의 신전이 막 선 그 사마리아 앞에 —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17:1) 선포하니, 16장에 바닥까지 내려간 어둠이 곧바로 한 말씀의 사람과 한 가뭄 앞에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devar-yhwh* — 여호와와 말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한 선지자의 방. 자막 — 여호와와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라. 화면이 디르사로 옮겨 갑니다. 바아사가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마십니다. 병거 절반을 거느린 신하 시므리가 들어와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자 곧 바아사의 온 집을 쳐서, 남자는 그 친족이든 친구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자막 — 이는 여호와께서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깃브돈을 향해 진을 친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 날 진중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디르사로 올라가 그 성을 에워쌉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습니다 — 그가 왕이 된 지 이제째입니다. 화면이 갈라집니다. 백성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릅니다.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기니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여,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부릅니다. 자막 —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더라.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자막 —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니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합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자막 — 아합이 그 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화면이 여러고로 갑니다. 그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스굽을 잃습니다. 자막 —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예후에게 임한 책망의 신탁에서 열려, 디르사의 술판와 칠 일짜리 왕의 불 속 죽음과 그것으로 이루어진 한 말씀을 지나, 갈라진 두 진영과 새로 산 사마리아 산을 거쳐 — 더욱 깊어진 악과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두 아들을 잃은 여러고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빠른 왕좌, 안 바뀐 죄 — 칠 일짜리 왕과 더욱 깊어진 어둠"

P02 이진우: "왕은 바뀌어도 — 여로보암의 길 위로 한 칸씩 더 깊어진 다섯 치세"

P04 최현국: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 불타는 왕궁과 바알의 신전 사이"

P05 김미영: "은 두 달란트로 산 산, 한 세대 만에 바알의 처소 — 새 도성의 첫 우상"

P07 오지혜: "그 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 작아 보이기 시작한 큰 죄"

P11 나경아: "*devar-yhwh* 네 번 — 거친 정치사 위에 새겨진 한 말씀의 표지"

부제 제안: "예후가 바아사를 책망하고(16:1-4), 엘라가 술 취한 사이 시므리가 칠 일 만에 무너지며(16:8-19),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사마리아를 세운 뒤(16:21-24) — 그 아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바알 신전과 아세라를 세워 '그 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시게'(16:33) 하고, 히엘이 여러고를 건축하다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두 아들을 잃는(16:34) — 왕조가 피로 갈리고 아합 시대로 들어서는 가장 어두운 굽이"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왕좌가 빠르게 도는데도 같은 죄가 한 칸씩 더 깊어지던 그 다섯 치세 곁으로, 그리고 큰 죄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한 마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왕은 빠르게 바뀌는데 그 좌석에 앉은 죄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한 세대마다 한 칸씩 더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가장 큰 죄였던 것이 어느새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가는 마음도 보았습니다. 제 안에서도 처음엔 크게 보이던 어떤 것이 자꾸 보다 보니 작아진 적은 없는지, 그래서 멈춰야 할 대목을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지를 듣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끝에까지 어김없이 임하고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한 말씀의 표지 곁에, 그 빛 곁에 기대어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6장은 한 왕가의 책망에서 칠 일의 불로, 다시 새 도성과 바알의 신전으로 움직여요. 1~14절이 예후의 책망과 엘라, 15~20절이 시므리의 칠 일과 자멸, 21~28절이 오므리의 내전과 사마리아 천도, 29~34절이 아합의 우상과 히엘의 여리고예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16장이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이에요. 권의 향방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고요. 12장이 분열을 터뜨린 분수령이었다면, **16장은 그 분열의 국면(12~16장)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칸**이에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에서 시작한 북왕국의 죄가, 다섯 왕을 거치며 한 칸씩 깊어지다가, 아합의 바알과 아세라에서 가장 어두운 데까지 와요. 그리고 바로 그 끝에서 — 33절 다음 절부터 — 엘리야가 등장해요(17:1). 권은 가장 어두운 국면에서 destination을 향한 반전을 예비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6:1·7·12·34의 *devar-yhwh*(여호와와의 말씀)가 네 번 도는 게 단서예요. 거친 정치사가 채우는 서른네 절 위에, 한 말씀의 표지가 네 군데 새겨져요. 사람의 칼과 모반과 불 위로, '말씀이 임하여 꾸짖고' '말씀과 같이 되었다'가 거듭 적혀요. 또 하나, 16:2의 *naga*(들다)와 16:31의 *galal*(가볍게 여기다)이 한 장의 두 끝에서 대비돼요 — 여호와와 바아사를 진토에서 '들어' 주권자로 세우셨는데, 아합은 큰 죄를 '가볍게 여겨' 더 깊이 내려가요. **들어 올려진 자들이 한 칸씩 스스로를 낮은 데로 끌고 내려가는데, 그 위로 한 말씀의 표지가 어김없이 따라붙어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다섯 왕의 거친 정치사예요 —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어디로 천도하고, 누가 무슨 신전을 지었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한 말씀의 어김없음 같아요. 예후의 신탁이 시므리의 손으로 이뤄지고(12절), 여호수아의 옛 저주가 히엘의 두 아들로 이뤄져요(34절). 사람의 왕위는 일곱 밤 만에 무너지는데, 한 말씀은 신탁이든 옛 저주든 끝내 이뤄져요. 가장 어두운 이 장에서 본문이 자꾸 '여호와와의 말씀'을 호명하는 건, 어쩌면 다음 장을 예비하는 것 같아요 — 왕은 다 실패했지만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그 토대 위에서, 한 말씀의 사람 엘리야가 곧 일어서요(17:1).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가 한참 뒤에 오지만, 그 답을 떠받칠 토대가 — 사람이 다 무너져도 자기 말씀은 끝내 이루시는 그 어김없음이 — 가장 어두운 16장에서 도리어 또렷이 다져지고 있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왕은 다섯 번이나 바뀌는데 죄는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깊어져요. 빠른 교체와 안 바뀌는 죄가 한 장 안에서 부딪쳐요. 그리고 더 큰 긴장은 가장 어두운 끝에 한 옛 말씀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 바알의 신전이 선 바로 다음(33절), 여리고의 두 아들에게서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뤄져요(34절). **가장 깊은 어둠과 어김없는 말씀이 같은 장 끝에 나란히 놓이는 긴장**이에요. 본문은 이 긴장을 16장 안에서 풀지 않아요. 그 어둠이 어떻게 뒤집힐지는 다음 장을 읽어야 알게 돼요. 어둠이 바닥에 닿은 그 끝에, 말씀은 여전히 어김없다는 한 표지가 새겨져 있어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다시 여리고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한 왕가가 책망받고(1~7절), 술 취한 왕이 죽고 이레짜리 왕이 자기 불에 타고(9~18절), 갈라진 나라가 한쪽으로 모이고(21~22절), 새 도성이 서고(24절), 그 도성에 바알의 신전이 들어서요(32절). 그리고 16장이 끝나도 어둠은 걷히지 않아요 — 다만 17장에서 한 사람이 아합 앞에 서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17:1) 외쳐요. 16장은 그 등장을 위한 가장 어두운 무대예요. 바닥까지 내려간 어둠이 도리어 한 빛이 들어

설 무대가 돼요. 다섯 왕의 실패가 한 예언자의 등장을 위한 어두운 배경이 되는 그 굵이를 16장이 들고 있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31절이 불씨 같아요. '가볍게 여기며'라는 그 한 줄이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 곧 온 북왕국이 따라온 그 큰 죄조차 작게 보았고,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신을 들여왔어요. 저는 큰 악을 단번에 짓는 일보다, 한때 크게 보이던 것이 자꾸 보다 보니 작아져서 멈춰야 할 데를 지나치는 그 마음이 더 가까워요. 처음엔 분명히 크게 보였는데 익숙해지며 작아진 것, 그래서 한 칸 더 나아가게 된 것이요. 제 안에서 무엇이 작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끝에도 어김없이 임하는 한 말씀 곁에 기대어요.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 왕가의 책망에서 칠 일의 불로, 새 도성에서 바알의 신전으로 — 왕은 다섯 번 바뀌고 죄는 한 칸씩 더 깊어지는데, 그 가장 어두운 끝에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한 표지를 남겨 두시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바알의 신전이 막 선 그 사마리아 앞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비를 막는 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Q1. 16:7 — 바아사가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 것'이 한 말씀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책망의 까닭으로 적힌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바아사가 여로보암 집을 진멸한 일은 15장에서 한 말씀의 성취였다(14:10-11). 그런데 16:7은 그 친 손을 도리어 예후 신탁이 임한 까닭으로 적는다. 도구로 쓰인 손이 동시에 물어진다. 본문은 이 둘이 어떻게 한 손에 같이 있는지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한 칸을 '도구의 책임'이라는 도식으로 닫지 않고, 쓰임받은 일과 그 일이 물어지는 일이 나란히 적힌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6:11-12 — 시므리의 모반이 곧 예후 신탁의 성취가 되는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시므리가 왕위를 빼앗으려 바아사의 온 집을 진멸한 그 일이, 본문에는 '예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된 것으로 적힌다(12절). 사람의 거친 모반이 곧 한 말씀의 성취 도구가 된다. 같은 손이 죄를 짓는 동시에 한 말씀을 이룬다. 이 겹침을 '예정의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모반과 성취가 한 컷에 적힌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6:15 — 칠 일짜리 통치를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시므리는 모반해 왕위에 올라 이레 만에 무너진다. 그 이레 동안 한 일은 바아사 집의 진멸뿐이고, 끝은 자기가 놓은 왕궁 불 속의 죽음이다(18절). 그런데 본문은 이 짧은 왕에게도 같은 후령을 붙인다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19절). 이 칠 일을 '권력 무상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가장 짧은 치세에 가장 많은 피와 같은 잣대가 적용된 본문 형태로만 보존.

Q4. 16:24 — 은 두 달란트로 산 새 산지·새 도성 사마리아가 한 세대 만에 바알의 처소가 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오프리가 세멜에게 산을 사 새 도성을 세우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 부른다(24절). 그런데 그 아들 아합이 바로 그 도성에 바알 신전을 짓는다(32절). 깨끗한 새 산이 한 세대 만에 우상의 산이 된다. 본문은 새 도성 건설을 '인간 업적'으로 평하지 않고, 새 도성이 곧 바알의 처소가 된 두 절(24·32절)을 나란히 둔다. 이 인접을 '업적의 허무'로 닫지 않고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6:31 —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 마음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본문은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qalal)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다고 적는다(31절). 온 북왕국이 따라온 큰 죄조차 그에게는 작아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그가 왜 그 죄를 가볍게 여겼는지, 정략 혼인과 우상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교만의 심리'로 단정하지 않고, 큰 죄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 비워진 속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16:34 — 히엘의 두 아들과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가장 어두운 장 끝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잃은 일이 여호수아 6:26 저주의 성취로 적힌다(34절). 정치사와 무관해 보이는 한 절이 갑자기 옛 말씀의 성취로 붙는다. '신들이라'는 우상의 어둠 바로 다음에, 한 옛 말씀이 어김없이 이루어진 표지가 놓인다. 이 배치를 '저주의 신학'으로 닫지 않고, egi와 바알의 어둠 끝에 든 한 옛 말씀의 빛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7장

1KI-017 · 역사서 · 히브리어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 배경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하고, 그릇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먹이다가 시냇물이 마르고, 사렙다 과부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니 —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힘임을 이방 여인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17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갑작스러움 — 엘리야가 아무 배경 없이 불쑥 나타나 맹세하고 선언하는 첫 절의 공기.
- 고요함 — 그릇 시냇가의 고립. 아침저녁 까마귀. 혼자이고 조용한 무대.
- 점진적 위기 — 시냇물이 점점 마름(7절). 가뭄이 이 선지자 자신을 조여 옴.
- 반전의 공기 —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던 과부에게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는 요청(13절). 긴장과 반전.
- 정점은 24절 — 이방 여인의 고백이 이 장 전체의 수렴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 가뭄 선언.
- 24절 끝: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 이방 과부의 고백.
- 말씀 선언(1절)에서 말씀의 진실성 확인(24절)으로 닫히는 한 호.
- 죽음·마름이 가득한 장이 살아남·확인으로 끝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엘리야 — 디셉 사람, 변방 출신. 선언하고, 명령받고 이동하고, 죽은 아이 앞에서 탄원하고 세 번 엎드리는 인물. 주도하는 것 같으나 매 이동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로 시작함.
- 아합 — 1절에 단 한 번, 선언을 받는 자. 반응이 적히지 않음.
- 사렙다 과부 —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던 이방 여인.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남을 목격하는 자. 이 장의 고백(24절)을 발화하는 핵심 증인.
- 죽었다 살아난 아들 — 이름 없음. 죽음의 현실과 살아남의 신호.
- 까마귀 — 아침저녁으로 먹이는 부정한 새. 역설적 공급자.

5 장면 컷 분절

- 컷 1 (1절): 엘리야 등장·가뭄 선언. 단 한 절, 배경 없이 불쑥.
- 컷 2 (2~7절): 그릇 시냇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그릇으로→까마귀가 먹임→시냇물 마름.

- **컷 3 (8~16절):** 사렙다 과부와 가루통·기름병. 여호와와 말씀이 임함→사렙다로→과부를 만남→마지막 한 끼 요청→가루통·기름병이 마르지 않음.
- **컷 4 (17~24절):**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 아들이 병들어 죽음→엘리야의 탄원과 세 번 엎드림→아이 살아남→과부의 고백.

6 의문·발견·정보

- **발견 1** — 엘리야 이름(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 18:39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와 같은 선언을 이름에 담음. 17장은 이름으로 이미 목적지를 선포함.
- **발견 2** — 그릇 물이 마른 이유: 엘리야 자신이 선언한 가뭄의 결과. 자기 선언이 자기를 조이는 아이러니.
- **발견 3** — 사렙다는 페니키아 땅, 바알의 본거지. 18장 갈멜 대결의 무대가 되는 바알 세계 한복판에서 이방 여인이 먼저 여호와와 말씀을 고백함. 눅 4:25-26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직접 인용하심.
- **발견 4** — 엘리야의 탄원 21절: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nefesh). 죽음과 생명이 nefesh 하나로 수렴.
- **의문** — 17:18 과부의 말: "당신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나이까" — 과부는 아들 죽음이 자기 죄와 연결돼 있다고 느낌. 본문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말하지 않음.
- **ANE 배경** — 까마귀: 레위기 율법상 부정한 새(레 11:15). 부정한 새가 선지자를 먹이는 역설이 배경.

7 동영상 흐름

엘리야가 불쑥 나타나 맹세·선언하고(1절) →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 그릇으로 피함(2~3절) → 까마귀가 아침저녁 먹이고(6절) → 시냇물이 마르고(7절) → 말씀이 임하여 사렙다로(8~9절) → 나뭇가지를 줌 과부를 만나 마지막 한 끼를 먼저 달라 함(10~13절) → 가루통·기름병이 마르지 않음(14~16절) → 과부의 아들이 죽음(17~18절) → 엘리야가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세 번 엎드려 탄원(19~21절) → 아이 살아남(22절) → 엘리야가 과부에게 돌려줌(23절) → 과부의 고백(24절).

8 초별 제목·부제

- P01 한나래:**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 말씀 한 마디가 먹이고 살리다"
- P02 이진우:** "까마귀와 가루통과 살아난 아이 — 여호와와 말씀이 마르지 않는다"
- P04 최현국:** "변방에서 이방으로 — 엘리야 등장과 말씀이 살리는 힘"
- P05 김미영:** "마지막 가루 한 줌에서 시작된 이적 — 진실이 진실한 줄 알다"
- P07 오지혜:** "엘리야의 이름이 담은 것 —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 P11 나경아:** "*kad · tsappachat* — 마르지 않는 두 그릇과 살아난 나팔"

9 기도·내면

성령일 선교사: 자신의 선언이 자신을 조이는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마지막 한 끼를 가진 과부를 통해, 살아나지 않은 아이의 몸 위에서 — 먹이고 채우고 살리시는 분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뵙시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자기 말에 자신이 조여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릇 물이 마르고, 아이가 숨을 거두고 — 그런데도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언한 어떤 것에 오히려 조여 가고 있는지, 그 가뭄 한가운데에서도 까마귀 하나, 가루 한 줌을 통해 먹이시는 분이 계신지 — 그 질문을 쥐고 머물렀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7장은 배경도 없이 불쑥 등장한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17:1) 선언하고, 여호와와의 말씀에 따라 그릇 시냇가로 피해 까마귀에게 아침저녁 먹임을 받다가 자기 선언으로 말미암은 가뭄에 시냇물이 마르고, 다시 말씀에 따라 사렐다 과부에게로 보내지며 —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던 이방 과부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하고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라 가루통이 비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17:14)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세 번 옆드림과 탄원 끝에 살아나니 — 이방 여인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줄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17:24) 고백하는, 말씀이 선언하고 먹이고 채우고 살리는 힘을 이방 변방에서 처음 드러내는 엘리야 등장의 첫 장이다.

한 문단: 길르앗 디셉의 변방 출신 엘리야가 아무 소개 없이 아합 앞에 선다. 여호와와의 살아 계심을 증인으로 세우고 선언한다 — 내 말 없이는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한다 — 그릇 시냇가로 가라. 까마귀가 아침저녁으로 먹인다. 그런데 그 가뭄이 엘리야 자신의 그릇 물을 마르게 한다. 다시 말씀이 임한다 — 사렐다 과부에게로 가라. 이방 땅, 시돈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난다. 과부는 말한다 — 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 이것이 마지막 한 끼예요. 엘리야가 말한다 — 두려워 말고,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 집에서 이루어진다 —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다 과부의 아들이 죽는다. 과부가 묻는다 —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나이까.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올라가 침상에 눕히고 세 번 옆드려 탄원한다 —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아이가 살아난다. 과부가 고백한다 —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왕 앞→그릇 시냇가→사렐다 과부의 집으로 옮기는 세 무대. 가루통·기름병·까마귀·침상·세 번 옆드리는 몸의 소품. '여호와와의 말씀'이 네 번 도는 형식 축.
2 첫 느낌·분위기	갑작스러운 등장의 공기. 그릇의 고요와 고립. 시냇물 마름의 점진적 위기. 마지막 한 끼의 긴장과 반전. 24절 이방 과부 고백이 수렴점.
3 시작과 끝	'내 말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1절)에서 '여호와와의 말씀이 진실하다'(24절)로. 말씀 선언에서 말씀 확인으로 닫히는 한 호.
4 등장인물·사상	엘리야(매 이동이 '말씀이 임하여'로 시작), 과부(마지막 한 끼→아들 죽음→살아남→고백의 증인), 까마귀(역설적 공급자), 죽었다 살아난 아들(nefesh가 돌아옴).
5 장면 컷	선언(1) / 그릇·까마귀(2~7) / 사렐다·가루통·기름병(8~16) / 아들 죽음과 살아남(17~24) 4컷. 각 컷은 '말씀이 임하여' 열리는 구조.

단계	핵심 발견
6 의문·발견·정보	이름(Eliyahu)이 이미 18:39를 선포함. 자기 선언이 자기를 조이는 아이러니. 사렘다=바알 본거지 이방 땅. 눅 4:25-26 인용. 18절 과부의 죄 인식과 엘리야의 몸의 반응.
7 동영상	선언→그릇(까마귀·물)→사렘다(과부·가루·기름)→아들 죽음→세 번 엎드림·탄원→살아남→고백.
8 초벌 제목·부제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 말씀 한 마디가 먹이고 살리다"
9 기도·내면	자기 선언에 조여 가는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 하나·가루 한 줌을 통해 먹이시는 분. 죄를 물을 시간에 탄원으로 먼저 간 세 번 엎드림의 동작.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이름이 이미 목적지를 선포함:** 엘리야(עֲלִיָּא, Eliyahu)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뜻이다.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는 이 이름의 풀이다. 17장은 엘리야의 이름 한 마디로 열왕기상 전체의 destination을 미리 선포하며 시작한다. 권의 spine —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 — 이 17장에서 예언자의 이름 안에 먼저 압축돼 나타난다.
- 결 2 — 이방 과부가 먼저 고백함:** 18:39에서 온 이스라엘이 외치기 전에, 17:24에서 바알의 본거지 페니키아 이방 여인이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눅 4:25-26에서 이 장면을 직접 인용하신다 — 많은 이스라엘 과부가 있었지만 사렘다 이방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졌다고. 이방이 먼저, 변방이 먼저, 가장 적게 가진 자가 먼저 — 이 '먼저'의 결이 17장에서 처음 그어진다.
- 결 3 — 자기 선언에 조이면서도 다음 말씀이 임함:** 엘리야의 가뭄 선언이 자기를 먹이던 그릇 물을 마르게 한다. 자기가 선포한 심판이 자기를 먼저 조인다. 그 상태에서 다음 말씀이 임한다 — 그릇도 말랐으니 이제 사렘다로 가라. 말씀은 조임 안에서 다음 방향을 갖는다. 그 패턴이 17장에서 두 번 반복된다(그릇→사렘다, 사렘다에서 아들 죽음→탄원 끝 살아남). 조임이 단함이 아니라 다음 국면의 문이 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8:1-36-39 — 세 번째 해에 비를 약속하시고, 갈멜의 불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 — 17장이 예비하는 목적지.
- 왕상 19:4-8 — 지친 엘리야를 천사가 두 번 먹이는 장면 — 17장의 까마귀 먹임과 대응.
- 눅 4:25-26 — 예수님이 사렘다 과부 본문을 직접 인용하심 — 이방·변방·작은 자에게 먼저 임하는 은혜의 결.
- 왕하 4:32-35 — 엘리사가 수넬 여인의 아들에게 세 번 엎드린 동작의 배경 본문.
- 창 2:7 — 하나님이 생기(nefesh)를 불어넣으심 — 17:21-22의 nefesh 돌아옴과 메아리.
- 레 11:15 — 까마귀가 부정한 새로 분류됨 — 17:6 역설의 율법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7:1에서 시작한다 — 아무 배경 없이 불쑥 나타나 맹세하는 사람 앞에 선다.
- **멈춤 1:** 17:7에서 멈춘다 — 자기 선언이 자기를 조이는 그릇 물 마름 앞에 선다.
- **멈춤 2:** 17:13에서 멈춘다 —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는 그 요청 앞에 선다. 마지막 한 끼를 가진 자에게 먼저 달라는 그 순서.
- **끝:** 17:24에서 멈춘다 — 이방 여인의 고백. '진실한 줄 아나이다'는 이 장 전체의 무게를 받아 내는 한 문장.

F · 자족성 점검

- [x] 선언(1) / 그릿(2~7) / 사렙다(8~16) / 죽음과 살아남(17~24)의 네 컷 완결
- [x] 이름(Eliyahu) — 18:39 destination의 압축이라는 연결
- [x] 이방 과부의 24절 고백이 눅 4:25-26·18:39와 연결됨
- [x] 자기 선언에 조이는 아이러니와 다음 말씀의 패턴
- [x] 네 번 나오는 '여호와와 말씀'(2·8·16·24절)의 사이클 완결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 —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 — 에서, 17장은 새로운 행위자(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전환점이다. 12~16장이 분열과 우상의 긴 내리막을 달렸다면, 17장부터 예언자를 통한 여호와와의 드러내심이 본격으로 시작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이방 여인(17:24)이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함으로써 권의 destination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의 예비 증언이 이방 변방에서 먼저 나온다. 엘리야의 이름 자체(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가 18:39를 압축하고 있어, 17장은 이름으로 이미 권 전체의 목적지를 선포하며 문을 여는 장이다. 권의 heart —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고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19장) — 의 예비, 17장에서 까마귀로 먹이시고(6절) 가루통·기름병으로 채우시는(16절) 결로 먼저 비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뭇물 선언(17:1)에서 말씀의 진실 확인(17:24)으로 / 왕 앞에서 변방 시냇가로, 다시 이방 과부의 집으로 / 마름에서 채움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 말씀이 선언하고 먹이고 채우고 살리는 힘을 드러내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7장은 말씀이 어디서든 살린다는 운동이다. 왕 앞에서 시작한 선언이 그릿의 까마귀로, 사렙다의 가루통과 기름병으로, 죽은 아이의 몸 위에서 세 번 앞드린 탄원으로 — 매번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방 과부가 '진실하다'고 고백함으로써 17장이 닫히고, 18장으로 밀린다 — 3년이 지나 다시 말씀이 임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가뭇물과 이적과 죽었다 살아난 아이의 이야기다. 수면 아래에서 세 결이 움직인다. 첫째, 말씀이 어디서든 살린다는 결이다. 까마귀도, 이방 과부의 마지막 한 끼도, 죽은 아이의 몸도 —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마르지 않고 살아난다. 살리는 힘은 도구나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둘째, 이방과 변방이 먼저 받는다는 결이다. 이스라엘 왕궁이 아니라 페니키아 과부의 집에서, 이스라엘 선지자 집단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한다. 셋째, 자기 선언에 조이면서도 다음 말씀이 임한다는 결이다. 엘리야가 선포한 심판이 엘리야 자신을 먼저 조이는데, 그 조임 안에서 다음 방향이 온다. 조임이 끝이 아니라 다음 국면의 문이다. 본문은 이 세 결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한 선지자의 이동 경로와 한 이방 여인의 고백으로만 둔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지금 자기가 선언한 어떤 것에 오히려 조여 가고 있는가 — 그 가뭇물 한가운데에서도 까마귀 하나, 가루 한 줌을 통해 먹이시는 손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끼를 가진 자에게 '먼저 달라'고 하시는 그 순서 앞에서 —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쥐고 있는가.

이것은 이적의 교훈이 아니라 말씀의 현실 앞에 서는 초대다. 본문은 엘리야처럼 강한 선지자가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배경도 없이 불쑥 나타나 맹세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그 이름이 까마귀와 가루통과 세 번 엮드린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주고, 마지막 한 끼를 가진 이방 여인이 먼저 '진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여 준다. 자기 선언에 조이는 그 국면에서도 다음 말씀이 임하는 패턴 — 그 패턴이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17장이 닫힐 때 과부는 알게 됐다. 독자가 이 장을 닫을 때 무엇을 알게 됐는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세 번째 해에 말씀이 임한다 —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 엘리야와 아합이 다시 만나고,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명이 맞선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emet* — 진실.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17:24).

미해결 질문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7장은 **가뭄 선언에서 말씀의 진실 확인으로** 움직여요. 1절의 '내 말이 없으면' — 그 말이 여호와와 말씀임을 24절의 고백이 확인해요. 권 전체에서 보면, 12~16장이 우상과 왕들의 실패로 내리막을 달렸다면,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며 다른 결의 운동이 시작돼요. 이 장은 18:39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로 가는 호의 첫 단계예요 — 이방 여인이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하다'고 먼저 고백함으로써, 18장의 온 이스라엘의 고백을 예비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말씀이 어디서든 살린다는 결** 같아요. 변방 선지자, 부정한 새, 이방 여인의 마지막 한 끼, 죽은 아이 — 이 중 어느 하나도 살릴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마르지 않고, 살아나요. 표면은 까마귀와 가루통의 이야기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말씀의 창조력이 움직여요.

P01 한나래: 제게는 **엘리야가 자기 선언에 조여 가는 아이러니**가 가장 깊이 타올라요.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이, 자기를 먹이던 그릇 물을 마르게 해요. 자기가 선포한 심판이 자기를 먼저 조여요. 그 상태에서도 다음 말씀이 임해요. '그릇도 말랐으니 이제 사렘다로 가라'고요. 우리가 선포한 것이 우리를 먼저 조여 올 때도 — 그 조임 안에서도 말씀은 다음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결이, 불씨예요.

P05 김미영: 저는 과부의 질문(18절)에서 불씨가 타요. "당신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나이까" — 아이가 죽자 과부가 자기 죄와 연결 지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질문을 반박하거나 확인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를 안고 올라가 세 번 엮드려요. 답하는 방식이 말이 아니라 몸이에요. 세 번 엮드리는 그 동작이요. 그리고 아이가 살아나요. 죄를 물을 시간에 탄원으로 먼저 간 그 동작이, 제 안에서 타오르는 뭔가요.

성령일 선교사: 가뭄 선언에서 말씀의 진실 확인으로, 자기 선언에 조이면서도 다음 말씀이 임하는 역설, 말씀이 까마귀와 가루통과 세 번 엮드리는 몸을 통해 살리는 운동을 손에 쥐고 18장으로 갑니다. 3년이 지나 말씀이 임합니다 —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리겠다는 말씀이요.

열왕기상 1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7:1 — 엘리야가 아무 배경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이름과 출신지(길르앗 디셉 사람)만 있고 부름받은 경위, 아버지 이름, 어떻게 아합 앞에 섰는지가 없다. 본문은 그 공백을 채우지 않고 맹세로 바로 들어간다. 이 갑작스러움을 '극적 효과'로 단정하지 않고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7:6 — 부정한 새(까마귀)가 선지자를 먹이는 역설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레위기 율법상 부정한 새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인다. 본문은 이 역설에 주석을 달지 않는다. '오르빔이 그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사실만 적는다. 해석하지 않고 형태로만 보존.

Q3. 17:7 — 그릇 물이 마른 것이 엘리야 자신의 가뭄 선언의 결과임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엘리야가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했는데 그 가뭄이 자기를 먹이던 시냇물을 마르게 한다. 본문은 이 아이러니를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말씀이 임해 사렘다로 보낸다. 자기 선언이 자기를 조이는 형태와 그 다음 말씀이 함께 놓인 구조로만 보존.

Q4. 17:18 — 과부가 아들 죽음을 자기 죄와 연결 지은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당신이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나이까" — 본문은 이 연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하지 않는다. 엘리야도 그것을 확인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를 안고 올라가 세 번 엎드린다. 과부의 죄 인식과 엘리야의 반응 사이의 거리를 묵상 단계로 이월.

Q5. 17:24 — 이방 과부가 '여호와와 말씀이 진실하다'고 고백하는 것의 위치를 본문은 어디에 두는가?

- 18:39에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고 고백하기 전에, 이방 여인이 먼저 '당신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말한다. 눅 4:25-26에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인용하신다. 이방 과부의 고백이 권 전체의 destination에서 갖는 구속사적 위치를 이 장 안에서 닫지 않고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8장

1KI-018 · 역사서 · 히브리어

삼 년 가뭄 끝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 갈멜산에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인을 모으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18:21) 물으니 — 바알이 종일 응답하지 않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에 물을 세 번 부은 뒤 기도하며 여호와와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삼키니, 온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18:39) 외치고, 일곱 번 만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 큰 비가 쏟아지는 — 권 전체의 물음이 한 답으로 터지는 열왕기상의 봉우리.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가뭄에 메마른 길(5~7절)→아합과의 대면(17절)→갈멜산의 대결(19~39절)→비 내리는 들(45절)로 옮겨 다님. 메마름에서 불을 지나 비로.
- 무대의 방향: 삼 년 닫힌 하늘 아래 숨던 길이 공개 대결의 산으로, 다시 큰 비 쏟아지는 들판으로 변질.
- 소품: 두 송아지(23절), 무너진 제단과 열두 돌(30~32절), 도랑과 물 열두 통(32~35절), 내려온 불(38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44절).
- 소품의 부재: 바알의 불 — 사백오십 인이 종일 구한 그 불(26·29절)은 끝내 무대에 오르지 않음.
- 소재의 결: 처음은 숨김·메마름(굴·떡·물·가뭄·풀), 가운데는 대결(두 사이·송아지·불·부르짖음·자상·응답), 끝은 비(작은 구름·바람·큰 비).
- 형식 소재: 응답하다(anah 21·24·26·29·37절)와 머뭇거리다·절뚝거리다(pasach 21·26절)의 두 축,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37·39절)의 거듭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오래 놀리다 터지는 팽팽함 — 삼 년 가뭄(1절) 끝의 재등장, '응답으로 판가름하자'(24절)는 미뤄진 답이 끝까지 조임.
- 숨김에서 대결로, 대결에서 기다림으로의 점층 — 굴의 숨김(4)→대면(17)→산 위 대결(20)→바알의 실패(29)→부은 물(35)→내려온 불(38)→비를 기다리는 일곱 번(43).
- 메마름·불·비가 세 번 뒤집는 명암 — 숨어 다니는 어스름(1~16), 한낮의 공개 대면(17~21), 응답 없는 어둠(26~29), 타오르는 불(38), 처단의 검은 결(40), 빛속의 회색(41~46).
- 조롱과 간구가 부딪치는 두 어조 — 바알을 향한 빈정거림('목상·출타·여행·잠' 27절)과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37절)의 간절함.
- 그어진 살(자상 28절)·부어진 물(34~35절)·떨어진 불('도랑의 물을 닦은지라' 38절)의 감각.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39절) — 한마디도 못 하던 입(21절)이 거듭 외치는 한 답으로 열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제삼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 46절: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 삼 년 가뭄 끝의 '비를 내리리라' 약속으로 열려, 큰 비가 온 뒤 왕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닫힘 — 약속된 비가 현실의 비로 둘러싸인 호.
- '비를 내리리라'(1절)는 대결 전의 약속 — 갈멜의 불은 비를 얻어내는 흥정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인지를 드러내는 일.
- 1절(하나님의 약속)과 46절(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21절(한마디도 못 함)과 39절(거듭된 외침)이 새겨짐.
- 메마른 약속의 길(1절)에서 빗속을 달리는 길(46절)로 — 약속이 대결과 응답을 거쳐 현실로 굳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엘리야(나타나고·대면하고·물음을 던지고·조롱하고·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고·처단하고·비를 부르고·달려감), 아합('괴롭게 하는 자'라 부르고·백성을 모으고·먹고 마시러 올라가고·수레로 떠남), 오바다(왕궁을 맡았으며 여호와를 경외해 선지자 백 명을 굴에 숨겨 먹임·그러나 두려워함 12절), 바알 선지자 사백 오십 인(종일 부르짖고 몸을 상하게 하나 응답 없음), 온 백성(한마디도 못 하다가 옆드려 외침), 무대 중심의 여호와(비를 약속하시고·불로 응답하시고·능력을 임하게 하심).
- 중심 사상: '두 사이'와 '한 분' — 백성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pasach 21절), 엘리야는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 꿰으니(24절), 응답이 한쪽에서만 와 갈린 마음이 한 외침으로 무너짐(39절).
- 한 물음과 그 답의 연쇄: 도입(1~16 재등장·오바다)→대면(17~20 '괴롭게 하는 자'의 뒤집힘·소집)→물음(21~24 두 사이·응답의 조건)→바알의 실패(25~29 응답 없음)→여호와와 응답(30~39 수축·물·불·외침)→귀결(40~46 처단·작은 구름·큰 비).
- 불과 비의 다른 결: 불(38절)은 '누가 하나님인가'에 답하는 표징, 비(45절)는 1절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 — 본문이 따로 적음.
- 무너진 제단과 열두 돌(30~32절): 갈라진 남북 시절에 야곱 지파 수효대로 열두 돌로 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움 — 그 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세 번 부음.
- pasach(머뭇거리고 21절)와 YHWH hu haElohim(그 답 37·39절): 한 장의 두 끝에 놓인 갈림과 그 답.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6절): 가뭄 길의 만남 — 제삼년에 비를 약속하시며 아합에게 보이라 하심(1), 풀을 찾아 나누어 다님(5~6),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남(7), 백 명을 굴에 숨겨 먹인 일과 그의 두려움(4·12), 오늘 아합을 보이라 함(15~16).
- 컷 2 (17~20절): 괴롭게 하는 자의 대면 —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17),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라'(18), 갈멜로 온 백성과 사백오십·사백을 모으라 함(19~20).
- 컷 3 (21~29절): 두 사이의 물음과 바알의 침묵 —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21),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24), 아침부터 한낮까지 부르짖고 자상하나 응답 없음(26~29).
- 컷 4 (30~39절): 수축한 제단과 내려온 불 — 무너진 제단을 열두 돌로 수축하고 도랑을 팠(30~32), 물을 세 번 부어 도랑까지 채움(33~35), 엘리야의 기도(36~37), 불이 모든 것을 삼키고 백성이 옆드려 외침(38~39).

- 컷 5 (40~46절): 처단과 작은 구름과 큰 비 —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끌어내려 처단(40), 일곱 번 보내 작은 구름을 봄(41~44), 하늘이 검어지고 큰 비가 오며 이스라엘까지 달려감(45~46).
- 컷 3의 경첩 위치: 준비(컷 1·2)와 두 응답(컷 4·5) 사이, 한 물음이 끼어듦 — 백성의 침묵(21)→응답의 조건(24)→바알의 침묵(29)이 불과 비 두 응답으로 펼쳐짐.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pasach*(פָּסַח) —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다·절뚱거리다(21·26절). 백성의 갈린 마음과 바알의 절뚱이는 춤에 같은 어근. / *anah*(אָנָה) — 응답하다(21·24·26·29·37절).
- *esh*(עֵשׂ) — 불(24·38절). 응답의 표징으로 약속되고 끝내 내려옴. / *qara*(קָרָא) — 부르다·부르짖다(24·26절).
- *mizbeach*(מִזְבֵּחַ) — 제단(30·32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움. / *tealah*(תָּעַלָּה) — 도랑(32·35·38절).
- *mayim*(מַיִם) — 물(33~35·38절). 도랑에 세 번 부어지고 끝내 불에 삼켜짐. / *etsim*(עֵצִים) — 나무(33절).
- *par*(פָּר) — 수송아지(23·36절). 두 진영의 두 제물. / *qishon*(קִישׁוֹן) — 기손 시내(40절).
- *kaf ish*(כַּף אִישׁ) — 사람의 손바닥만 한(44절) / *YHWH hu haElohim*(יְהוָה הוּא הָאֱלֹהִים)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시라(37·39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도입(1~16) + 대면(17~20) + 물음(21~24) + 바알의 실패(25~29) + 여호와와 응답(30~39) + 귀결(40~46) — 한 물음이 두 진영의 대비를 거쳐 불과 비 두 응답으로 펼쳐지는 구조.
- 약속→성취 수미: 1절의 '비를 내리리라'와 45절의 '큰 비가 내림'이 마흔여섯 절을 묶음 — 형태 관찰.
- 응답(*anah*)의 비대칭: 바알은 '응답하는 자도 없고'(26·29절), 여호와와 불로 응답함(38절) — 같은 동사가 한쪽으로 기울음.
- '머뭇거림(*pasach*)'의 두 겹: 백성의 갈린 마음(21절)과 바알 선지자의 절뚱이는 춤(26절)이 같은 어근으로 올림 — 형태 관찰.
- 거꾸로 된 행동의 아이러니: 불을 구하면서 도랑까지 물을 세 번 부음(34~35절) —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든 형태로만 둠.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바알 — 가나안의 폭풍·비·풍요의 신으로 가뭄과 비를 주관한다 믿어짐. 삼 년 가뭄과 갈멜의 대결이 '비를 누가 주는가'의 무대인 배경.
- 갈멜산 — 지중해를 면한 곳의 산지로 고대부터 성소가 있던 제의 공간. 19절 대결지 선택의 배경.
- 몸을 상하게 함(자상) — 근동 풍요 제의에서 신을 깨우려 칼과 창으로 피를 내던 격렬한 부르짖음의 관습. 28절 바알 선지자 행동의 배경.
- 기손 시내 — 갈멜 기슭의 건천으로 비가 와야 물이 흐름. 40절 처단 지점과 45절 큰 비의 배경.
- 아세라 — 바알과 짝지어진 가나안 여신. 이세벨의 상에서 먹던 사백 인이 그 선지자(19절)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21절의 '두 사이의 머뭇거림'을 마음이 갈린 백성의 절뚱거림으로 읽되, 갈멜의 불을 17:1에 닫힌 하늘이 열리는 표징으로 봄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8:1 ↔ 왕상 17:1 (엘리아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맹세함 — 가뭄·비의 시작점)

- 왕상 18:19 ↔ 왕상 16:30-33 (아합이 바알 제단·아세라 목상을 세워 이전 모든 왕보다 악을 행함 — 대결의 배경)
- 왕상 18:40-46 ↔ 왕상 19:1-18 (이세벨의 위협·호렘의 세미한 소리·무릎 꿇지 않은 칠천 — 직후 국면)
- 왕상 18:31 ↔ 왕상 12:28-30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 북왕국 우상의 뿌리, 18장이 맞서는 긴 그림자)
- 왕상 18:40 ↔ 신 13:1-5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선지자를 죽이라 — 처단의 율법 배경)
- 왕상 18:38 ↔ 레 9:24 (회막 앞에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사름 — 갈멜의 불이 닿는 옛 표징)
- 왕상 18:38 ↔ 왕하 1:9-14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오십부장을 사름 — 엘리야 전승의 불의 표징)
- 왕상 18:42-45 ↔ 약 5:17-18 (엘리야가 기도하매 삼 년 반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매 비가 옴 — 후대 회고)
- 왕상 18:1-45 ↔ 신 11:13-17 (순종하면 비를, 우상을 따르면 하늘이 닫히리라 — 가뭄·비의 언약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가뭄에 갈라진 길. 자막 — 제삼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과 오바다가 풀을 찾아 나뉘어 다니고, 오바다가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다. 그가 굴에 백 명을 숨겨 먹인 일이 드러나고, 동시에 그는 두려워한다. 화면이 대면으로 옮겨 간다 —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한다. 자막 —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나. 엘리야가 답한다 —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라, 당신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화면이 갈멜산으로 오른다.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인이 모인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묻는다 —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엘리야가 조건을 건다 —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한낮까지 부르짖는다 —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몸을 상하게 한다. 엘리야가 빈정댄다 — 큰 소리로 부르라, 묵상하고 있는지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저녁이 되도록 응답이 없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 지파 수효대로 열두 돌을 취해 쌓는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통에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세 번 붓는다.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찬다. 엘리야가 기도한다 —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막 —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끓은지라.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외친다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바알 선지자가 기손 시내로 끌려 내려가 처단된다. 엘리야가 갈멜 꼭대기에 올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종을 일곱 번 보낸다. 일곱 번째에 종이 말한다 —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윽고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검어지고 큰 비가 내린다.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돌리고 왕의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간다.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두 사이에서 — 갈멜의 불이 한 물음을 한 답으로 끝다"
- 초벌 부제: "삼 년 가뭄 끝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인을 모으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18:21) 물으니 — 바알이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에 물을 세 번 부은 뒤 기도하매 여호와와 불이 내려 번제물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삼키니, 온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 외치고, 일곱 번 만에 작은 구름이 올라 큰 비가 쏟아지는 — 권 전체의 물음이 한 답으로 터지는 봉우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pasach·anah·esh·qara·mizbeach·tealah·mayim·etsim·par·qishon·kaf 등 12+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약속→성취 수미 + anah 비대칭 + pasach 두 겹 + ANE 바알 제의·갈멜·자상·기손·아세라)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8:21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랴'를 '결단의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pasach 어근과 백성의 침묵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백성이 답하지 못한 동기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8:24-38의 '불로 응답하는 신'을 '능력 대결의 신학'으로 끌고 가지 않고, anah 동사의 비대칭과 두 진영의 대비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 18:27의 조롱을 '우상 비판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27절 어구와 종일의 침묵(29절)이라는 형태로만 둬.
- 18:37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회심의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엘리야가 구한 것이 불 자체가 아니라 백성의 앓과 돌아섬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그 마음이 오래 갔는지는 풀지 않음.
- 18:40의 처단을 '폭력 정당화'나 '제거'의 어느 쪽으로도 닫지 않고, 신 13:1-5의 율법 배경과 기손 시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8장은 삼 년 가뭄 끝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18:1) 하시고, 왕궁을 맡은 오바댜가 이세벨의 칼에서 선지자 백 명을 굴에 숨겨 먹였음이 드러나며 (18:4-13), 아합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부르자 엘리야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라"(18:18) 되받고 — 갈멜산에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인이 모여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18:21) 물으나 백성이 한마디도 못 하고, 바알 선지자가 종일 부르짖고 칼로 몸을 상하게 해도 응답이 없으며(18:26-29),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열두 돌로 수축하고 도랑에 물을 세 번 부은 뒤 "내게 응답하소서"(18:37) 기도하며 여호와와 불이 번제물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삼키니 — 온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 거듭 외치고,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끌어내려 처단하며, 일곱 번 만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 큰 비가 쏟아지는, 권 전체의 물음이 한 답으로 터지는 권의 봉우리다.

한 문단: 삼 년째 메마른 땅.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 —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풀을 찾아 나뉘어 다니던 길에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고, 그가 굴에 백 명을 숨겨 먹인 일과 그의 두려

움이 함께 드러난다. 아합이 엘리야를 "괴롭게 하는 자"라 부르자 엘리야가 되받는다 —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다. 갈멜산에 온 백성과 사백오십 인이 모인다. 엘리야가 묻는다 —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백성이 한마디도 못 한다.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조건 아래, 바알 선지자가 종일 부르짖고 물을 상하게 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열두 돌로 수축하고, 도랑을 파 물을 세 번 부어 도랑까지 채운다. 그가 기도하자 여호와와 불이 내려 제물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삼킨다. 온 백성이 엎드려 외친다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선지자가 기손 시내에서 처단되고,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일곱 번 보내 작은 구름을 본다. 하늘이 검어지고 큰 비가 쏟아지자, 여호와와 능력이 임한 엘리야가 왕의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간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메마른 길→대면→갈멜의 대결→비 내리는 들로 옮겨 다니는 무대. 두 송아지·무너진 제단과 열두 돌·도랑과 물·내려온 불·작은 구름의 소품 — 숨김·메마름에서 대결을 거쳐 비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오래 놀리다 터지는 팽팽함. 숨김에서 대결로 다시 기다림으로의 점층. 조롱과 간구가 부딪치는 두 어조. 한마디도 못 하던 입이 거듭된 외침으로 열림(39절).
3 시작과 끝	'비를 내리리라'(1절)로 열려 '빗속을 달려감'(46절)으로 닫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사이에 침묵(21절)에서 외침(39절)으로 가는 백성의 입이 새겨짐.
4 등장인물·사상	물음을 던지고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 '괴롭게 하는 자'라 부른 아합. 두려워하면서도 백 명을 먹인 오바다. 종일 응답 없던 사백오십 인. 무대 중심의 여호와. 진단의 중심은 '두 사이'와 '한 분'(pasach 21절).
5 장면 컷	가뭄 길의 만남(1~16)/괴롭게 하는 자의 대면(17~20)/두 사이의 물음과 바알의 침묵(21~29)/수축한 제단과 내려온 불(30~39)/처단과 작은 구름과 큰 비(40~46) 5컷. 컷 3은 준비와 두 응답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응답(anah)의 비대칭(바알 침묵·여호와 불). 불과 비의 다른 결(표징 vs 언약 성취). 백성의 비워진 침묵. 엘리야가 구한 '마음의 돌아섬'(37절).
7 동영상	가뭄의 길 → 굴에 숨긴 백 명 → '괴롭게 하는 자'의 대면 → 두 사이의 물음 → 종일의 침묵 → 수축한 제단과 부은 물 → 내려온 불과 거듭된 외침 → 처단 → 작은 구름과 큰 비.
8 초별 제목·부제	"두 사이에서 — 갈멜의 불이 한 물음을 한 답으로 끝다"
9 기도·대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한마디도 못 한 지점은 없는지, 응답 없는 것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느라 살을 깎은 곳은 없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권의 물음이 한 답으로 터진 봉우리:**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과 우상으로 길게 기우는 권이다. 12장 이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의 우상이 백성의 마음을 흠어 왔고, 16장에서 아합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이전 모든 왕보다 악을 행한다(16:30-33). 그 긴 내리막의 한복판에서 18장은 권 전체가 길게 물어 온 '누가 참하나님인가'를 한 산 위에서 정면으로 묻는다. 엘리야의 조건은 단순하다 —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18:24). 바알은 종일 침묵하고, 여호와와 불로 답하신다. 그러자 한마디도 못 하던 백성의 입이 열려 거듭 외친다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 이 한 문장이 권의 destination이다. 본문은 분열과 우상으로 흠어진 한 권의 긴 물음이 어떻게 한 답으로 모이든지, 한 번의 불과 한 번의 외침으로 보여 준다.

2. **결 2 —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든 곳에 떨어진 불:** 본문의 갈림길은 응답이다.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조건 아래(18:24),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한다(18:26-29). 격렬할 수록 응답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엘리야는 정반대로 간다 —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뒤, 도랑을 파고 물을 세 번 부어 도랑까지 가득 채운다(18:33-35). 불을 구하는 곳에 물을 붓는다. 응답을 불가능에 가깝게 만든 그 제단 위로, 여호와와 불이 내려 제물과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삼킨다(18:38). 본문은 그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의 격렬한 부르짖음은 침묵을 얻고, 물에 잠긴 제단은 불을 얻는다고 적는다. anah(응답)의 비대칭이 한 장 내내 한쪽으로 기운다.

3. **결 3 — 표징의 불과 약속의 비를 따로 둔 손:** 18장은 불과 비를 따로 둔다. 불(18:38)은 '누가 하나님인가'에 답하는 표징이고, 큰 비(18:45)는 1절의 약속("내가 비를 내리리라")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다. 본문은 불을 받고 백성이 외친 뒤(18:39), 처단을 거쳐(18:40), 그제야 비를 적는다 — 표징이 먼저, 은혜가 뒤에 온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향한 데는 불 자체가 아니라 "이 백성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18:37) 하는 일이다. 17:1에 닫힌 하늘이 18:45에서 다시 열린다. 흠어졌던 마음이 한 외침으로 모이고, 닫혔던 하늘이 비를 내린다 — 표징과 언약을 같은 무게로 겹치지 않고 따로 적되, 둘 다 한 권의 물음을 한 답으로 끌고 가는 그 손의 일임을 본문이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7:1 —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맹세함 — 18장 가뭄·비의 시작점.
- 왕상 16:30-33 — 아합이 바알 제단·아세라 목상을 세워 이전 모든 왕보다 악을 행함 — 대결의 배경.
- 왕상 19:1-18 — 이세벨의 위협·호렙의 세미한 소리·무릎 꿇지 않은 칠천 — 갈멜 직후의 국면.
- 왕상 12:28-30 —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 북왕국 우상의 뿌리, 18장이 맞서는 긴 그림자.
- 신 13:1-5 — 다른 신을 따르게 하는 선지자를 죽이라 — 18:40 처단의 율법 배경.
- 레 9:24 — 회막 앞에 불이 내려 번제물을 사름 — 갈멜의 불이 닿는 옛 표징.
- 왕하 1:9-14 — 하늘에서 불이 내려 오십부장을 사름 — 엘리야 전승의 불의 표징.
- 약 5:17-18 — 엘리야가 기도하매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매 비가 옴 — 18장 기도의 후대 회고.
- 신 11:13-17 — 순종하면 비를, 우상을 따르면 하늘이 닫히리라 — 가뭄·비의 언약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8:1의 '비를 내리리라'에서 시작한다 — 대결 전에 이미 약속된 비, 메마름의 끝을 예고하는 한 말씀 앞에 선다.
- **멈춤 1:** 18:21에서 멈춘다 —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어느 쪽도 버리지 못한 갈린 마음과 한마디도 못 한 침묵을 진다.
- **멈춤 2:** 18:38에서 멈춘다 — '도랑의 물을 훔은지라.'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든 제단 위로 떨어진 불을 진다.
- **끝:** 18:39에서 멈춘다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 한마디도 못 하던 입이 거둬 외친 그 답이 내게도 열리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가뭄 길의 만남(1~16)·대면(17~20)·물음과 침묵(21~29)·수축한 제단과 불(30~39)·처단과 비(40~46)의 다섯 컷 완결
- [x] 약속→성취 수미(1·45)와 응답(anah)의 비대칭·머뭇거림(pasach)의 두 겹 구조
- [x] 무너진 제단과 열두 돌(30~32)·신 11장 가뭄·비 언약과의 다리

- [x]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37·39절)와 권 destination(18:39)의 정박
- [x] 17:1 가뭄 시작·19장 호렙·12장 금송아지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렙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렙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8장은 그 방향의 도착점이 직접 터지는 지점 — destination이 다른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에 있다. 12장 이래 백성의 마음이 금송아지와 바알로 길게 흩어졌고 16장에서 아합이 우상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는데 (16:30-33), 18장에서 그 긴 내리막의 한복판에 한 봉우리가 솟는다. 권 전체가 길게 물어 온 '누가 참하나님인가'에, 갈렙의 불이 답하고 백성의 입이 거둬 외쳐 답한다(18:24·39).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성전 봉헌 기도의 '하늘에서 들으시고'(8장)가 가리킨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열과 우상의 시대에도 한 예언자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임을 백성 앞에 드러내신다 — 권의 intent('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심')가 여기서 가장 또렷이 비친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18장에서는 흩어진 마음을 한 외침으로 모으시고 도랑까지 잠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응답의 결로 온다. 18:39의 봉우리는 17:1의 닫힌 하늘에서 18:45의 큰 비로, 그 너머 19장의 세미한 소리와 칠천의 보존으로 이어지는 긴 호의 정점이며, 그 정점에 이미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을 되돌이키심'이라는 두 칸이 함께 새겨져 있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두 사이의 머뭇거림(18:21)에서 거둬된 한 답(18:39)으로, 종일의 침묵(18:29)에서 내려온 불(18:38)로, 메마름(18:1)에서 큰 비(18:45)로 / 닫힌 하늘에서 열린 하늘로 — 그 봉우리 한가운데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구하고 응답하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8장은 권 전체가 길게 물어 온 '누가 참하나님인가'를 한 답으로 터뜨리는 운동이다. 가뭄의 길(1~16절)이 대면과 소집으로(17~20절), 두 사이의 물음과 종일의 침묵으로(21~29절), 수축한 제단과 내려온 불로(30~39절), 처단과 작은 구름과 큰 비로(40~46절) 빠져나간다. 그러나 18장이 끝나도 권은 닫히지 않는다 — 큰 승리 뒤의 흔들림과 호렙의 세미한 소리는 19장에서 오고, 아합의 전쟁과 끝은 그 너머에 있다. 18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갈렙의 불로'(18:39) 끌고 가는 호의 도착점 그 자체이며, 그 호 전체가 흩어진 마음(12:28 → 18:21)을 '종일 침묵하는 우상이 아니라 불로 응답하시고 닫힌 하늘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 쪽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극적인 능력 대결이다 — 누가 부르짖었고, 누가 침묵했고,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졌고, 끝내 비가 어떻게 왔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갈린 마음을 한 분께로 모으시는 손이다. 엘리야의 기도가 구한 것은 불 자체가 아니라 "이 백성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18:37) 하는 일이다. 불은 수단이고, 향하는 데는 마음의 돌아섬이다. 12장 이래 금송아지와 바알로 흩어진 마음이, 갈렙에서 잠시 한 외침으로 모인다(18:39). 둘째,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침묵하는 우상의 대비다. 본문은 바알을 길게 비판하지 않는다. 다만 사백오십 인이 종일 부르짖고 몸을 상하게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18:29)다고 적고, 엘리야의 짧은 기도에는 불로 응답하신다고 적는다 — 한 분은 응답하시고, 한쪽은 끝내 침묵한다. 셋째, 약속을 끝내 이루시는 언약의 성실하심이다. 비는 갈멜의 불을 흥정해 얻어낸 보상이 아니다 — 1절에서 이미 약속됐다. 표징(불)이 물음에 답하고, 그 뒤에 약속(비)이 이루어진다. 본문은 어리석음과 우상과 머뭇거림을 나란히 둘 뿐, 마음이 돌아선 그 외침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18장 안에서 풀지 않고 한 산의 하루로만 둔다 — 그 지속은 19장으로 이월된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느 쪽도 분명히 택하지 못한 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한마디도 내놓지 못한 지점은 없는가 — 응답하시는 분을 알면서도 다른 안전 하나를 곁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결은. 그리고 나는 응답 없는 것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느라 제 살을 깎아 온 곳은 없는가 — 도랑까지 물이 차도 끝내 응답하시는 그 손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뜨거운 신앙인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두 사이에서 어느 쪽도 버리지 못한 채 한마디도 못한 백성을 보여 주고,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신을 향해 몸을 상하게 한 사백오십 인을 보여 주고,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든 제단 위로 끝내 떨어진 불을 보여 주고, 그 불 앞에 엎드려 거듭 외친 한 답(18:39)을 새겨 둔다. 머뭇거림과 침묵과 응답이 한 산 위에 나란히 놓인 이 봉우리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두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응답 없는 것을 향해 살을 깎고 있는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도랑까지 잠긴 제단에도 불을 내리시고 닫힌 하늘을 다시 여시는 그 손을 정말 신뢰하는지 비춰 보는 일. 한 권이 길게 물어 온 '누가 참하나님인가'가 한 산 위에서 한 답으로 터지는데 — 그 답 곁에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18:37) 구하시고 흠어진 입을 한 외침으로 모으시는 분이 계신다. 그 봉우리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갈멜의 큰 승리 직후 —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사람을 보내고, 지친 한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쳐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니(19:4), 18장의 봉우리에서 외쳐진 답이 곧바로 한 사람의 흔들림과 호렙의 세미한 소리 앞에 서게 된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nah* — 응답하다.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가뭄에 갈라진 길. 자막 — 많은 날이 지나고 제삼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과 오바댜가 물 근원과 시내를 찾아 풀을 얻으려 나뉘어 다닙니다. 오바댜가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 엎드립니다. 자막이 흐릅니다 — 오바댜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더라. 그러나 그는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말합니다 — 당신이 떠나면 내가 죽으리이다. 화면이 대면으로 옮겨 갑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답합니다 —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라, 이는 당신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화면이 갈멜산으로 오릅니다.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인이 모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묻습니다 —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조건을 겁니다 — 두 송아지를 주어 각기 잡아 나무 위에 놓되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 선지자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부르짖습니다 —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빈정댁니다 —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와 제단을 수축합니다. 야곱의 아들 곧 이스라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열두 돌을 취해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통에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여, 세 번 거듭 붓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찹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나아와 기도합니다 —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막 — 이에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훔은지라.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외칩니다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끌어 내려 거기서 처단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가 갈멜 꼭대기에 올라 땅에 꿇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환을 일곱 번 보냅니다. 일곱 번째에 사환이 말합니다 —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검어지고 큰 비가 내립니다. 여호와와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메마른 가뭄의 길에서 열려, 굴에 숨긴 백 명과 두려운 오바다를 지나, '괴롭게 하는 자'의 뒤집힌 대면과 '두 사이'의 물음을 거쳐 — 종일 응답 없는 부르짖음과 수축한 제단과 도랑에 부은 물, 끝내 내려온 불과 거듭된 외침, 처단과 작은 구름과 큰 비, 빗속을 달리는 사람으로 달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두 사이에서 — 갈멜의 불이 한 물음을 한 답으로 끓다"

P02 이진우: "누가 응답하는가 — 종일의 침묵과 한 번의 불"

P04 최현국: "메마른 길에서 빗속까지 — 한 산이 한 권의 물음에 답하다"

P05 김미영: "도랑에 부은 물 —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든 제단 위로 떨어진 불"

P07 오지혜: "한마디도 못 하던 입 — 엎드려 거듭 외치다"

P11 나경아: "*pasach · anah* — 머뭇거림이 응답 앞에서 무너지다"

부제 제안: "삼 년 가뭄 끝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온 백성과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인을 모으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18:21) 물으니 — 바알이 종일 응답하지 않고, 엘리야가 도랑에 물을 세 번 부은 뒤 기도하매 여호와와 불이 내려 도랑의 물까지 삼키니, 온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 외치고, 작은 구름이 올라 큰 비가 쏟아지는 — 권 전체의 물음이 한 답으로 터지는 봉우리"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두 사이에서 한마디도 못 하던 그 백성 곁으로, 그리고 응답 없는 신을 향해 종일 부르짖던 그 사백오십 인 곁으로, 또 도랑에 물을 부으며 응답을 구한 그 사람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두 사이에서 어느 쪽도 버리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 하던 입을 보았습니다 — 그 입이 끝내 한 분을 거둬 외치는 입으로 바뀌는 것도요. 그리고 응답 없는 것을 향해 종일 부르짖으며 제 몸을 상하게 하던 격렬함과,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도 짧게 간구한 한 기도를 나란히 보았습니다. 제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정작 한마디도 내놓지 못한 지점은 없는지, 응답 없는 것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느라 살을 깎아 온 곳은 없는지를 들고 머물겠습니다. 도랑까지 물이 차도 끝내 응답하시는 그 손에 기대어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8장은 두 사이의 머뭇거림에서 한 답의 외침으로, 메마름에서 큰 비로 움직여요. 1~16절이 가뭄 길의 만남, 17~20절이 대면과 소집, 21~29절이 물음과 바알의 침묵, 30~39절이 여호와와의 응답, 40~46절이 처단과 비예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16장이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이에요. 권의 향방은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고요 — destination이 다른 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이에요. 12장 이래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길게 기울어 왔는데, 18장은 그 긴 내리막의 한복판에서 권 전체의 물음이 한 답으로 터지는 봉우리예요. 17:1에 닫힌 하늘이 18:45에서 다시 열려요. 권은 여기서 자기 척추의 도착점을 한 번 또렷이 보여 줘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8:21의 *pasach*(머뭇거리다)와 18:39의 *YHWH hu haElohim*(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이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갈린 마음이 한 답으로 끊겨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anah*(응답하다)예요 — 바알은 종일 응답하지 않고(26-29절), 여호와와는 불로 응답하세요(38절). 누가 응답하느냐 하나로 두 신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또 하나, *esh*(불 38절)와 *geshem*(큰 비 45절)이 따로 와요 — 불은 '누가 하나님인가'에 답하고, 비는 1절의 약속(*geshem*을 주리라)을 이뤄요. 표징과 언약의 성취가 한 장에 나란히, 그러나 따로 놓여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극적인 능력 대결이에요 — 누가 불을 내리느냐.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갈린 마음을 한 분께로 되돌아키시는 손 같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구한 건 불 자체가 아니라 "이 백성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37절) 하는 거였어요. 불은 수단이고, 향하는 데는 마음의 돌아섬이에요. 권 전체로 보면 12장 이래 백성의 마음이 금송아지와 바알로 길게 흩어져 왔는데, 갈멜에서 그 흩어진 마음이 잠시 한 외침으로 모여요(39절). 18:39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는 한 권이 길게 물어온 '누가 참하나님인가'에 백성의 입이 스스로 내놓은 답이에요. 사람이 두 사이에서 절뚝거리든, 끝내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그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백성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데(21절), 본문은 그 갈림을 비난하기보다 한 물음으로 마주 세워요. 그리고 더 큰 긴장은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든 곳에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 엘리야가 도랑까지 물을 가득 부었는데(35절), 그 물까지 불이 훑어요(38절). 불가능을 더 불가능하게 만든 곳에 응답이 떨어지는 긴장이에요. 또 하나, 갈멜의 외침과 그 뒤의 일 사이에도 긴장이 남아요 — 백성이 엎드려 외쳤지만(39절), 바로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쳐 죽기를 구해요(19:4). 한 번의 큰 외침이 곧바로 혼

들림으로 이어지는, 그 긴장을 18장은 안에서 다 풀지 않아요. 봉우리에서 터진 답이 어디로 갈지는 권을 더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메마른 길에서 빗속의 길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삼 년 닫힌 하늘 아래 숨던 길(4절)이 공개 대결의 산으로 오르고(20절), 종일의 침묵을 지나(29절) 불이 내리고(38절), 마침내 작은 구름에서 큰 비로 하늘이 열려요(44~45절). 그리고 18장이 끝나도 권은 닫히지 않아요 — 19장에서 그 큰 승리 뒤의 흔들림과 호렙의 세미한 소리가 오고, 20~22장에서 아합의 전쟁과 끝이 이어져요. 18장은 권의 봉우리이되 종착이 아니에요. 한 산의 대결이 한 권의 물음에 답을 주는 결정적 굽이예요. 닫혔던 하늘이 다시 비를 내리고, 흠어졌던 입이 한 답으로 모이는 그 봉우리를 18장이 들고 있어요.

P05 김미영: 이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느냐 물으시니 — 저는 21절이 불씨 같아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그 물음이에요. 백성은 여호와와 바알도 끝내 버리지 못하고 갈린 채 서 있었어요. 저는 큰 배교보다, 어느 쪽도 분명히 택하지 못한 채 두 사이에서 절뚝거리는 그 마음이 더 가까워요.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을 알면서도 다른 안전 하나를 곁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결이요. 제가 지금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한마디도 내놓지 못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도량까지 물이 차도 응답하시는 그 손을 정말 신뢰하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두 사이의 머뭇거림에서 거둬온 한 답으로, 종일의 침묵에서 내려온 불로, 메마름에서 큰 비로 — 그러나 그 봉우리 한가운데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구하시고 닫힌 하늘을 다시 여시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갈멜의 큰 승리 직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지친 한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쳐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습니다.

열왕기상 1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8:21 — 백성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한마디도 답하지 못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엘리야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분명히 물었는데(여호와면 그를, 바알이면 그를 21절),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본문은 그 침묵의 속내를 적지 않는다 — 두려움인지, 갈팡질팡인지, 답하기 싫어서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 침묵을 '결단 부족의 교훈'으로 닫지 않고, pasach 어근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21절)는 사실, 비워진 속내로만 보존.

Q2. 18:24·26·29·38 — '응답하다(anah)'가 한쪽으로만 기운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조건(24절) 아래, 바알은 종일 '응답하는 자도 없고'(26·29절), 여호와만 불로 응답하신다(38절). 같은 동사가 한쪽엔 침묵으로 한쪽엔 불로 온다. 이 비대칭을 '능력 대결의 신학'으로 일관화하지 않고, anah 동사의 거둬짐과 두 진영의 대비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8:33-35 — 불을 구하면서 도량까지 물을 세 번 부은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엘리야가 응답을 더 어렵게 만든다 —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세 번 부어 도량까지 채운다. 본문은 그 까닭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거꾸로 된 행동을 '민심의 시위'로 닫지 않고, mayim·tealah 어휘와 '도량의 물을 끓은지라'(38절)는 형태로만 보존 — 응답이 클수록 더 불가능한 조건을 세운 그 한 칸의 걸은 풀지 않는다.

Q4. 18:37 — 엘리야가 구한 것이 불이 아니라 '마음의 되돌이키심'인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그 중심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37절)다. 그가 구한 건 불 자체가 아니라 백성의 삶과 돌아섬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돌아섰는지, 39절의 외침이 오래 갖는지는 19장에 가서 다른 결로 비춰진다. 이 거리를 '회심의 도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기도가 향한 데와 그 뒤의 비춰지지 않은 거리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8:39 —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가 거듭 외쳐진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한마디도 못 하던 백성(21절)이 불을 보고 엎드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 권 전체가 길게 물어 온 '누가 참하나님인가'에 백성의 입이 스스로 내놓은 답이다. 이 외침을 '신앙고백의 완성'으로 단지 않고, 거듭된 한 문장(37·39절)과 침묵에서 외침으로 가는 변화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그 외침의 지속은 권을 더 읽으며 이월.

Q6. 18:38 vs 18:45 — '불'과 '큰 비'를 본문이 따로 둔 것을 어떻게 두는가?

- 불(38절)은 '누가 하나님인가'에 답하는 표징이고, 큰 비(45절)는 1절의 약속('비를 내리리라')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다. 본문은 불을 받고 백성이 외친 뒤(39절), 처단을 거쳐(40절), 그제야 비를 적는다. 표징이 먼저, 은혜가 뒤에 온다. 이 둘을 '승리의 보상'으로 한데 묶지 않고, esh와 geshem이 각기 다른 결로 따로 놓인 본문 형태로만 보존.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19장

1KI-019 · 역사서 · 히브리어

갈멜의 큰 승리 직후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 로렘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나 천사가 떡과 물로 두 번 먹여 사십 일을 걸려 호렘에 이르고 —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19:9-13) 두 번 물으심 사이로, 강풍·지진·불이 지나간 뒤 "세미한 소리"(19:12)가 오고, "나만 남았다"는 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19:18)을 일러 주시며 엘리사에게 겹옷을 던지게 하시는 — 봉우리 직후의 골짜기를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결.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이스라엘의 위협(1~2절)→광야 로렘나무 아래(4절)→호렘으로 가는 사십 일 길(8절)→호렘 굴 어귀의 신현(9~13절)→밭(19절)으로 옮겨 다님. 궁정에서 광야로 내려갔다 산으로 올라 다시 사람 곁으로.
- 무대의 방향: 봉우리 직후의 위협을 피해 가장 낮은 광야로 내려갔다가, 먹임에 힘입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 세미한 소리를 거쳐 새 소명의 들판으로 돌아옴.
- 소품: 로렘나무(4~5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6절), 굴(9~13절), 겹옷(13~19절), 열두 겨릿소(19~21절).
- 소품의 옮겨진 결: 갈멜의 불(18:38) — 18장의 응답이던 불이 19:12에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곳으로 적힘.
- 소재의 결: 처음은 탈진·내려감(도망·광야·죽음·잠), 가운데는 먹임·오름(떡·물·사십 일·산), 끝은 세움·부름(세미한 소리·칠천·겹옷·파름).
- 형식 소재: 같은 물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13절)와 같은 답 "나만 남았거늘"(10~14절), 세 번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11~12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봉우리 직후 한꺼번에 떨어진 가라앉음 — 갈멜의 불·외침·큰 비(18장) 직후, 한 위협(2절)에 도망쳐 죽기를 구함(4절).
- 바닥에서 산으로 다시 사람 곁으로 올라오는 결 — 죽음 청함(4)→두 번 먹임(5~7)→사십 일 길(8)→호렘(9)→신현(11)→세미한 소리(12)→새 소명과 동행자(15~21).
- 어둠과 빛이 세 번 갈리는 명암 — 위협·도망의 회색(1~5), 떡과 물의 새벽빛(6~8), 굴 안의 외로움(9~10), 요동치다 잤아드는 신현(11~12), 부름의 환한 낮(19~21).
- 탈진의 말과 묻고 일러 주시는 음성의 마주 봄 —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다"(4절)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13절)·"칠천을 남기리라"(18절).
- 어루만짐("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5·7절)·따뜻한 떡과 물(6절)·요란함 뒤의 고요(11~12절)의 감각.
-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12절) — 바로 앞 장의 불(18:38)이 가장 큰 응답이었던 데서, 불조차 지나가고 그 뒤의 작은 음성이 임재가 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 21절: "엘리사가...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 한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으로 열려, 한 사람이 자기 소를 잡아 작별하고 일어나 따르는 부름으로 닫힘 — 혼자 도망치던 길이 둘이 가는 길로.
- 위협(2절)은 죽이러 오지 않고 말로만 움 — 그 한마디에 갈멜의 사람이 무너져 도망침(3절), 큰 불을 부른 사람이 한 말 앞에 돌아서는 낙차.
- 4절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끝났다는 자기 인식)와 18절 "칠천을 남기리라"(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알림)가 시작·끝 가까이서 마주 섬, 그 사이에 세미한 소리(12절).
- 도망치는 광야의 길(3~4절)에서 일하는 밭(19절)으로 — 가장 낮은 데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 데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전 과정.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엘리야(도망치고·죽기를 구하고·먹임을 받고·사십 일을 걷고·굴에 들고·두 번 "나만 남았다" 답하고·세미한 소리에 얼굴을 가리고·보냄을 받고·겂옷을 던짐), 이세벨(사신을 보내 죽이겠다 위협 1~2절), 천사(어루만져 두 번 떡과 물로 먹임 5~7절), 엘리사(밭 갈다 겂옷을 받고 소를 잡아 작별하고 일어나 따름 19~21절), 하사엘·예후(기름 부음의 대상 15~16절), 무대 한가운데의 여호와(두 번 물으시고·신현으로 지나가시고·세미한 소리로 임하시고·칠천을 일러 주시며 세 사람을 세우게 하심).
- 중심 사상: '나만'과 '칠천' — 엘리야는 두 번 "나만 남았다" 말하고(10·14절), 여호와는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으로 마주하심(18절). 본문은 외로움을 거짓이라 하지 않고 보지 못한 칠천을 알려 줌.
- 내려감과 다시 세움의 연쇄: 위협(1~3 도망)→바닥(4~5 죽음 청함·잠)→먹임(5~8 두 번 떡·물·사십 일)→신현(9~13 두 물음 사이의 세미한 소리)→다시 세움(15~18 보냄·칠천)→계승(19~21 엘리사).
- 임재와 위임의 다른 결: 세미한 소리(11~12절)는 임재의 결, 그 뒤 말씀(15~18절)은 구체적 보냄과 칠천 — 본문이 따로 적음.
- 겂옷의 두 쓰임(13·19절): 세미한 소리 앞에서 얼굴을 가림(경외)과 엘리사에게 던짐(소명 계승) — 한 옷이 임재 앞과 부름의 자국에 각기 놓임.
- qol demamah daqqah(세미한 소리 12절)와 sheva alafim(칠천 18절): 한 사람의 외로움을 마주하는 두 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절): 위협과 도망 —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함(1),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네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 같이 하리라" 위협(2), 엘리야가 생명을 위해 도망쳐 브엘세바에 종을 둠(3).
- 컷 2 (4~8절): 로렘나무 아래의 죽음 청함과 천사의 떡 — 하룻길을 들어가 로렘나무 아래 "내 생명을 거두 시웁소서" 구하고 잠들(4~5), 천사가 어루만져 숯불의 떡과 물을 두 번 먹이며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6~7), 일어나 걸음(8).
- 컷 3 (8~10절): 사십 일 길과 호렘의 굴 — 밤낮 사십 일을 걸어 호렘에 이름(8), 굴에 들때 말씀이 임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10).

- 컷 4 (11~13절): 세미한 소리 — 산에 서라 하심(11), 바람·지진·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11~12),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섬, 다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12~13).
- 컷 5 (14~21절): 칠천의 일러 주심과 엘리사의 부름 — 다시 "나만 남았다"(14), 하사엘·예후·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보내심(15~17), "칠천을 남기리라"(18), 엘리사에게 겹옷을 던지매 소를 잡아 작별하고 일어나 따름(19~21).
- 컷 4의 경첩 위치: 내려감과 길(컷 1·2·3)과 다시 세움(컷 5) 사이, 신현이 끼어들 — 산에 서라(11)→세 번의 '아니'(11~12)→세미한 소리(12)가 칠천과 새 소명으로 풀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nefesh*(נֶפֶשׁ) — 생명·목숨(2·3·4·10·14절). 노려지고·거두어 달라 구해지고·빼앗으려 한 것으로 거듭됨. / *rothem*(רֹתֵם) — 로템나무(4·5절).
- *malach*(מַלְאָךְ) — 천사·사자(5·7절). 두 번 어루만져 먹임. / *ugah*(וּגָה) — 구운 떡 / *retsafim*(רֵצִיףִים) — 숯불·달군 돌 / *tsappachath*(צַפְחָת) — 물병(6절).
- *choreph*·호렘(חֹרֵם) — 하나님의 산(8절). 모세가 신현을 본 곳. / *mearah*(מְעָרָה) — 굴(9·13절).
- *ruach*(רוּחַ) — 바람 / *raash*(רָאשׁ) — 지진 / *esh*(אֵשׁ) — 불(11~12절). 세 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요란함.
- *qol demamah daqqah*(קוֹל דְּמָמָה דַּקָּקָה) — 세미한 소리·고요하고 미세한 음성(12절). / *addereth*(אֲדָרֶת) — 겹옷·털옷(13·19절).
- *sheva alafim*(שֵׁבַע אֲלָפִים) — 칠천(18절). '나만'의 반대편. / *mashach*(מָשַׁח) — 기름 붓다(15~16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위협·도망(1~3) + 로템나무·먹임(4~8) + 호렘·물음(8~10) + 신현·세미한 소리(11~13) + 칠천·계승(14~21) — 내려감이 신현을 거쳐 다시 세움으로 펼쳐지는 구조.
- 두 문답의 수미(9~10·13~14): 같은 물음("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과 같은 답("나만 남았다")이 신현을 한가운데 끼움 — 형태 관찰.
- 세 번의 '아니'(11~12): 바람·지진·불에 똑같이 붙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그 뒤에 세미한 소리 — 부정의 반복이 한 긍정으로 기웁.
- 불의 두 결: 18:38의 응답하는 불과 19:12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불 — 같은 소재가 한 장 뒤에서 다른 결로 적힘. 형태 관찰.
- '나만'(ani levaddi 10·14절)과 '칠천'(sheva alafim 18절)의 대비: 인식과 사실이 마주 서되 곧바로 화해되지 않음 — 형태로만 둬.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로템나무 — 광야의 싸리·금작화류 관목으로 그늘과 숯의 재료. 4절 그 아래 앉음과 6절 숯불에 구운 떡의 배경.
- 호렘·하나님의 산 — 시내(시나이)와 같은 산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신현을 본 곳. 8절 여정의 목적지와 11절 신현의 배경.
- 사십 주야 — 모세의 사십 일(출 24·34)과 광야 사십 년을 환기하는 정형 기간. 8절 호렘 여정의 배경.

- 겔옷(addereth) — 예언자의 권위·소명을 표상하는 털옷. 13절 얼굴을 가림과 19절 엘리사에게 던짐의 배경.
- 밭 가는 열두 겨릿소 — 큰 농가의 표지. 19절 엘리사의 형편과 21절 소를 잡아 작별함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호렘의 굴·신현을 모세가 바위 틈에서 영광을 본 출 33:22과 겹쳐 읽되, 엘리야의 굴을 그 바위 틈과 잇대어 봄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19:1 ↔ 왕상 18:40-46 (갈멜의 처단과 빗속을 달림 — 도망 직전의 봉우리)
- 왕상 19:10-14 ↔ 왕상 18:22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은 여호와'의 선지자' — '나만 남았다'의 앞 자취)
- 왕상 19:9-13 ↔ 출 33:18-23 (모세가 바위 틈에서 여호와와 영광을 봄 — 호렘 굴·신현의 옛 표징)
- 왕상 19:8 ↔ 출 24:18-34:28 (모세가 사십 주야 산에 있음 — 사십 일 여정의 메아리)
- 왕상 19:4 ↔ 민 11:15 (모세가 '나를 죽여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구함 — 죽기를 구함의 옛 결)
- 왕상 19:4 ↔ 온 4:3-8 (요나가 '내 생명을 거두소서' 구함 — 지친 예언자의 같은 어구)
- 왕상 19:18 ↔ 롬 11:2-4 (바울이 엘리야와 칠천을 인용해 '남은 자'를 말함 — 후대 회고)
- 왕상 19:19 ↔ 왕하 2:8-14 (겔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가 요단을 가름 — 소명 계승의 다리)
- 왕상 19:11-12 ↔ 신 4:11-12 (호렘에서 불 가운데 음성이 들리되 형상은 없음 — 신현의 옛 결)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갈멜의 비가 그친 이스라엘. 자막 —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이르되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갈멜에서 불을 부른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친다. 브엘세바에 종을 두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간다. 한 로렘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한다 —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가 그 나무 아래 누워 잠든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진다 —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다. 그가 먹고 다시 눕는다. 천사가 다시 어루만진다 —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음식의 힘으로 그가 밤낮 사십 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른다.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문다. 여호와와 말씀이 임한다 —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답한다 —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한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한다. 자막 —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겔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선다. 음성이 다시 임한다 —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똑같이 답한다 —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 너는 네 길을 돌이켜 다메섹 광야로 가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밭 가는 엘리사를 만난다. 그가 열두 겨릿소 앞에서 밭을 갈고 있다. 엘리야가 그의 겔옷으로 지나며 겔옷을 그의 위에 던진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달려와 작별을 청하고, 한 겨리 소를 잡아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이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든다.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세미한 소리 — 봉우리 직후의 골짜기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다"
- 초벌 부제: "갈렐의 큰 승리 직후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 로렘나무 아래 '내 생명을 거두 시웁소서'(19:4) 죽기를 구하나, 천사가 떡과 물로 두 번 먹여 사십 일을 걸려 호렘에 이르고 — '네가 어찌 하여 여기 있느냐'(19:9-13) 두 번 물으심 사이로 강풍·지진·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19:12)가 오며, '나만 남 았다'는 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19:18)을 일러 주시고 엘리사에게 겹옷을 던지게 하시는 — 봉우리 직후의 골짜기를 작은 음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efesh·rothem·malach·ugah·retsafim·tsappachath·mearah·ruach·raash·esh·qol_demamah_daqqah·addereth·sheva_alafim 등 13+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 문답의 수미 + 세 번의 '아니' + 불의 두 결 + ANE 로렘나무·호렘·사십 주 야·겹옷·열두 겨릿소)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9:4의 죽기를 구함을 '믿음의 실패'나 '우울의 진단'으로 닫지 않고, '조상들보다 낮지 못하니이다'(4절)는 말과 봉우리 직후의 바닥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무너진 동기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19:12의 세미한 소리를 '조용한 임재가 옳다'는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세 번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와 그 뒤의 한 어구(qol demamah daqqah)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요란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닫지 않음.
- 19:9-13의 두 물음과 10-14의 두 답을 '회복의 단계'로 도식화하지 않고, 신현을 사이에 둔 같은 문답의 반복이라는 형태로만 둬. 신현이 곧바로 답을 바꾸지 않은 점을 사실로 보존.
- 19:18의 칠천을 '남은 자 신학'으로 끌어가지 않고, '나만'(10-14절)의 반대편에 놓인 한 수와 '무릎 꿇지 아니한'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엘리야가 그 알림 뒤에도 같은 말을 한 거리도 그대로 둬.
- 19:19-21의 겹옷과 엘리사를 '계승의 모범'으로 닫지 않고, 한 옷의 두 쓰임(13-19절)과 소를 잡아 작별하고 따른 동작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권을 더 읽으며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19장은 갈멜의 큰 승리 직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는 네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19:2) 위협하매 엘리야가 도망쳐 로렘나무 아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19:4) 죽기를 구하나, 천사가 어루만져 숯불의 떡과 물을 두 번 먹이며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19:7) 하니 그 힘으로 사십 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고 — 굴에 든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19:9) 물으심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19:10) 답하매, 산에 서라 하시니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19:12)가 와 그가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니, 같은 물음(19:13)에 같은 답(19:14)을 하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을 남기리라"(19:18) 일러 주시며 하사엘·예후·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보내시고, 밭 갈던 엘리사에게 겹옷을 던지매 그가 소를 잡아 작별하고 일어나 따르는, 봉우리 직후의 골짜기를 작은 음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권의 결이다.

한 문단: 갈멜의 비가 그친 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겠다 위협한다. 불을 부른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나 도망친다. 광야로 더 들어가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한다 —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가 잠들자 천사가 어루만진다 — 일어나 먹으라. 머리맡에 떡과 물이 있다. 천사가 다시 어루만진다 —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그 힘으로 그가 사십 일을 걸어 호렘에 이르러 굴에 든다. 말씀이 임한다 —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만 남았다, 그가 답한다. 산에 서라 하시니 바람이 바위를 부수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도 불도 그러하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온다. 엘리야가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다시 물으신다 —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만 남았다, 그가 똑같이 답한다. 여호와께서 다메섹으로 가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보내시고, 일러 주신다 —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을 남기리라. 엘리야가 밭 가는 엘리사에게 겹옷을 던지고, 엘리사가 소를 잡아 작별한 뒤 일어나 따른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위험의 궁정→광야 로렘나무→사십 일 길→호렘의 굴→밭으로 옮겨 다니는 무대. 로렘나무·떡과 물·굴·겹옷·열두 겨릿소의 소품 — 탈진·내려감에서 먹임·오름을 거쳐 세움·부름으로 기우는 소재. 18장의 불은 '계시지 않은 곳'으로 옮겨 적힘.
2 첫 느낌·분위기	봉우리 직후 한꺼번에 떨어진 가라앉음. 바닥에서 산으로 다시 사람 곁으로 올라오는 결. 탈진의 말과 묻고 일러 주시는 음성의 마주 봄. 불 후에 오는 세미한 소리(12절).
3 시작과 끝	생명을 노리는 위협(2절)으로 열려 한 동행자가 일어나 따름(21절)으로 닫힘. 4절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과 18절 '칠천' 사이에 세미한 소리(12절)가 새겨짐.
4 등장인물·사상	도망치고 죽기를 구하고 다시 세워진 엘리야. 위협하는 이세벨. 두 번 어루만져 먹인 천사. 밭에서 일어나 따른 엘리사. 무대 한가운데의 여호와. 진단의 중심은 '나만'과 '칠천'(10·14·18절).
5 장면 컷	위험과 도망(1~3)/로렘나무와 천사의 떡(4~8)/사십 일 길과 호렘의 굴(8~10)/세미한 소리(11~13)/칠천과 엘리사(14~21) 5컷. 컷 4는 바닥과 새 소명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의 세 겹과 그 뒤의 세미한 소리. 신현을 사이에 둔 같은 두 문답. 큰 말씀보다 먼저 온 두 번의 떡. 불의 두 결(18:38 응답 vs 19:12 부재).

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위협 → 도망과 로렘나무 아래의 죽음 청함 → 두 번의 어루만짐과 떡·물 → 사십 일 길과 호렘 → 바람·지진·불을 지나 오는 세미한 소리 → 칠천과 새 소명 → 밭에서 일어나 따르는 엘리사.
8 초벌 제목·부제	"세미한 소리 — 봉우리 직후의 골짜기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다"
9 기도·내면	끝났다 여기며 누운 어떤 골짜기에서도 다그침이 아니라 먼저 닿는 그 손이 있는지, '나만'에 같은 말로 답하지 않으신 그 결을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봉우리 직후에 곧바로 붙은 골짜기:**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의 불과 거둬진 외침과 큰 비로 권의 봉우리를 이뤘다. 그런데 19장은 그 봉우리 바로 다음에, 한 위협의 말(19:2) 앞에서 같은 사람이 무너져 도망쳐 죽기를 구하는 골짜기를 붙여 둔다(19:4). 본문은 그 낙차를 매끄럽게 잇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적는다 — 갈멜에서 불을 부른 입이 로렘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구하는 입과 한 장 차이로 놓인다. 큰 승리가 곧바로 흔들림을 막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한 예언자의 등을 통해 정직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여호와와 응답이 가르침이 아니라 먼저 잠과 떡으로 온다(19:5-7) — 책망보다 어루만짐이, 큰 말씀보다 음식이 먼저다.

2. **결 2 — 요란함을 지나 오는 세미한 소리:** 본문의 굵이는 호렘의 신현이다. 여호와께서 산에 서라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도 불도 그러하다(19:11-12).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가 세 번 똑같이 붙는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19:12). 바로 앞에서 붙은 여호와와 응답이었는데(18:38), 여기서 그 불조차 지나가는 것이 되고, 그 뒤의 작은 음성이 임재가 된다. 본문은 요란함을 깎아내리지도, '조용함이 옳다'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 다만 큰 권능의 표징들을 세 번 부정한 뒤, 임재의 결을 다른 데로 옮겨 가리킨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린다(19:13). 큰 불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음성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그 동작을, 본문이 들고 있다.

3. **결 3 — '나만 남았다'에 '칠천'으로 답하시는 손:** 19장은 한 사람의 외로움이 거둬지는 장이다. 엘리야는 신현 앞에서도 뒤에서도 똑같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19:10·14) 답한다. 세미한 소리가 그의 말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호와와 응답은 같은 말을 되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한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다 —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을 남기리라"(19:18). '나만'(ani levaddi)이라는 인식의 반대편에 '칠천'(sheva alafim)이라는 수가 놓인다. 본문은 엘리야의 외로움을 거짓이라 하지 않고, 다만 더 큰 그림을 일러 준다. 그리고 그 알림 뒤에 새 소명과 한 동행자가 온다(19:15-21) —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 변함없이 일을 맡기고, 혼자자던 길에 엘리사를 붙이신다. 17:1에 닫힌 하늘을 18:45에서 다시 여신 그 손이, 19장에서는 끝났다 누운 한 사람을 작은 음성과 칠천으로 다시 세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8:40·46 — 갈멜의 처단과 빗속을 달림 — 19장 도망 직전의 봉우리.
- 왕상 18:22 —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은 여호와와 선지자' — 19:10·14 '나만 남았다'의 앞 자취.
- 출 33:18-23 — 모세가 바위 틈에서 여호와와 영광을 봄 — 호렘 굴·신현의 옛 표징.
- 출 24:18·34:28 — 모세가 사십 주야 산에 있음 — 19:8 사십 일 여정의 메아리.
- 민 11:15 — 모세가 '나를 죽여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구함 — 죽기를 구함의 옛 결.
- 욥 4:3·8 — 요나가 '내 생명을 거두소서' 구함 — 지친 예언자의 같은 어구.
- 롬 11:2-4 — 바울이 엘리야와 칠천을 인용해 '남은 자'를 말함 — 19:18의 후대 회고.

- 왕하 2:8-14 — 겔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가 요단을 가름 — 소명 계승의 다리.
- 신 4:11-12 — 호렙에서 불 가운데 음성이 들리되 형상은 없음 — 신현의 옛 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19:4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에서 시작한다 — 봉우리 직후에 끝났다 누운 한 사람의 가장 낮은 말 앞에 선다.
- **멈춤 1:** 19:7에서 멈춘다 —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큰 말씀보다 먼저 온 두 번의 어루만짐과 떡을 준다.
- **멈춤 2:** 19:12에서 멈춘다 —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요란함을 세 번 지나 오는 작은 음성을 준다.
- **끝:** 19:18에서 멈춘다 —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을 남기리라.' '나만'이라던 말에 일러 주신 그 사실이 내게도 열리는지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위협과 도망(1~3)·로렘나무와 먹임(4~8)·호렙과 첫 물음(8~10)·세미한 소리(11~13)·칠천과 엘리사(14~21)의 다섯 컷 완결
- [x] 두 문답의 수미(9~10·13~14)와 세 번의 '아니'(11~12)·불의 두 결 구조
- [x] 로렘나무·호렙·사십 주야·겔옷과 출 33장·민 11장과 다리
- [x] '세미한 소리'(19:12)와 권 destination(18:39·19:12)의 정박
- [x] 18:40 봉우리·18:22 '나만'의 앞 자취·왕하 2장 겔옷으로 열린 이월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18:39)와 호렙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18장이 destination의 한쪽 봉우리("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면, 19장은 그 destination의 나머지 절반 — 호렙의 세미한 소리 — 가 직접 새겨지는 골짜기다. 권의 향방은 한 장에만 있지 않고 18장의 큰 외침과 19장의 작은 음성 둘에 걸쳐 있다. 18장에서 불로 응답하신 분이, 19장에서는 그 불조차 지나가는 것으로 두고 세미한 소리로 임하신다(19:12) — 같은 destination이 한 번은 만인 앞의 큰 표징으로, 한 번은 지친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음성으로 비친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권의 intent('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을 보존하심')가 19장에서 명시적으로 발음된다 — "칠천을 남기리라"(19:18)는 바로 그 보존의 약속이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너그러움과 짝을 이루는 자상함이 19장에서는 지친 엘리야를 먼저 채우고 먹이시고(19:5-7)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우시는 결로 가장 또렷이 온다. 18:39의 봉우리와 19:12의 골짜기는 17:1의 닫힌 하늘에서 18:45의 큰 비로 이어진 호의 두 정점이며, 그 둘 사이에 '큰 표징과 작은 음성', '나만과 칠천'이라는 두 칸이 함께 새겨져 있다.

봉우리 직후의 탈진(19:4)에서 새 소명과 한 동행자(19:21)로, 요란한 바람·지진·불(19:11)에서 세미한 소리(19:12)로, '나만 남았다'(19:10·14)에서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19:18)으로 / 끝났다 누운 데에서 다시 길로 — 그 골짜기 한가운데 큰 말씀보다 먼저 채우고 먹이시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19장은 권의 destination 중 '세미한 소리'(19:12)가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지탱되는지를 보여 주는 운동이다. 위협과 도망(1~3절)이 로렘나무 아래의 죽음 청함과 두 번의 먹임으로(4~8절), 호렘의 굴과 첫 물음으로(8~10절), 요란함을 지나 오는 세미한 소리로(11~13절), 칠천의 일러 주심과 엘리사의 부름으로(14~21절) 빠져나간다. 그러나 19장이 끝나도 권은 닫히지 않는다 — 아합의 전쟁(20장), 나봇의 포도원(21장), 아합의 최후(22장)가 그 뒤에 있다. 19장의 벡터는 권 전체를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큰 불(18:39)과 작은 음성(19:12)으로 드러내며 칠천을 보존하시는' 호의 두 번째 정점이며, 그 호 전체가 끝났다 누운 한 사람(19:4)을 '먼저 먹이시고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고 새 소명으로 일으키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지친 예언자의 도망과 한 신현이다 — 누가 위협했고, 어디로 도망쳤고, 산에서 무엇을 보았고, 끝내 누가 따라나섰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끝났다 누운 한 사람을 책망보다 먼저 돌봄으로 받치시는 손이다. 본문이 보여 주는 순서가 그것을 가리킨다 — 신현(19:11)이 오기 전에 먼저 잠과 떡과 물이 두 번 온다(19:5-7). 큰 말씀보다 어루만짐이 먼저다. 둘째, 임재의 결을 요란함이 아닌 데로 옮기시는 손이다. 바람·지진·불은 큰 권능의 표징이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19:11-12), 그 뒤의 세미한 소리가 임재가 된다. 본문은 큰 표징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임재가 거기에만 있지 않음을 적는다. 셋째, '나만'이라는 인식을 '칠천'이라는 사실로 마주하시는 손이다. 엘리야는 거둬 혼자라 하지만, 여호와와는 보지 못한 칠천을 일러 주신다(19:18) — 사람의 좁은 시야와 하나님의 넓은 보존이 한 굴 어귀에서 마주 선다. 본문은 엘리야의 답이 곧바로 바뀌었는지, 그가 칠천을 받아들였는지는 19장 안에서 풀지 않고, 다만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 새 소명과 한 동행자가 주어졌다고만 적는다 — 그 지속은 권을 더 읽으며 이월된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가장 높은 봉우리 직후에 한마디 위협 앞에서 끝났다 누운 골짜기는 없는가 — 큰 응답을 받고도 곧바로 흔들려 '넉넉하오니 거두소서' 했던 결은. 그리고 나는 큰 표징만 기다리느라, 가장 낮은 데에 먼저 닿는 어루만짐과 작은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적은 없는가 —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그 손을.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강한 사람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갈멜의 불을 부른 사람이 한 위협 앞에서 무너져 죽기를 구한 골짜기를 보여 주고(19:4), 그를 꾸짖기 전에 먼저 채우고 두 번 먹이신 손을 보여 주고(19:5-7), 바람·지진·불을 세 번 지나 오는 세미한 소리를 보여 주고(19:12), '나만 남았다'는 그에게 일러 주신 칠천(19:18)을 새겨 둔다. 봉우리와 골짜기가 한 장 차이로 나란히 놓인 이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큰 응답 직후에 곧바로 무너진 대목이 어디인지 보는 일, 끝났다 여기며 누운 자기 골짜기가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다그침이 아니라 먼저 닿는 손과 요란함이 아닌 작은 음성을 정말 알아듣고 있는지 비춰 보는 일. 한 권이 '누가 참하나님인가'를 큰 불로 답한 뒤, 그 답을 지친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지탱하시는지 작은 음성으로 보여 주는데 — 그 음성 곁에 '칠천을 남기리라'(19:18)

일러 주시고 혼자라던 길에 한 동행자를 붙이시는 분이 계신다. 그 골짜기에 자기를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 엘리사를 얻은 사이 — 무대는 아합과 아람 왕 벤하닷의 전쟁으로 옮겨 가고, 한 선지자가 다시 왕 앞에 서서 여호와와 말씀을 전하니(20장), 19장에서 작은 음성으로 다시 세워진 예언의 목소리가 곧 왕들의 전장 한복판에 다시 울린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qol demamah daqqah* — 세미한 소리.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갈멜의 비가 그친 이스라엘. 자막 —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일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갈멜에서 불을 부른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유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쯤 더 들어갑니다. 한 로렘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여 이릅니다 —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가 로렘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듭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릅니다 —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릅니다 —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 사십 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릅니다. 그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답합니다 —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 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합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합니다. 자막 —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섭니다. 음성이 그에게 임합니다 —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똑같이 답합니다 —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르십니다 —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밭 가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 앞에 열두 겨릿소가 있고 그는 열둘째 겨릿소와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겹옷을 그의 위에 던집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 이릅니다 —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가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듭니다. 페이드아웃.

성령일 선교사: 봉우리 직후의 위협에서 열려, 도망과 로렘나무 아래의 죽음 청함을 지나, 두 번의 어루만짐과 떡과 물과 사십 일의 길을 거쳐 — 호렘의 굴과 같은 두 물음 사이로 바람·지진·불을 지나 오는 세미한 소리, '나만'에 마주 놓인 칠천과 새 소명, 밭에서 일어나 따르는 한 동행자로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세미한 소리 — 봉우리 직후의 골짜기에서 한 사람을 다시 세우다"

P02 이진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 같은 물음 사이의 신현"

P04 최현국: "로렘나무에서 발까지 — 도망친 사람이 한 동행자를 얻기까지"

P05 김미영: "먼저 온 떡과 물 — 큰 말씀보다 먼저 어루만지신 손"

P07 오지혜: "나만 남았다 — 그러나 칠천이 남아 있다"

P11 나경아: "*qol demamah daqqah* — 요란함을 지나 오는 작은 음성"

부제 제안: "갈멜의 큰 승리 직후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 로렘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나, 천사가 떡과 물로 두 번 먹여 사십 일을 걸려 호렘에 이르고 — 강풍·지진·불이 아닌 세미한 소리(19:12)가 오며 '나만 남았다'는 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19:18)을 일러 주시고 엘리사에게 겹옷을 던지게 하시는 — 봉우리 직후의 골짜기를 작은 음성으로 다시 세우시는 결"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큰 승리 직후 한 위협 앞에서 무너져 죽기를 구한 그 사람 곁으로, 그리고 요란함을 지나 세미한 소리를 들은 그 굴 어귀로, 또 '나만 남았다' 두 번 같은 말을 한 그 입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가장 높은 봉우리 직후에 한 위협 앞에서 곧바로 무너져 한 그루 나무 아래 죽기를 구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 그리고 그를 꾸짖기 전에 먼저 채우고 어루만져 떡과 물을 두 번 먹이신 손도요. 큰 말씀보다 먼저 음식이 왔다는 그 순서를 보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뒤에야 세미한 소리가 왔다는 것도요. 제가 끝났다 여기며 누운 어떤 골짜기에서도, 다그침이 아니라 먼저 닿는 그 손이 있는지를 듣고 머물겠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두 번 말한 그에게 같은 말로 답하지 않으시고 칠천을 일러 주신 그 곁에 기대어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 안에 서도 들리고 있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19장은 봉우리 직후의 탈진에서 새 소명으로, 요란함에서 세미한 소리로 움직여요. 1~3절이 위협과 도망, 4~8절이 로렘나무와 먹임, 8~10절이 호렘과 첫 물음, 11~13절이 신현과 세미한 소리, 14~21절이 칠천과 엘리사예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16장이 분열과 남북 왕들,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이에요. 권의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지로다"(18:39)와 호렘의 "세미한 소리"(19:12) 둘이에요 — 18장이 그 답의 한쪽 봉우리라면, 19장은 그 답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지탱되는지를 보여 주는 다른 한쪽 골짜기예요. 18장에서 불로 응답하신 분이, 19장에서는 그 불초차 지나가는 것으로 두고 세미한 소리로 임하세요. 권은 여기서 자기 destination의 나머지 절반을 또렷이 새겨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8:38의 *esh*(불)와 19:12의 *esh*가 같은 말인데 결이 정반대예요 — 18장에서 불은 응답의 임재였고, 19장에서 불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qol demamah daqqah*(세미한 소리)가 와요. 또 한 묶음, 19:10-14의 *ani levaddi*(나만)와 19:18의 *sheva alafim*(칠천)이 마주서요. '나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식과 '칠천'이라는 사실이 한 장 안에서 부딪쳐요. 본문은 둘을 곧바로 화해시키지 않고, 다만 칠천을 일러 주실 뿐이에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지친 예언자의 도망과 신현이에요 — 누가 위협했고, 어디로 도망쳤고, 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끝났다 누운 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손 같아요. 본문이 보여 주는 순서가 그래요 — 큰 책망이나 큰 말씀보다 먼저, 재우고 어루만져 떡과 물을 두 번 먹이세요(5~7절). 그다음 사십 일 길을 가게 하시고, 호렙에서 요란함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고(12절), 그가 여전히 "나만 남았다" 해도(14절) 같은 말로 답하지 않으시고 칠천을 일러 주시며 새 소명과 한 동행자를 붙이세요(18~21절). 권 전체로 보면 18:39의 큰 외침이 한 산의 하루였다면, 19장은 그 외침 뒤에 곧바로 온 흔들림을 본문이 정직하게 적고, 그 흔들림조차 작은 음성과 칠천으로 다시 받치시는 결이에요. 봉우리도 골짜기도 다 끌고 가시는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첫째, 봉우리와 골짜기가 한 장 차이로 붙어 있어요 — 18장의 불과 외침 바로 뒤에 19장의 도망과 죽음 청함이 와요. 본문은 그 낙차를 매끄럽게 잇지 않고 그냥 붙여 뒀요. 둘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온 뒤에도 엘리야의 답이 똑같다는 긴장이에요 — "나만 남았다"가 신현 앞뒤로 같아요(10·14절). 신현이 그의 말을 곧바로 바꾸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여호와와 그 위에 칠천과 새 소명을 엮으세요. 변하지 않은 사람에게 변함없이 일을 맡기시는 그 긴장을 본문은 풀어 설명하지 않아요. 셋째, '나만'과 '칠천' 사이의 긴장이 남아요 — 그가 보지 못한 칠천이 있다는데, 본문은 엘리야가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는 적지 않아요. 그 거리는 권을 더 읽어야 비춰져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도망치는 광야에서 일하는 밭으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가장 높은 봉우리(18장) 직후의 위협을 피해 가장 낮은 로렙나무 아래로 내려가고(4절), 먹임에 힘입어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고(8절), 요란함을 지나 세미한 소리를 듣고(12절), 칠천을 일러 받고(18절), 마침내 밭에서 한 동행자를 얻어요(19절). 그리고 19장이 끝나도 권은 닫히지 않아요 — 20장에서 아합의 전쟁이 오고,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22장에서 아합의 최후가 이어져요. 19장은 갈멜의 봉우리 직후 골짜기를 지나는 굽이이되, 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가장 낮은 데가 세미한 소리와 한 동행자로 받쳐져 다시 길로 들어서는데, 그 결정적 굽이에요. 봉우리에서 터진 답이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지탱되는지를 19장이 들고 있어요.

P05 김미영: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 안에서도 들리느냐 물으시니 — 저는 7절이 불씨 같아요.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는 그 말이요. 큰 말씀보다 먼저 온 두 번의 어루만짐과 떡이요. 저는 큰 응답을 기다리느라, 정작 가장 낮은 데에 먼저 닿는 작은 돌봄을 놓친 적이 많아요. 제가 끝났다 여기며 누운 어떤 골짜기에서도,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다그침이 아니라 어루만짐으로 닿는 그 손을 정말 알아듣고 있는지 — 질문인 채로 쥐고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봉우리 직후의 탈진에서 새 소명으로, 요란함에서 세미한 소리로, '나만 남았다'에서 '칠천이 남아 있다'로 — 그러나 그 골짜기 한가운데 큰 말씀보다 먼저 재우고 먹이시고, 변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변함없이 일을 맡기시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엘리야가 굴에서 나와 한 동행자를 얻은 사이, 무대는 다시 아합과 아람의 전쟁으로 옮겨 가고, 한 선지자의 목소리가 왕 앞에 다시 섭니다.

열왕기상 1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9:4 — 갈멜의 그 사람이 한 위협 앞에서 죽기를 구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불을 부른 사람(18장)이 한마디 위협(2절)에 도망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4절) 죽기를 구한다. 본문은 그 무너짐의 속내를 다 적지 않는다 — 탈진인지, 외로움인지, 두려움인지 어느 하나로 단지 않는다. 이 바닥을 '믿음의 실패의 교훈'으로 단지 않고, 봉우리 직후에 곧바로 온 낙차와 비워진 속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19:5-7 — 큰 말씀보다 먼저 두 번 먹이신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천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어루만져 떡과 물을 먹이며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7절) 한다. 신현(11절)이 오기 전에 먼저 채우고 먹이신다 — 가르침보다 음식이 먼저다. 본문은 왜 두 번인지, 왜 음식이 먼저인지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순서를 '돌봄의 신학'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두 번의 어루만짐과 떡·물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19:11-12 — 바람·지진·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에 임하신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본문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를 바람·지진·불에 세 번 붙인 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12절)고 적는다. 바로 앞 장에서 불은 응답의 임재였는데(18:38), 여기서는 불조차 지나가는 것이 된다. 이 대비를 '조용함이 옳다'는 교훈으로 단지 않고, 세 번의 부정과 qol demamah daqqah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요란함을 깎아내리는 쪽으로도 단지 않는다.

Q4. 19:9-13 vs 19:10-14 — 신현 앞뒤로 같은 물음·같은 답이 반복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9·13절)와 "나만 남았거늘"(10·14절)이 신현을 한가운데 두고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온 뒤에도 엘리야의 답은 같다(14절). 본문은 신현이 그의 인식을 곧바로 바꿨다고 적지 않는다. 이 반복을 '회복의 단계'로 도식화하지 않고, 같은 문답이 신현을 끼운 형태와, 답이 바뀌지 않은 채로 새 소명이 주어진 거리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19:18 — '나만 남았다'는 그에게 '칠천'을 일러 주신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엘리야가 두 번 "나만 남았다"(10·14절) 말하는데, 여호와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칠천"(18절)을 남기리라 하신다. 본문은 그의 외로움을 거짓이라 하지 않고, 다만 보지 못한 칠천을 알려 준다. 이 대비를 '남은 자 신학의 완성'으로 단지 않고, '나만'(ani levaddi)의 반대편에 놓인 한 수와 '무릎 꿇지 아니한'이라는 형태로만 보존.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는 권을 더 읽으며 이월.

Q6. 19:13 vs 19:19 — 겔옷이 얼굴을 가림과 소명을 던짐에 두 번 쓰인 것을 어떻게 두는가?

- 한 겔옷(addereth)이 13절에서는 세미한 소리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데, 19절에서는 엘리사에게 던져 소명을 잇는 데 쓰인다. 본문은 두 쓰임을 한데 묶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한 옷의 두 동작을 '소명 계승의 모범'으로 단지 않고, 임재 앞의 가림과 부름의 던짐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겔옷이 요단을 가르는 데까지 가는 일은 왕하 2장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20장

1KI-020 · 역사서 · 히브리어

아람 왕 벤하닷(⁷⁷⁷77)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두 번 요구하며 두 번 전쟁한다. 선지자가 두 번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20:13·28)고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두 번 이기지만 —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주어 선지자의 책망을 받는다. 왕의 자비가 하나님의 판결(²⁷⁷herem)을 어긴다.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사마리아 성(협상)→두 전쟁터(산 근처 성문 앞·아백 평지)→협상 방(항복·살림)→길가(선지자 책망). 전쟁 승리에서 수심으로 닫힘.
- 소품: 두 번 전갈·장로 조안·선지자 예언 두 번·술잔·굶은 베옷·새끼줄·조약·재(변장). 협상·예언·항복 상징·심판 소품 순.
- 소재 흐름: 포위·협상·거절(1~12)→두 번 전쟁·승리(13~30)→항복·살림·조약(31~34)→선지자 우화·책망·수심(35~43).
- 구조: 두 전쟁의 평행(13~30), 세 선지자의 다른 역할(13·28·35~42).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반전 세 번 — 두 번 군사 반전(승리)·한 번 도덕 반전(책망).
- 긴장 이동 — 아합(포위)→벤하닷(패배)→아합(판결)으로 한 바퀴.
- 빛 두 번(승리) 뒤 협상·책망의 어둠으로 짙어지는 명암.
- 예언 두 번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조 vs 세 번째 선지자의 개인 심판 어조.
- 감각: 술 취한 지휘관·항복 의복·재의 변장과 폭로.
- 43절 — 이기고도 수심이 가득하여 돌아가는 왕.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벤하닷이 군대와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더라.
- 43절: 이스라엘 왕이 수심이 가득하고 괴로워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 외부 포위로 열려 내부 수심으로 닫힘. 군사 승리 뒤 신학 판결로.
- 밖의 에워싸임(1절)이 안의 돌아감(43절)으로 — 공간 대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아합: 수용→거절→두 번 승리→"형제" 살림→책망·수심 귀가.
- 벤하닷: 포위·두 번 요구→두 번 패배→항복·풀려남→조약.

- 익명 선지자 1(13절): 승리 예언 + "여호와인 줄 알리라".
- 익명 선지자 2(28절): 신학 교정 예언 — "여호와는 평지 하나님".
- 익명 선지자 3(35~42절): 변장 우화→폭로→herem 위반 선언→nefesh 교환 판결.
- 장로들(8절): 두 번째 요구 거절 조언.
- 사상: herem 개념(하나님의 전쟁 판결)·이방의 신 영역 제한 오해·"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의 전쟁.

5 장면 컷 분절

- 컷 1 (1~12): 포위·두 번 요구·거절.
- 컷 2 (13~21): 선지자 예언·첫 번째 전쟁·승리.
- 컷 3 (22~30): 경고·두 번째 전쟁(아벡 평지)·승리.
- 컷 4 (31~34): 항복·"형제" 살림·조약 — 경칩.
- 컷 5 (35~43): 변장 우화·폭로·herem 판결·수심 귀가.

6 의문·발견·정보

- 발견: 세 번 등장하는 선지자의 세 다른 역할(승리예언·신학교정·심판선언).
- 발견: 작은 불순종(36절 동료 거부→사자 죽음)과 큰 불순종(herem 위반) 병치.
- 의문: 아합이 살려준 동기가 비어 있음 — 전략인지 자비인지 외교인지 적히지 않음.
- 발견: "여호와인 줄 알리라"(13·28절) 목적과 herem 완성의 연결.
- 배경: 벤하닷 왕조명·굶은 베옷의 항복 의식·brit 조약 내용·herem의 신명기 전쟁 개념.

7 동영상 흐름

벤하닷이 사마리아 포위(1) → 두 번 요구(3·6) → 장로들 거절 조언(8) → 아합 거절(9) → 선지자 등장 예언(13) → 술 취한 벤하닷 장막에 기습(16~17) → 첫 번째 전쟁 승리(20~21) → 선지자 경고(22) → 아람 신하들의 산의 신 분석(23) → 이듬해 봄 아벡 평지 전투(26) → 두 번째 승리(29~30) → 굶은 베옷·새끼줄의 신하들(31~32) → 아합 "형제"라 부르며 살림(33) → 조약 체결(34) → 선지자 변장·우화(35~40) → 재 벗겨 폭로(41) → herem 위반 판결(42) → 아합 수심하여 귀가(43).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두 번 요구하며 두 번 전쟁하되, 선지자가 두 번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20:13·28)고 예언하여 이스라엘이 두 번 이기고 — 첫 전쟁은 성문 앞 기습으로, 두 번째는 "여호와가 평지의 하나님이요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20:28)는 선언을 배경으로 아벡 평지에서 — 아합이 굶은 베옷에 새끼줄을 두른 벤하닷의 신하들 앞에서 "내 형제이니라"(20:32) 불러 살려주고 조약을 맺었다가, 선지자가 변장 우화로 아합 자신의 입에서 판결을 끌어내고 재를 눈에서 벗겨 "이는 네가 나의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מִתְּכָלֵם)을 놓아주었음이라 ... 네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리라"(20:42)고 선언하니, 아합이 수심이 가득하고 괴로워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두 번의 승리가 한 번의 판결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싼다. 두 번 요구한다 — 처음엔 "네 은·금·아내·자녀가 내 것이다", 다음엔 더 가혹하게. 아합이 장로들의 조언을 따라 두 번째 요구를 거절하자 전쟁이 난다. 선지자가 나타나 예언한다 —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벤하닷이 술 취한 장막에서 기습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듬해 봄, 아람 신하들이 분석한다 — "이스라엘의 신들은 산의 신들이라,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선지자가 다시 온다 — "이는 여호와가 평지의 하나님이고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이라." 아백 평지에서 두 번째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이 또 이긴다. 성벽이 무너져 이만 칠천 명이 죽는다. 벤하닷이 굶은 배웃에 새끼줄을 두른 신하들을 보내 살려달라 청한다. 아합이 "내 형제이니라" 불러 살려주고 조약을 맺는다. 선지자가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우화를 말한다 — "내가 포로를 지키다 놓쳤습니다." 아합이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고 판결한다. 재가 벗겨지고 아합이 알아본다. 선지자가 말한다 — "내가 나의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음이라, 네 목숨이 그의 목숨 대신하리라." 아합이 수심이 가득하여 돌아간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사마리아·두 전쟁터·협상 방·길가 네 무대. 전갈·예언·굶은 배웃·새끼줄·재의 소품. 협상·전쟁·항복·책망 순의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반전 세 번(군사 둘·도덕 하나). 긴장 이동(아합→벤하닷→아합). 두 번 빛 뒤 어둠. 수심으로 닫히는 왕.
3 시작과 끝	포위(1절)로 열려 수심 귀가(43절)로 닫힘. 밖의 에워싸임이 안의 짓눌림으로.
4 등장인물·사상	아합(승리→살림→판결), 벤하닷(포위→패배→항복·풀려남), 익명 선지자 셋(승리예언·신학교정·심판선언). herem·nefesh·brit 개념.
5 장면 컷	포위·거절/첫 승리/두 번째 승리/항복·살림(경첩)/우화·판결. 컷 4가 경첩.
6 의문·발견·정보	세 선지자의 세 역할. 작은 불순종·큰 불순종 병치. 아합 동기 비유.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과 herem 연결.
7 동영상	포위→두 번 요구·거절→두 번 전쟁 승리→항복·살림·조약→우화·폭로·herem 판결→수심 귀가.
8 초벌 제목·부제	"네 목숨이 그의 목숨 대신하리라 — 왕의 자비가 하나님의 판결을 만날 때"
9 기도·내면	선한 의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판결을 어긴 것이 될 수 있는가. 외적 승리가 내적 바름을 보장하지 않는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목적의 전쟁:** 두 번의 전쟁 예언은 모두 같은 목적어를 달고 있다 —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20:13·28). 이스라엘의 군사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이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전쟁의 배경이 이방의 신학 오해(산의 신·평지의 신)를 교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전쟁은 신학 선언의 도구로 제시된다. 그리고 herem의 완성까지가 그 "여호와인 줄 아는 것"에 포함된다면,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준 것은 그 인식의 완성을 중단시킨 것이다.
- 결 2 — 왕의 "형제"와 하나님의 herem 사이:** 32절에서 벤하닷의 신하들이 굶은 배웃·새끼줄을 두르고 와서 자비를 구할 때, 아합이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이니라"(20:32)고 말한다. 이 "형제"라는 호칭 하나가 42절의 판결을 만든다 — "이는 내가 나의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음이라." herem은 사람이 번복할 수 있는 군사 명령이 아니다. 왕의 자비는 하나님의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차원 차이가 nefesh 교환 판결로 이어진다는 것 — 이것이 결 2의 중심이다.

3. **결 3 — 선지자 우화와 자기 입에서 나온 판결**: 35~41절에서 선지자가 재를 눈에 붙이고 변장해 우화를 말한다 — 포로를 지키다 놓쳤다는 이야기를. 아합이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고 판결하자, 선지자가 재를 눈에 서 벗겨 아합이 알아보고 42절의 선언이 온다. 자기 입에서 판결이 나온다는 구조 — 나단이 다윗에게 우화를 말했던 방식(삼하 12장)과 같은 문학 구조다. 아합이 선지자를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판결을 먼저 선언하게 된다는 것이, 이 장의 세 번째 선지자 삽화의 핵심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19:15~16 — 엘리야가 하사엘·예후·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임무받음 — 20장의 벤하닷(후에 하사엘이 대신할 아람 왕)과 연결.
- 삼하 12:1~7 — 나단이 다윗에게 우화를 말하고 "왕이 그 사람이라"고 폭로 — 20장 35~42절의 선지자 우화와 같은 구조.
- 신 7:1~2·20:16~17 — herem(완전 봉헌·진멸)의 신명기 전쟁 율법 — 20:42의 herem 위반 판결의 율법적 배경.
- 왕상 21:1~29 —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합의 또 다른 불의 — 20장의 수심(43절)이 21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
- 왕하 8:7~15 — 하사엘이 벤하닷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됨 — 19:15의 기름 부음 임무와 20장 벤하닷의 연결.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0:13의 "내가 오늘 ...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서 시작 — 전쟁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임을 아는 것"이라는 선언 앞에 선다.
- **멈춤 1**: 20:28의 "여호와가 평지의 하나님이요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에서 멈춤 — 이방이 하나님의 권역을 제한하려는 오해와 그 교정을 진다.
- **멈춤 2**: 20:32의 "형제이니라"에서 멈춤 — 이 한 마디가 무엇을 만드느지를 43절과 함께 본다.
- **끝**: 20:42의 herem·nefesh 교환 판결에서 멈춤 — 하나님의 판결과 왕의 자비가 부딪히는 그 결을 들고 간다.

F · 자족성 점검

- [x] 두 번 포위·거절·전쟁 승리·항복·살림·판결·수심 귀가의 흐름 완결
- [x] 두 전쟁 예언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목적과 herem 개념 확인
- [x] 세 선지자의 세 다른 역할 구조 확인
- [x] 나단·다윗 우화 구조와의 비교(삼하 12장)
- [x] 신명기 herem 율법·굶은 배웃 항복 의식·brit 조약 배경 확인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이며 20장은 그 spine의 구체 사례다 — 세 명의 익명 선지자가 한 장 안에서 두 번의 전쟁 예언(13·28절)과 한 번의 herem 심판 선언(42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spine을 이행한다. 19장이 엘리야 개인의 무너짐과 세미한 소리의 회복이었다면, 20장은 이스라엘 왕국 차원의 전쟁과 판결이다. 19장의 heart인 "지친 엘리야를 먹이시고 세미한 소리로 세우시는 자상함"이 19장 배경에 깔린 채, 20장은 그 자상함과 대조되는 무거움 — herem을 어긴 왕에게 nefesh 교환 판결이 오는 무거움 — 을 앞에 둔다. 구속사의 좌표에서 보면, 20장은 19장의 엘리야 임무(하사엘·예후·엘리사 기름 부음, 19:15~16)가 어떤 역사적 맥락 안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

준다 — 아람(하사엘로 교체될), 예후가 칠 아합 왕조, 이 모든 것이 한 전쟁과 한 살림의 결정 안에서 씨앗으로 있다. 20장의 수심(43절)이 21장 나봇의 포도원으로, 그 너머 아합 왕조의 끝으로 이어지는 긴 내리막의 또 다른 단추가 여기서 눌린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포위와 두 번 요구(20:1~12)에서 → 두 번 예언과 두 번 승리(20:13~30)로 → 항복과 "형제" 살림(20:31~34)으로 → herem 위반 판결과 수심 귀가(20:35~43)로 / 군사 승리에서 신학 판결로 /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목적에서 그 목적의 중단이 낳은 nefesh 교환으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20장은 두 번 이긴 승리가 한 선택(살림)을 만나 판결로 전환되는 운동이다. 승리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목적을 향해 두 번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이 herem 완성 직전에 "형제" 한 마디로 멈춘다. 군사 벡터(이겨서 얻는)와 신학 벡터(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사이에서, 왕의 외교 벡터(형제 살림)가 끼어들어 전혀 다른 방향의 nefesh 판결 벡터를 만들어 낸다. 이 장의 운동은 승리에서 수심으로, 또는 외부 위협에서 내부 판결로의 방향 전환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전쟁과 외교의 이야기다 — 포위, 기습, 평지 전투, 항복 협상, 조약. 그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지리적 경계를 넘는다는 선언이다. 이방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고 분석하자, 하나님이 평지에서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심으로 교정한다(28~29절). 여호와의 주권은 이스라엘 영토나 산악 지형에 묶이지 않는다. 둘째, herem의 무게다. 20장의 전쟁은 단순한 방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 대상을 진멸하도록 명령한 성전이었다.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준 것은 개인적 자비나 외교적 선택 이상의 차원 — 하나님의 전쟁 판결을 사람이 반복한 것 — 의 무게를 진다. 셋째, 자기 입에서 나오는 판결이다. 선지자 우화(35~41절)에서 아합이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고 자기 판결을 먼저 선언하게 된다. 판결이 밖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 안에서 이미 그렇게 결론 났다는 것 — 나단-다윗 구조의 이 방식이 수면 아래 움직이는 세 번째 결이다.

J·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형제이니라"고 부를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이 herem이라 부르신 것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 자비와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선한 의도로 한 선택이 실은 하나님의 판결을 어긴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 자기 입에서 먼저 판결이 나오기 전에 — 나는 얼마나 검토하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아합이 악한 의도로 벤하닷을 살려줬다고 말하지 않는다. 동기가 비어 있다. 굶은 베옷·새끼줄 앞에서 "형제"라고 부른 그 순간의 내면을 본문은 적지 않는다. 그러나 42절의 판결은 또렷하다 — herem을 어겼다고. 외적 승리 두 번을 거친 왕이 수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그림 — 이긴 싸움에서 진 결정을 들고 돌아가는 그 결이, 두 번 이겨도 끝이 수심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판결보다 사람의 자비가 먼저 움직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 조용히 그러나 또렷이 — 독자에게 전한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아합이 수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데 — 2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등장하고, 이세벨이 피를 내어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며, 엘리야가 다시 아합 앞에 서서 "네가 죽인 후에 또 빼앗느냐"라고 외치는 — 20장의 수심이 21장의 더 무거운 불의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herem — 진멸하기로 작정한.

미해결 질문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두 번 이기고 한 번 지다 — 전장에서 이긴 왕이 판결에서 수심으로 돌아가다"

P02 이진우: "내 형제 / 나의 진멸하기로 작정한 — 자비와 herem 사이에서 선 아합"

P04 최현국: "여호와와 평지의 하나님 — 이방의 오해를 교정하는 두 번째 전쟁과 살림의 대가"

P05 김미영: "술 취한 장막과 굶은 베퇴 — 두 번 포위하고 두 번 패배한 벤하닷의 이야기"

P07 오지혜: "네 목숨이 그의 목숨 대신하리라 — 왕의 자비가 하나님의 판결을 만날 때"

P11 나경아: "*herem / nefesh* — 진멸 명령을 어긴 자에게 생명이 생명을 대신하다"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두 번 이기고 한 번 판결받은 아합의 귀가 곁으로, 그리고 herem이라는 무거운 단어 앞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줄 때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이 걸렸어요. 어떤 이유였든 그 결과가 herem을 어긴 것이라는 것만 또렷하게 남았어요. 제가 선한 의도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판결을 어긴 것이 될 수 있는가 — 오늘 이 물음을 들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이기고도 수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합 곁에서, 외적 승리가 내적 바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봤어요.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거두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요?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0장은 두 번의 군사 승리에서 하나의 신학 판결로 움직여요. 표면의 운동은 두 번 이기는 것이에요. 그 아래의 운동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목적의 완성이 중단되는 것이에요. 전쟁의 목적이 군사 승리가 아니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었는데,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줘서 그 목적의 완성이 끊어지고 대신 herem 판결이 왔어요. 권의 흐름에서 보면, 20장은 spine의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의 구체 사례예요 — 익명의 선지자 세 명이 같은 장에서 다른 결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요.

P11 나경아: 원어 단서요. herem(הָרֵם)과 nefesh(נֶפֶשׁ)의 결합이 이 장의 운동 방향이에요. herem은 하나님이 특정 대상을 전쟁으로 완전히 없애도록 명한 것이에요. nefesh는 생명이어요. "네 nefesh가 그의 nefesh 대신하리라"(42절) — 진멸 명령을 어기고 살려준 생명이 자기 생명과 맞교환되는 판결이에요. **이 장의 운동은 herem을 어겼을 때 nefesh가 nefesh를 대신하는 방향으로 흘러요.** 두 번 승리의 큰 무대 뒤에서, 한 선택의 무게가 생명으로 돌아오는 방향이에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아합의 두 번 승리와 살림이에요. 그 아래에서는 두 가지가 움직여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 28절의 "여호와와 평지의 하나님이요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이방의 신학 오해를 교정해요. 권의 spine에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20장에서는 전쟁의 지형이라는 구체적 무대 위에서 드러나요. 또 하나는 herem 위반이 개

인 판결을 낳는다는 것이예요 —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자비보다 무겁다는 것을, 선지자 우화가 조용히 그
나 또렷이 전달해요.

열왕기상 21장

1K1-021 · 역사서 · 히브리어

조상의 기업을 팔지 않는 한 사람과 거짓 서류 뒤에 숨은 왕비 — 엘리야가 포도원에서 아합을 기다린다.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1: 이스라엘 왕궁과 그 곁 나봇의 포도원 — 왕궁이 포도원 바로 옆이라는 지리가 전제(1절).
- 무대 2: 이세벨이 편지를 쓰는 왕궁 내부 — 보이지 않는 음모의 공간(8~9절).
- 무대 3: 나봇이 죽은 포도원 — 아합이 내려가고 엘리야가 기다리는 결정적 공간(16·18절).
- 소품: 포도원(kerem)·기업(nachalah)·이세벨의 편지와 아합의 도장·거짓 증인 둘·개와 나봇의 피·굶은 베옷(saq).
- 핵심 소재 연쇄: 소유(포도원·기업·거절)→음모(편지·도장·금식·거짓 증인)→선고(개·피·이세벨 판결)→회개(굶은 베옷·재앙 연기).
- 3절이 갈등의 씨앗: "여호와께서 금하사 내가 조상의 기업을 당신에게 주지 말라 하셨나이다" — nachalah 신학의 한 문장.

[2단계] 첫 느낌·분위기 시뮬레이션

성령일 선교사: 낭독 직후 떠오른 느낌, 분위기를 그대로 나눠 주세요.

P01 한나래: 서늘해요. 나봇이 무기력하게 죽고, 그 죽음이 어떤 저항도 없이 포도원 취득으로 이어져요. 분노보다 서늘함이 먼저 왔어요.

P07 오지혜: 이세벨이 편지를 쓰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 행동만 보이고 이세벨의 내면은 닫혀 있어요. 그 닫힘이 더 불편했어요. 이세벨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본문이 말하지 않아요.

P11 나경아: 16절의 즉각성이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과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아합 사이에 어떤 말도 없어요. 그 공백이 가장 무거웠어요. 아합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 본문은 그 사이를 채우지 않아요.

P02 이진우: 엘리야의 등장(17~18절)이요. 이 서늘한 흐름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끼어들어요. "너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에게로 내려가라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느니라"(18절) — 하나님이 그 취득의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P04 최현국: 아합의 회개(27절)가 예상 밖이에요. 이 흐름에서 굶은 베옷을 입고 굶으며 겸비한 아합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정한 회개인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굴복인지 — 본문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P05 김미영: 29절이요 —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노니 그가 겸비함을 인하여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판결이 움직여요.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것이 조정돼요. 이 결이 이 장 전체에서 가장 예상 밖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서늘함·즉각성의 공백·엘리야의 끼어들·회개의 예상 밖과 판결의 이동. 그대로 두지요.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서늘한 장이에요. 나뭇이 무기력하게 죽고, 그 죽음이 어떤 저항도 없이 포도원 취득으로 이어져요. 분노보다 서늘함이 먼저 왔어요.
- 이세벨이 편지를 쓰는 장면이 보이지 않아요 — 행동만 보이고 내면은 닫혀 있어요. 그 닫힘이 더 불편했어요.
- 16절의 즉각성 — 나뭇이 죽었다는 소식과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아합 사이에 어떤 말도 없어요. 그 공백이 가장 무거웠어요.
- 엘리야의 등장(17~18절) — 이 서늘한 흐름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끼어들어요. 포도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결이요.
- 아합의 회개(27절)가 예상 밖이에요 — 이 흐름에서 굶은 베옷을 입고 굶으며 겸비한 아합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29절 — "내가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노니 그가 겸비함을 인하여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판결이 움직여요.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 곁이더라."
-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 포도원 소개로 열려(1절), 회개한 아합에 대한 재앙 연기로 닫혀요(29절). 취득의 이야기가 판결과 회개의 이야기로 끝나요.
- 시작은 지리 — '왕궁 곁 포도원'. 끝은 시간 — '그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 공간이 시간으로 바뀌어요.
- 나뭇이 처음 명명되고 마지막에는 아합이 겸비하는 그 전환 — 죽음 당한 자의 이름으로 시작해 죽음을 명한 자의 겸비로 닫혀요.

[4단계] 등장인물·사상 시물레이션

성령일 선교사: 등장인물들을 죽 나열하고, 각각이 처한 상황과 그 아래 작동하는 사상을 보이는 대로 나눠 주세요.

P04 최현국: 나뭇이요. 조상의 기업을 지키겠다고 거절하다 거짓 모함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1~14절). 본문은 그의 내면을 길게 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금하사 내가 조상의 기업을 당신에게 주지 말라 하셨나이다"(3절) — 한 문장만 있어요. 나뭇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두려웠는지, 망설였는지는 적히지 않아요. 그 한 문장만 있고 그 뒤는 묵묵히 죽어요.

P01 한나래: 아합이요.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요(4절). 이세벨이 "왕의 마음이 어찌하여 이처럼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 아니하나이까"(5절) 물을 때, 아합이 나뭇과의 대화를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이세벨의 음모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데, 나뭇이 죽자 즉시 포도원으로 내려가요(16절). 엘리야의 선고에 굶은 베옷을 입고 겸비해요(27절). 이 인물이 이 장에서 욕망과 방조와 겸비를 한꺼번에 보여줘요.

P02 이진우: 이세벨이요. 이 장의 실질 행위자예요. 편지를 쓰고(8절), 거짓 증인을 세우고(10절), 나뭇을 죽이고(14~15절), 아합에게 일어나 포도원을 취하라 해요(15절). 흥미로운 건 이세벨의 동기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을 위해서인지, 권력을 위해서인지, 이스라엘 왕권의 개념이 이세벨에게는 페니키아 방식이었는지 — 본문은 그 속을 열지 않아요.

P07 오지혜: 엘리야요. 이 장에서 엘리야는 전도서의 증인처럼 등장해요 — 기다리고 있었어요(18절). 선고를 전하고(19~22절), 이세벨 심판도 추가해요(23절). 그런데 엘리야는 이후로 조용해요. 선고를 전한 뒤 사라지고, 아합의 반응은 엘리야 없이 기록돼요. 27절에서 아합이 회개할 때 엘리야는 화면 밖에 있어요.

P11 나경아: 사상으로만요. nachalah 신학이에요 — 나뭇의 거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는 율법 신학의 표현이에요. 나뭇이 죽었지만 그 신학 선언은 이 장에서 엘리야의 선고에 살아 있어요. 포도원을 빼앗길 수는 있어도 nachalah 신학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 형태 관찰로만요.

P05 김미영: 장로와 귀인들도요(11절).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편지에 쓰인 대로 행하여"(11절) 나뭇을 죽였어요. 본문이 그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집행자로만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들의 순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관찰 밖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나뭇의 한 문장·아합의 세 얼굴(욕망·방조·검비)·이세벨의 닫힌 동기·포도원에서 기다리는 엘리야·nachalah 신학·집행하는 장로들. 그대로 두지요.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나뭇 — 조상의 기업을 지키겠다고 거절하다 거짓 모함으로 돌에 맞아 죽어요(1~14절). 본문은 그의 내면을 길게 쓰지 않아요.
- 아합 —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요(4절). 이세벨의 음모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지만, 나뭇이 죽자 즉시 포도원으로 내려가요(16절). 엘리야의 선고에 굶은 베옷을 입고 검비해요(27절).
- 이세벨 — 이 장의 실질 행위자예요. 편지를 쓰고(8절), 거짓 증인을 세우고(10절), 나뭇을 죽이고(14~15절), 아합에게 일어나 포도원을 취하라 해요(15절). 이세벨의 행동이 아합의 이름으로 집행돼요.
- 엘리야 —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포도원에서 아합을 만나요(17~18절). 19절 선고, 21~24절 아합과 이세벨의 집 전체에 대한 심판 선언, 그리고 25~26절에서 본문이 아합을 평가해요.
- 사상 — nachalah(기업) 신학: 땅은 여호와와 것이므로 팔 수 없다는 신앙(레 25:23과의 연결). 나뭇의 거절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율법 신학에서 나온 것이예요.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탐냄과 거절. 아합이 포도원을 탐내고 나뭇이 "여호와께서 금하사"로 거절하며, 아합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요.
- 컷 2 (5~16절): 이세벨의 음모와 나뭇의 죽음. 이세벨이 이유를 묻고 편지를 써서 나뭇을 거짓 증인으로 죽이고, 아합이 포도원으로 내려가요.
- 컷 3 (17~24절): 엘리야의 선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야가 포도원에서 아합에게 개 판결과 이세벨 심판까지 선언해요.
- 컷 4 (25~29절): 평가와 회개. 본문이 아합을 평가하고(25~26절), 아합이 굶은 베옷을 입고 검비하며, 하나님이 재앙을 아들 대로 미루세요.

- 컷 2가 경첩: 음모의 실제 집행자는 이세벨이지만, 그 행동이 아합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아합의 취득으로 귀결돼요.

[6단계] 의문·발견·정보 시물레이션

성령일 선교사: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 새로 발견한 것, 배경 정보를 나눠 주세요. 답을 찾지 않아도 돼요.

P02 이진우: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하는 방식이 눈에 들어와요(2절). "이를 채소밭으로 삼고자 하노니 이는 내 왕궁에서 가까운 연고라.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어치를 은으로 주리라." 아합이 강제로 뺏으려 한 것이 아니에요. 교환하거나 값을 치르겠다고 해요. 이것이 왕권 남용이나, 합리적 제안이나 — 그런데 나봇의 대답이 그 논리 체계 자체를 비껴가요. "여호와께서 금하사." 아합의 제안과 나봇의 거절이 다른 체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P07 오지혜: 22절의 심판 선언이 이전 선지자들의 선고와 연결돼 있어요 —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아사의 집과 같이"(22절). 아합의 집에 내려지는 심판이 단독 심판이 아니라 북 왕국 왕들의 패턴으로 묶여요. 아합이 그 패턴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 — 배경으로만요.

P05 김미영: 저자 평가가 눈에 들어와요(25~26절). "아합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음이라."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 아합이 가장 악한 자라는 평가, 그리고 그 이유가 이세벨이 부추겼기 때문이라는 것. 이 두 진술이 어떻게 같이 있는지 — 형태 관찰로만요.

P04 최현국: *tsuwm*(טִשׁוּם) — 금식이에요.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해(9절) 나봇의 재판을 공식 종교 집회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예요 — 그것이 거짓 재판을 위한 틀로 사용됐어요. 종교 형식이 불법을 성화시키는 구조 — 형태만요.

P11 나경아: 나봇의 아들들 이야기가 왕하 9:26에 나온다는 것을 배경으로만 메모해요 — "어제 내가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21장 본문에는 아들들이 등장하지 않지만, 왕하에서 나봇의 아들들도 같은 날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21장에서 나봇의 가족이 보이지 않는 대목 — 형태 관찰로만 보죠.

성령일 선교사: 아합의 제안과 나봇의 거절이 다른 체계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여로보암·바아사 패턴의 연속선, 저자 평가의 이중 진술, 금식이 불법 재판의 종교 형식으로 쓰인 것, 나봇의 아들들 — 배경으로 두지요.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kerem*(כֶּרֶם) — 포도원(1절). 이 장의 분쟁 핵심어.
- *nachalah*(נַחֲלָה) — 기업·유산(3절). 조상에게서 온 땅, 여호와와 것이므로 처분 불가.
- *tsuwm*(טִשׁוּם) — 금식(12절).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해 나봇의 재판을 위한 공식 집회를 마련함.
- *edim*(עֵדִים) — 증인들(10절). 거짓 증인 두 사람 — 신 17:6, 19:15의 두 증인 요건을 겹으로 갖춤.
- *saq*(שָׂא) — 굶은 배웃(27절). 슬픔·회개의 외적 표지.
- *anah*(אָנָה) — 겸비하다·낮추다(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의 동사.
- *kalev*(כֶּלֶב) — 개(19절). 판결문의 핵심 소재 —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핏은 리라.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구조

- 이세벨의 편지가 아합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해요(8절) — 아합이 직접 지시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집행 수단이 돼요.

- 나봇의 재판이 율법의 형식을 갖춰요 — 금식 선포(12절), 두 증인(10절). 합법의 겉모습으로 불법이 진행돼요.
- 19절과 22:38의 연결 — 19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흘으리라"가 22:38에서 성취로 기록돼요(이스라엘이 아닌 사마리아에서 성취 — 지점의 이동 문제는 보존).
- 아합에 대한 저자 평가(25~26절) — "아합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음이라." 이세벨이 행위자이고 아합이 결과적 책임자로 적혀요.
- 회개 → 재앙 연기의 구조 — 판결이 움직일 수 있음을 이 장이 보여줘요. 판결을 받은 자가 겸비하면 그 판결의 시간이 조정돼요.

6 의문·발견·정보 — (3) 역사·배경

- nachalah — 이스라엘 토지 신학: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봇의 거절이 개인 고집이 아닌 율법 신학의 표현임을 이 배경이 뒷받침해요.
- 이스라엘 — 아합의 여름 왕궁이 있던 도시. 22:37에서 아합이 이스라엘로 이송돼 묻히고, 22:38에서 피가 이곳에서 활아지는 배경이에요.
- 두 증인 제도 — 신 17:6, 19:15 율법에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사형이 가능해요. 이세벨의 재판이 겉형식으로 이 요건을 충족시켜요.
- 금식(tsuwm) — 재판이나 공식 집회 전에 선포하는 종교적 절차. 이세벨이 이것을 형식으로 쓰며 나봇을 고발하는 틀을 마련해요.

6 의문·발견·정보 — (4) 미해결 의문

- Q1: 아합은 이세벨의 음모를 알고 있었는가? 본문은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8절) 보냈다고 적지만, 아합이 그것을 알고 허락했는지 묵인했는지 적지 않아요.
- Q2: 나봇의 금식 재판이 실제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장로들과 귀인들이 이세벨의 편지대로 집행했어요(11~14절). 그들의 순응을 본문은 평가하지 않아요.
- Q3: 19절의 선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과 22:38의 "사마리아 못가에서 개들이 흘았더라"의 지점 차이를 어떻게 두는가? 형태 관찰로만 보존.
- Q4: 아합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본문은 그가 굶은 배움을 입고 굶으며 겸비했다고 적고(27절), 하나님이 그 겸비를 보셨다고 적어요(29절). 진정성 여부는 적히지 않아요.
- Q5: 재앙이 아들 대로 미루어진 것은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라"는 29절이 판결의 조정을 보여 주지만 본문은 그 이유를 길게 풀지 않아요.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이스라엘의 나봇 포도원. 자막 —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되 네 포도원을 내게 줄지니 이는 내 왕궁에서 가까워 내가 채소밭으로 삼고자 함이라. 나봇이 답한다 — 여호와께서 금하사 내가 조상의 기업을 당신에게 주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수심하고 분하여 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세벨이 들어와 묻는다 — 왕의 마음이 어찌하여 이처럼 근심하여 음식을 먹지 아니하나이까. 왕이 나봇 이야기를 전하자 이세벨이 말한다 —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도장을 찍어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낸다 — 나봇을 높이 앉히고 두 불량자로 하여금 맞은편에 앉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하여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장로와 귀인들이 그대로 집행한다 —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한다 — 일어나 나봇이 네게 주기를 거절하던 포도원을 차지하라 그가 살지 아니하고 죽었느니라. 아합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내려간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한다 — 너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에게로 내려가라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느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한다 —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가 말한다 — 내가 찾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흘으리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라 선고가 추가된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굶으며 자고 겸손히 다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 —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그가 겸비함을 인하여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페이드아웃.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조상의 기업을 팔지 않겠다 — 나봇의 한 마디와 포도원에서 기다리는 엘리야"
- 초벌 부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나 나봇이 '여호와께서 금하사 조상의 기업을 주지 말라'(21:3) 거절하고, 이세벨이 거짓 증인으로 나봇을 죽인 뒤 아합이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가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다리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흘으리라'(21:19) 선고하는 —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겸비하매 재앙이 아들 대로 미루어지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kerem·nachalah·tsuwm·edim·saq·anah·kalev 등 7+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nachalah 토지 신학 + 두 증인 형식 + 합법 겉모습 불법 구조 + 저자 평가 25~26절)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5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드리프트 관찰

- 나봇의 거절을 '신앙의 용기'로 일반화하지 않고, nachalah 어휘와 레 25:23 율법 배경과 "여호와께서 금하사"라는 발화로만 보존.
- 이세벨의 음모를 '악의 진행'으로 단지 않고, 편지·도장·금식·두 증인이라는 본문 형태와 아합의 이름이 집행 수단으로 쓰인 구조로만 둬.
- 아합의 즉각적 취득(16절)을 도덕 판단으로 단지 않고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즉시 내려갔더라"는 사실과 그 사이의 공백으로만 보존.
- 19절과 22:38의 지점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형태 관찰로 보존.
- 아합의 회개 진정성 문제를 판단하지 않고 굵은 베옷·금식·겸비라는 본문 행동과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29절의 사실로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21장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의 탐냄 앞에 "여호와께서 금하사 내가 조상의 기업을 당신에게 주지 말라 하셨나이다"(21:3)로 거절하고,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과 도장으로 편지를 써서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뒤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그 순간 엘리야가 기다리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흘으리라"(21:19) 선고하되, 아합이 굶은 베옷을 입고 굶으며 겸비하매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21:29) 하시는 — nachalah 신학과 왕권의 충돌이 선고와 회개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왕궁 곁에 있다(1절). 아합이 채소밭으로 쓰겠다며 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자 청하나, 나봇이 한 마디로 거절한다 — 여호와께서 금하사 조상의 기업을 드릴 수 없다. 아합이 수심하여 침상에 누워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세벨이 이유를 묻고, 아합의 이름과 도장으로 편지를 써서 금식을 선포하고 두 거짓 증인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모함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자 아합이 즉시 포도원으로 내려간다. 그때 엘리야가 포도원에서 기다리고 있다 — 개들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흘으리라,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라.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굶은 베옷을 입고 굶으며 겸손히 다닌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 그가 겸비하므로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리라.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왕궁 곁 포도원→이세벨의 음모 공간→나봇이 죽은 그 포도원. 포도원·nachalah·편지·도장·거짓 증인·개와 피·굶은 베옷. 소유→음모→선고→회개의 소재 연쇄.
2 첫 느낌·분위기	서늘한 무기력과 즉각성(16절 공백). 엘리야의 등장이 그 흐름에 끼어드는 결. 29절 판결이 움직이는 예상 밖의 닫힘.
3 시작과 끝	'왕궁 곁 포도원'(1절 공간)으로 열려 '그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29절 시간)로 닫힘. 나봇의 이름으로 시작해 아합의 겸비로 끝남.
4 등장인물·사상	nachalah로 거절한 나봇.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나 즉시 취득한 아합. 실질 행위자 이세벨. 포도원에서 기다린 엘리야. nachalah 신학과 왕권의 충돌.
5 장면 컷	탐냄과 거절(1~4)/이세벨의 음모와 나봇의 죽음(5~16)/엘리야의 선고(17~24)/평가와 회개(25~29). 컷 2의 이세벨 — 아합 이름으로 집행.
6 의문·발견·정보	합법 형식으로 집행된 불법. 19절과 22:38의 지점 차이. 저자 평가 25~26절. 회개→재앙 연기의 구조.
7 동영상	포도원 탐냄→거절→침상→이세벨의 편지·금식·거짓 증인→나봇 죽음→아합 내려감→엘리야 기다림→선고→굶은 베옷→재앙 연기.
8 초벌 제목·부제	"조상의 기업을 팔지 않겠다 — 나봇의 한 마디와 포도원에서 기다리는 엘리야"
9 기도·내면	합법의 형식으로 진행된 불법의 공백 —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이름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물음.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nachalah와 왕권의 충돌:** 나봇의 거절은 개인 고집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사"(21:3)는 레 25:23의 토지 신학 — 땅은 여호와와 것이므로 영구히 팔 수 없다는 이스라엘 신앙의 표현이다. 아합의 탐냄이 단순한 왕의 욕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토지 신학을 정면으로 침범하는 행위라는 것, 이 장이 그 충돌을 전면에 놓는다. 나봇이 약하고 아합이 강한 것이 아니라, nachalah 신학이 왕권의 논리와 부딪히는 것이다.

2. **결 2 — 합법의 형식으로 집행된 불법:** 이세벨의 음모가 금식 선포(12절), 두 증인(10절), 공식 재판 절차를 갖추어 진행됐다. 신 17:6, 19:15의 두 증인 요건을 겹으로 충족시킨다. 합법의 껍데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불법을 감쌀 때, 장로와 귀인들이 "편지에 쓰인 대로"(11절) 집행한다. 이 구조가 나봇의 죽음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다 — 아무도 직접 불법을 행했다고 느끼지 않는 체계.

3. **결 3 — 판결이 움직인다:** 19절의 선고는 분명하다. 그런데 27~29절에서 그 판결의 실행 시점이 조정된다 —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겸비했기 때문에. 21장은 불법과 선고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판결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장이다. 선고를 받은 자가 겸비하면 그 시간이 바뀐다. 22장 아합의 전사로 닫히기 전, 이 장이 그 전환의 가능성을 한 번 열어두고 지나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레 25:23 —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 3절 나봇의 거절의 율법 배경.
- 신 17:6, 19:15 —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 — 이세벨이 겹형식으로 충족시킨 율법.
- 왕상 19:1~3 —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던 장 — 21장에서 이세벨의 성격이 다시 전면으로.
- 왕상 22:37~38 — 아합의 죽음과 피, 개들이 핏음 — 21:19 선고의 성취(지점은 사마리아 못가).
- 왕하 9:30~37 — 이세벨의 최후 —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먹음, 21:23 선고의 성취.
- 왕상 20:42 — 선지자가 아합에게 "네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선고 — 21장의 선고와 이어지는 아합 심판의 누적.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멈춤 1:** 21:3에서 멈춘다 — "여호와께서 금하사." 한 사람의 거절이 아니라 율법 신학의 표현이라는 것을 진다.
- **멈춤 2:** 21:16의 공백에서 멈춘다 —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과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아합 사이에 어떤 말도 없다.
- **멈춤 3:** 21:19에서 멈춘다 — 포도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핏음 곳에서."
- **끝:** 21:29에서 머문다 — 겸비함을 보셨다. 판결이 움직였다. 이것을 들고 22장으로 간다.

F · 자족성 점검

- [x] 탐냄(1~4)·음모(5~16)·선고(17~24)·회개(25~29)의 네 컷 완결
 - [x] nachalah 신학과 레 25:23·두 증인과 신 17:6의 율법 연결
 - [x] 합법 형식 불법 구조 기술
 - [x] 19절 선고와 22:38 성취·왕하 9:37 이세벨 최후 연결
 - [x] 판결 연기 구조와 22장으로의 이월
-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다. 20~22장은 아합의 전쟁과 끝의 국면이다. 20장이 벤하닷을 놓아 보내고 선지자의 선고를 받는 아합의 마지막 전쟁 전단계라면, 21장은 아합의 인물 초상이 마지막으로 집약되는 장이다 — 욕망(포도원 탐냄), 방조(이세벨의 음모), 취득(16절), 선고(19~24절), 회개(27절)가 한 장에 모인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엘리야가 18~19장에서 갈멜의 불과 호렙의 세미한 소리를 지나고 나서, 21장에서 다시 한 번 왕 앞에서 심판을 선언한다 — '여호와만 하나님'이 한 갈멜의 불빛으로만 아니라, 한 포도원에서 기다리는 엘리야의 목소리로도 드러난다. 21장의 이스라엘 포도원은 지리적으로 22:37의 아합 죽음 장소와 같은 영역이며, 21:19 선고가 22:38에서 성취로 이어지는 선고-성취의 틀이 이 두 장을 묶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봇의 거절(21:3)에서 이세벨의 음모(21:8~14)로, 다시 포도원에서 기다리는 엘리야의 선고(21:19)로 / 그리고 굵은 베옷의 겹비(21:27)에서 재앙 연기(21:29)로 — 탐냄과 불법 취득의 이야기가 선고와 회개와 연기의 이야기로 굽어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1장은 nachalah를 침범한 왕의 욕망이 선고를 받고, 그 선고 앞에서 겹비하는 굽이다. 표면의 운동은 포도원 취득에서 선고로 가지만, 수면 아래의 운동은 판결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한 번 열어두고 22장으로 넘기는 것이다. 22장 아합의 전사로 이어질 때, 21장의 선고가 그 배경음으로 울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포도원 탐냄과 불법 취득의 이야기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세 가지가 움직인다. 첫째, nachalah — 땅이 여호와와 것이라는 신학이 한 사람의 입에서 한 마디로 나오고, 그 한 마디가 이 장 전체를 작동시킨다. 나봇이 죽었지만 그 신학의 선언은 죽지 않는다 — 엘리야가 포도원에서 그것을 들고 기다린다. 둘째, 합법의 형식이 불법을 감싸는 구조 — 금식과 두 증인과 공식 집회가 나봇을 죽이는 데 사용될 때, 누구도 불법을 행했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세벨의 편지는 아합의 이름으로 쓰였고, 장로들은 편지대로 행했고, 거짓 증인들은 증언했다. 이 체계가 수면 아래의 두 번째 운동이다. 셋째, 판결이 움직인다 — 선고는 분명했지만 겹비 앞에서 시간이 조정된다. 하나님이 겹비함을 보셨다는 29절은, 이 어둡고 서늘한 장이 닫히면서 남기는 하나의 열린 결이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이름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 아합처럼 즉시 내려가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합법의 형식 안에 불법을 집행하거나 허용한 적은 없는가 — 장로들처럼 "쓰인 대로" 행한 적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나봇이 거절한 그 한 마디 — "여호와께서 금하사" — 가 이 장 전체의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자 이세벨의 음모가 들어서고, 그 길목에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었다. 포도원에서 기다리는 엘리야는 나봇의 한 마디가 공중에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형태다. 그리고 이 모든 선고 앞에서 굵은 베옷 한 벌이 끼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 이 장의 마지막 결이 독자에게 남기는 질문은 거창하지 않다. 내가 어떤 형식 안에 서 있는지, 그 형식이 무엇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고를 받은 그 국면에서 내가 무엇을 입는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21장의 선고가 아합 위에 남아 있는 채로 — 아합이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려 여호사밧과 함께 올라가고, 사백 선지자가 "올라가라" 하나 미가야 하나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리라"고 말한다(22:17).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achalah* — 기업.

미해결 질문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나봇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포도원, 엘리야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 굶은 베옷을 입은 아합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합법의 겉모습이 불법을 집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금식과 두 증인과 공식 집회의 형식이 나봇을 죽이는 데 쓰였어요. 그리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과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아합 사이에 어떤 말도 없다는 그 공백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공백이 제 안에도 있는지 살피고 싶어요 —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그리고 이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굶은 베옷을 입고 겸비했을 때 그 겸비를 보셨다는 29절 — 그 겸비에 어떤 크기가 요구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들고 머물렀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이 본문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탐냄→음모→취득→선고→회개→연기의 연쇄예요. 표면은 한 포도원 분쟁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nachalah* 신학과 왕권의 충돌이에요. 나봇의 거절은 한 사람의 거절이 아니라 "땅은 여호와와 것이므로 팔 수 없다"는 이스라엘 토지 신학의 표현이에요. 아합의 욕망이 그 신학과 정면으로 부딪쳐요. 그리고 이 장은 22장 아합의 죽음과 직선으로 연결돼요 — 이스라엘이라는 지리가 21장의 포도원과 22장의 죽음을 묶어요. 권의 흐름에서 21장은 아합의 마지막 인물 초상이에요 — 다음 장이 전사(戰死)로 닫히기 전, 이 장이 그의 욕망·방조·회개·미루어진 선고를 한곳에 모아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은 **판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분명한 선고가 내려지는데, 27~29절에서 그 선고의 실행 시점이 조정돼요 — 아합이 겸비했기 때문이에요. 21장은 한 포도원 사건이면서 동시에 '판결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단단한 선고 한가운데 굶은 베옷 한 벌이 끼어들고, 그것이 결과의 시간을 바꿔요. 이 긴장을 풀지 않고 22장으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성령일 선교사: *nachalah*와 왕권의 충돌, 합법의 껍데기로 집행된 불법, 그리고 판결이 움직이는 장 — 이 운동을 쥐고 22장으로 갑니다. 아합이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는 장이에요.

열왕기상 2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21:8 — 아합은 이세벨의 음모를 알고 있었는가?

-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과 도장을 써서 편지를 보냈고(8절),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에 즉시 포도원으로 내려갔다(16절). 본문은 아합이 음모를 사전에 허락했는지, 묵인했는지, 몰랐는지를 적지 않는다. 25~26절에서 저자가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다고 평가하지만, 아합의 내면 상태는 보존.

Q2. 21:11~14 — 장로와 귀인들의 순응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자 장로와 귀인들이 "편지에 쓰인 대로 행하여"(11절) 나봇을 죽였다. 본문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적지 않는다. 단순한 집행자로만 등장한다. 그 순응의 결을 풀지 않고 보존.

Q3. 21:19 vs 22:38 — 선고의 지점과 성취의 지점 차이를 어떻게 두는가?

- 19절 선고는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흘릴 것이라 하나(이스라엘 포도원), 22:38 성취는 사마리아 못가에서 기록된다. 이 지점 이동을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형태 관찰로만 보존.

Q4. 21:27 — 아합의 회개를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굽고 누워 겸손히 다녔다(27절). 하나님이 그 겸비함을 보셨다(29절).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두려움에서 난 굴복인지를 본문은 묻지 않는다. '겸비함을 보노니'라는 하나님의 관찰만 적어 둔다.

Q5. 21:29 — 재앙이 아들 대로 미루어진 것의 신학적 결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판결이 한 사람의 겸비로 시간 조정이 된다. 이것이 연대 심판인지, 개인 판결의 유예인지, 아들 여호람·아하시야에게 미루어진 배경은 22:39~53과 왕하로 이어진다. 21장 안에서는 재앙 연기라는 사실만 적어 두고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열왕기상 22장

1K1-022 · 역사서 · 히브리어

길르앗 라못을 두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하고, 사백 선지자가 한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승리하리이다" 하며 시드기야가 철 뿔로 "아람을 진멸하리이다"(22:11) 외치나 — 불려 온 미가야가 천상 회의의 "거짓말하는 영"(22:22)을 전하고 옥에 갇히며, 변장한 아합이 "무심코 당긴 활"(22:34)에 갑옷 솔기를 맞아 저물 때에 죽고 사마리아 못가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대결이 한 화살에 갈리며 권을 다투는 장.

관찰된 사실

열왕기상 2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두 왕의 회담(1~4절)→성문 어귀 타작마당의 합창(5~28절)→길르앗 라못의 전장(29~36절)→사마리아 못가와 권의 마무리(37~53절)로 옮겨 다님. 합창에서 화살을 지나 권의 닫힘으로.
- 무대의 방향: 떠들썩한 타작마당의 큰소리가 변장한 전장으로, 다시 검은 못가와 담담한 통치 요약으로 가라앉음.
- 소품: 두 보좌와 두 별 왕복(10절), 시드기야의 철 뿔(11절), 변장한 옷(30절), 무심코 당긴 한 화살과 갑옷 솔기(34절), 병거의 피·못·개(38절), 역대지략의 책(39·45절).
- 소품의 도드라짐: 철 뿔의 큰 자신감(11절)과 무심코 당긴 한 화살(34절) — 큰소리의 시연과 노리지 않은 한 동작이 같은 무대에 놓임.
- 소재의 결: 처음은 합창·큰소리(사백·한목소리·올라가라·철 뿔·진멸), 가운데는 한 입(한 사람·흉한 것·거짓말하는 영·뽀·옥), 끝은 우연 같은 귀결(변장·무심코·솔기·피·개).
- 형식 소재: 말씀·입(davar·peh 5·14·22절)과 길한 것·흉한 것(tov·ra 8·18·23절)의 두 축, '올라가라(alah 6·12·15절)'의 거듭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이미 기울어 있던 공기 — 사백의 매끄러운 합창(6절)과 '듣기 전에 미워한다'(8절)는 한마디가 답이 정해진 자문임을 비춤.
- 화려한 합창과 초라한 옥의 겹침 — 보좌·왕복·철 뿔의 큰 무대(10~11절)와 뽀·곤고의 떡·옥의 한 사람(24·27절)이 한 장면 안에.
- 떠들썩한 대낮에서 검은 못가로 가라앉는 명암 — 환한 타작마당(1~12)→그늘진 환상(13~28)→어두운 전장(29~36)→검은 못가(37~38)→담담한 회색의 요약(41~53).
- 합창·비뚤·대뜸의 세 어조 — '올라가소서'(6·12절), 비꼬는 같은 말(15절), 뽀를 치며 따짐(24절).
- 철의 쇠소리(11절)·뽀 치는 소리(24절)·무심한 시위 소리('무심코 활을 당겨' 34절)의 감각.
-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28절) — 옥에 끌려가며 검증을 귀환에 건 한 입의 담담함.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삼 년을 지냈더라."
- 53절: "그가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 같이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행한 모든 것 같이 하였더라."
- 삼 년 평화로 열려, 한 왕이 죽고도 그 악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자국으로 닫힘 — 곧 깨질 멈춤과 끊기지 않은 악의 대물림.
- '삼 년 평화'(1절)는 안식이 아니라 곧 동맹과 출정으로 깨질 고요 — 3절에서 라못 탈환의 청이 음.
- 1절(사람의 평화)과 53절(사람의 악) 사이에 8절(미움받는 한 입)과 17절(흩어진 양)이 새겨짐.
- 고요한 회담(1절)에서 담담한 통치 요약(41~53절)으로 — 한 평화가 동맹·대결·한 화살을 거쳐 권의 마무리로 굳어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아합(라못을 치자 함·미가야를 미워함·옥에 가두라 함·변장하고 나가 한 화살에 죽음), 여호사밧(동맹하되 먼저 말씀을 물으라 청함·왕복을 입었다가 부르짖어 벗어남), 미가야(미움받는 한 입·비꼬다가 흩어진 양을 봄·천상 회의를 전함·뺨을 맞고 옥에 갇힘), 시드기야(철 뿔을 만든 선지자·진멸을 시연함·미가야의 뺨을 침), 사백 선지자(한목소리의 합창), 무대 중심의 여호와(천상 회의에서 한 영을 보내사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
- 중심 사상: '많은 입'과 '한 입', 그리고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가' — 사백은 한목소리(6절), 미가야는 미움받는 한 입(8·17절), 끝에 이루어지는 건 한 입의 말(34·37절).
- 한 물음과 그 검증의 연쇄: 도입(1~4 동맹)→합창(5~12 사백·철 뿔)→한 입(13~28 미가야·천상 회의·옥)→전장(29~36 변장·화살)→귀결(37~40 피·개)→마무리(41~53 두 통치).
- 예언과 성취의 다른 결: 미가야의 말(17·28절)은 들려준 것, 아합의 죽음(34·37절)과 못가의 피(38절)는 21:19의 옛 선언이 이루어진 것 — 본문이 따로 적음.
- 변장한 옷과 왕복(30절): 표적을 피하려 신분을 감춘 아합과, 도리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 노리지 않은 한 화살이 그 변장을 뚫음(34절).
- ruach sheqer(거짓말하는 영 22절)와 tzon(목자 없는 양 17절): 한 장의 두 결로 놓인 합창의 뒤와 흩어진 백성.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절): 평화 끝의 동맹 — 전쟁 없는 삼 년(1), 라못이 우리 것인데 잠잠히 둔다 함(3), 함께 올라가자는 청과 동맹(4).
- 컷 2 (5~12절): 사백의 합창과 철 뿔 — 먼저 말씀을 물으라(5), 사백이 올라가소서(6), 한 선지자가 더 없느냐와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답(7~8), 보좌와 철 뿔의 시연(10~12).
- 컷 3 (13~28절): 미움받는 한 입과 천상 회의 — 사자의 청과 맹세(13~14), 비꼬는 같은 말과 진실을 다그침(15~16), 목자 없는 양(17), 천상 회의와 거짓말하는 영(19~23), 뺨과 곤고의 옥과 검증을 귀환에 검(24~28).
- 컷 4 (29~36절): 변장한 왕과 무심코 당긴 화살 — 변장한 아합과 왕복 입은 여호사밧(30), 여호사밧을 쫓다 돌아선 병거(31~33), 무심코 당긴 활과 종일 기대선 채 저물 때의 죽음(34~36).

- 컷 5 (37~40절): 못가의 피와 개 — 사마리아에 장사됨(37), 못가에서 병거를 씻으니 개가 피를 핥음·여호와
의 말씀대로(38), 남은 행적과 아하시야가 대를 이음(39~40).
- 컷 6 (41~53절): 두 통치의 요약 — 여호사밧의 정직히 행함·남은 산당·평화(41~50), 아하시야가 바알을 섬
겨 여호와를 노하시게 함(51~53).
- 컷 3의 경첩 위치: 합창의 준비(컷 1·2)와 화살의 검증(컷 4·5) 사이, 한 입이 끼어듦 — 미가야의 맹세(14)→
흘어진 양(17)→천상 회의(19~23)가 한 화살과 못가의 피로 검증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 *davar*(דָּבָר) — 말씀·말(5·14·19·23절).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가가 장 전체를 가름. / *navi*(נָבִיא) — 선지자
(6·22절).
- *tov*(טוֹב)·*ra*(רָע) — 길한 것·흉한 것(8·18·23절). 미가야가 '흉한 것'으로 미움받음. / *alah*(אֵלָה) — 올라가다
(6·12·15절).
- *qarnayim barzel*(קַרְנַיִם בְּרִזְלִים) — 철 뿔(11절). 진멸을 시연한 상징 소품. / *tzon*(צֶן) — 양 떼, '목자 없는 양'(17
절).
- *ruach sheqer*(רוּחַ שֶׁקֶר) — 거짓말하는 영(22·23절). 천상 회의의 영과 사백의 입에 같은 말. / *peh*(פֶּה) — 입
(22절).
- *lavash*(לָבַשׁ)·변장(30절) — 신분을 감춘 옷. / *tom*(טָמ) — 무심함·온전함, '무심코'(34절).
- *deveq hashiryan*(גַּפְּוֹת הַיֵּין) — 술기 34절) / *kelev*(כֶּלֶב) — 개 · *dam*(דָּם) — 피(38절).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 도입(1~4) + 합창(5~12) + 한 입(13~28) + 전장(29~36) + 귀결(37~40) + 마무리(41~53) — 한 물음(누구의
말이 참인가)이 사백 대 한 사람의 대비를 거쳐 한 화살로 검증되는 구조.
- 예언→성취 수미: 미가야의 말(17·28절)과 아합의 죽음(34·37절)이, 더 멀리는 21:19의 선언과 38절의 성취
가 호응 — 형태 관찰.
- 말씀(*davar*)의 비대칭: 사백은 합창의 길한 말(6·12절), 미가야는 미움받는 흉한 말(17절), 끝에 이루어지는
건 한 입의 말(37절) — 같은 동사가 한쪽으로 기울.
- '사백 대 한 사람'의 수의 대비(6·8절)와 철 뿔의 큰 시연(11절) 대 무심코 당긴 한 화살(34절)의 대조 — 형
태 관찰.
- 변장의 아이러니: 표적을 피하려 신분을 감춘 왕을 노리지 않은 한 화살이 맞힘(30·34절) — 형태로만 돛.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 길르앗 라못 — 요단 동편 고지의 국경 요충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거듭 다툼. 3절 탈환 동맹의 무대인 배
경.
- 철 뿔 상징 행위 — 근동 선지자가 말씀을 몸짓으로 시연하던 상징 행동. 뿔은 힘·정복의 표상으로, 시드기
야가 시연한 11절의 배경.
- 왕의 변장 — 근동 전장에서 적의 표적이 되는 왕이 신분을 감추던 책략. 30절의 배경.
- 천상 회의 — 하나님께서 영들 가운데서 뜻을 정하시는 어전 장면. 미가야가 본 19~22절의 배경.
- 못가에서 병거를 씻음·개가 피를 핥음 — 사마리아 성읍 못과 기생이 목욕하던 곳의 정황. 38절 아합의 피
의 귀결의 배경.

- 독법: 후대 유대 전통은 22절의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거짓을 지으심이 아니라 이미 거짓을 택한 자들을 그 택함에 내어 두심으로 읽음 — 독법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트

- 왕상 22:38 ↔ 왕상 21:19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가 아합의 피도 핥으리라 — 성취의 직접 선언)
- 왕상 22:40-51 ↔ 왕상 21:29 (아합이 겸비하므로 재앙을 아들 대로 미루심 — 죽음과 아하시야로 이어지는 배경)
- 왕상 22:6-12 ↔ 왕상 18:39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 — 그 봉우리와 22장 거짓 예언 대결이 마주 섬)
- 왕상 22장 ↔ 왕상 16:30-33 (아합이 이전 모든 왕보다 악을 행함 — 그의 최후의 긴 배경)
- 왕상 22:17 ↔ 민 27:17 (목자 없는 양 같지 않게 하소서 — 흩어진 양의 옛 어구)
- 왕상 22:6-23 ↔ 신 18:20-22 (망령되어 말하는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 — 사백 대 한 사람의 율법 배경)
- 왕상 22:19-22 ↔ 욥 1:6-12 (하나님 앞에 모인 영들과 한 영의 나아감 — 천상 회의가 닿는 옛 장면)
- 왕상 22:22-23 ↔ 슥 13:2-4 (거짓 선지자와 부정한 영을 떠나게 하리라 — 거짓 예언 모티프의 후대 메아리)
- 왕상 22:51-53 ↔ 왕하 1:1-18 (아하시야의 악과 엘리야 — 22장에서 열린 다음 권의 직후 국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전쟁 없는 삼 년의 고요. 자막 —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삼 년을 지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온다. 아합이 신하들에게 말한다 —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이거늘 우리가 어찌 잠잠히 두는가. 여호사밧에게 청한다 —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으로 올라가시겠느냐. 여호사밧이 답한다 —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이다, 다만 먼저 여호와와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사백 명을 모은다. 그들이 한목소리로 외친다 —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묻는다 —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없나이까. 아합이 답한다 — 아직도 한 사람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으나, 그는 내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노라. 두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타작마당 보좌에 앉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한다. 시드기야가 철 뿔을 만들어 외친다 — 여호와와 말씀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찢러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자가 청한다 — 선지자들의 말이 다 한입으로 왕에게 길하니 당신의 말도 그같이 길하게 하라. 미가야가 답한다 —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가 왕 앞에 와 처음엔 똑같이 말한다 —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아합이 다그친다 —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 그제야 미가야가 말한다 —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가 이어 말한다 —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에 모셔 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꺾어 라못에서 죽게 하겠느냐 물으시니 한 영이 나아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리하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따진다 —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합이 명한다 — 그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가 말한다 —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이다. 화면이 라못의 전장으로 옮겨 간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한다 —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리

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가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간다. 아람 왕은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다른 이는 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치라 명했다. 지휘관들이 왕복 입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왕인 줄 알고 쫓다가, 그가 부르짖을 때 그가 아람을 알고 돌아선다.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다. 자막 —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아합이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한다 — 내가 부상하였으니 병거를 돌려 진에서 나가게 하라. 그날 종일 그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 있다가 저물 때에 죽는다. 피가 병거 바닥에 흐른다. 해 질 무렵 진중에 외침이 돈다 —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가라. 아합이 사마리아에 장사된다. 못가에서 그 병거를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다. 자막 —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화면이 가라앉는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가 적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대신해 왕이 되어 그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긴다. 페이드아웃. 한 권이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사백의 합창과 한 입 — 무심코 당긴 한 화살이 한 권을 닫다"
- 초벌 부제: "길르앗 라못을 두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하고 사백 선지자가 한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승리 하리이다' 하며 시드기야가 철 뿔로 '진멸하리이다'(22:11) 외치나 — 불러 온 미가야가 천상 회의의 '거짓말 하는 영'(22:22)을 전하고 옥에 갇히며, 변장한 아합이 '무심코 당긴 활'(22:34)에 갑옷 솔기를 맞아 저물 때에 죽고 사마리아 못가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대결이 한 화살에 갈리며 권의 spine이 성취되어 열왕기상을 닫는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davar·navi·tov·ra·ruach·sheqer·peh·qarnayim_barzel·tzon·alah·lavash·tom·kelev·dam 등 14+ 기록)
-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예언→성취 수미 + davar 비대칭 + 사백 대 한 사람 대비 + ANE 길르앗 라못·철 뿔·변장·천상 회의·못가)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권 종결·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2:6의 사백 선지자를 '거짓 종교인의 모범'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사백 대 한 사람의 수의 대비와 천상 회의의 거짓말하는 영(22절)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사백의 속내가 적히지 않은 점도 사실로 보존.
- 22:8의 '미워한다'를 '권력의 진리 거부' 도식으로 끌고 가지 않고, tov·ra의 대비와 '듣기 전에 미워함'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기록.
- 22:22의 '거짓말하는 영'을 신정론의 결론으로 닫지 않고, 천상 회의 장면과 '그리하라'(22절)는 어구의 형태로만 둬. 그 영이 어디서 와 어디로 갔는지의 속은 비워 둬.
- 22:34의 '무심코'를 '운명론'이나 '우연'의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tom 어휘와 21:19 선언, 38절 성취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22:51-53의 아하시야의 악을 '심판 신학'으로 닫지 않고, 대물림된 바알 섬김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둬. 다음 권에서 다른 결로 비춰질 것으로 이월.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열왕기상 22장은 아람과의 삼 년 평화 끝에 아합이 길르앗 라못 탈환을 위해 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하고(22:1-4),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와 말씀을 물으라" 청하매 사백 선지자가 한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승리하리이다" 하고 시드기야가 철 뿔로 "아람을 진멸하리이다"(22:11) 시연하나 — 미움받던 미가야가 불려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흩어졌다"(22:17) 하고 천상 회의에서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22:22) 한 일을 전하니 시드기야가 그 뿔을 치고 미가야가 옥에 갇히며 — 변장하고 싸움에 나간 아합이 "무심코 당긴 활"(22:34)에 갑옷 솔기를 맞아 종일 병거에 기댄 채 저물 때에 죽고, 못가에서 병거를 씻으니 개들이 그 피를 핏다(22:38) 21:19의 선언이 이루어지며,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통치 요약으로 권이 닫히는, 거짓과 참 예언의 대결이 한 화살에 갈려 권의 spine을 성취하는 장이다.

한 문단: 전쟁 없는 삼 년의 고요. 아합이 라못을 치자 하고, 여호사밧이 동맹하되 먼저 말씀을 물으라 청한다. 사백 선지자가 한목소리로 외친다 — 올라가소서 승리하리이다. 시드기야가 철 뿔을 들고 시연한다 — 이것으로 진멸하리이다. 여호사밧이 다시 묻자 아합이 답한다 — 한 사람 미가야가 있으나 흉한 것만 말하므로 내가 미워한다. 불려 온 미가야가 처음엔 같은 말로 비꼬다가, 다그침을 받고 흩어진 양을 말하고, 천상 회의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사백의 입에 들어간 일을 전한다. 시드기야가 그 뿔을 치고, 미가야는 곤고의 떡과 함께 옥에 갇히며 검증을 왕의 귀환에 건다. 전장으로 옮겨 간다. 아합은 변장하고, 왕복은 여호사밧만 입는다. 아람 병거가 여호사밧을 쫓다 돌아서고,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변장한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힌다. 그가 종일 병거에 기댄 채 저물 때에 죽고, 못가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핏는다 —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여호사밧의 통치가 적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를 이어 바알을 섬긴다. 한 권이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회담→타작마당의 합창→라못의 전장→못가와 권의 마무리로 옮겨 다니는 무대. 두 보좌·철 뿔·변장한 옷·무심코 당긴 한 화살·병거의 피와 개·역대지략의 책 — 합창의 큰소리에서 한 입을 거쳐 한 화살로 기우는 소재.
2 첫 느낌·분위기	이미 기울어 있던 공기. 화려한 합창과 초라한 옥의 겹침. 합창·비품·대들의 세 어조. 옥에 끌려가며 검증을 귀환에 건 한 입의 답담함(28절).
3 시작과 끝	'삼 년 평화'(1절)로 열려 '대물림된 바알 섬김'(53절)으로 닫힘. 사람의 평화와 사람의 악 사이에 미움받은 한 입(8절)과 흩어진 양(17절)이 새겨짐.
4 등장인물·사상	라못을 치자 한 아합. 먼저 말씀을 물으라 한 여호사밧. 미움받은 한 입 미가야. 철 뿔의 시드기야. 한목소리의 사백. 천상 회의에서 한 영을 보내신 여호와. 진단의 중심은 '많은 입'과 '한 입'(davar 14절).
5 장면 컷	평화 끝의 동맹(1~4)/합창과 철 뿔(5~12)/한 입과 천상 회의(13~28)/변장과 한 화살(29~36)/못가의 피와 개(37~40)/두 통치의 요약(41~53) 6컷. 컷 3은 합창과 검증 사이의 경첩.
6 의문·발견·정보	말씀(davar)의 비대칭(합창의 거짓·한 입의 참). 예언과 성취의 다른 결(미가야의 말 vs 한 화살). 천상 회의의 비워진 속. '무심코'와 21:19 선언 사이의 비움.

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전쟁 없는 고요 → 사백의 합창과 철 뿔 → 미움받는 한 입과 천상 회의 → 곤고의 옥 → 변장한 왕과 무심코 당긴 화살 → 못가의 피와 개 → 두 통치의 요약과 권의 단합.
8 초별 제목 ·부제	"사백의 합창과 한 입 — 무심코 당긴 한 화살이 한 권을 단다"
9 기도·내면	듣기 편한 합창에 묻혀 흥한 말 한마디를 미워한 지점은 없는지, 변장으로 한 말씀을 피해 보려 한 곳은 없는지 들고 머문다.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권의 spine이 한 화살로 성취된 단합:** 열왕기상은 성전의 영광에서 분열과 우상으로 길게 기우는 권이다. 18장 갈멜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18:39)가 그 spine을 봉우리에서 한 번 터뜨렸다면, 22장은 같은 spine을 한 화살로 성취해 권을 단는다.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한 까닭은 단순하다 — "그는 내게 흥한 것만 예언하므로"(22:8). 사백은 한목소리로 길한 것을 말하고, 한 사람은 흥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끝에 이루어지는 것은 한 입의 말이다. 변장한 왕이 무심코 당긴 한 화살에 죽고(22:34-37), 못가에서 개가 그 피를 핥아 21:19의 옛 선언이 이루어진다(22:38). 본문은 다수의 큰소리가 어떻게 한 화살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미움받은 한 입의 참됨이 어떻게 한 동작으로 검증되는지를 보여 준다. 권은 거짓의 합창을 통과하고도 끝내 자기 말씀이 한 입을 통해 이루어짐을 새기고 닫힌다.

2. **결 2 — 합창의 거짓과 한 입의 참을 가르친 천상 회의:** 본문의 갈림길은 '누구의 말이 참인가'다. 사백 선지자가 한목소리로 "올라가소서"(22:6·12) 하고 시드기야가 철 뿔로 "진멸하리이다"(22:11) 시연하나, 미가야는 천상 회의를 본 대로 전한다 —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22:22) 했다고. 본문은 사백을 단순한 거짓말쟁이로 그리지 않는다 — 그 입의 뒤를 한 칸 비춘다. 그러면서도 그 영이 어디서 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이 거짓을 지으셨는지 이미 거짓을 택한 자들을 그 택함에 내어 두셨는지는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davar(말씀)의 비대칭이 한 장 내내 한쪽으로 기운다 — 많은 입의 길한 합창은 한 화살로 무너지고, 미움받은 한 입의 흥한 말은 끝내 이루어진다.

3. **결 3 — 변장으로도 못 피한 한 말씀, 그러나 안 끊긴 악:** 22장은 변장과 화살을 따로 둔다. 변장(22:30)은 사람의 책략이고, 무심코 당긴 화살(22:34)은 노리지 않은 한 동작이다. 본문은 그 '무심코(tom)'와 21:19의 선언 사이를 직접 잇대어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한 곳에 한 말씀이 닿았다고 적는다 — 못가의 피와 개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22:38) 단는다. 그런데 한 화살이 한 권을 단고도, 그 끝은 깨끗하지 않다 —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 같이 바알을 섬"(22:53)긴다. 갈멜의 불도, 무심코 당긴 화살도 그 대물림을 끊지 못한다. 본문은 성취된 한 말씀과 끊기지 않은 한 악을 같은 무게로 겹치지 않고 따로 적되, 둘 다 한 권을 단고 다음 권으로 미는 그 손의 일임을 들고 있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 왕상 21:19 —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가 아합의 피도 핥으리라 — 22:38 성취의 직접 선언.
- 왕상 21:29 — 아합이 겸비하므로 재앙을 아들 대로 미루심 — 22장 죽음과 아하시야로 이어지는 배경.
- 왕상 18:39 —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시로다' — 그 봉우리와 22장 거짓 예언 대결이 마주 섬.
- 왕상 16:30-33 — 아합이 이전 모든 왕보다 악을 행함 — 그의 최후의 긴 배경.
- 민 27:17 — 목자 없는 양 같지 않게 하소서 — 22:17 흩어진 양의 옛 어구.
- 신 18:20-22 — 망령되이 말하는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분별 — 사백 대 한 사람의 율법 배경.
- 욥 1:6-12 — 하나님 앞에 모인 영들과 한 영의 나아감 — 22:19-22 천상 회의가 닿는 옛 장면.

- 슥 13:2-4 — 거짓 선지자와 부정한 영을 떠나게 하리라 — 거짓 예언 모티프의 후대 메아리.
- 왕하 1:1-18 — 아하시야의 악과 엘리야 — 22:51-53에서 열린 다음 권의 직후 국면.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22:1의 '삼 년 평화'에서 시작한다 — 곧 깨질 고요, 동맹과 출정 앞의 한 멈춤에 선다.
- **멈춤 1:** 22:8에서 멈춘다 — '흉한 것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노라!' 듣기 전에 이미 미워한 그 달힌 귀를 진다.
- **멈춤 2:** 22:34에서 멈춘다 — '무심코 활을 당겨!' 변장으로도 못 피한 갑옷 솔기의 한 화살을 진다.
- **끝:** 22:53에서 멈춘다 —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 같이 바알을 섬겨!' 한 죽음으로도 안 끊긴 악이 어디로 가는지, 다음 권의 문 앞에서 본다.

F · 자족성 점검

- [x] 평화 끝의 동맹(1~4)·합창과 철 뿔(5~12)·한 입과 천상 회의(13~28)·변장과 화살(29~36)·못가의 피(37~40)·두 통치(41~53)의 여섯 컷 완결
- [x] 예언→성취 수미(17:28 ↔ 34:38)와 말씀(davar)의 비대칭·사백 대 한 사람의 대비 구조
- [x] 변장과 무심코 당긴 화살(30·34)·21:19 선언과 38절 성취의 다리
- [x] '거짓말하는 영'(22:22)과 권 spine 성취·destination(18:39과 마주 섬)의 정박
- [x] 21장 나뭇·18장 갈멜·왕하 1장 아하시야로 열린 이월(권 종결·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1KI flow 전체 회수)

열왕기상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신다'이며, destination은 갈멜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18:39)와 호렐의 세미한 소리(19:12)다. 권의 흐름은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1~4장), 성전 건축과 봉헌(5~8장), 변질과 분열의 예고(9~11장),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12~16장), 엘리야와 갈멜의 불(17~19장), 아합의 전쟁과 끝(20~22장)으로 움직인다 — 22장은 그 마지막 국면, 권을 닫는 지점이다. 권 종결 장이므로 척추 전체를 회수해 보면 이렇다. 1~4장에서 일천 번제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서고, 5~8장에서 성전이 세워져 봉헌 기도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8장)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9~11장에서 그 영광이 이방 아내와 우상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12~16장에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나라가 갈라지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12:28)가 백성의 마음을 홀려 놓고, 16장에서 아합이 바알 제단을 세워 우상을 절정으로 끌어올린다(16:30-33). 17~19장에서 그 긴 내리막의 한복판에 엘리야가 와 갈멜의 불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니로다"(18:39)를 터뜨리고, 호렐의 세미한 소리로 다시 세워진다. 그리고 20~22장에서 아합의 전쟁과 끝이 온다. 22장은 그 척추의 단합이다 — 18장이 갈멜에서 '누가 참하나님인가'에 답했다면, 22장은 '누구의 입이 참말인가'를 사백 대 한 사람의 대결로 묻고 한 화살로 답한다(22:22·34·38). 권의 intent('왕들의 배반 속에서도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심')가, 거짓말하는 영이 사백의 입에 들어가도 미움받은 한 입의 참말이 끝내 이루어지는 결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비친다. 권의 heart, 8장 봉헌 기도의 너그러움과 19장의 지친 예언자를 다시 세우시는 자상함이, 22장에서는 큰소리의 합창에 묻히지 않고 한 입을 통해 끝내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의 결로 온다. 21:29에서 아합의 겸비로 재앙을 아들 대로 미루신 그 너그러움의 자국이, 22장의 죽음과 53절의 아하시야로 이어진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22장의 단합은 끝이 아니라 다리다 — 51~53절의 아하시야가 열왕기하의 문을 열고,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거듭 드러낸 한 권이 아직 흩어진 양(22:17)과 대물림된 악(22:53)을 다음 권의 손에 쥐어 준다.

사백의 한목소리 합창(22:6)에서 미움받은 한 입의 참말(22:14-17)로, 철 뿔의 큰 시연(22:11)에서 무심코 당긴 한 화살(22:34)로, 변장으로 감춘 왕(22:30)에서 갑옷 솔기에 닿은 한 말씀(22:38)으로 / 한 권의 단힘에서 다음 권의 문으로(22:53) — 거짓의 큰소리를 통과해도 끝내 참말이 이루어지는 운동.

한 화살표로 좁히면, 22장은 권 전체가 길게 물어 온 '누구의 입이 참하나님의 말인가'를 한 화살로 검증해 닫는 운동이다. 평화 끝의 동맹(1~4절)이 합창과 철 뿔로(5~12절), 미움받는 한 입과 천상 회의로(13~28절), 변장한 전장과 무심코 당긴 화살로(29~36절), 못가의 피와 두 통치의 요약으로(37~53절) 빠져나간다. 권 전체의 벡터로 보면 18장이 갈멜의 봉우리(18:39)로 spine의 도착점을 터뜨렸고, 22장은 그 spine을 한 화살로 성취해 권을 닫는 도착의 마지막 매듭이다 — 그 호 전체가 '성전의 영광에서 변질로, 변질에서 분열로, 분열에서 우상으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그런데 22장의 벡터는 닫히는 동시에 다음 권을 향해 한 손잡이를 내민다 — 51~53절의 아하시야의 악이 열왕기하 1장으로 이어지는 다리다. 한 화살이 한 권을 닫고, 한 아들의 악이 다음 권을 연다. 단힘과 열림이 한 장의 두 끝에서 맞물린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한 전쟁의 패배와 한 왕의 죽음이다 — 누가 동맹했고, 어떤 합창이 울렸고, 어디서 한 화살이 날아왔고, 못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큰소리의 합창에 묻히지 않고 한 입을 통해 끝내 참말을 들려주시는 손이다. 사백이 한목소리로 길한 것을 말해도(22:6), 미움받은 한 입이 흠어진 양을 보고(22:17) 천상 회의를 전한다(22:22). 끝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한 입의 말이다. 둘째, 사람의 책략을 통과해 미리 선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하심이다. 변장(22:30)은 표적을 피하려는 사람의 꾀이고, 무심코 당긴 화살(22:34)은 노리지 않은 한 동작이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난 곳에 21:19의 옛 선언이 이루어진다 — 못가에서 개가 피를 핥는다(22:38). 셋째, 끊기지 않은 악과 미완의 호다. 본문은 한 왕의 죽음으로 권을 닫지 않는다 — 53절은 그 아들이 같은 길을 간다고 적는다. 갈멜의 불도 무심코 당긴 화살도 그 대물림을 끊지 못한다. 본문은 성취된 말씀과 끊기지 않은 악을 나란히 둘 뿐, 흠어진 양(22:17)이 어디로 갔는지, 그 미완이 어디서 풀리는지는 22장 안에서 풀지 않고 다음 권으로 이월한다 — 한 권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거듭 드러내고도, 백성의 마음과 왕들의 길은 아직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그 정직을 마지막에 들고 닫힌다.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듣기 편한 합창에 묻혀, 흥한 한마디를 듣기도 전에 미워한 지점은 없는가 — 사백의 길한 말은 반기고 한 입의 다른 말은 미워한 결은. 그리고 나는 변장으로 한 말씀을 피해 보려 한 곳은 없는가 —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한 그 끝에도 끝내 닿는 그 말씀을, 나는 정말 듣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에게 더 분별 있는 신앙인이 되라 명하지 않는다. 다만 한목소리로 길한 것을 합창한 사백을 보여 주고,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자기에겐 임한 말만 한 한 입을 보여 주고, 변장으로 신분을 감추고도 무심코 당긴 한 화살에 맞은 한 왕을 보여 주고, 그 화살이 끌고 온 옛 선언의 성취(22:38)를 새겨 둔다. 합창과 한 입과 한 화살이 한 권의 마지막 장에 나란히 놓인 이 단힘의 정직 — 그 정직이 오히려 독자가 들어설 문이 된다. 내가 듣기 편한 합창에 묻혀 다른 말을 미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는 일, 변장으로 한 말씀을 피해 보려는 대목이 어디인지 묻는 일,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한 끝에도 끝내 닿는 그 말씀 앞에 자기 귀를 비취 보는 일. 한 권이 길게 물어 온 '누가 참하나님인가, 누구의 입이 참말인가'

가가 한 화살로 답을 얻고 닫히는데 — 그 닫힌 문 너머로 아직 흩어진 양과 대물림된 악이 다음 권을 향해 서 있다. 그 미완에 자기 마음을 비춰 보는 것, 그 거리가 독자를 부르는 불씨다.

다음 권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열왕기상이 한 화살로 닫히는 그 끝 너머 —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왕하 1:3) 가로막으니, 22장 끝의 대물림된 악(22:53)이 곧바로 다음 권(열왕기하)의 첫 장에서 다시 한 예언자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

이 권에서 가져갈 한 단어: *davar* — 말씀.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전쟁 없는 삼 년의 고요. 자막 —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삼 년을 지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옵니다. 아합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데 우리가 어찌 잠잠히 두는가. 여호사밧에게 청합니다 — 나와 함께 라못으로 올라가시겠나이까. 여호사밧이 답합니다 —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다만 먼저 여호와와 말씀을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사백 명을 모읍니다. 그들이 한목소리로 외칩니다 —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다시 묻습니다 — 이 외에 물을 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없나이까. 아합이 답합니다 — 아직 한 사람 미가야가 있으나, 그는 내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노라. 두 왕이 왕복을 입고 성문 어귀 타작마당 보좌에 앉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합니다. 시드기야가 철 뿔을 만들어 외칩니다 — 여호와와 말씀이 이것으로 아람을 찢어 진멸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자가 미가야에게 청합니다 — 선지자들의 말이 다 한입으로 왕에게 길하니 당신도 그같이 길하게 하라. 미가야가 답합니다 —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가 왕 앞에 와 처음엔 똑같이 말합니다 — 올라가서 승리하소서. 아합이 다그칩니다 — 여호와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 미가야가 말합니다 —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그가 이어 말합니다 —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에 모셔 섰는데, 누가 아합을 피어 라못에서 죽게 하겠느냐 물으시매, 한 영이 나아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리하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따집니다 — 여호와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아합이 명합니다 — 그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가 말합니다 —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화면이 라못의 전장으로 옮겨 갑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리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가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갑니다. 아람 왕이 병거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만 치라 명했습니다. 지휘관들이 왕복 입은 여호사밧을 왕인 줄 알고 쫓다가, 그가 부르짖으매 그가 아님을 알고 돌아섭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깁니다. 자막 —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맞힌지라. 아합이 말합니다 — 내가 부상하였으니 병거를 돌려 나를 진에서 내보내라. 그날 종일 그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아람을 향해 선 채, 저물 때에 죽습니다. 피가 병거 바닥에 흐릅니다. 해 질 무렵 진중에 외침이 돕니다 —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아합이 사마리아에 장사됩니다. 못가에서 그 병거를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습니다. 자막 —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화면이 담담히 가라앉

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통치가 적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를 이어 그 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깁니다. 페이드아웃. 한 권이 닫힙니다.

성령일 선교사: 전쟁 없는 고요에서 열려, 사백의 합창과 철 뿔의 시연을 지나, 미움받는 한 입의 다른 말과 천상 회의와 곤고의 욕을 거쳐 — 변장한 왕과 무심코 당긴 한 화살, 종일 병거에 기댄 채 저문 죽음, 못가의 피와 개, 그리고 두 통치의 담담한 요약으로 한 권이 닫히는 흐름입니다.

[8단계] 초별 제목·부제

P01 한나래: "사백의 합창과 한 입 — 무심코 당긴 한 화살이 한 권을 닫다"

P02 이진우: "누구의 입이 참말인가 — 한목소리와 미움받은 한 말"

P04 최현국: "철 뿔에서 무심한 시위까지 — 큰소리가 한 화살 앞에 무너지다"

P05 김미영: "변장으로도 못 피한 화살 — 갑옷 솔기에 닿은 한 말씀"

P07 오지혜: "목자 없는 양 — 큰 무대 한복판에 들어온 흩어진 양 떼"

P11 나경아: "*davar · sheqer* — 말씀과 거짓말하는 영이 한 화살로 갈리다"

부제 제안: "길르앗 라못을 두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하고 사백 선지자가 한목소리로 '올라가소서' 하며 시드기야가 철 뿔로 '진멸하리이다'(22:11) 외치나 — 미가야가 천상 회의의 '거짓말하는 영'(22:22)을 전하고 옥에 갇히며, 변장한 아합이 '무심코 당긴 화살'(22:34)에 맞아 저물 때에 죽고 못가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으니 — 거짓과 참 예언이 한 화살에 갈리며 권을 닫는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사백의 한목소리 곁으로, 그리고 미움받으면서도 다른 말을 한 그 한 입 곁으로, 또 변장으로 신분을 감추고도 무심한 한 화살에 맞은 그 왕 곁으로 들어가,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요.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한목소리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던 매끄러운 합창을 보았습니다 — 그 큰소리 한복판에 흩어진 양 떼가 비치는 것도요. 그리고 미움받을 줄 알면서도 자기에게 임한 말만 하겠다던 한 입과, 변장으로 표적을 피하고도 노리지 않은 한 화살에 맞은 한 왕을 나란히 보았습니다. 제가 듣기 편한 합창에 묻혀 흥한 말 한마디를 미워한 지점은 없는지, 신분을 감추는 변장으로 한 말씀을 피해 보려 한 곳은 없는지를 듣고 머물겠습니다. 무심한 한 화살에도 끝내 닿는 그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 그 순간 떠오른 것을 각자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일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본문이 품은 긴장은 무엇인지요? 한 권이 여기서 닫히며 다음 권으로 무엇을 미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22장은 사백의 합창에서 한 입의 검증으로, 큰소리의 시연에서 무심코 당긴 한 화살로 움직여요. 1~4절이 평화 끝의 동맹, 5~12절이 합창과 철 뿔, 13~28절이 한 입과 천상 회의, 29~36절이 변장과 화살, 37~40절이 못가의 피, 41~53절이 두 통치의 요약이에요. 권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1~4장이 솔로몬의 즉위와 지혜, 5~8장이 성전 건축과 봉헌, 9~11장이 변질과 분열의 예고, 12~16장이 분열과 금송아지와 남북

왕들, 17~19장이 엘리야와 갈멜의 불, 20~22장이 아합의 전쟁과 끝이에요. 권의 spine은 '성전의 영광이 분열과 우상으로 기우는 가운데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이고요 — 18장이 갈멜의 봉우리(18:39)로 그 답을 한 번 터뜨렸다면, **22장은 그 spine을 한 화살로 성취해 권을 닫아요.** 사백의 거짓 예언과 미가야의 참 예언이 갈리고, 끝에 이루어지는 건 한 입의 말이예요. 권은 여기서 자기 척추가 거짓의 큰소리를 통과해도 끝내 참말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고 닫혀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2:14의 *davar*(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와 22:22의 *ruach sheqer*(거짓말하는 영)가 한 장의 두 끝에서 호응해요. 많은 입의 거짓이 한 입의 참말과 갈려요. 그리고 그 사이를 꿰는 게 *tov-ra*(길한 것·좋은 것 8:23절)예요 — 합창은 다 길한 것이고, 미가야의 말은 좋은 것이예요.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로 두 입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또 하나, *tom*(무심코 34절)과 21:19의 옛 선언이 한 화살에서 만나요 — 사람의 우연 같은 동작이 미리 선언된 말씀의 성취 통로가 돼요. *kelev*(개)와 *dam*(피)이 38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로 닫혀요. 형태 관찰로만 두고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로 보면, 표면은 한 전쟁의 패배와 한 왕의 죽음이에요 — 누가 동맹했고, 어떤 합창이 울렸고, 어디서 한 화살이 날아왔는지. 그런데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큰소리의 합창에 묻히지 않고 한 입을 통해 끝내 참말을 들려주시는 손 같아요. 본문은 사백을 길게 비난하지 않아요 — 다만 천상 회의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들어간 것(22절)과, 미움받은 한 입이 흠어진 양을 본 것(17절)을 나란히 뒹요. 권 전체로 보면 12장 이래 백성의 마음이 우상으로 길게 흠어져 왔는데, 18장 갈멜에서 한 외침으로 잠시 모였다가, 22장에서 다시 '목자 없는 양 같이 흠어진'(17절) 그림으로 비취요. 그런데도 한 입의 참말은 끝내 이루어져요. 사람이 큰소리로 다른 말을 합창해도, 끝내 자기 말씀을 한 입을 통해 이루시는 그 손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여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사백은 한목소리로 길한 것을 말하는데(6절), 본문은 그 다수를 곧바로 단죄하기보다 천상 회의로 그 입의 뒤를 비취요(22절). 그리고 더 큰 긴장은, 변장으로 표적을 피한 왕을 노리지 않은 한 화살이 맞혔다는 거예요 — 아합은 신분을 감췄는데(30절), 무심코 당긴 활이 하필 갑옷 솔기를 뚫어요(34절). 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한 곳에 한 말씀이 닿는 긴장이에요. 또 하나, 권이 여기서 닫혀도 다 풀리지 않은 게 남아요 — 미가야가 옥에 갇힌 채 풀려났는지(28절), 흠어진 양 떼가 어디로 갔는지, 아하시야의 악이 어디로 가는지(53절)는 18장처럼 안에서 풀리지 않아요. 한 권의 마지막 화살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다음 권을 읽어야 알게 돼요.

P04 최현국: 운동을 한 화면으로 보면, 큰소리의 타작마당에서 검은 못가로 옮겨 가는 운동이에요. 사백의 합창과 철 뿔의 시연(5~12절)이 미움받는 한 입과 천상 회의로(13~28절), 변장한 전장과 무심코 당긴 화살로(29~36절), 못가의 피와 개로(37~38절) 빠져나가요. 그리고 22장이 끝나며 한 권이 닫혀요 — 39~53절의 두 통치 요약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닫힌 그 문이 곧바로 다음 권으로 한 손잡이를 내밀어요 — 51~53절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악을 적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1장으로 이어지는 다리예요.** 18장이 권의 봉우리였다면, 22장은 권의 닫힘이면서 동시에 다음 권의 첫 손잡이에요. 한 화살이 한 권을 닫고, 한 아들의 악이 다음 권을 열어요.

P05 김미영: 한 권이 닫히며 무엇을 미는지 물으시니 — 저는 53절이 다음 권을 미는 손 같아요.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 같이 바알을 섬겼다'는 그 한 문장이요. 아합은 죽었는데, 그 악은 죽지 않아요. 갈멜의 불(18장)도, 무심코 당긴 한 화살(22장)도, 그 대물림을 끊지는 못해요. 저는 한 사람의 끝이 한 권의 끝이 되지 못하는 그 결이 무거워요 — 죽음으로도 안 끊긴 길이 아들에게로 이어지니까요. 한 권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거듭 드러내고도, 백성의 마음과 왕들의 길은 아직 흠어진 양 같다는 그 미완을, 22장이 다음 권의 손에 쥐어 줘요. 그 손에 무엇이 들릴지 — 질문인 채로 쥐고 다음 권으로 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사백의 합창에서 미움받은 한 입으로, 철 뿔의 큰소리에서 무심코 당긴 한 화살로, 변장으로 감춘 왕에서 갑옷 솔기에 닿은 한 말쑤으로 — 그러나 그 마지막 화살이 권을 달고도 아하시야의 악으로 다음 권을 여는 그 운동을 손에 쥐고, 이제 열왕기상을 덮고 열왕기하로 넘어갑니다. 한 권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거듭 드러냈으나, 흩어진 양과 대물림된 악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다음 권의 문 앞에 섭니다. 다음 권은 그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엘리야에게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Q1. 22:6-8 — 사백이 한목소리로 길한 것을 말한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사백 선지자가 다 같은 말로 "올라가소서 승리하리이다"(6절) 하고, 미가야는 혼자 "흉한 것"(8절)을 말해 미움받는다. 본문은 사백의 속내를 적지 않는다 — 거짓을 알고 말했는지, 스스로 속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이 합창을 '다수의 종교적 위선'으로 닫지 않고, 사백 대 한 사람의 수의 대비와 22절의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2. 22:14-17 — 미가야가 같은 말도 했다가 다른 말도 한 것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미가야는 "임한 말만 하리라"(14절) 맹세하고도 처음엔 사백과 같이 "올라가서 승리하소서"(15절) 한다. 아합이 다그치자 그제야 흩어진 양을 본다(17절). 본문은 그 비꼼의 속내를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두 결을 '신앙적 책략의 모범'으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말과 다른 말이 한 입에서 나온 본문 형태로만 보존.

Q3. 22:19-23 — 천상 회의의 '거짓말하는 영'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한 영이 자청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22절) 하고, 여호와께서 "그리하라" 하신다. 본문은 이 장면의 속을 풀어 설명하지 않는다 — 하나님이 거짓을 지으셨는지, 이미 거짓을 택한 자들을 그 택함에 내어 두셨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이 환상을 신정론의 결론으로 닫지 않고, sheqer·ruach 어휘와 '그리하라'(22절)는 형태로만 보존 — 그 영이 어디서 와 어디로 갔는지는 비워 둔다.

Q4. 22:30-34 — 변장으로도 못 피한 '무심코 당긴 화살'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아합은 변장하고(30절) 신분을 감췄으나, 한 사람이 노리지 않고 "무심코 활을 당겨"(34절) 갑옷 솔기를 맞힌다. 본문은 그 '무심코(tom)'와 21:19의 선언("개가 네 피를 핏으리라") 사이를 직접 잇대어 설명하지 않는다. 이 한 화살을 '운명론'이나 단순한 '우연'으로 닫지 않고, tom 어휘와 미리 선언된 말쑤의 성취(38절)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5. 22:28 — 미가야가 검증을 아합의 귀환에 건 것을 본문은 무엇으로 두는가?

- 미가야는 옥에 끌려가며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면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28절) 한다. 자기 말의 참됨을 왕의 죽음/귀환에 건다. 그러나 본문은 미가야가 그 뒤 풀려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적지 않는다. 이 담담함을 '참 선지자의 승리'로 닫지 않고, 검증을 귀환에 건 한마디와 그 뒤의 비춰지지 않은 행방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Q6. 22:51-53 — 한 왕의 죽음으로도 안 끊긴 악의 대물림을 본문은 어떻게 두는가?

• 아합이 죽었으나(37절), 그 아들 아하시야가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 같이 바알을 섬겨"(53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다. 갈멜의 불도 무심코 당긴 화살도 그 대물림을 끊지 못한다. 이 미완을 '심판의 완결'로 닫지 않고, 대물림된 바알 섬김이라는 본문 형태로만 보존 — 권이 닫히며 다음 권의 손에 쥐어진 미완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한 권을 닫고 다음 권(열왕기하)으로 이월한다.
